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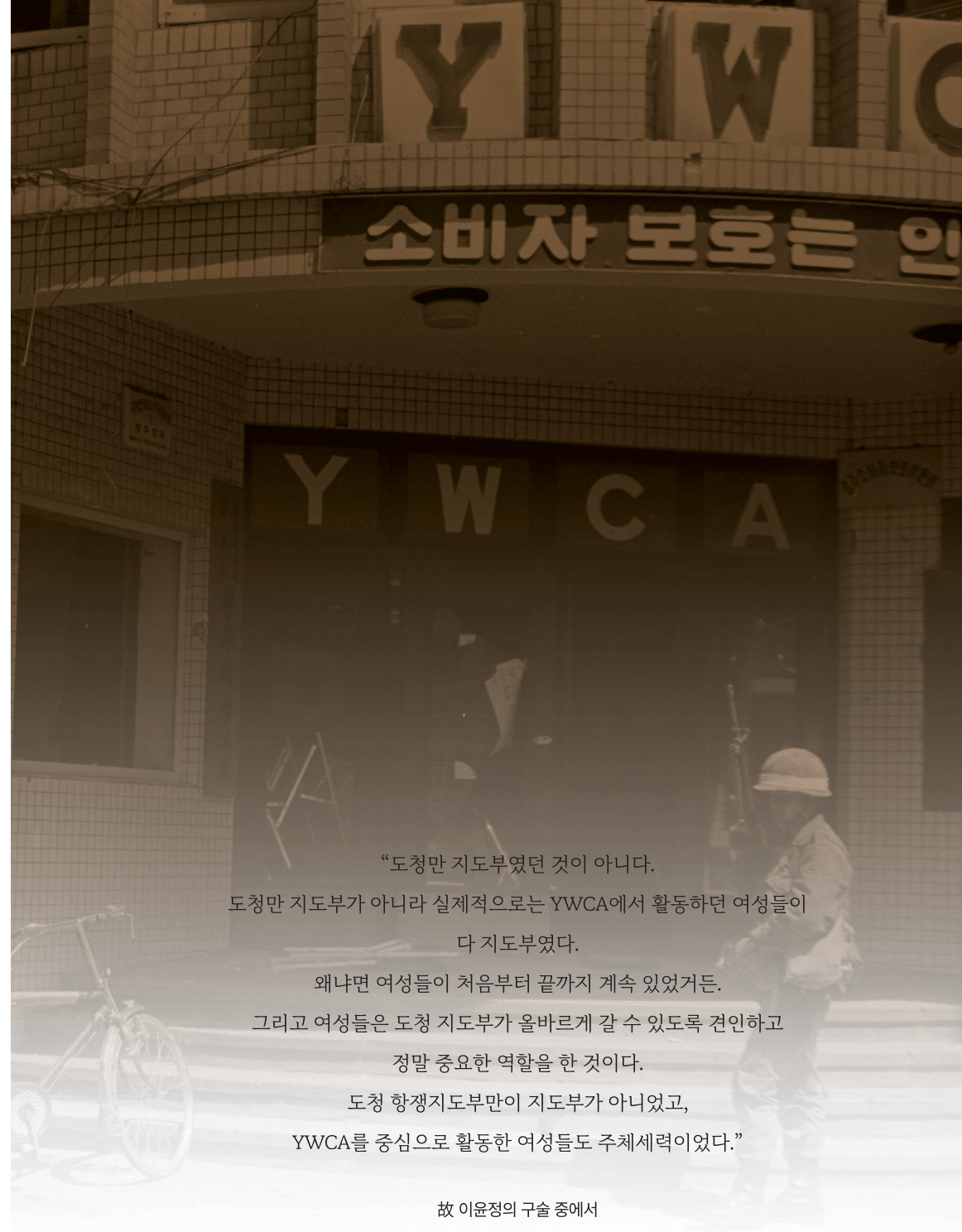
광주여성가족재단 펴냄



김지연 박현정 이춘희 임선화 정세레나 정경은 주문의 추문의 홍인화 공동집필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도청만 지도부였던 것이 아니다.
도청만 지도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YWCA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다 지도부였다.
왜냐면 여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거든.
그리고 여성들은 도청 지도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도청 항쟁지도부만이 지도부가 아니었고,
YWCA를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들도 주체세력이었다.”

故 이윤정의 구술 중에서

그곳엔 언제나 여성이 있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여성사의 기억, 기록, 계승은 역사의 완성이다

광주 5·18 민중항쟁이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80년 5·18 민중항쟁은 국가폭력에 저항한 주권자 시민의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다쳤습니다. 광주 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폭도에서 시민으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특별법 및 보상법 마련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지만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완료되지 못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은 광주의 정신이자 시대 정신이기도 한 민주, 인권, 평화입니다. 5·18정신의 가치가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전 국민의 보편적 가치로 공감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주권자 시민의 피와 땀으로 5·18 진상 조사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피해 생존자가 말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오랫동안 주변부로 밀려났고,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뿌리깊은 정조관념과 순결 이데올로기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거리에는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 학생과 시민, 사회적으로 소외된 기층 민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여성들, 영문도 모르고 사망하거나 다친 여성들, 피흘린 시민을 돌보며 거리로 나선 간호사와 여공들, 가마솥을 걸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위대를 지원한 여성들, 가두방송과 대자보를 통해 계엄군의 만행을 알린 여성들.... 여성들은 계엄군의 총부리 앞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19혁명, 1987년 민주화 대투쟁, 박근혜 및 윤석열 정부의 탄핵 집회 등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독재와 불평등 및 불의,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서 늘 거리로,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5·18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이자 성찰입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광주 5·18민중 항쟁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2025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과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왔던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복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시선에서 5·18을 다시 바라보고, 항쟁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으며, 역사의 주체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총 망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역사적 경험이 이후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여성만은 단지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는 버팀목이었고, 공동체의 돌봄을 담당했으며, 때로는 거리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싸운 항쟁의 주체였습니다. 여성의 손으로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수많은 시신을 수습하며, 참혹한 국가 폭력의 증언자가 되었던 그날의 기록은 단지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5·18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역사적 기록을 완성시키는 데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축입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쓰인 5월의 기록은 민주주의가 단지 투쟁의 결과만이 아니라 일상의 돌봄과 연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용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이 5·18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5월을, 그 속의 여성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45년의 세월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이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기획과 집필에 참여해 주신 정경운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님, 이춘희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홍인화 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장세레나 광주여성회 대표, 박현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팀장, 추명희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주문희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코칭 교수요원, 김지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임선화 광주교육대학교 강사님의 열정과 노고가 없었다면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꼼꼼한 감수를 해 주신 차영귀 서강대학교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민주주의연구실 5·18Lab 책임연구원, 전용호 한국작가회의 회원·소설가님께도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일어났다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사건은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일어났다. (...)
사건은 일어났고 따라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다.

Primo Levi,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중에서

2020년, ‘오월여성사’를 공부해오던 연구자들이 모여 『오월을 잇는 광주여성 단체 활동사』를 출간했었다. 당시 우리는 이 책의 서문을 프리모 레비(Primo Levi)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평생 동안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악몽 같은 고통과 싸우며 아우슈비츠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들어야 할 대상 세대가 어려워질수록, 자신들의 증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는 점점 두꺼워지는 벽을 마주하며, 그 벽 너머의 사람들에게 “사건은 일어났고 따라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프리모 레비의 우려는 곧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24년 겨울,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책 집필 방향을

정하고, 수개월 동안 엄청난 자료들과 씨름해 가며 거친 초고를 막 공유한 이후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마치 80년 5월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광주의 발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겨울을 보내는 동안 원고 수정을 위해 다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이 책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선고에 이르는 시간을 관통하며 쓰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책이 긴 겨울 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을 힘써 지켜온 분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

왜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인가

먼저, 이 책의 제목부터 설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광주민중항쟁 관련 여성들의 이야기가 최초로 정리된 것은 1991년에 발간된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이다. 5·18 항쟁 이후, 광주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1988년 ‘광주청문회’를 이

끌어내면서 신군부가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5·18 항쟁 1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여성회는 '5월 여성연구회'를 결성하여 광주 항쟁에 있어서 여성활동과 광주·전남 지역과 한국 여성운동을 아우르는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을 집필한 것이다. 엄혹한 시절, 집필진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부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 될 위험을 무릅쓴 채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집필에 참여했고, 29명의 유가족과 당사자들은 당당히 이름을 내걸고 증언에 참여했다.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을 30여 년 전의 책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선배 여성들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 책 제목 앞에 '2025'가 붙은 것은, 이 책이 앞으로도 계속해 다시 쓰이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시일이 흐르면서, 5·18 관련 증언들이 상당히 축적된 데다가 이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군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어 왔다. 특히 2019년 조직되어 조사 활동을 해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보고서가 2024년에 발간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집필 동기가 되었다.

항쟁 관련 여성 상황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어 있는 곳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발간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자료가 발굴, 확인되는 과정을 통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다시 쓰일 것이라 기대한다. 어쩌면 광주민중항쟁이 완전하게 진상규명이 되는 날, 이 책도 완결판을 갖게 될 것이다.

책의 구성과 흐름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는 1970년대 국내 및 광주지역 여성운동의 흐름을 담고 있다.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여성들은 녹두서점 및 광주YWCA를 거점으로 조직화 된 활동을 해나가는데, 이러한 주체적 활동은 단순히 우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유신시대로 불리는 1970년대 각 방면에서 사회변혁운동이 전개되는데, 특히 1970년대 중후반에서 1980년 초에 이르기까지 광주는 여성들의 진보적 활동이 매우 활발해진다. JOC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진보적 여성단체의 조직, 기독교청년운동과 여성 활동가들의 배출, 문화운동, 대학 여학생회의 출범 등 각 방면의 활동들은 지역 내 변혁운동의 연계망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맺어진 연대감이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조직적 대응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의 여성운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항쟁 과정의 여성 활동들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제2부에서는 민주 재야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예비검속이 실시되었던 5월 17일부터 전남도청이 함락된 5월 27일까지의 항쟁 과정을 다뤘다. 5월 17일~21일까지는 계엄군의 계속된 증파와 시민의 저항 상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내용들을 상세히 담기 위해 각 일자별로 역동적으로 서술하였다. 계엄군이 외곽지역으로 물러나 있던 22일~26일간의 항쟁은 주제별로 구성해 서술했다. 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총기 반납을 둘러싼 갈등, 여성들이 녹두서점에서 YWCA로 옮기면서 항쟁활동이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 도청 취사실의 활동, 다섯 차례 개최된 '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 등은 주제별로 한 번에 읽어 나가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 판단했다. 전남도청이 함락된 27일은, 그날의 특성상 각 장소별로 여성들이 맞이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3부에서는 여성들이 전개했던 항쟁 활동의 의미와 피해 상황을 종합 정리했다. 이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보고서에서조차 성별분리 통계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연행·구속자 및 행불자 관련 자료는 성별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어, 여성 행적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도출할 수 없었다. 이

책에서는 여성 행방불명자, 사망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목록화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목록이 완전하지도 않거니와 더 많은 피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로 목록 안에 정리할 수 없었음을 미리 밝힌다.

서술방식 및 주요 용어 표기 방법

지난 45년 동안,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발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반 독자들이 항쟁을 가장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은 2017년에 출간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이다.

1985년에 같은 이름으로 첫 출간된 책의 개정판으로, 수많은 시민의 증언들과 군 자료들을 토대로 매우 충실하게 항쟁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사실 이번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집필 또한 『넘어넘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우리가 시간대별로 항쟁의 흐름을 잡아나가거나 서술방식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책은 항쟁 기간 여성들의 활동과 피해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 이외에 시내 각처에서 발생한 항쟁에 대해서는 가급적 축약해 서술했다. 정부 및 군부대의 동향도 맥락상 필요한 부분만 본문에서 설명하고, 일자별 및 시간별 동향에 관해서는 부록에 표로 정리했다. 군부대의 호칭과 관련해서는, 5월 20일까지 공수부대(공수대원)로 표기했으며, 20사단이 증파된 21일부터는 계엄군과 공수부대(공수대원)를 맥락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했다.

항쟁 상황이나 사건들에 대한 서술 또한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구술증언을 참조했으며, 일자별로 여성의 구술증언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남성들의 목격담을 인용했다. 구술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책이나 일반 보고서 출처는 ‘○○○(성명)

구술’로, ‘5·18조사위’의 보고서 출처는 그 성격상 ‘○○○(성명) 증언’으로 구분했다. 조사위의 보고서에서 증언자 성명이 ‘김○○’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건일자-영문(예:18-A, 18-a)’으로 표기했다. 여기서 영문 대문자 표기는 ‘5·18조사위’가 진상규명한 사건이며, 소문자 표기는 다양한 사유(사망,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한 증언 불능)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되거나 조사가 중단된 사건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자료를 다루다 보니 각주의 수가 너무 많아 독자가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의 출처를 각주마다 모두 명기하였다.

집필 과정과 감사의 말씀

1991년 발간된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을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9명의 집필진이 모여 일자별로 원고를 나누어 정리하다 보니, 집필 기준을 갖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간의 톤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서로의 원고를 교차 검토하고, 내용 전체의 흐름과 사실을 재검토, 감수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어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이 책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여성들의 활동 및 상황도 많지만, 지면의 제약상 안타깝게도 털어낼 수밖에 없었음은 마음의 빗으로 남을 일이다. 미진함이나 안타까움 역시 모두 우리 집필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이 책이 그나마 독자들이 읽을 만한 정도의 꼴을 갖추게 된 것은, 차영귀 선생님과 전용호 선생님, 두 분의 도움이 정말 컸다. 차영귀 선생님은 1988년 광주 청문회에 참여한 5·18 관련 군 자료 전문가로서, 작성된 시기와 부대마다 모든 기록이 서로 달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만만치 않은 군 정보를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검토해주셨다. 군 자료의 이런 특성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실에 대한 오류들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차영귀 선생님 덕분이다. 그리고 전용호 선생님은 『넘어넘어』(1985, 2017) 집필자로 우리들에겐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였다. 미흡한 초고를, 여러 번에 걸쳐 전력을 다해 수정·보완해주셨다. 집필자들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제각기 뻘쳐나가던 가지들을 쳐내고 모양 좋게 잡아주셨을 뿐 아니라, 계속 같은 사안이 반복되는 22일~26일 동안의 항쟁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

이 책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의 도움이 컸다. 항쟁기 오월여성사를 아울러야 한다는 무게감은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집필진 각자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오월 여성 활동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숙제처럼 남아 있던 터였다. 업무를 못 내고 서성이던 그 마음의 고리를 재단이 나서서 풀어주었다. 특히 김경례 대표이사님과 진은주 실장님은 집필진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완결짓는 데 동료로서 역할을 끝까지 해주셨다. 감사 인사와 함께 재단의 건승을 기원한다. 더불어 구술증언자료와 관련해 5·18기념재단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미출간 보고서의 구술증언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연락하고, 자료공개동의서를 받아주셨다. 덕분에 인용 자료들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었다. 내 일처럼 기꺼이 감당해주신 5·18기념재단에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감사의 지면을 빌려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다. 45년 전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항쟁 기간 도청에서 시민군이 되어 하룻밤을 보내고 외신기자들의 통역을 도운 경험을 담은 『나의 이름은 임대운』을 출간한 데이비드 돌린저(David Dolinger)씨다. 우리의 집필 소식을 듣고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미국에서 점심값을 보내왔다. 그가 우리에게 선사한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 대통령이란 자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시간, 역사는 끝까지 온전히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 따뜻한 호의였다.

이 책의 집필자는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연구자와 활동가

이다. 지난 1년 동안 9명의 공동집필자는 여성 항쟁사의 복원과 재구성이라는 막중한 사명감만큼 무거운 중압감을 견디며, 서로를 견인하였다. 1980년 광주의 여성들이 2025년 집필자들을 이끌어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듯이, 2025년 발간된 이 책 또한 미래 여성들을 이끌어주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1980년 5월 여성 시민의 이름으로,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하셨던 선배 여성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원고를 집필해 나가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수시로 전화하거나 만나 사안을 확인하고 정리했다. 단순히 원고 정리를 넘어, 그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들의 시간도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45년 전, 역사를 만들어냈던 여성 영령들과 선배 여성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을 헌정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해방광주 45년 봄, 집필진 일동.

발간사	06
책머리에	08

제1부
여성운동과 민주화의 봄

1. 1970년대 국내 여성운동의 지형	24
2. 광주지역의 여성운동	25
3. ‘민주화의 봄’(1979.10.~1980.5.16.)	40

제2부
광주민중항쟁과 오월 여성

5월 17일 : 계엄 확대와 예비검속	51
1. 무자비한 예비검속	
2. 여학생이라고 예외 없고	
5월 18일 : 피의 일요일	59
1. 최초의 상황실, 녹두서점	
2. 전남대 앞 약속	
3. 광주YWCA의 아침	
4. 도청 앞으로!	
5. 야만의 시간이 열리다	
6. 별거벗긴 여성들	
7. 최초의 성폭행 사건	
8. 다치거나 사라진 여성들	
9. 대공파로 간 유소영	

5월 19일 : 11공수여단 증파와 확산되는 시민 공세 87

1. 11공수여단 증파와 폭압적 진압
2. 최초 총상 부상자와 사망자
3. 일어서는 고등학생들 : “교복의 칼라를 떼자!”
4. 녹두서점의 화염병과 송백회
5. 여고생을 대검으로 희롱하고
6. 폭증한 성폭력
7. 트럭에 실려 간 곳

5월 20일 : 폭발적 저항과 불타는 가두 107

1. “내 아들이다”
2.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
3. 교체된 진압봉
4. 민주 기사들의 봉기
5. 불타는 파출소
6. 광주MBC 화재
7. 광주역 집단 발포
8. 어머니들의 부상과 아이들의 실종
9. 계엄군 주둔지역의 성폭력

5월 21일 : 피의 대가로 계엄군을 몰아내다 131

1. 잠들지 않는 광주 : 전옥주와 차명숙의 가두방송
2. 협상대표로 나선 전옥주
3. 여성들의 주먹밥
4. 도청 앞 집단 발포
5. 전남대 전투 : 임신부 최미애 총상 사망
6. 속출하는 부상자와 헌혈 활동
7. 차량시위대와 항쟁의 확산
8. 21일의 녹두서점
9. 투사회보를 만든 여성들
10. 총격 속에 사라진 여아

5월 22~26일 : 승리를 위한 해방공동체 161

1.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투쟁위원회로
2. 외곽봉쇄와 민간인 학살
3. 제2의 항쟁지도부, 여성들의 활동
4. 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 : 전면예 나선 여성들
5. 도청 취사반의 여성공동체
6. 전운의 그림자

5월 27일 : 최후의 항전 229

1. 광주재진입작전과 도청사수대 모집
2.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시민군 : 여성들의 선택
3. 비상, 그리고 박영순의 애절한 새벽방송
4. 전남도청, 시민군 최후의 항전
5. 전일빌딩과 YMCA의 항전
6. YWCA 항전 : 시민군의 밥을 위해 돌아온 여성들
7. 계림동에 배치된 도청사수대
8. 진압작전 완료, 계속되는 수색과 연행
9. 하늘의 별로 박히다
10. 끝나지 않은 여성들의 수난, 그리고 투쟁

제3부

광주민중항쟁 45년,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

1. 1980년 광주의 여성과 2024년 남태령의 키세스 시위대 268
2. 여성 항쟁 활동의 특성 270
 - 여성들의 조직화 된 힘
 - 전 계층을 망라한 여성들의 참여 : 화염병에서 헌혈까지
3. '총의 서사'에서 배제된 여성들 279
4. 여성들의 피해 상황(종합) 281
 - 연행과 가혹행위
 -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 부상·사망·행방불명
 - 고통과 트라우마
5. 항쟁 이후의 투쟁과 정신 계승 299

제1부
여성운동과 민주화의 봄



1. 1970년대 국내 여성운동의 지형
2. 광주지역의 여성운동
3. '민주화의 봄'(1979.10.~1980.5.16.)

1. 1970년대 국내 여성운동의 지형¹⁾

해방 직후 한국사회는 친일 청산과 더불어 다양한 방면에서 변혁에의 요구가 폭발했지만,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의 실패 등 연이은 비극적 상황으로 인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박정희 군사정권이라는 장기독재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산업화의 경제적 결실은 사실상 착취에 가까운 노동자의 저임금에 기반한 것이었고, 1970년대 권력 장기화를 위한 유신체제는 긴급조치, 위수령 발동 등 공포정치적 상황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었다. 이로 인해 1970년대는 ‘비민주적,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제 분야의 저항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실질적인 한국 여성운동의 맥아는 바로 이 시대적 맥락에서 짚히게 된다.

1960년대까지 한국 여성운동은 거의 부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을 계몽과 국가사업 동원의 대상으로 보던 이 시기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59년 결성)와 같은 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관변적 성격을 가진 여성단체들이 활동했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1970년대에 들어와 노동, 종교, 학원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작된다. 이중 가장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던 여성운동의 주체는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노동자 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이 운동은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민주노조운동 형태로 정착되었고,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산 당할 때까지 지속된다. 청계피복, 해태제과, 삼원섬유, 원풍모방, 동일방직, 남영나일론,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YH무역, 삼성제약 등이 모두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발생했던 사업장들이다. 당시 이들의 운동은 성차별에 저항하는 것이라기보다 생존권 투쟁에 가까웠다. 이들은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집단적인 노동자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종교계에서도 진보적 여성운동의 한 흐름이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유신체제의 엄혹한 현실에서 종교계의 외피를 쓰고자 하는 학생운동권이 종교계로 진입하게 되면서 종교계 일부가 진보성을 띠게 되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67년 창

립)는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과 여성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교육, 생존권 투쟁을 지원해 나갔으며,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기생관광 장려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특히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1970년대 동안 다양한 집단(여성단체 지도자, 노동조합 여성간부, 주부, 교회여성, 농촌여성 등)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년 2천여 명을 교육함으로써 여성운동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YWCA 또한 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가부장적인 가족법의 개정 운동을 시작해, 1972년에는 61개 여성단체가 연합해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를 결성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본격적인 개정운동을 전개한다. 학원가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이화여대 여성학 연구위원회)가 개최되고, 여성학 강좌가 개설된다. 이 시기에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경험한 여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을 통해 근로여성의 노동실태, 차별문제, 노동조합, 지위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성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1970년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여성운동이 사회문제의 차원 또는 인간화의 차원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긴 했으나 다방면의 여성운동 주체들은 현안에 따라 연대하고 지원하면서 인간으로서 권리를 찾아나가는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다.

2. 광주지역의 여성운동

1950~60년대 광주지역에서는 전국여성단체나 이익단체의 광주지부가 몇 개 설립되었지만 주로 여성 교양과 여가선용에 집중해 활동했다. 그나마 광주

YWCA가 여성의 문맹 퇴치, 민주시민의식 함양, 사회참여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광주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이다. 이 전환은 군사정권에 의한 수많은 양심수의 양산,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의 붕괴와 도시빈민의 발생,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모순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이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광주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학습 소모임을 기반으로 조직화되면서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기 시작했고, 학원가 역시 다수의 독서클럽 및 학습 소모임에 여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여성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학내시위를 주동하거나 노동야학 교사로 활동하는 한편, 양심수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개신교와 가톨릭 관련 종교단체들은 노동자, 학생, 빈민, 민주인사들의 보호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육과 강연, 워크숍을 통해 사회변혁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모든 주체들의 운동 양상은 독자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지지를 기반으로 한 연대 속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 광주지역 여성들의 활동은 송백회, YWCA, JOC, 녹두서점과 현대문화연구소, 들불야학, ‘극단 광대’, 학원가 등 다양한 공간 및 단체와 조직을 통해 전개되었다. 특히 1970년대를 통해 축적된 이들의 조직과 연대의 힘은, 광주민중항쟁 때 빛을 발하게 된다. 이들은 항쟁에 대거 참여해 YWCA와 전남도청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나갔으며, 거리에서도 다양한 투쟁을 해나갔다. 그만큼 희생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항쟁이 끝난 후, 체포되어 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수배로 인해 수년 동안 외지를 떠돌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는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각 단체 및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해나갔던 활동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송백회²

송백회는 1978년 12월에 결성된 광주지역 최초의 진보적 민주여성단체다. 기존의 여성단체와는 달리 사회운동을 하던 여성들과 해직되거나 구속된 민주인사의 가족이 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주부, 간호사, 교사, 사회단체 간사, 노동운동가, 문필가 등 구성이 다양했으며,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1978년 11월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열린 전국농민쌀생산자대회는 송백회의 결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 2박 3일 동안 800여 농민들의 식사를 준비했던 여성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들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이 늘 푸르고 기백 있으라’라는 뜻으로 단체 이름을 ‘송백회’라고 하고 ‘모여 하나가 되어야 힘이 생긴다’는 송백회 발기 취지문을 비밀리에 돌린다. 그리고 몇 번의 회의를 거친 후, 1978년 12월 중순 YWCA 2층 이애신 총무의 집무실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창립식을 하였다. 유신 치하였기에 현수막을 걸 수도, 창립선언문을 낼 수도 없었다.

이때 송백회 임원진은 초대 회장 나혜영, 총무 홍희윤, 서기 김은경, 간사 임영희³였다. 회장 나혜영의 남편은 유신반대운동을 했던 강신석 목사였고, 총무를 맡은 홍희윤의 남편은 소설가 황석영이었다. 서기를 맡은 김은경과 간사를 맡은 임영희는 기독교 청년단체 활동가였다. 송백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광주·전남지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윤경자·이영자·정희옥·김종희·이소라·선소녀(선점숙에서 개명)·정현애의 남편은 대학교 학생운동 출신의 박형선·윤강옥·정상용·문덕희·이강·이양현·김상윤이었고, 이경란의 남편은 ‘함성지’ 사건 구속자 박석무였으며 김숙자·김영애의 남편은 시인 문병란·김준태였다. 이귀남·김서운·정금자의 남편은 교사운동을 하는 윤영규·박행삼·윤광장이었다.

여기에 청년들이 결합하는데 석산고 교사로 재직했던 정유아, 동부교회 출신인 이윤정(이행자에서 개명), 간호사였던 김영심·박경희, 노동자였던 전소연(전삼순에서 개명),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김귀례·김현주·황수진(황복덕에서 개명)이 함께 했고, 교사 정황희·송효현·김여옥·박인숙·강성자·윤영숙과 박두리(유치

원 교사)도 동참했다. YWCA에서는 조아라·이애신 그리고 간디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노영숙이 가입하였다.

송백회는 양심수 석방 운동과 후원 활동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털양말을 짜서 보냈다. 때로는 구속자 가족들의 교도소 면회에 동행하면서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책을 보냈다. 특히 도자기 전시회를 하여 모은 수익금은 송백회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백제야학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도자기 판매 이후이다. 서울 출신인 홍희운은 서울지역의 작가와 화가들에게 그들이 만든 도자기를 기증받는 마당발 면모를 보였다.⁴ 이때 형성된 네트워크가 훗날 광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울로 도피했을 때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구속자와 가족들에게 물질적 도움 이상의 지지와 연대로 나타나 70년대 후반 반독재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송백회 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면서, 학습모임이 만들어져 교사모임과 노동자모임을 통해 정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1980년대 초, 송백회는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결집시키며 운동단체로 발전했다. 회원 수는 1년 만에 60여 명으로 늘었고, 전문직 여성들도 합류하여 역사와 사회문제에 대한 독서 모임을 통해 여성문제를 논의했다.⁵ 이 시기는 송백회 2기로 회장 홍희운, 총무 정현애, 서기 이윤정, 간사는 임영희가 맡았다. 홍희운은 YWCA 이사, 임영희는 YWCA 농촌부 위원을 맡아 노동자와 농민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정유아와 이윤정이 YWCA 간사가 되었다. 이들은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했을 때 여성들의 활동 거점이었던 YWCA 항쟁지도부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에서 송백회 회원들은 항쟁 기간, 시민 쫓기대회 준비 및 성명서 작성, 주먹밥과 검은 리본 제작, 헌혈, 시민군 치료 등 활동을 하게 된다. 항쟁 후 수배자 지원활동과 윤한봉의 미국 밀항을 추진하였으며, 1981년 8월 잠정 해산한다.

광주YWCA(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⁶

1922년에 설립된 광주YWCA(이하 YWCA)는, 1960~70년대 관변 조직 외에 여성운동이 부재했던 시기에 이 지역 여성들의 사회의식 향상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던 단체이다. 특히 1970년대 들어 활동 목표를 “여성의 능력을 사회정의 실현에”로 설정하면서부터 기존의 봉사에 기반한 여성단체 활동에서 탈피해 여성운동단체로서 성격을 획득해나간다.

1970년대 전반기에는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비자보호운동, YWCA 산하에 설치된 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여성 상담, 도시빈민 및 농촌지역의 탁아소·신협·야학 운영 등 주로 여성의 생활 개선과 관련된 운동을 전개했다. YWCA가 이 지역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성격을 명료히 보여준 것은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이다. 1975년, YWCA는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와 여성단체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어머니 대학’, ‘수요 강좌’, ‘화요 강좌’, ‘근로여성 교육’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의식을 강화해간다.

특히 1978년부터 YWCA는 시국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6·27민주교육지표’(이하 교육지표) 사건 등으로 해직된 교수들을 초빙해 12월 ‘YWCA동계대학’을 개설했으며, 1978년부터 광주민중항쟁 직전까지 6회로 진행된 ‘민중논단’은 엄혹한 유신체제 하에서 지역의 시민·청년·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다. 이런 대중 강연에는 매번 400~500명의 인원이 참여해 강당을 가득 채웠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회관 밖에서 스피커를 통해 강연을 듣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1980년부터 YWCA는 독일 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회문제부와 농촌문제부를 신설, 여성노동자와 농촌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중 여성노동자 교육은 JOC(가톨릭노동청년회)와 연대해 추진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 여성노동자들이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광주YWCA의 이러한 활동들을 고려하면,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 초의

광주YWCA는 여전히 생활운동 차원에 머물러 있던 중앙 조직(한국YWCA)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광주YWCA는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1974년 긴급조치 위반 구속자들을 위해 매주 진행된 ‘목요기도회’를 진행하고 시국 인사들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YWCA는 ‘양서조합’⁷⁾, ‘엠네스티’, ‘기독교인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등 민주인사들은 물론 여성을 포함한 시민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광주민중항쟁에서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이끈 ‘극단 광대’도 YWCA의 보호 아래 창단될 수 있었다. 항쟁 당시 YWCA가 전남 도청 외에 또 하나의 거점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1978년 ‘교육지표’ 사건으로 김경천 간사가 구속되고, 1979년 11월 28일 민주화를 위한 수요연합예배 사건으로 조아라 회장이 경찰에 연행되어 구류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사회적 장소성을 끈질기게 견지해온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청년운동

1960년대 박정희 군부정권이 시작되면서 한국 개신교회는 도시산업선교(빈민, 노동운동 등) 활동, 한·일 굴욕외교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등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시작했다. 개신교의 정치적 발언과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은 유신체제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다. 이 시기에는 청년·학생과 소장 목사층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독교운동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1969년 11월 출범)의 학생사회개발단, 각 교단의 청년연합회, 신학대학생연합회 등 조직화를 통해 기독교청년들의 민주화운동 의지를 수렴시키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가 결성되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등 구속 사건으로 활동력을 상실한 KSCF의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는 반독재·민주화와 인권운동의 공간이자, 사회운동 각 부문에 인적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었다.⁸⁾

1970년대 광주전남에서도 전국조직인 KSCF 내에서 여대생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민청학련’ 사건과 긴급조치 9호 발동 이후에는 EYC와 교회 내 대학청년부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광주전남의 수많은 청년이 민주화운동 활동가로 성장했으며, 그들은 훗날 각 부문운동의 현장(빈민·노동·농민 등)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시기 기독교청년들 중 여성활동가로는 윤명숙(무진교회), 김은경(양림교회), 임영희(양림교회), 이윤정(동부교회), 박현옥(한빛교회), 문혜정(무돌교회), 고옥희(해남읍교회), 황연자(해남읍교회), 윤경자(강진칠량교회), 임숙자(장흥교회) 등이 있었다. 이중 광주에서 활동하던 여성활동가들 중 임영희, 이윤정 등 일부는 광주민중항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여성노동운동과 JOC(가톨릭노동청년회)⁹⁾

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에 따른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작업장 내 노동 감시 및 폭력, 성희롱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정부의 전면적인 노동운동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혹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생존권 투쟁이 시작되고, 외부에서는 이들의 투쟁에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지식인과 종교인, 학원가 등이 지원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어용노

조 비판과 함께 민주노조 설립운동을 전개하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인간적 대우를 요구하는 처절한 싸움을 벌여나갔다.

당시 도시산업선교회가 없었던 광주지역에서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이하 JOC)가 노동자들의 유일한 공개 조직이었다. 광주JOC는 1961년 김종남 신부의 지도로 윤옥주, 조가타리나, 고마리아 등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여성노동자 15명이 첫 팀을 구성하면서 탄생했다. 1962년 전남대 의대 간호사들이 새 팀을 조직하며 JOC의 조직은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JOC는 대학생이나 남성 중심 조직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이들의 활동이 제한되는 한편, 생산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제조업체 현장의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조직의 구성이 변화하게 된다.

JOC는 각 사업장에서 기존의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조직들을 만들어가게 된다. 조직은 소규모 모임(5~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누가 어떤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지 서로 알기 어려운 형태였다. 1973년 ‘전남제사’에서는 5개 정도의 조직을 만들어, 정향자·이수인·나설림·신정숙 등이 노동교육을 시작한다. 1974년 ‘호남전기’에서는 김성애¹⁰가 JOC 모임을 시작하면서 호남전기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김성애는 JOC 소그룹활동과 일반회 모임으로 노동조합을 활성화하여 1976년 노조 부녀부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김성애는 JOC 활동 외에도 크리스찬아카데미 신인령 등 강사를 초청하여 노조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남제사와 호남전기를 비롯, 1970년대 중반에는 일신방직, 남해어망, 광주어망 등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10여 개의 생산업체에 소그룹들이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40여 개의 JOC 모임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1970년대 하반기에는 각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하면서 이 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1976년 전남제사를 필두로 시작된 임금투쟁은, 이후 생사업체, 연초업체, 어망업체 등 여성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활발히 전개된다. 조직의 활동 범위도 넓어져 섬유업체 중에서만 17개 중 12개 업체에서 하나의 산별노조를 구성하고, 서로 다른 업종의 생산업체나 남성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노조와도 연대활동을 전개하면서 임금투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갔다. 또한 당시 여성노조지부장을 인정하지 않던 조합에서 정향자가 1975년 전남제사 노조지부장, 섬유노조 최초로 호남지역 산별지부장 역임, 1979년 이정희가 금속노조 최초로 호남전기 여성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되는 등 여성의 지위 획득을 가시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JOC를 기반으로 한 여성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조직적 투쟁은, 지역 내외 다양한 단체들 및 활동가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1970년대 초에는 서울·경기지역 노동운동가들(특히 청계피복노조)의 학습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중후반기를 넘어가면서 주요 여성노동운동가들(정향자/전남제사, 김성애/호남전기, 이정희/호남전기, 윤청자/호남전기, 임미령/남해어망) 등은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성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역 내 사회운동가들과 수시로 만나 정치사회 상황과 투쟁 활동을 공유하였고, 김성용 신부와 메리놀 신부 등 가톨릭계와도 강력한 연대를 맺고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에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강고한 조직적 힘과 더불어 지역 내 연대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JOC 여성노동자들은 항쟁 당시, 홍보선전 활동을 비롯해 도청 내 취사를 맡고 항쟁지도부의 요청으로 최정님이 전화 교환수¹¹로도 활동했다.

녹두서점과 현대문화연구소¹²

1972년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 이후, 재야시민사회를 비롯 대학가에서는 연일 유신체제 철폐를 주장하는 저항운동이 잇따른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치(1~9호)를 발동하며 대대적인 탄압으로 대응, 수많은 재야인사 및 대학생들이 체포, 구속되는 상황이 지속된다. 당시 광주에서는 ‘함성지’ 사건(1973), ‘민청학련’ 사건(1974), ‘교육지표’ 사건(1978) 등을 관통하면서 여성·노동·농민·학

생·종교·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저항운동 세력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주로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YWCA와 YMCA, 가톨릭 교구와 같은 종교적 장소에 불과했는데, 1975년 김남주가 광주 최초의 사회과학 서점인 ‘카프카 서점’을 개점하면서 민주인사 및 학생들의 사랑방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듬해 문을 닫게 되고, 뒤이어 1977년 김상윤이 ‘녹두서점’을 개점해 그 역할을 이어받는다.

녹두서점은 1977년 헌책방이 모여 있던 계림동에 문을 열었다. 당시 김상윤은 ‘민청학련’ 사건¹³으로 구속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1975년에 석방된 후, 청년들이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는 공부が必要하다고 판단, 학습 소모임 지도에 주력한다. 학습모임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자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라리 서점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서점은 중앙정보부나 형사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이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두서점에 청년·학생·여성들이 모여들어 독서 모임과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지역 내외 민주인사들 간의 정보가 교류되었다. 특히 여성들이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녹두서점을 통해 사회과학 서적 보급이 원활해지면서 학원가에서는 단과대학이나 학과별로 비공식 학습 소모임이 만들어져 운영될 수 있었다. 조선태 약대의 경우 이명희, 모애금, 유소영, 안은경은 무려 30여 명의 회원을 모아 학습모임을 유지해나갔다. 녹두서점은 1979년 12월 동구 장동으로 이전하는데, 이듬해 이곳에서 광주민중항쟁을 맞는다. 항쟁이 시작되면서 녹두서점은 항쟁 경과를 시민들과 지역 외부에 알리고 송백회 회원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화염병 제작, 소식지 제작 등 도청에 시민군 항쟁지도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최초의 상황실’ 역할을 담당했다. 광주민중항쟁의 한 중심에서 녹두서점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던 공간이었다.

현대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979년 4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윤한봉, 이강, 윤강옥, 박형선, 나상기, 최철)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관련자(김희택, 정용화)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투쟁하다 구속된 후 석방된 대학생들이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고한 연대조직

이 요청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모일 합법적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연구소는 서울과 광주 정보교환과 각 부문 운동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광주·전남민주화운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연구소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정보가 모이고 청년·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연대하였으며, 양심적인 후원자들을 조직하여 자금을 모아 시국 강연회, 양심수 옥바라지, 농촌·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을 지원하였다. 연구소가 감옥에 갇힌 민주인사와 대학생들의 옥바라지인 ‘양심수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 송백회가 적극 동참하여 3천 권이 넘는 책을 모았다. 송백회는 그 외에도 양심수들이 추운 겨울 감옥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털양말을 짜고 내의 등을 모으고 영치금으로 사용할 후원금을 모아 연구소로 전달하였다. 또한 연구소는 80년 3월 ‘극단 광대’의 마당극 〈돼지풀이〉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여 문화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연구소 초대 소장은 문덕희, 79년 11월부터 정용화가 2대 소장을 맡았으며, 송백회 회원이기도 했던 임영희는 연구소의 간사를 맡고 있었다.

야학운동¹⁴

1970년대 후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의 노동현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노동야학이 생겨난다. 당시 10대의 절반 이상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야학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한편, 노동기본권 및 노동법 등 노조를 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노동청소년들의 정치의식 및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 시기 광주에서도 노동야학으로 ‘들불야학’과 ‘백제야학’이 생겨났다.

1978년 7월, 광주 최초로 노동야학을 표방한 ‘들불야학’이 출범했다. 당시 전

남대 학생이던 박기순¹⁵은, 그해 5월부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노동야학(겨레티야학) 교사를 하다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학사징계를 당한 후 군대 입영을 위해 고향인 광주에 내려온 3명의 학생들과 광주에 노동야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7월 23일, 들불야학은 광주공업단지 옆 광천동성당 교리실에서 35명의 청소년 노동자들과 8명의 대학생 교사가 입학식을 하면서 출발하였다. 학생들의 나이는 평균 17세였으며, 남녀 구성은 2대 3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78년 1기부터 81년 7월 4기로 문을 닫을 때까지 박기순·윤상원·김영철·신영일·박관현·박용준·박효선·전용호·서대석 등 30여 명의 대학생이 교사로 활동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수평적 관계 하에서 인근 시민들과 함께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만큼 끈끈한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 정서적 연대감은 광주민중항쟁이 발발했을 때, 들불야학의 교사와 학생들이 대거 항쟁에 참여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 이들은 5·18 당시 시민에게 항쟁 경과를 알리는 <투사회보>를 제작 배포하고 시민군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큰 희생이 뒤따랐다. 항쟁 때 윤상원과 박용준이 사망하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수배와 구속을 당했다. 이후 대대적인 탄압 속에서도 운영을 하다, 1981년 7월 제4기 졸업식을 치른 후 폐교하게 된다.

‘백제야학’은 1980년 2월, 시내 방림신협 지하실의 강당에서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학식을 하면서 시작했다. 전남대 학생 김홍곤·박용성·김문수·손남승 등이 교사로 참여했다. 야학에 입학한 학생은 무등양말, 호남전기, 태광산업, 일신방직 등에서 일하는 10~20대 노동자들이었다. 백제야학 교사들 또한 광주민중항쟁이 시작되자 유인물을 제작해 시내 곳곳에 배포하였다. 항쟁 이후에도 백제야학은 노동자교육 운동의 깃발을 이어나가다 1984년 문을 닫았다.

광주에서 야학운동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자 권리 신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들불야학과 백제야학의 정신은 이후 와이(Y)야학, 한얼야학, 무등야학 등 후속 야학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문화운동과 ‘극단 광대’¹⁶

1970년대 후반은 농촌지역에 일찍이 뿌리를 내린 농민운동이 대중적 확산을 꾀하고 있었고, 1970년대 초반부터 배출되었던 청년 활동가들도 점차 활동 토대를 굳혀가기 시작하면서 문화운동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었다. 더욱이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후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보다 대중적으로 사회문제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운동의 틀이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극단 광대’의 출발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1979년 11월 YWCA 청년부 산하 ‘극단 광대’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다. ‘극단 광대’는 전남대 탈춤반(민속문화연구회)과 연극반이 중심이 되고 조선대 탈춤반과 전남대 국악반 일부 회원이 단원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전남대 탈춤반은 1978년 4월에 창립해 회장 김선출과 부회장 김윤기가 그해 6월 ‘교육지표’ 관련 시위를 주도하다 수배가 되어 대학 인가가 취소되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1978년 11월에 전남대 연극반 박효선이 연극반과 탈춤반 일부 회원들을 데리고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열린 전국농민살생산자대회에 마당춘극 <함평고구마>(1978)¹⁷ 공연을 하였다. 공연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1979년 겨울, 마당극 운동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끝에 광주YWCA ‘극단 광대’를 창립한 것이다. 극단의 초대 회장은 김정희가 맡았으며, 박효선, 김태종, 이현주, 김윤기, 김선출, 최인선, 김영희, 임희숙 등이 참여하였다.

1980년 3월, 극단 광대는 창단공연으로 <돼지풀이>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말 농업축산 정책의 모순에 의해 일어났던 돼지값 폭락을 극화한 작품으로, 농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생생하게 담은 풍자 마당극이다. 광주YMCA 무진관에서 초연된 후, 광주 시내와 농촌을 순회하며 10여 차례 공연되었고, 5월 3일 무안지역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 공연 연출에는 황석영, 채희완, 임진택 등이 도움을 주었으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은 농민운동가들과의 연대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1980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가 구성되자 극단 광대는 대학 농성장에서 마당

극을 공연하는 등 민주화 집회와 시위의 문화선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설가 황석영은 이에 <돼지풀이>가 성황리에 공연하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문화운동을 펼치기 위해 소극장을 개설하자는 제안을 하고 단원들은 모두 동의하였다. 이들은 장동에 소극장 공간을 임대하여 '동리 소극장'¹⁸으로 이름을 정하고 황석영의 소설 「한씨연대기」를 개관 작품으로 올리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5월 초, 광대 단원들은 YWCA 내에 있는 '광주양서조합' 사무실을 연습실로 빌려 매일 나와 연습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5월 18일 항쟁이 발발하면서 연습은 중단되고 단원들은 시위에 참여하며 항쟁에 뛰어들게 된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는 극단 광대 단원들이 주도하고 송백회 회원들이 성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광대 단원들은 시민결기대회 외에도 가두방송, 대자보 작성 등 홍보활동을 하였다. 항쟁 이후 광대 단원 박효선, 김태종이 수배 후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대는 1981년 5월 두 번째 작품인 <호랑이놀이>를 끝으로 해체되었다.

학생운동¹⁹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상징될 수 있는 196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광주지역 학생운동은 유신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체제 저항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더욱 강고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광주 학원가에서는 일련의 저항이 지속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공개 또는 비공개 독서 및 종교 모임 등이 생겨나 학생들의 의식화 및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학생들도 의식화 모임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과 고문을 당해야 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 정지를 내용으

로 하는 비상조치를 선언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함성지' 사건²⁰이 일어난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이 사건은, 광주지역 최초의 반유신 투쟁이자 전국 최초의 유신반대 유인물 배포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모자인 김남주와 이강을 비롯해 이경순, 이정, 강희순 등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된다.

한편, 전남대 내에 민족사회연구회, 맷돌, 루사(RUSA), 독서잔디, 아카데미, 사회조사연구회, 메시아 등 공개 혹은 비공개 독서 모임이나 학습 모임이 생겨나는데, 여학생들 또한 독서 모임 등에서 여성문제 관련 책을 접하고 새로운 자기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사회조사연구회 안진, 기독교학생총연맹(KSCF) 광주 지역 대학생 모임 '메시아'에 박현옥, 김금해, 조난심, 문백란 등이 참여하였다. 서클과 학습 소모임의 활성화는 197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운동 주체들의 다양화와 양적 확산이라는 성과로 나타난다. 학습을 통해 양성된 운동 주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개입과 후원이 활발해지는 등 운동 현장에서 일정한 결실을 얻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교육지표'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운동의 대응과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다. 여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학내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교육지표' 사건으로 교수들이 연행되자, 학생들은 연행 교수 석방, 민주교육 실시, 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학내시위를 전개했다. 이때는 긴급조치 9호가 발효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학내시위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이 사건으로 박현옥이 구속되어 학교에서 제적되고, 허민숙과 이미숙은 무기정학을 당했다. 교육지표 사건 이후 형사들의 교내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학내에서 서클 등록도 엄격해졌다. 1979년 3월, 고희숙, 박유순, 김정희 등은 사회참여 성격이 강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을 평범한 기독교 대학생 모임처럼 보이도록 '바이블&뮤직'이라는 이름의 서클로 학교에 등록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1979년, 이 서클의 신민정, 고희숙 등이 학교 화장실 벽에 "유신철폐, 박정희 정권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써 붙였다. 그해 10월 17일, 박유순은 저녁 늦은 시간에 대학 기구인 '상당지도관실' 유리창을 깨고 기름이 묻은 종이를 집어넣어 불을 질렀다. 도서관에서 늦

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던 학생이 상담지도관실 불길을 보고 신고하여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다.

전남대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70년대 중반,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사전 예방, 차단하기 위해 각 대학에 '상담지도관실'을 설치하였다. 상담지도관실은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생활동을 사찰했다. 박유순은 이를 응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지도관실 방화를 결행했던 것이다. 수사당국은 방화사건 주모자를 찾기 위해 40여 명의 전남대 학생을 연행하여 구타하고 고문하였다. 결국 박유순이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박유순과 함께 사전 모의라는 구실로 고희숙, 신영일을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7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서 여성들의 주체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이 일어난 후 9일째 되는 날, 박정희의 사망으로 군부유신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3. '민주화의 봄'(1979.10.~1980.5.16.)

총학생회 부활과 여학생회 발족

박정희 사망 후,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내각이 긴급조치를 해제하면서 민주 인사 및 학생 등 양심수들이 석방, 복권되었다. 학원가에도 해직 교수들과 함께 시위 등으로 제적되었던 학생들이 돌아왔다. 국민들은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동시에 학원가에서는 자율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80년 3월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남대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학원 민주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총학생회 부활과 학칙 개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4월 9일 총학생회장 직접선거를 실시, 박관현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조선대에서도 복직생과 재학생이 학교의 고질적 문제인 사학재단 비리를 척결하고자 학원자율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교 측의 탄압이 자행되자, 학생들은 '조선대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항했다. 이외에도 광주교육대학, 성인경상전문대학, 동신전문대학, 조선대학교병설공업전문대학 등에서도 학생회 부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한편, 전남대에서 학생회 부활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일부 여학생들은 학생회의 일개 부서가 아닌,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일부 여학생들의 반대 의견과 관심 부족 등으로 상당한 난항을 거치는 했으나, 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칙이 통과되었다. 이후 투표과정을 거쳐 각 단과대학 별 여학생회 중 농과대학(회장 신혜란, 부회장 김랑우)과 인문대학(회장 임하숙, 부회장 김경순) 여학생회장이 선출되었다.²¹ 이는 광주지역 학원가에서는 최초로 여학생들이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학생회 재건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1980년 3월 전남대에 11개의 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때 여성문제연구학회(초대회장 박유순)²²도 탄생했다. 이전까지는 고교 동문들의 독서 서클이나 YWCA 학생부를 제외하고는 여학생들 중심의 공식 모임이나 조직이 없었으나, 여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여학생 조직과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이것이 여성문제연구학회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학회는 여성 관련 서적(『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제2의 성』, 『성의 정치학』,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 등)을 읽어가면서 여성문제 및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나가게 된다.

3일간의 '민족·민주화대성회'²³

전국의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부활하면서, 4월 들어 학원가에서는 학내 문제를 중심으로 학원민주화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판단, 학원가의 시위는 학내 문제에서 시국 문제로 급선회한다. 재야권 및 학원가는 계엄령 즉각 해제, 정부 주도 개헌 포기, 신현확·전두환 등 유신잔당의 퇴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학원가의 시위양상도 교내 시위·농성에서 가두시위로 바뀌게 된다. 5월 7일부터 시작된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가두시위에는, 27개 대학 총학생회의 결의에 따라 14일 서울 중심가에 7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15일에는 35개 대학 10만여 명이 집결한다.

광주에서는 13일 오후 7개 대학 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 뒤, 15~16일 가두



민족·민주화대성회(태극기를 든 안진,강보희,정경자,박관현 등이 보인다) ©촬영 : 나경택 출처 : 5·18기념재단

시위를하기로 결의한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하루 앞당겨져 14일부터 시작된다. 5월 14일 오후 1시, 전남대에서 교내집회를 하다 경찰이 손최루탄에 여학생이 맞고 부상을 당하자 격분한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교문을 뛰쳐나가 시내로 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남대총학생회는 즉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학생들은 모두 도청 앞 광장에 모이라고 주문하였다. 1만여 명의 남녀학생들은, 비상학생총회가 끝난 직후 전남대에서 출발하여 도청 앞 광장에서 집결한 후 '민족·민주화대성회'를 개최하였다. 조선대도 '민주화투쟁위원회' 주최로 3천여 명의 대학생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여하였다. 여학생들은 유인물과 성명서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5월 14일 도청 앞 집회는 5월 16일 저녁 햇불대성회까지 3일 동안 계속된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의 민족·민주화대성회의 첫 대증집회였다.

5월 15일 학생들은 경찰의 제지 없이 도청 앞까지 진출하였고, 연좌하여 두 번째 민주화 성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며 전남대의 '시국 성토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와 광주교대 등 여러 대학의 선언문이 남비 비율로 낭독되었다. 학생들의 궤기대회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남녀학생, 젊은이와 어른 구별 없이 함께 참여했으며, 도청 앞 분수대는 진실을 외치는 대중 여론장이자 민주화운동의 분출구가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학들에서 시위가 점차 확대되자, 이날 저녁 7시 50분에 신현확 국무총리가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과 사회 안정이 되는 대로 계엄령 즉시 해제를 약속하였다. 이에 서울지역 학생들은 각자 학교로 돌아가 앞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다.

광주에서는 5월 16일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등 광주 시내 9개 대학 3만여 명의 학생들이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하여 시국 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은 오후 성토대회를 마치고 저녁에 대학별로 조를 나누어 햇불을 들고 시내 도로를 행진하는 '햇불 시위'를 하였다. 학생들이 준비한 4

백여 개의 횃불이 점화되자 도시는 민주의 함성으로 타올랐다. 시민들도 시위 행렬을 따라 걸으며 학생들과 연대감을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가두 행진을 마친 후 광장에 모여 유신체제와 5·16 군사쿠데타를 응징하는 ‘5·16 화형식’을 가졌다. 이날 밤 10시, 박관현의 연설을 끝으로 3일 간의 민족·민주화대성회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만일 정부에서 휴교령을 내리면, 오전 10시 각 대학에서 모여 시위를 하자는 약속을 하고 해산하였다.

신군부의 ‘충정작전’ 개시²⁴

박정희 사망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전두환은 군부의 실력자로 부상한다. 전두환은 곧바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한 뒤, 나아가 국가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였다. 한편, ‘민주화의 봄’을 맞아 대학들의 학원민주화투쟁이 전개되는 동안, 정치권은 개헌주도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몰두하면서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신군부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 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 계획은 이미 2월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2월 18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충정부대(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사단, 1·3·7·9공수여단, 수도권외 17·20·26·30사단 등) 및 후방 주요 부대에 시위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을 지시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충정훈련은 대학 개학 시기인 3월에 들어와 더욱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그리고 4월 말, 신군부는 전투 병력과 군수물자 이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한 군사작전을 완벽하게 마친다.

5월 13일, 육군본부는 ‘충정작전’을 개시했다. 전북 금마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은 전북대(31대대), 충남대(32대대), 전남대·광주교대(33대대), 조선대(35대



민족·민주화대성회 (시위대의 앞줄에서 뛰고 있는 여학생들)
 ©촬영 : 나경택 출처 : 5·18기념재단

대)에 배치한다는 계획하에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오후, 광주에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는 광주 시내 주요 시설물에 계엄병력 배치를 완료하였다. 15일 오후 5시, 7공수여단을 광주로 실어 오기 위한 수송차량이 전북 금마를 향해 출발했다. 이들이 광주로 들어온 것은 5월 17일 자정 무렵이었다. 그리고 18일, ‘피의 일요일’이 시작되었다.

제2부
광주민중항쟁과 오월 여성



5월 17일 : 계엄 확대와 예비검속

5월 18일 : 피의 일요일

5월 19일 : 11공수여단 증파와 확산되는 시민 공세

5월 20일 : 폭발적 저항과 불타는 가두

5월 21일 : 피의 대가로 계엄군을 몰아내다

5월 22~26일 : 승리를 위한 해방공동체

5월 27일 : 최후의 항전



5월 17일 : 계엄 확대와 예비검속

1. 무자비한 예비검속
2. 여학생이라고 예외 없고

5월 17일 :

계엄 확대와 예비검속

1. 무자비한 예비검속

17일 오후 6시, 광주보안부대(505) 서의남(중령) 대공과장은 수사관 회의를 소집했다. 서의남은 8명의 수사관에게 “새벽 0시를 기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확대 실시된다.”고 말하고 그날 밤 예비검속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보안사령부에는 계엄령 확대가 선포되기 전부터 예비검속자 명단이 작성되어 있었다.²⁵ 서의남은 ‘부족한 인원은 전남 도경과 협조해 경찰 인원을 지원받을 것, 주요 인물 체포는 수사관이 직접 할 것, 계엄 확대를 알리는 새벽방송이 나가기 전인 새벽 4시까지 신병을 확보할 것, 특히 경찰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신병확보 전까지 개인행동을 못 하도록 철저히 규제하라’며 주의를 줬다. 그리고 밤 9시까지 부대로 재집결할 것을 명령했다.

허장환과 박 수사관은 경찰 지원 병력 차출을 위해 전남 도경과 광주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에 전화로 지시를 했다. 그렇게 꾸려진 인원은 총 86명이었다. 그들은 밤 11시경, 인계받은 예비검속자 명단을 들고 각지로 흩어졌다.

17일 오후 6시, 이화여대 학생회관에 치안본부와 서울시경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당시 이곳에선 ‘서울역 회군’ 뒤인 5월 16일 저녁부터 17일 오후까지 전국 55개 대학생 대표 95명이 모인 ‘제1회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참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들렸다. 경찰들

이 학생회관을 둘러싼 뒤, 수사관들은 총을 들고 회의장을 급습한 것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철망이 쳐진 버스에 실려 끌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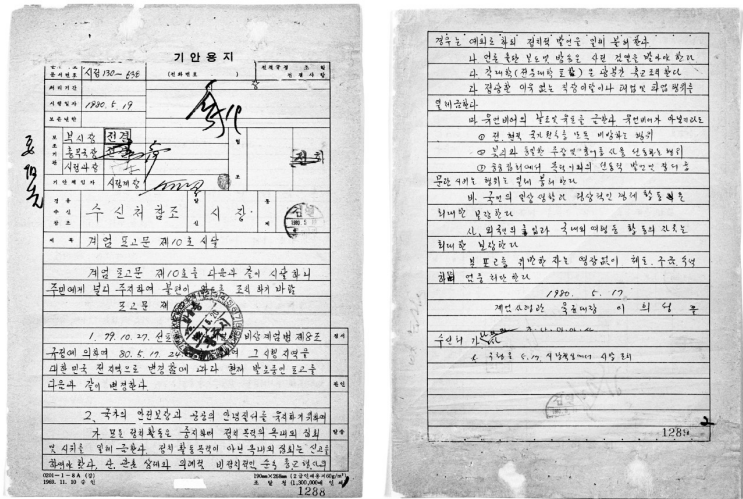
17일 오후 몇몇 학생들과 함께 전남대 총학생회실을 지키고 있던 부회장 이승룡이 서울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은 것은 저녁 7시 무렵이었다. 다급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서울에서는 학생회 간부들이 검거되었으니 빨리 피하라.” 전화를 끊자마자 이승룡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다.

자정 무렵 전남대 교문을 열고 20여 대의 군용트럭이 들어왔다. 총학생회 간부 양강섭·이청조 등은 계엄군의 본부가 차려진 학군단 사무실 쪽을 통과하기로 하고 이승룡·오진수·권창수 등은 공대 쪽 담을 넘기로 했다. 양강섭 일행은 무사히 학교를 빠져나갔지만, 이승룡 일행은 공대 쪽을 지나다가 공수부대에 붙잡히고 말았다.²⁶ 7공수여단 33대대가 새벽까지 전남대학교를 수색해 체포한 학생은 총 69명²⁷이었으며, 이 학생들은 18일 아침 서부경찰서를 거쳐 상무대로 연행되었다.

17일 자정 무렵, 조선대에도 7공수여단 35대대가 들이닥쳐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조선대 교내 방송국에 10여 명의 공수대원이 들이닥쳐 학생들을 구타한 후 포승줄로 2명씩 1조로 묶어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때 당직을 서던 교수가 군인들에게 때리지 말라고 하자 교수까지 구타했다. 공수대원들이 방송국 학생들을 끌고 온 곳은 종합운동장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각 단과대학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들이 끌려와 있었다.²⁸ 이날 교내수색을 통해 조선대에서 체포된 학생들은 총 43명이었다.

17일 10시부터 18일 새벽까지, 전국 각 지역의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정치인과 재야인사, 긴급조치 위반 전력자,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을 체포하였다. 김대중(국민연합 공동의장)과 김종필(공화당 총재)은 밤 11시경에 수경사 헌병들과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각각 자택에서 체포되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학생들의 거주지를 급습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8일 0시를 기해 계엄포고령(제10호)이 발령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17일 밤 10시부터 자행된 예비검속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계엄사령부는 18일 낮 12시, “전국 일원에 대한 비상계엄령 확대 실시를 계기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와 그동안 사회불안조성 및



계엄포고문 제10호 시달 소장 : 국가기록원

학생-노조 소요의 배후 조종혐의자 26명을 연행, 조사 중”이라며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²⁹ 하지만 학생들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숫자가 너무 많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예비검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검거된 총 숫자는 2,699명이었다.

광주에서는 총 22명(전남대 12명, 조선대 10명)³⁰의 대상자들 중 12명이 자정을 전후해 체포되었다.³¹ 이때 검거된 사람들은 정동년·김상윤·박선정·윤복현·유재도·유소영·김윤기·양희승·박형선·문덕희·하태수·이곤섭 등이다.

전국 주요 보안목표 점령 완료

7공수여단 33대대(권승만 중령)가 전남대와 광주교대를, 35대대(김일옥 중령)가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를 수색해 학생들을 체포하는 동안, 31사단 96연대는 이외 8개 대학³²을 18일 새벽 2시 29분에 점령했다.

7공수여단 배치도³³

대대	출동인원 (장교/병사)	주둔학교	부대출발시간	점거시간
31	16/172	전북대	5.17. 24:00	5.18. 01:05
32	38/291	충남대	5.17. 24:00	5.18. 01:25
33	45/321	전남대, 광주교대	5.17. 22:00	5.18 02:00
35	39/283	조선대, 전남대 의대	5.17. 22:30	5.18 02:30
본부	5/76	CAC(전교사)	5.18. 08:00	5.18 11:50
계	143/1,143			

18일 새벽 3시. 전국 92개 주요 대학 및 국회의사당과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한 주요 보안목표(109개)에 계엄군 23,860명이 배치, 완료되었다. 92개 대학에 계엄군 병력 중 93%(22,342명)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데, 이는 신군부 세력이 대학가의 시위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를 시행했음을 말해준다.³⁴

2. 여학생이라고 예외 없고

조선대 학생 유소영(21세)은 광주에서 예비검속된 12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5월 17일 밤 자정 무렵, 갑자기 사복형사 4명(505보안부대 임채증을 포함

한 동부서 형사들이 신발을 신은 채 유소영 자택 거실로 들어닥쳤다. 그들은 자고 있던 유소영에게 다가가 “유소영! 일어나”라며 권총을 들이댔다. 당시 유소영은 조선대 약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학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시위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비검속자 명단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터였다. 가족들은 느닷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끌려가는 유소영에게 삼촌(유영선)이 점퍼를 걸쳐 보냈다. 그들은 유소영을 연행해가며 “1시간만 이야기하고 보내주겠다며” 집을 떠났다. 하지만 유소영은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어디로 잡혀갔는지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같은 시각, 타 지역 대학가에서도 여학생들의 예비검속 및 시위자 연행이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여학생 연행이 이루어졌던 곳은 7공수여단 31대대가 들어간 전북대였다. 당시 30여 명의 학생이 학생회관 2층 교수회의실에 모여 “계엄철폐 및 전두환 타도”를 위한 철야농성 중이었다. 18일 새벽 1시 30분경, 50여 명의 계엄군이 농성장을 덮쳤다. 갑자기 들어닥치면서 “대가리 숙여”라는 욕설과 함께 진압봉을 휘둘렀다. 여기서 총 33명이 체포되고, 1명(이세중)이 사망하는 사건³⁵이 일어난다. 33명 중 여학생은 7명으로, 김성숙(21세), 김혜숙(21세), 문희선(21세), 서성길(21세), 송혜경(21세), 이유숙(18세), 조혜경(19세)이다. 체포된 학생들은 공수대원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후 포승줄에 묶여 연행된 뒤 전주경찰서 조사계를 거쳐, 35사단 헌병대와 510보안부대로 끌려간다. 연행과정에서도 엄청난 진압봉 세례와 함께 욕설이 쏟아졌으며,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적 성폭력이 이루어졌다.

당시 전북대 총여학생회장이었던 문희선은 체포 당시, 계엄군의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가 찍혀 유혈이 낭자한 상태에서 연행된다. 이때 다친 머리는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이틀 후에야 전주경찰서 지하 유치장에서 봉합수술을 받게 된다.³⁶ 김혜숙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와 허리를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했으며, 연행된 후 김대중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³⁷

전국적으로 예비검속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간에, 서울과 부산, 강원 지역에서는 여학생들이 연행되고 있었다. 이때 검속된 여학생은 총 5명으로, 서연자(22세, 부산대), 정외영(23세, 부산대), 이정열(21세, 강원대), 한승희(21세, 강원대

총여학생회장), 형난옥(21세,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등이다. 17일 자정과 18일 아침 사이에, 이들 역시 유소영처럼 형사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각 지역 보안부대로 끌려갔다. 이들에게 가해진 구타와 고문은 더욱 가혹했으며, 학내시위 관련 외에도 김대중으로부터 내란음모를 위한 자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취조당한다. 취조 도중, 여기서도 역시 여학생들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성적 겁박, 성희롱 등이 이루어졌다.

여성 구금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옷을 벗기려 하거나, 구체적 실명을 거론하며 그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입맞춤은 해보았는지 물으며 조롱당하였으며, 강간하겠다고 겁박당하여야 했고 몽둥이로 가슴 부위를 찔렸다고 한다. 또한 구금 기간이 상당하여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일부 피해자는 선후배 사이인 남성 학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혈(下血)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휴지로 어떻게든 해결하려 한 것이 가장 큰 수치였다고 진술하였다.³⁸

전북대 연행 학생들이 1주일에서 3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훈방 조치된 데 비해, 예비검속 여학생들은 대부분 1개월 이상부터 8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조사받아야 했다. 그리고 공소기각 및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대학은 무기정학과 제적 처분을 그들에게 통보했다.

The background is a grayscale illustration of a protest scene. A large banner at the top reads '새 憲 志 로 새 全 南 을' (With the new constitution, for the new Jeollanam-do). Below it, another banner says '제19회 전라남도민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19th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National Sports Team). In the foreground, several soldiers in riot gear are running down a street, chasing a group of people. One person is running away from the viewer, while others are being pursued. The scene is set in an urban environment with trees and buildings in the background.

5월 18일 : 피의 일요일

1. 최초의 상황실, 녹두서점

2. 전남대 앞 약속

3. 광주YWCA의 아침

4. 도청 앞으로!

5. 야만의 시간이 열린다

6. 벌거벗긴 여성들

7. 최초의 성폭행 사건

8. 다치거나 사라진 여성들

9. 대공과로 간 유소영

5월 18일 : 피의 일요일

1. 최초의 상황실, 녹두서점³⁹

5월 17일 밤 11시 30분경, 갑자기 녹두서점의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늦은 밤에 후배들이 찾아오는 일이 흔하게 있어, 김상윤(남, 31세)은 별 의심 없이 문을 열러 나갔다. 정현애(여, 27세)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마음에 나가봤더니, 도로에 지프차가 서 있고 서너 명의 남자들이 김상윤의 양쪽 팔을 끼고 차에다가 막 집어넣으려 하는 순간이었다. “무슨 일인데, 사람을 왜 이런 식으로 데려가느냐”며 따지자,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그런다”며 남자가 받아쳤다. 더 항의하려다가 남편에게 권총을 들이댄 채 밀어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으니, ‘서부경찰서’란 말만 던지곤 지프차는 떠났다.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방에 들어오니 TV에서는 미스코리아대회가 방송되고 있었다. 화면 밑에는 ‘계엄 확대’라는 자막이 박혀 있었다.

자정을 넘은 12시 30분경, 다시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남편을 체포해 간 남자였다. “윤한봉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 했더니, 윤한봉(남, 32세)만 잡으면 남편은 곧 석방될 것이라며, 있는 데를 알게 되면 서부경찰서로 전화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잡혀갈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정현애는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교수, 목사, 변호사 등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남편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조선대 문병란 교수에게 전화했더니, 다행히 윤한봉은 그곳에 있었다. 빨리 피신하라고 알린 후,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새벽 2시 경이었다. 이명자(30세, 정동년 부인)였다. 새벽 1시에 남편이 형사들에게 잡혀가면서 이곳으로 전화를 해보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고 했다. 날 밝는 대로 녹두서점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를 끝냈다.

새벽 2시쯤 골목에서 걸어오는 신발 소리가 났다. (중략) 동사무소에서 나왔다.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했더니 쌍욕을 했다. 다섯 명이 왔는데 군인도 있고, 정보과 형사도 있었다. 30분 정도 실랑이를 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깰 정도로 난리가 났다. 그들은 남편(박형선) 목을 쥐고 끌고 나갔다. 그때 우리 큰아들이 8개월이었다. 아이가 상하방 문턱에 서서 아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기가 막혔다. 나는 이것이 끝이란 생각이 들었다. 끝이란 생각이……⁴⁰

18일 새벽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기를 업은 윤경자(27세, 박형선 부인), 김종희(27세, 문덕희 부인), 이명자 등 서너 명이 서점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송백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회원들이었다. 모두 얼굴이 말할 수 없이 초췌했다. 자정 이후 권총으로 무장한 남자들이 남편을 연행해갔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여성들이 더 모였다. 광주에서 연행된 사람만 10명이 넘는 것 같았다. 체포된 남편이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에 녹두서점에 오면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 찾아오긴 했지만, 이곳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서로 걱정만 나누며, 여성들은 시택이나 친정집으로 전화를 돌려 남편들의 연행 소식을 알렸다.

곧이어 정현애의 시동생 김상집(남, 24세)이 들어섰다. 새벽에 윤상원(남, 30세)⁴¹이 전화를 해 김상원의 연행 사실을 알리고, 서점에 나가 이곳저곳 연락을 알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참이었다. 이후 윤상원은 아침에 광천동에 온 박관현에게 전국 예비검속 소식을 알리며 우선 피신해 있으라고 말한 뒤, 전남대로 달려갔다.⁴² 그 사이, 녹두서점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녹두서점 앞을 배회하고 있던 505보안부대 군인을 윤경자가 발견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남편을 잡아간 놀이라며 그의 목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서점 안에 있던 여성들도 합세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려들어 두들겨 뺐다. 갑자기 봉변을 당한 군인은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⁴³

서울 ‘국민연합’ 최형호에게서 전화가 와 광주 상황을 물었다. 서울에서는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이 많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다른 지방에서도 연행된 인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애는 광주 인사들의 연행 소식을 전했다. 이후에도 전화통은 불이 났다. 여기저기에서 안부를 물었고, 학생들이 집결 장소를 묻기도 했다. 예비검속을 피해 피신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서점을 지키고 있던 정현애와 김상집은 지역 내외 사람들에게 서로 간의 정보를 연결해주고 광주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녹두서점은 자연스럽게 상황 연락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실제로 이후 YWCA와 도청을 거점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녹두서점은 항쟁 초기 최초의 상황실 역할을 하게 된다.

사태의 추이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서점을 향해 줄을 이었다. 예비검속을 피해 피신했던 수배자들이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는 바람에 녹두서점은 자연스레 상황연락실이 되었고, 나(정현애)는 시위대의 동향을 사람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이 합류할 수 있도록 했다.⁴⁴

오전 9시경, 윤상원에게서 전남대 앞 상황을 알리는 전화가 왔다. 윤상원은 학생들이 서점에 찾아오면, “전남대 정문 앞으로 오라 말해 달라” 했다. 전화를 끊

고 상황일지에 ‘9시 전남대 정문 앞 50명 정도. 전남대 앞으로’라고 적었다. 이후 서점에 오는 학생들과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는 학생들에게 전남대 정문 앞 상황을 전해 주었다. 5·18의 비극적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2. 전남대 앞 약속

(강분희는) 18일 드디어 계엄이 발표되고 분위기가 살벌했지만, 그 때도 전남대 정문 앞으로 갔다. 학교에는 이미 문 앞까지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잡혀갔거나 피신 중이라고 했다⁴⁵.

18일 아침, 전남대 교문 앞에는 ‘휴교령’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었고 정문과 후문은 물론 학교 안쪽으로 계엄군들이 5m 간격으로 두 줄로 겹겹이 서 있었다. 종합운동장에는 계엄군의 숙영지가 설치되었고, 이학부(현재 대학본부 앞 주차장) 건물 뒤에는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학부 1층과 2층의 각 강의실은 내무반으로 만들고, 취조실, 의무실까지 설치되었다.⁴⁶ 정문에는 군인 11명(7공수 여단 33대대 9지역대 7중대 소속 지대)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전남대 정문 앞에는 8시경부터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가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16일에 했던 약속에 따라 학교 앞으로 모여든 학생들이었다. 16일 민족·민주화대성회를 마치면서,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리면, 다음 날 오전 10시에 전남대 정문 앞에서 집결하자”며 헤어졌다. 아침에 계엄 확대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약속대로 학교를 향해 오고 있었다. 강분희(여, 20세)와 박영희(여, 21세)도 10시 약속을 지키기 위

해 학교 앞으로 나갔다. 말들이 분분했다. ‘조금 전에 교수님 한 분이 정문을 들어가려다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잡혀갔거나 피신 중이다’는 말을 들으면서 긴장감과 함께 정문을 쳐다봤다. 오전 10시경 학생들은 100여 명으로 숫자가 불어나 있었고, 그때 누군가가 구호를 외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시위 때마다 목이 터질 듯 불렀던 〈어서 모여 하나가 되자〉였다. 그리고 정문 앞 다리에 앉아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계엄령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군 물러가라.’

학생들이 구호와 노래를 한참 동안 반복하고 있을 무렵, 계엄군 장교가 앞으로 나와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 사이에도 학생들의 수는 점점 불어나 200~300명 정도가 되어 있었다. 권승만 중령(7공수여단 33대대장)이 나서 해산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그때, 갑자기 장교가 “돌격 앞으로!”를 외치자, 20여 명의 공수대원이 학생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평소 시위 때 봤던 전경들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꺼져,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더니 학생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었다. 최루탄도 무수히 떨어졌다. 한 남학생이 도망가면서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자 뒤따라오던 공수대원이 자전거를 들어 학생의 배를 향해 던지면서 복부가 폐달에 찢리기도 했다. 도망가는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상가, 민가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 기어이 찾아내 실신할 만큼 때린 뒤 끌고 나왔다.

공수대원들이 한바탕 쏘고 간 뒤, 분노에 찬 학생들은 다시 정문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시위 지도부도 없었고 주도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학생들은 흠뻑 젖다 모이기를 반복하면서 보도블록을 깨어 투석전을 벌였다. 이 무렵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합해져 시위대의 규모는 300~400명 선에 이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누군가 “도청으로 나가자!”고 외치며 이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 길로 광주역,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거쳐 금남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⁴⁷

3. 광주YWCA의 아침

18일 이른 아침, 양림동에 거주하던 임영희(여, 24세)의 집으로 이성학 장로가 찾아왔다. 간밤에 예비검속으로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임영희는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녹두서점으로 갔다. 지난 밤 연행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옆 건물에 있던 현대문화연구소로 가, 일단 중요한 서류들을 태웠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서류들이 무슨 핑계거리가 될지 몰라서였다. 대략 정리하고 나오니, 평소에도 연구소 앞에 늘 진을 치고 감시하고 있던 형사가 이날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임영희는 형사에게 “정말 어지간히 좀 쫓아다녀라.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가고 뭘 또 냄새를 맡고 그러냐”며 쏘아주곤 돌아섰다. 그 길로 YWCA로 향했다. 오전에 극단 광대의 소극장 개관 기념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한씨 연대기〉 대본 연습이 있는 날이었다. 임영희는 이현주(여, 21세)와 함께 이 연극의 주인공을 맡아 날마다 연습하던 중이었다.⁴⁸

오전 10시, YWCA 건물 내 양서조합 사무실에는 극단 광대 단원들이 대본 연습을 위해 모여 있었다. 박효선, 임영희, 이현주, 김정희(여, 22세), 김영희(여, 22세), 최인선(여, 22세), 김윤기, 김태종, 김선출 등 10여 명 정도였다. 다른 때 같으면 신명나게 놀고 있을 사람들이 계엄 확대 소식을 듣고 와 있었던 터라, 분위기가 침통한 채 가라앉아 있었다. 연출을 맡고 있던 박효선이 “그래도 연습을 해보자”고 추슬러 겨우겨우 연습에 들어갔다. 그런데 11시가 넘어설 무렵 갑자기 밖에서 “와”하는 함성과 함께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와보니 학생들이 전경들에게 얻어맞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상황에서 연습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결국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 하고 연습을 중단했다. 임영희를 비롯해 단원들은 그대로 돌아갈 수 없어 몇 명씩 짝을 지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금남로로 들어섰다.⁴⁹

5월 18일, 일요일이었지만, 이날도 작품연습을 위해 YWCA에 모였다.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일부 선배들이 잡혀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우리들은 상황판단을 한 뒤에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동명동을 지나는데, 동명동파출소 앞에서 대학생 몇백 명이 시위를 하고 있어 나(이현주)도 거기에 합류했다.⁵⁰

그날 아침에도 광대의 단원들은 대본 연습을 위해 YWCA에 모였으나 최루탄 난사 속에서도 가두시위가 계속되자 연습을 중단하였다. 나(임영희)는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가두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⁵¹

극단 광대 단원들이 연습을 위해 모여들고 있을 무렵, 맞은편 사무실에서는 이윤정(여, 25세)과 정유아(여, 27세)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10시부터 여성노동자 교육이 시작될 터였다. 이윤정은 YWCA에 오기 전, 녹두서점에 들른 상태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병란 교수의 인권, 근로기준법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날 교육은 YWCA와 살레시오수도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두 장소에서 광주·전남지역 여성노동자 중간 간부 교육이 시작되었다. YWCA에서는 버스 안내양들과 함께 남해어망, 일신방직, 전남제사, 전남방직 등 여성노동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다. 전남대 정문 앞에 있던 살레시오수도원에서는 JOC가 주관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창복 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호남전기, 삼양제사 등 70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참여했던 이날 교육은 그동안 호남전기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승리보고대회를 겸한 것이기도 했다. 원래 두 곳의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교육은 미처 끝내지 못하고 중단된다.

불길한 분위기가 먼저 감지된 곳은 살레시오수도원 교육장이었다. 이미 아침부터 전남대 정문 앞에서는 학생들과 계엄군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던 차였다.

교육이 한참 진행되던 10시 30분 정도 되었을 무렵, 수도원의 수사님이 들어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빨리 교육을 끝내라. 그리고 전남대 쪽에 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지 말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채근했다.⁵² 결국 12시 이전에 교육을 서둘러 종료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노조 조합원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겠기에 일단 모두 내보낸 뒤, 윤청자(여, 22세)와 김순이(여, 20세) 등 간부들만 몇 명이 남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먼저 YWCA로 가 보기로 결정하고, 시내로 이동했다.⁵³

하지만 사정은 YWCA 교육장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해 시민까지 가세한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고, 최루탄이 난사되어 길거리 전체가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다. 거리의 소리와 최루탄 냄새 속에서도 교육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창밖에서 소란이 심해져 밖을 보니 전투경찰(이하 ‘전경’)들이 시민들을 구타하고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다. 교육을 받던 노동자들이 큰소리로 야유를 퍼부었다. 그 소리를 들은 전경들이 YWCA로 들어와 “행사 그만 끝내고 집에 가라”고 위협하고 나갔다. 결국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4시경에 교육을 종료하였다.⁵⁴ YWCA에서 나온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금남로로 가서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 시각, 금남로 5가에 도착한 7공수여단 33대대는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18일, 연습과 교육을 동시에 중단당했던 JOC 여성노동자, 극단 광대 단원들은 역사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교육에 참여했던 회사는 남해어망, 전남제사, 광주어망, 삼화어망, 전일섬유(영암), 일신방직, 전남방직, 호남전기 등 이런 공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교육이 중단되어 쫓겨나와 그때부터 시내 시위에 참여했다.⁵⁵

나(정향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척 집에서 요기를 한 후 동료 노동자의 제복으로 갈아입고 시위대열에 가담하였다.⁵⁶

4. 도청 앞으로!

전남대에서 출발한 학생들이 광주역에서 재집결, 전열을 가다듬은 후 도청 앞 금남로에 진입했을 때는 오전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도청 앞에는 페퍼포그 차량을 앞세운 전경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흔들리지 않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등의 노래를 부르며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그때 학생들의 앞뒤로 전경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보도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들과의 간격이 3m 정도로 좁아지자 그와 동시에 페퍼포그가 발사되고, 전경들이 학생들을 덮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망가는 학생들을 쫓아 전경들의 무차별 구타와 연행이 시작되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뒤엉켜 넘어지고 거리는 독한 최루가스를 마신 시민들의 고통스런 신음으로 가득 찼다. 시위대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광주천과 충장로 쪽으로 흩어졌다.⁵⁷

충장로 안쪽 학생회관(현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앞으로 재집결한 3백여 명의 학생들이 광주천 불로동 다리 방면으로 나아가다 동구 쪽에서 오던 3백여 명의 시위대와 다시 합쳐 시외버스공용터미널로 몰려갔다. 대규모 숫자가 된 만큼 사기도 충천했다. 터미널에 들어간 학생들은 광주의 소식을 지방에 알려달라며 호소했다. 전남대 앞에서 출발해 오전 내내 시위대와 함께 한 강분회도 “김대중 씨가 잡혀 갔어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학생들이 모두 잡혀 갔어요” 외치며 시민들에게 광주의 상황을 알리기에 바빴다. 터미널 대합실에 전경들이 최루탄을 터트리자 시위대는 대인시장 쪽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이때 헬리콥터가 시위대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저공비행을 하면서 일으킨 프로펠러의 바람과 먼지 때문에 시위대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다. 시위대는 헬리콥터가 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투석하기를 반복했다. 이 작전으로 인해 결국 시위대는 계림극장 부근까지 밀리다가 수많은 학생이 끌려갔고, 나머지 학생들도 거의 흩어져 버리게 된다.⁵⁸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오후부터였다. 오전까지는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모여졌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전경들의 강경한 진압에

밀리기만 했었지만, 오후부터는 시위를 이끄는 지도부가 확실하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과감하고 격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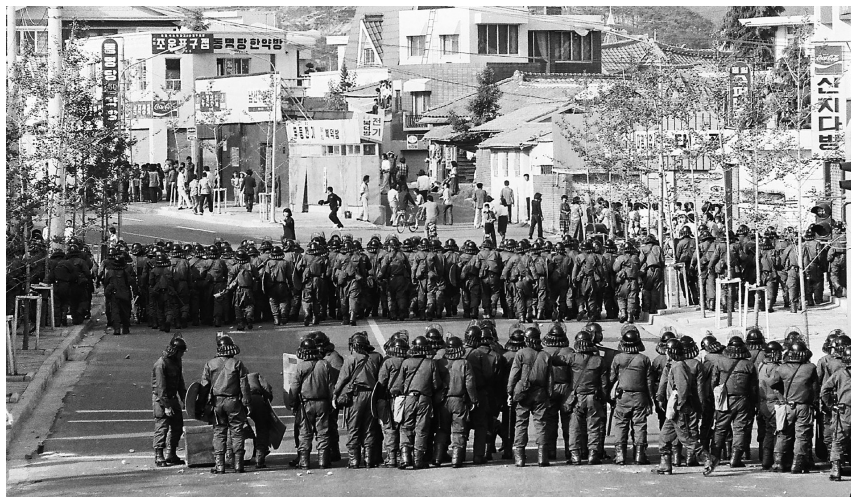
오후 2시쯤, 누군가가 광주공원 쪽에서 학생들이 집결한다는 말을 했다. 이 또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임낙평(남, 22세)은 잔류한 학생들과 함께 광주공원으로 향했다. 현대극장 부근에 왔을 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스크림을 짜고 몰려오고 있었다. 두 대열이 합류하면서 시위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광주공원 쪽으로 가면서 ‘김대중 석방하라’, ‘휴교령 철회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면서 〈투사의 노래〉, 〈농민가〉, 〈홀라송〉 노래도 부르며 전진했다. 대열의 선두에는 학생이 든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그때 태평극장 쪽에서 비슷한 숫자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오고 있었다. 대열은 서로 열싸안으며 감격했다. 사기가 오른 상태에서 도청을 향해 나아갔다.⁵⁹

광주공원을 출발한 1천여 명의 시위대는 도청을 향해 가다가 경찰기동대에 막혀 외곽을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전남대 의대 사거리를 지나 동명동으로 치달았다. 이 무렵 시위대의 규모는 2천여 명에 육박하게 된다. 이들이 동명동파출소와 지산동파출소를 파괴한 다음, 도청으로 가기 위해 다시 동명동 쪽으로 향해 진격하고 있을 때 농장다리 쪽에서 경찰들이 탄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위대는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순식간에 차량을 덮쳤다. 40여 명의 경찰을 내리게 하고, 차량에 불을 붙였다. 경찰들은 대부분 40~50대들로 지방경찰청 소속(담양경찰서)이었으며, 이미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다. 시위대가 경찰들을 인질로 잡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일단 경찰들을 무장해제 시킨 후, 여학생들은 이들에게 요구르트와 물을 가져와 경찰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시위대 안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경찰들을 그냥 보내주어야 한다는 측과 시위하다가 연행된 사람들과 교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그러는 사이 시위대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결국 인질 교환으로 결론이 났고, 시위대는 붙잡은 경찰들을 에워싼 채 전남 여고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7공수여단 35대대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한 무리는 동명로 쪽에서, 다른 한 무리는 법원 쪽에서 다가와 점차 시위대를 포위해 들어오고 있었다. 시위대는 공수부대에 인질 교환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시

위대는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들도 전경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기에, 인질 협상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시위대의 순진한 요구가 공수부대에 먹힐 리 만무했다. 그들은 갑자기 “돌격”하는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시위대를 덮쳤다. 혼비백산한 시위대는 순식간에 흩어졌다. 최루탄을 맞으며 골목 안으로 도망치는 시위대의 뒤에 공수부대의 몽둥이와 군홧발이 쏟아졌다.⁶⁰

공수부대가 질주해 왔다. 그러더니 협상이고 뭐고 없이 갑자기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도망갔는지도 모르겠다. 나(임영희)는 어느새 생판 모르는 집 2층에 올라가 있었다. 이진 진 짜 살육하려고……. 그전에 진압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전에는 두들겨 패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몽둥이로 등짝을 후려치는 것을 몇 대 맞고 비칠비칠하면서, 어떻게 도망 나왔는지를 모르겠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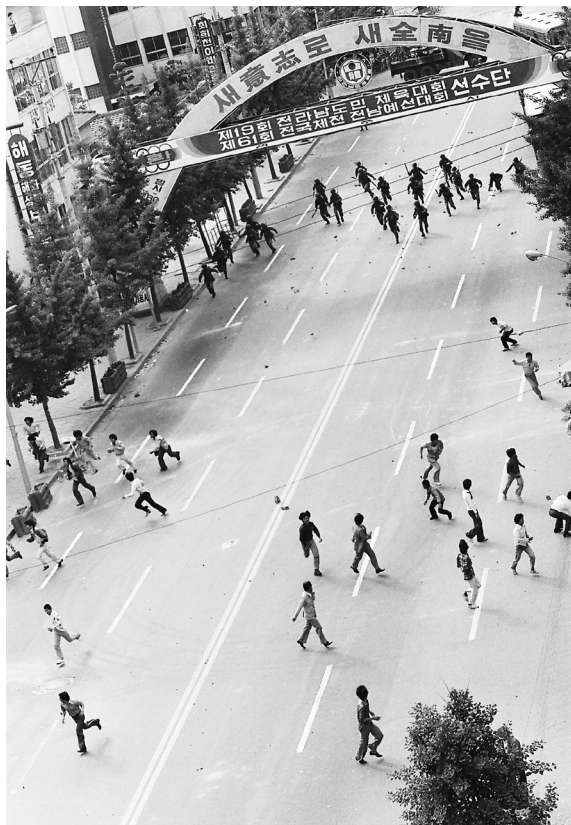
동산파출소 부근 동명로를 차단하고 있는 전투경찰 출처 : 광주일보사

5. 야만의 시간이 열린다

전남대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 33대대는 오후 3시 40분에 전남대를 출발해 오후 4시경 금남로5가(북동 180번지, 광주일고 정문 방면)에 도착했다. 이곳을 기점으로 도청 방향을 향해 진압 이동 경로를 잡았다. 조선대에 주둔한 35대대는 오후 3시 50분에 출발, 오후 4시경에 충장로 입구에 도착했다. 35대대는 금남로 좌·우측 측방을 차단한 뒤 10지역대는 충장로, 11지역대는 제봉로로 이동해 나갔다. 도청 반대쪽에서 33대대가 금남로를 중심으로 시위대를 압박하고 주변으로 해산하는 시위대를 35대대에서 체포·연행하는 작전이었다.⁶²

당시 작전개념은 33대대 병력이 유동 부근에서 도청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35대대 병력은 반대 방향으로 압축함으로써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것이었다. (중략) 33대대가 금남로 끝에서 도청 쪽으로 밀고 오므로 시위대가 금남로에서 주변에 있던 충장로 쪽으로 도망갔는데, 35대대 병력은 충장로 쪽에서 시위대를 체포하는 작전을 했다.⁶³

35대대는 도착 지점에서 시위대를 향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경고한 뒤, 30초도 되지 않아 곧바로 시위대와 가두에서 구경하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전경들과는 달리 시위대건 시민이건 결코 가리지 않았다. 진압의 대상이나 체포의 기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놀란 시위대와 시민들이 순식간에 골목과 상가, 민가로 숨어들었다. 공수대원들은 3~4명이 한 조로 움직이면서 민첩하게 그들을 쫓았다. 그리고 잡아챈 즉시 진압봉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지면 온몸을 진압봉과 발길질로 피곤죽을 만들었다. 상가와 민가로 숨어든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 찾아내 기어이 끌고 나왔다. 시위대를 숨겨준 시민들도 여지없이 구타를 당했고, 상점이나 민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시위대를 향해 돌격하는 7공수여단
출처: 광주일보사

나(이춘희)는 수많은 젊은이가 잡혀가는 걸 봤다. 때려서 옷을 벗기고 트럭에 실어 갔다. 그때는 거의 상가도 철시가 돼 있었고, 시민들도 음료수 병이라든지 이런 걸 던지기 시작했다. 너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시위를 하건 안 하건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⁶⁴

광주일고 앞 금남로에서 시작된 33대대의 진압은 충장로로 향하는 모든 길목과 대인동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방면까지 살살이 훑어가며 자행되었다. 그들은

길을 오가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무작정 세우게 한 후, 젊은이로 보이는 탑승자들을 무조건 끌어내 진압봉으로 내리치며 끌고 갔다. 일요일 오후, 결혼식에 왔다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달려든 공수대원들에 의해 가격당한 후 끌려가 트럭에 실렸다.

김순곤(남, 32세)은 공용터미널 후문에 있는 식당에서 결혼피로연에 참석하고 있었다. 밖이 소란스러워 식당 2층에서 내려다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2명의 여성이 공수대원들에게 진압봉과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공수대원들은 팔이 부러진 채 쓰러진 여성들을 질질 끌고 가더니 군용트럭에 실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 올라간 후, 승객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얻어맞고 쪽 뺏어버린 사람들을 개처럼 끌고 나와 군용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김순곤은 그 광경을 목격한 후 격분한 마음에 그날 저녁부터 시위대에 합류한다.⁶⁵

공용터미널 앞에서 '삼원다방'을 운영하고 있던 최정아(여, 45세)는, 18일 오후 다방 안에서 TV 중계를 하고 있던 박찬희 권투선수의 6차 방어전을 손님들과 함께 보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최루탄이 터지더니 사람들이 다방 안으로 피신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들어온 사람들과 별생각 없이 TV를 계속 봤다. 오후 5시 즈음, 밖이 더 소란스러워지자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주방장이 다방 셔터를문을 내렸다. 그 순간, '철그럭' 소리를 공수대원들이 듣고 몰려왔다. 곧바로 문이 올려지고, 구타가 시작되었다. 최정아가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애다"라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다. 바닥에는 이미 피가 낭자했다. 다른 종업원들도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다 등을 후려했다. 손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닥치는 대로 때리고, 최정아에게도 몽둥이질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때 어깨뼈가 부서졌다. 곧이어 다방 안 물건들을 다 두들겨 깨부수고 테이블 위를 걸어다니며 진압봉을 휘둘렀다. 공수대원들은 그렇게 다방 안을 박살 낸 후, 여성 한 명과 주방장을 끌고 나갔다.⁶⁶

6. 벌거벗긴 여성들

공수부대의 진압은 잔혹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여성들에게는 구타 외에도 옷을 벗기는 것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이 모든 것이 18일 첫날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내 도처에서 여성들이 공수부대의 대검에 옷이 찢기고 벌거벗겨지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후 신고되어 기록으로 남은 건수는 단 4건뿐이다.

7공수여단에 소속되어 있던 하사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압 당시 지역대장이 부대원들을 향해 지시사항을 내렸다. “시위대를 잡았을 때 그냥 두면 시위대가 도망갈 수 있으니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기라”, “남자들은 진압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여자들은 옷통을 벗겨라”는 것이었다. 여성들의 옷통을 벗기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옷통을 벗기면 다음에는 창피해서 시위에 못 나올 것이니 벗기라는 것이었다.⁶⁷ 이는 여성의 피해상황을 대중에게 전시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력 분쟁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폭력의 유형이다.⁶⁸

남성들도 잡히면 팬티만 남기고 벗겨버리는 일이 허다했으나, 여성들의 경우는 성적 수치심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공수대원들은 여성들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5.18. 광주 시내에 처음 출동해서) 선두 쪽에 있던 대원들이 괜히 시민들을 때리고 쥐어 패고 하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점점 수가 불어나니까 간부들이 뒤에서 모여 있다가 시민들을 연행해서 트럭에 실으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여자들은 옷을 벗기라는 지시가 대원들에게 전달되어서 대원들이 그때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들이면서 여자들을 연행하면서 옷을 벗겨 트럭에 태우고, 그 과정에서 젖가슴이나 속살이니 만지는 행위를 하였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선, 이게 된 짓거리인가 싶었고,

대원들이 완전히 미친놈들처럼 보였던 상황이 기억납니다.⁶⁹

18일 오후, 20대 초반의 여성은 수창국민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군용트럭 2대에서 100여 명의 공수부대가 내리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몸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광주일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3명 정도의 공수대원들이 그녀를 잡아채 온몸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넘어뜨렸다. 살기 위해 축늘어져 죽은 듯이 있으니, 그들이 그대로 가버렸다. 겨우 몸을 추슬러 다시 도망가려고 했으나, 다시 5~6명의 공수대원들이 달려와 더 무자비하게 진압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머리를 밟았다. 그 뒤 그녀의 옷을 모두 찢어버렸다.

군인들이 바지를 먼저 찢었고, 다음에 재킷, 마지막으로 남방을 찢었다. 한 군인이 바지의 이음새 부분을 잡은 뒤 예리한 것으로 찢은 후 잡아당기자, 바지가 한순간에 벗겨졌다. 이후 재킷 뒤쪽의 양쪽 솔기를 ‘착’ 찢어 상의까지 벗기려 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군인들은 남방까지 찢어버렸다. 가슴이 드러날까 두려워 몸을 한껏 웅크렸는데, 팬티와 브래지어만 걸친 알몸 상태에서도 곤봉 세례가 이어졌다. 머리채를 이리저리 잡아당기며 군홧발로 구타하던 중 앞으로 벌렁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아랫배를 세게 맞았다. 온몸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앞니도 깨졌다.⁷⁰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이 여성을 구해준 사람은 길을 지나가던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여성을 부축해 정차해 있던 버스에 숨겼다. 그리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할머니의 한복 속치마를 얻어 입고 귀가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버스에 올라 승객에게 구타하는 것을 참다못해 항의하는 버스 안내원들도 구타하고 성추행했으며, 추행에 저항하면 곧바로 개머리판으로 찍혔다.⁷¹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공격당할 때, 말리거나 여성을 돕는 시민들에게도 공수대원들은 가차 없이 진

압봉으로 가격했다.

공용터미널 안에서는 한 여학생이 공수부대에 쫓겨 들어와 곤봉에 맞고 쓰러졌다. 그 순간 50대 아주머니가 공수대원을 가로막서 나서면서 때리지 말라고 하자, 공수대원은 아주머니에게 욕지거리를 던지며 대검으로 그 아주머니 상의 단추가 있는 부분을 따버렸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브레이저가 보였고, 그 공수대원이 다시 브레이저 후크 부분에 대검을 대더니 위로 치켜들자 브레이저 끈이 끊어져 버려 가슴이 노출되었다.⁷²

박형수(남, 21세)는 18일 오후 동생 마중을 위해 공용터미널에 나갔다가 공수대원들에게 붙잡혀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다. 그 후 끌려가 서석병원 앞에 대기 중인 트럭에 실렸다. 같이 실린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중에 여성도 한 명 있었다. 여성의 윗옷은 갈기갈기 찢긴 채 젖가슴이 보일 정도로 걸쳐져 있었고, 아랫도리는 완전히 벗겨진 채였다. 여성은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발아래에는 그녀가 입었던 팬티며 스커트가 피로 얼룩진 채 함부로 버려져 있었다. 모두 무방비 상태로 구타당한 후라 못 볼 일이 눈앞에 벌어졌어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다만 여성 쪽으로 몸을 최대한 기울여 알몸을 가려주는 정도였다. 이때 병원 사무장이 흰 가운을 들고나와 여성에게 던져 주려다 몽둥이세례를 받았다.⁷³

대로변에서 옷을 벗기는 공수부대의 의도는 공포에 떠는 시민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 참담한 상황들을 목격했던 수많은 시민이 공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가 시위에 직접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7. 최초의 성폭행 사건

7공수여단의 광주 진압이 시작된 오후 4시경, 11공수여단은 주둔지인 동국대를 떠나 광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여단본부와 61대대로 구성된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50분이었다. 이들은 광주 시내를 관통하면서 무력시위를 하며 조선대로 이동했다. 그리고 오후 6시 정각, 전남북 계엄본소는 광주 시내의 통금시간을 1시간 앞당겨 ‘21:00~04:00’로 발표했다. 공수부대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자리에 경찰병력들이 길 양쪽으로 50여 명씩 배치되어 있었고, “시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통금시간이 9시로 당겨졌습니다”라는 가두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녁 7시경, 정웅 31사단장은 7공수여단 35대대장으로부터 시위진압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33대는 ‘16:30’에 진압 작전 종결, 35대대는 ‘19:00’에 종결했음을 보고했다.⁷⁴ 어처구니없게도 3시간 정도에 불과한 사이에, 광주시민들이 700여 명의 공수부대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고 시내 일원이 파괴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까지 합세한 시위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저녁 8시경 가톨릭센터 앞에서 다시 불어난 6백여 명의 시위대가 공수부대와 대치하다 쫓겼다. 수십 명이 연행되고 2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노동청과 한일은행 앞으로 밀렸다가 흩어지는 등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 연행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시위가 겨우 잦아들었다.⁷⁵

7공수여단은 저녁 7시에 작전 종료를 보고했으나, 그 시각 시외버스공용터미널 근처에서는 끔찍한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저녁 7~8시경, 계엄군 장교가 부하 3명을 데리고 대인동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당시 이 일대는 성매매업소들의 집결지였으며, 근처의 주택에서도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⁷⁶ 이들은 그중 한 집의 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집에서 파출부 일을 보던 27대 여성 18-d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뛰어나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느닷없이 그녀를 뒷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엄군 장

교였다. 그는 대검이 꽂힌 총을 들이밀며 협박하면서 그녀의 옷을 찢고 성폭행했다.⁷⁷

현재 자료상으로 확인된 5·18 기간 최초의 성폭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대인동 일대의 특성에 대해서는 남성들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던 상황이었고,⁷⁸ 이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5·18 기간 동안, 계엄군들은 이와 유사한 시내 장소들에서 성폭행을 자행한다.

밤 9시, 정웅(31사단장)은 작전평가회의를 열고, 7공수여단 33·35대대 병력을 도청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 및 교차로 등 거점에 배치해 시위대가 집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사이에 경찰 지소와 파출소, 도로 교차점을 중심으로 33대대는 17개 거점에, 35대대는 19개 거점에 각각 배치되었다(각각 장교 1명, 사병 10명으로 구성된 공수부대 1개 지대와 경찰 2개 분대 24명씩 배치). 이후 11공수여단의 추가 투입에 따라 밤 11시 40분에 다시 작전회의를 열어 33·35대대 배치 거점을 11공수여단에 인계하도록 지시하고, 33·35대대는 전남대와 조선대로 각각 복귀하였다.⁷⁹ 이날 정웅 사단장은 광주 시내 전역과 직장예비군 무기 및 탄약을 회수해 군부대에 보관케 하는 한편, 분산 무기고의 탄약도 군부대에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무기고 접근자에게는 발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교사(전투병과교육사령부)’는 복무 규율에 의거해 지휘관이 재량껏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⁸⁰

7공수여단의 시내 거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밤 11시, 2군사령관의 강조사항에 관한 지시가 각 공수부대에 전달됐다. 이 지시는 “공수부대 시내 출동,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전 가용 작전부대 투입”하여 “주모자 체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⁸¹ 같은 날 내려진 또 다른 지시는 “포고령 위반자는 가용수단 동원 엄중 처리”하며 “소요자는 최후의 1인까지 추적하여 타격 및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⁸² 그러나 ‘소요자’라는 전제와는 상관없이, 그날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계엄군은 광주 시내 골목을 휘젓고 다니며 가택을 수색⁸³, 젊은이들을 찾아내 끌고 갔다. 군 자료에는 18일 자정까지 체포, 연행된 사람들이 총 405명(학생 224명, 일반인 18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⁸⁴ 하지만 시민들은 이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18일 체포 기록 안에는 2명의 여성 명단이 들어 있다. 조영나(19세)와 조영미(22세)이다.⁸⁵ 조영나는 18일 오전 11경, 도청 앞 YMCA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다가, 조영미는 가톨릭센터 앞에서 시위하다가 각각 사복경찰에 의해 광주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다시 상무대로 끌려가 며칠 동안 군인들에게 무지막지한 구타를 당했다. 이후 계엄군이 퇴각하고 시민군들이 도청을 장악한 5월 21일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8. 다치거나 사라진 여성들

18일은 항쟁 기간 중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이다.⁸⁶ 공수부대가 투입된 후, 대다수 시민이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전 시위에서는 전경들의 진압대상이 정확히 시위대로 한정되어 있었고, 가두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18일은 양상이 전혀 달랐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시민들은 가두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이 시작된 직후에도 가두의 시민들은 설마 자신에게까지 공격을 가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하지만 공수부대의 진압은 그 상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던 것이다.

공수부대는 1980년 초부터 박달나무 등 단단한 나무로 만든 진압봉으로 ‘폭동진압훈련’을 받았다. 여기에 M16 소총, 가스탄, 대검, 헬멧, 가죽 군화 등으로 무장한 공수대원이 시민들에게 가한 폭력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폭동진압 교범에는 진압봉과 개머리판을 사용해 단계별로 허벅다리와 정강이, 무릎을 타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수대원들은 교범을 따르지 않고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⁸⁷ 먼저 머리(특히 후두부)를 가격해 쓰러뜨린 후, 허리나 가

슴, 배를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식이었다. 그들은 진압봉이 부러지면 주변 공사판에서 철근을 가져와 시민들을 폭행했다.⁸⁸

5월 18일, 시위의 중심이었던 금남로와 공수부대(33대대) 투입이 시작되었던 광주일고 및 공용터미널 일대에서 가장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금남로와 그 인근에서는 시위에 참여하다 부상당한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여성노동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던 YWCA에 전경들이 난입하면서 이미 진압봉 세례가 시작되었으며, 이 자리에 있던 수십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쫓겨나오면서 머리, 어깨, 등, 허리 등 가릴 것 없이 전신을 맞았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곧바로 금남로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서도 공수대원들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했다. 오전부터 시위에 가담했던 극단 광대 여성 회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1980년대를 전후해 여성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5·18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항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시내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찾으러 나섰던 여성들이 금남로 인근에서 공수부대를 만나 부상을 입었다.

대인동에 있었던 공용터미널과 그 인근에서는 주로 일반 여성들의 피해가 컸다. 특히 사람들이 운집해 있던 다방들에 공수대원들이 들이닥쳐 기물을 파괴하고 손님을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리던 주인 여성들도 진압봉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여성, 출장을 가던 여성, 시장에 장사를 하러 가던 여성 등 무수한 여성들이 구타를 당한다. 공수대원들은 길거리뿐만 아니라 민가 집안까지 들어와 여성들에게 진압봉을 날렸다.

한편, 18일에 행방불명된 여성은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시위와 무관했던 여성들이다. 이날 오전 외손자 돌 선물을 사러 나간 뒤 실종된 40대 여성, 오후에 시장을 보러 시내에 나간 뒤 실종된 10대 여성이 있다. 그리고 사촌 언니와 헤어지고 학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던 20대 여성, 절에 다녀온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30대 여성도 있다.⁸⁹

녹두서점의 밤⁹⁰

시내 일원이 아비규환이 되어가는 동안, 녹두서점의 하루도 정신이 없었다. 시내 외 주요 상황을 정리한 상황판을 만들어, 그때그때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루 종일 해냈다. 서점에 모인 정현애, 윤상원, 김상집은 일단 녹두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다.

첫째,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는다. 피신한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 다른 지역에서 상황을 물어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하자.

둘째,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잡히지 않도록 연락을 한다. 특히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과 회장단들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 상태로는 시위가 그냥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시위가 시내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점은 계속 열어 놓는다.

오후 들어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전해지는 시내 상황은 더욱 끔찍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새벽에 찾아왔던 예비검속자 부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서점으로 모였다. 서점에 몰려든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반찬을 가져오고 식사를 준비했다. 여성들은 대부분 송백회 회원들이어서 속사정을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를 같이 했다. 시내 시위 상황과 시위대 동선은 주로 정현순(여, 25세), 임영희, 윤영숙 등 송백회 회원들이 전화로 알려왔다. 부상당한 학생과 시민들이 서점으로 몰려오면서, 정현애는 약국에서 붕대, 반창고, 소독약을 사와 치료를 했다. 약국 주인도 상황을 짐작했는지 물건값보다 더 많은 약품을 주었다.

서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서로 전했다. 믿을 수 없는 흥흥한 말들이 떠돌고 있었다. 시위하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길에서 구경하는 시민들도 패서 끌고 가고, 상가에서 내려다본 사람들도 2층까지 올라가 진압봉으로 때려 끌고 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비검속자 부인들은 모

두 경악하면서 벌벌 떨었다.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이렇게 한다면, 체포된 자신의 남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갔던 윤상원과 김상집이 서점으로 돌아왔다. 하루를 점검하면서 윤상원은 아무래도 소식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상황을 궁금해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많은데 방송과 신문에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전화로 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광천동 ‘들불야학’에서 쓰는 등사기가 있으니 강학과 야학생들이 함께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현애는 금고를 열어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윤상원에게 주었다.

극단 광대 연습이 중단된 후 곧바로 가톨릭센터 앞 시위에 참여했던 임영희는 그날 저녁 녹두서점에 와 향후 상황을 같이 논의한 후, 송백회 회장 홍희운(여, 36세)의 집으로 향했다. 지역 선배들이 모두 예비검속으로 붙잡혀갔거나 피해 있는 상황,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양립동으로 발길을 옮겼다. 모두가 가슴 조이는 공포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8시경 공수부대가 장악한 거리를 뒤로 하고 기동대는 부대로 복귀했다. 통금시간이 당겨진 이유로 9시경 점호를 마치고 바로 잠을 잤다. 이날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한 나는 대원들 2명과 함께 죽음의 도시, 칠곡 같은 화정동 잿등을 지켜보며 소주를 마셨다. 대원 중 몇 명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떠올리고 잠을 못 이루며 울먹이고 있었다. 우리들 역시 공포와 분노를 느끼고 공수대원의 강렬한 인상과 참혹했던 진압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했다.⁹¹

9. 대공과로 간 유소영

17일 자정 전후로 예비검속된 이들이 연행돼 끌려간 곳은 화정동에 있는 505 보안부대⁹² 지하실이였다. 그들은 먼저 끌려온 사람들의 고문당하는 비명을 들으며 취조실로 들어갔다. 약 한 평 남짓의 취조실에는 책상이 하나 있고, 피 묻은 몽둥이와 벽에는 핏자국이 사방에 있었다. 이러한 살인적인 분위기는 위압감을 주기 위한 그들의 작전이었다.⁹³

18일 0시 30분, 자택에서 체포된 정동년(남, 38세)은 보안부대로 끌려가면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었다.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시위에 가담해서 또 징역 좀 사는구나’라는 생각만 했었다. 잡혀 들어가자마자 느닷없이 쏟아지는 구타를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시위를 하다 잡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으레 있는 상견례와 같은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밤 몽둥이질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주로 학내시위, 가두시위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⁹⁴ 조사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조사보다는 검거가 더 급한 것 같았다. 이때까지 형사들의 수사 초점은 민족·민주화대성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⁹⁵

이러한 수사 기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예비검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505보안부대에서 상무대 영창으로 옮겨진 후부터였다. 큰 함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7일 새벽 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함락되고, 상무대 영창에 있던 정동년은 그날 밤 헌병대 조사관실로 불려간다. 4명의 수사관은 어떤 질문도 없이 먼저 무작정 구타부터 시작했다. 이유를 묻는 정동년에게 수사관은 다짜고짜 “김대중 집 방문했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5월 10일 김대중의 자택(동교동)에서 가져온 방명록을 내밀었다. 당시 정동년은 김대중을 전남대 초청 강연에 모시기 위해 동교동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방명록에 기록만 남긴 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 기록이 사단을 만든 셈이었다. 이후 10여 명의 수사관이 몽둥이, 칼, 채찍 등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정동년은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목표는 김대중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정동년으로부터 받아내는 일이었다. 결국 정동

년은 고문에 못 이겨 자금을 받았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되고,⁹⁶ 이때부터 예비검속되었던 학생들과 이후 잡혀들어온 재야인사들을 ‘김대중 자금 수수’로 엮기 위한 취조와 고문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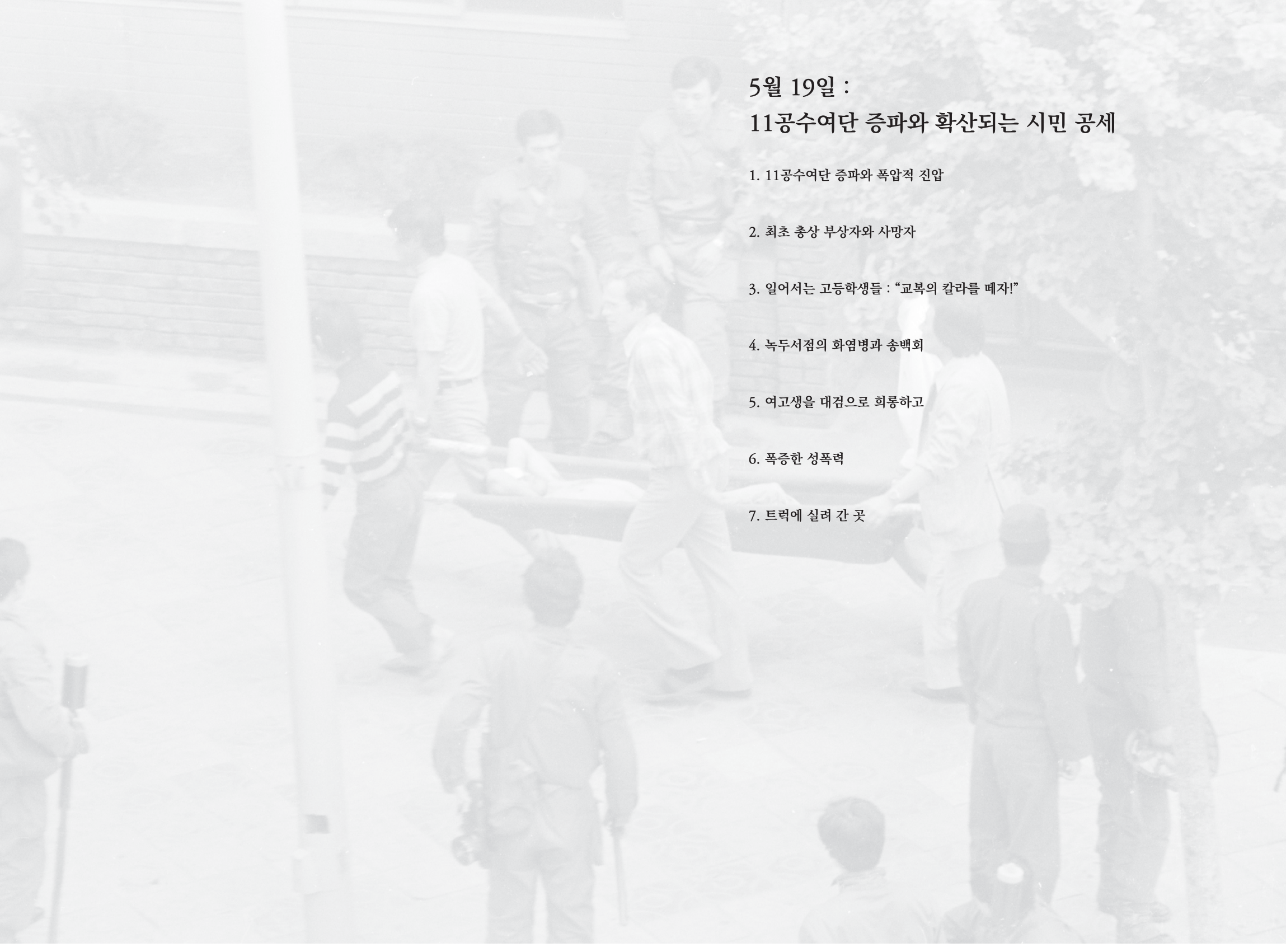
처음 6월 3일 정도까지는 일반적 시위과정만 조사했다. 그러다가 6월 5일경부터, 방향 선회가 되기 시작했다.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김대중으로부터 얼마 받았냐?” 한 가지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김대중 자금 받았냐? 안 받았냐?”⁹⁷

당시 505보안부대에서는 연행자들을 크게 3개로 분류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전담하는 ‘학사과’, 재야인사들을 전담하는 ‘재야과’, 그리고 사상 문제와 결부된 ‘대공과’ 등이 그것이다. 17일 자정을 전후해 광주에서 예비검속으로 연행되어 온 남학생들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두 학사과에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유일한 여성으로 붙잡혀 온 유소영을 담당할 곳은 남학생들과 달랐다. 유소영은 처음부터 대공과로 넘겨졌다.

유소영은 학내시위에만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비검속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수사관들의 생각은 달랐다. 유소영의 부친(유락진) 때문이었다. 당시 부친은 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살던 중이었다. 이 때문에 학내 동료들 또한 유소영이 학내시위에도 잘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유소영은 수사관들의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을 받고 있었으며, 활동 상황만으로는 도저히 예비검속 명단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속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날 연행된 유소영은 505보안부대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저녁이면 광산경찰서에서 잠을 잔 뒤 다시 보안부대로 옮겨 조사를 받는 과정을 반복했다. 수사 과정은 살벌했다. 그녀를 끌고 왔던 형사는 아버지를 수사했던 대공전담반 수사관이었다. 그 형사는 아버지를 봐서 호의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공포스러웠다. 그녀 역시 온몸을 얻어맞고 가슴에 집중적으로 발길질을 당해야만 했다. 수사관들의 목적은 명료했다. 아버지의 전력을 문제 삼아, 유소영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엮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는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소영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정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 아는 것도, 할 얘기도 없었다. 그렇게 조사받는 동안 그녀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고문과 신음소리였다.⁹⁸



5월 19일 :

11공수여단 증파와 확산되는 시민 공세

1. 11공수여단 증파와 폭압적 진압

2. 최초 총상 부상자와 사망자

3. 일어서는 고등학생들 : “교복의 칼라를 떼자!”

4. 녹두서점의 화염병과 송백회

5. 여고생을 대검으로 희롱하고

6. 폭증한 성폭력

7. 트럭에 실려 간 곳

5월 19일 :

11공수여단 증파와 확산되는 시민 공세

1. 11공수여단 증파와 폭압적 진압

5월 18일 오후 2~3시경, 전두환 군부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11공수여단을 광주에 증파하기로 결정했다. 정호용 특전사령관도 동국대에 주둔 중인 최용 11공수여단장에게 “광주에서 7공수여단 2개 대대가 소요진압 작전을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도와 시위진압에 최선을 다하라.”며 광주 출동을 지시했다.⁹⁹ 그러나 7공수여단 「전투상보」에 따르면, 7공수여단 33대대가 금남로에 투입되어 진압을 시작한 시간은 18일 오후 4시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2시간 이후의 일을 이유로 증파를 결정한 것이다. 진중채 2군사령관도 강경 진압 지시를 광주에 주둔한 7공수여단에 5월 18일 23시경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11공수여단의 광주 진압은 7공수여단의 고전과 상관없이 이미 5월 18일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19일 0시 50분, 11공수여단 62·63대대 병력이 광주역에 도착했다. 그들은 새벽 2시경, 전날 오후에 선발대가 먼저 들어와 있던 조선대로 이동을 마치고 숙영지를 편성했다. 새벽 4시, 7공수여단 35대대는 11공수여단에 배속되었고 7공수여단 33대대는 31사단 예비대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19일 오전, 11공수여단은 61대대 공용터미널, 62대대 장동 지역, 63대대는 계림동 지역에 7공수여단은 33대대 광주역, 35대대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광주 시내에 곳곳에 배치된다.

오전 10시, 시위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공식 지휘계통인 전교사에서는 윤홍정 전남북계엄분소장이 ‘광주지역 기관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시채 부지사, 이대순 교육감, 배명인 검사장, 재향군인회장, 정석환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 직무대리, 정웅 31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이 참석했다. 기관장들은 계엄군의 강경 진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폭압적인 시위진압은 앞으로 어린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뛰어들게 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공수부대를 아주 시내에서 철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윤홍정은 그 자리에서 정웅 31사단장과 지휘관들에게 유혈진압을 금지를 강력하게 지시하면서 기관장들에게는 앞으로 광주시민들을 향한 강경진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윤홍정의 이러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행자가 석방되거나 귀가 조치된 것을 제외하고 실제 시위현장에서는 11공수여단까지 추가로 투입되어 여전히 유혈 강경진압이 계속되었다.¹⁰⁰

“공수부대에 걸리면 다 죽는다”

광주시민들은 전날 공수부대의 진압 장면을 목격하고 밤새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공수부대의 잔인한 진압에 관한 소문은 시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금남로는 아침부터 교통이 차단되고, 전남도청 앞은 경찰기동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지키고 있었다. 무장한 공수대원들은 곳곳에 경계근무를 서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날 벌어진 일들은 신문과 방송에 일절 보도되지 않고 있었다.

상무대 전교사에서 ‘광주지역 기관장회의’가 열리고 있을 무렵, 이미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과 6백여 명의 군경이 대치하고 있

었다. 군경은 화성기와 500MD 헬기를 동원하여 해산을 중용했지만, 시위대는 공수부대와 경찰을 향해 야유를 보내면서 돌을 던졌다. 시위대의 저항이 거세지자, 군용트럭 30여 대에 분승한 공수부대가 도청과 광남로 사거리에서 장갑차 2대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포위하면서 압축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11시경에는 패도형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그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킨 후, 지역대 단위로 시위대 뒤를 추적하며 살상을 감행했다.

공수부대의 진압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위대를 겨냥하던 초기와 달리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바뀌어 갔다. 당시 시민들은 소란스러운 바깥 상황을 살피려 나왔거나 일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아주머니나 노인들은 자녀나 손주 또래의 청년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항의했다가 예상치 못한 폭력에 무방비로 당했다. 공수대원들은 시위 군중에 섞였다는 이유로,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들을 폭도로 상징하고 서슴없이 폭행을 자행했다.

19일 12시경 김금단(여, 73세)은 충장로5가 광주상호신용금고 옆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 가게에 가보니 아들이 공수대원 5명에게 구타당하고 있었다. 이에 노모 김금단이 항의하자 공수대원들은 그녀를 가차 없이 구타했다. 김금단은 그날로부터 1년 후인 1981년 말 구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아들 또한 구타로 인한 허리통증과 왼쪽 다리 마비로 경제활동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었다.¹⁰¹ 이 밖에도 계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내에 나온 주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찾으러 나선 어머니와 누이들이 공수대원들에게 폭행당해 병원 신세를 지고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공수부대의 진압은 거리의 시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3~4명이 한 개의 조가 되어 도망간 이들을 쫓아 인근 건물, 상가, 주택가를 샅샅이 뒤졌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낸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끌고 나왔으며, 시위대를 숨겨준 시민도 진압봉으로 내리쳐 실신시켰다.

이날 오전, 금남로에서 시위하던 학생들이 공수대원에게 쫓겨 YWCA 안으로 들어섰다. 신협 직원들이 셔터를 내리자마자 뒤쫓아 온 공수대원들이 곧바로 들

이닥쳐, 1층 신협과 2층 양서조합을 수색했다. 그들은 양서조합 직원 황일봉(남, 23세)과 학생들을 끌고 내려가 YWCA 건물 앞에서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맞은편 건물 무등고시학원생들이 ‘때리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공수대원들이 학원으로 난입하여 학생들을 끌어낸 후 발로 지근지근 밟고 다니며 진압봉, 군홧발, 소총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학원생들은 피투성이 상태로 도주하거나 군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다.¹⁰² 이때 조경숙(여, 20세)도 머리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 갔으며,¹⁰³ 심하게 구타를 당한 정방남(남, 19세)은 ‘소뇌변상 및 척추변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비쩍 마른 상태에서 1994년 사망했다.¹⁰⁴

공수부대의 만행은 경찰들에게도 행해졌다. 그들은 붙잡힌 시위대를 풀어주거나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경찰기동대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차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공수부대의 잔인한 진압을 지켜보던 경찰 간부는 시민들에게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 공수부대에게 걸리면 다 죽는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¹⁰⁵ 이와 같은 공수부대의 만행과 금남로 상황은 당시 미국CBS 서울지국 영상 기자였던 유영길 감독이 촬영하였고, 이 영상은 미국시간으로 19일 저녁 8시 ‘CBS Evening News’를 통해 서울에 머물던 도교특파원 브루스 더닝의 전화 리포트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에 보도된다.



옷이 벗겨진 채 트럭에 실린 시민들
©촬영 : 김영복
제공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 최초 총상 부상자와 사망자

오전 강경한 진압 작전을 펼친 공수부대는 점심 식사를 하러 조선대로 돌아갔다. 점심을 전후해 총장로, 금남로, 광남로 일대의 관공서와 공공건물은 모두 문을 닫고 피신했다. 한바탕 폭풍과도 같은 무력진압이 휩쓸고 지나간 뒤 잠시 소강상태이던 시위는 점심시간이 지나자 4~5천 명의 군중이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으로 모이면서 대규모 시위로 전환되었다. 지금까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을 지켜보던 다수의 시민이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위대에 대거 합류하면서 시위는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이들은 바리케이드로 금남로를 차단하고 있는 경찰기동대를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거나 기름통에 불을 붙여 군경을 향해 굴러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대형화분이나 공중전화 부스 등을 넘어트려 벽을 세운 후 공수부대와 싸우기 시작했다.

오후 3시경, 시위대는 CBS방송국 경계를 서던 일반 31사단 병력을 공수대원으로 착각하고 방송국이 위치한 가톨릭센터를 점거했다. 그리고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방송국 차량을 방화하였다. 공수부대의 만행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방송국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 시간 가톨릭센터 1층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던 임정하(남, 32세)는 센터 뒷골목으로 나가 흥안과 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 공수부대를 만나 진압봉으로 머리를 맞은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당시 그 근처에 있던 CBS 노병유 기자가 쓰러진 임정하를 발견했다. 노병유 기자는 의사 가운을 빌려 함께 있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워버그(Tim Warnberg)와 함께 들것에 임정하를 싣고 전남대병원으로 옮겼다. 덕분에 임정하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나, 2년 동안 11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¹⁰⁶ 그리고 가톨릭센터를 점거했던 시위대 중 일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일시에 들이닥친 공수부대에 의해 끔찍한 살상을 당하게 된다.

쏟아지는 최루탄 속에서도 금남로의 시위대는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투석전을 벌였으나, 곧 장갑차 2대와 함께 병력을 실은 20여 대의 군용트럭이 접근하면서 쫓겨 흩어졌다. 이들은 대인시장, 장동, 계림동, 양동, 북동까지 산발적으로 흩어지면서, 계림라식으로 시위를 확대해

갔다. 시위대는 보도블록 등을 깨서 투석전과 야유로 공수부대에 맞섰지만, 시위대를 가두기 위해 광주 천변과 유동에서 바둑판식으로 압박하는 무장 군인들을 민간인들이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후 4시 50분경, 도심 시위진압을 하던 장갑차 1대가 광주고등학교와 계림파출소 사이에서 시민들에게 돌팔매질로 공격받고 포위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중 속에 있던 시위대 한 명이 짚단에 불을 붙여 장갑차 뚜껑에 올려놓았으나 금방 떨어져 버렸다. 시위대에 있던 위성삼(남, 26세)이 불이 붙은 짚단을 다시 주워서 올려놓았다. 이에 당황한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 차정환 대위가 해치를 열고 나와 M16 소총을 공중을 향해 쏘더니 이내 주변으로도 발사했다. 누군가 “공포탄이다!”하고 소리쳤고, 부근에 있던 학생 한 명이 쓰러졌다. 그 학생은 조선대부속고등학교 3학년생 김영찬으로, 항쟁 기간 계엄군에 의한 최초의 총상환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날 김영찬은 등교했다가 휴교령이 내려져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계림동을 지날 때 시위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 섞여 있다 변을 당한 것이다. 배에 총을 맞아 피가 흥건한 채 쓰러진 김영찬을 시민들이 황급히 인근 외과로 옮겼다. 거기서 긴급 수술을 받은 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총알이 오른쪽 복부를 관통하여 좌측 엉덩이로 빠져나간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수술 뒤 사흘 후에야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¹⁰⁷

공수부대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부상자들이 급증하면서 시내 병원과 종합병원이 부상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18일은 진압봉으로 인한 부상 환자가 주를 이룬 것과 달리 19일은 날카로운 물체에 찢리거나 다친 자상 환자와 M16 소총에 의한 총상환자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결국 이날의 폭압적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 사망자 김경철(남, 29세)은 어릴 적 앓은 뇌막염으로 청각을 상실한 농아였다. 19일 금남로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공수부대에 붙잡혀 진압봉과 군화발로 온몸을 구타당했다. 다른 친구들은 도망쳤지만, 김경철은 들리지 않은 탓에 김새를 몰랐고 공수부대에 둘러싸이고 말았다. 농아신분증을 보여주며 몸부림치는 그를 공수대원이 진압봉으로 마

구 두들겨 패는 광경을 친구들이 숨어서 목격했다.¹⁰⁸ 이후 군용트럭에 실려 광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된 김경철은 뇌출혈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날 밤 계엄사령부는 김경철의 시신을 국군광주통합병원(이하 국군통합병원 혹은 통합병원)으로 이송했고 계엄사령부는 이들이 지난 21일자 오후에야 「계엄보도」에 ‘시민 1명(김행렬, 29세, 농아) 사망’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19일 밤 윤흥정 중장께 보고’라는 군기록이 존재함을 감안하면 김경철의 시신은 적십자병원보다 무고한 시민의 사망보도에 관한 군의 통제가 수월한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⁹

두 번째 사망자 김안부(남, 34세)는 항쟁 기간 중 최초의 총상 사망자이다. 그는 19일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20일 아침 오전 7시경 전남양조장 공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¹¹⁰ 그동안 김안부의 사인은 검찰의 「검시 보고」와 군 검찰의 「검시참여 결과 보고」에 누락되어 있었고, 전남대병원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 ‘우전두부 맹관총상’으로, 국립5·18민주묘지에는 둔력에 의한 사망(타박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5·18조사위’의 조사 결과, 직접 사인은 ‘전두부 맹관총상’임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항쟁 기간 계엄군의 발포에 의한 첫 사망자가 20일 광주역 근처가 아닌 19일로 정정됨을 의미한다.¹¹¹

3. 일어서는 고등학생들 : “교복의 칼라를 떼자!”

19일 이른 아침, 등교를 시작한 광주 시내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전날 공수부대가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무자비한 시위진압에 분노를 표출했다. 교사에게 “선생님, 공수들에게 맞아죽은 형



임정하를 들것으로 옮기는 노병유와 팀 원버그 ©촬영 : 나경택 출처 : 5·18기념재단

님, 누나들의 원수를 우리가 갚아야 한다.”며 울부짖었다. 격분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쳐나와 스크럼을 짜고 ‘민주교사 합세하라, 민주학생 동참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고등학교 정문 앞에는 군경이 출동해 진을 쳤고, 학교 상공에는 헬기가 돌고 있었다.¹¹²

중앙여고 3학년인 정미례는 19일 아침, 유난히 지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다 교사들도 수업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얼마 후, 학도호국단 연대장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데모를 하다 다치고 죽었다. 조의를 표하기 위해 교복의 칼라를 떼자.”고 말했다. 학생들은 연대장의 말대로 교복의 흰 칼라를 떼어냈다. 한두 시간의 수업을 받은 후, 다시 연대장이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했다. 학생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며 교실 밖으로 나왔다. 선생님들이 “안 된다.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겠다.”라고 했으나 학생들은 따르지 않았다. 연대장의 주도하에 6백여 명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 학생이 많이 죽었다.”고 외치며, 30여 분 동안

교내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위험하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온다, 교실에 들어가 있어라.”는 교사들의 계속된 만류에 다시 교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교실 안에서도 학생들은 울면서 〈우리 승리하리라〉 등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날 오후, 교사들이 “부모님에게 연락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일부 학생들은 반항하며 거부했고, 일부는 부모님이 와서 데려가거나 교사들이 모둠을 만들어 귀가시키는 등 학교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다. 정미례가 학교에서 나오면서 “고등학생 연합을 만들어야 하니 서로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많은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였다.¹¹³ 당시 호남대 신학생이었던 김병규는 이날 오후 버스를 타고 시내를 지나다 마주한 중앙여고 학생들의 분노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버스가 제대로 갈라면 금남로로 들어와야 되는데 양동시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때 양동시장 안에가 중앙여고가 있었어. 중앙여고생들 같어. 근데 여학생들이 무슨 그런 욕을 하나? 입에서 시웃자, 쌍시웃자가 붙은 욕을 하고 온 거야. 이쁜 학생들이 뭘 욕을 한단냐? 그러고 그때 곤죽이 되도록 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칼로 찌르고 그러니까 그런 광경들을 보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제.¹¹⁴

이홍재(남, 18세)는 월산동 그의 자취방으로 친구들 10여 명을 불러 모았다. 모두 한 동네에 살면서 중앙여고, 광주일고, 광주공고, 송일고, 진흥고 등에 다니는 친구들이었다. 이들은 고등학생들의 쫓겨난 호소하는 유인물을 작성하기로 결의하고, 덕림교회와 덕림사에서 구해온 등사기로 직접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급우들과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직접 배포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유인물 작성과 배포로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다음날 20일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고등학교 휴교 조치로 인해 확산되지 못했다. 고등학생들은 휴교 조치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광주시내

전역으로 확산된 시위대열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다가, 21일부터는 차량시위대나 총기를 든 시민군으로 항쟁에 합류하게 된다.

5월 19일 군 문서에 기록된 광주 시내 고등학교 동향¹¹⁵

10:00	중앙여고 1,400여명이 교내 집결, 경찰 4/179명이 교문 대기
11:13	대성고 3년생 60여명 교실에서 수업거부 농성, 요구사항은 계엄해제
11:15	대동고 2학년 3반 60명 교문에서 수업거부 노래와 농성 중 계엄해제 요구
12:00	중앙여고 현재로 교장 설득에 의거 전원 교실로 철수
14:00	광주일고 12:10경 학생 2,000여 명이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운동장에 집결하고 교사들의 설득으로 교실에 들어가 현재 대기 중
14:30	대동고 3년생 240여 명이 노래를 부르며 수업 거부하자 학교 당국에서 1년생부터 하교시키고 있음
15:56	광산여고 총학생회장 3학년 김영란은 정광고 총학생회장과 점심시간에 만나 5교시(14:35)가 끝나면 교외로 뛰어나가자고 합의하고, 김영란은 동교 5명을 소집 행동 통일토록 결의
16:58	대동고 15:00를 기하여 짝을 지어 스크럼 싸고 정의가를 부르면서 운동장에서 시위 중, 16:00 현재 전원(1,000여 명) 귀가 상황 끝
17:00	광주일고 개별적으로 귀가 분산 중
17:10	중앙여고 교장이 1년생부터 5분 간격으로 반별 완전 귀가 조치

4. 녹두서점의 화염병과 송백회

19일 오전 10시경 정현에는 정상출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에 조퇴신청을 한 후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퇴가 4개월 넘게 이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터미널 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데모하던 학생 무리를 군인들이 쫓아와 다짜고짜 때리고 쓰러진 학생들을 화장실로 질질 끌고 트럭에 실어 갔는데 그중 2명은 숨이 끊어졌다고 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람이 죽었다는 화장실로 가 봤으나 청소하는 분들이 닦아 놓아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정류장 밖으로 나오니 군인들이 길 양쪽에 2m 간격으로 총에 대검을 꽂은 채 서 있었다.¹¹⁶

서점에 도착하니 저마다 보고 들은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무조건 옷 벗기고, 심지어 여학생들도 옷을 벗기고 때려서 잡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정현애는 윤상원, 김상집과 함께 계속 이곳저곳에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송곳과 면도칼이라도 소지하라고 했다. 공수가 진압봉으로 내리치면 일단 머리를 막아 쓰러지지 않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칼이나 송곳으로 공수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망가라는 행동 요령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여섯 명이 뭉쳐서 다니고, 혼자 떨어져 나온 군인이 있으면 품에 지닌 송곳이라도 들고 싸워야 한다며 행동 수칙을 공유했다.¹¹⁷

이런 와중에 생머리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한 여성이 서점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상윤의 후배와 같이 학습했다.”며 “고등학생들을 데모에 가담하게 할 수 있다, 박관현 회장을 연결해 달라.”는 상식 밖의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살피며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의심이 들었다. 그녀의 질문에 정현애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 갑자기 나가버렸고, 뒤따라가 보니 남자들 두세 명과 가고 있었다. 서점에 있던 사람들도 그녀가 프락치나 정보와 형사 같다고 했다. ‘잡아서 혼썰을 냐어야 하는데 그냥 보내서 아쉽다’는 말들이 나왔고, 누군가 서점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¹¹⁸

그 사이 녹두서점 뒷방에서는 윤상원과 송백회 회원들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함께 화염병을 만들었다. 화염병 제작은 19일 오후까지 계엄군에게 시위대가 쫓기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었다. 정현애는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녹두서점에 오는 사람들에게 빈 병을 모아달라고 하였다.¹¹⁹ 화염병은 윤상원과 청년·학생들이 가져다 시위에 사용했고, 송백회 회원들도 한

두 개씩 갖고 나갔다.¹²⁰

임영희는 19일 내내 열심히 뛰어다니며 구호를 선창하는 것을 본인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녹두서점, YWCA, 도청, 무등극장, 가톨릭센터 등 시내 중심가를 돌아다니며 시위에 참여했다.¹²¹ 그날 오후 3시경, 그녀는 광주시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보도를 전혀 하지 않는 방송국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런 방송국을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학생 몇 명과 함께 녹두서점에서 가져온 화염병을 MBC방송국에 투척하였다.¹²² 이것은 10일간의 항쟁 기간에 MBC가 받은 세 번의 공격 중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녀 일행의 화염병 투척으로 MBC 옆 가전제품 판매점인 문화상사와 길가 차량에 불이 붙었지만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송백회 회장 홍희운은 시간이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보고 예상보다 항쟁이 길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극단 광대와 들불야학 사람들이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시위의 전면에 나서게 되자 이들에게 활동자금을 지원하기로 한다. 그녀는 전일빌딩에 위치한 은행에서 송백회 회비와 개인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해 정현애와 이윤정에게 전달하며 필요한 곳에 쓰도록 당부하였다.¹²³

5. 여고생을 대검으로 희롱하고

저녁 7시, 시내 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 중무장한 군인들을 상대로 몽둥이나 곡괭이 정도로 맞서면서 하루 종일 집결했다가 해산당하기를 반복했지만, 시위는 그칠 줄을 몰랐다. 저녁 8시가 넘어서면서 역전파출소, 누문동파출소, 임동파출소, 양동파출소가 시민들에 의해 점거, 파괴됐으며, 밤 10시경에는 KBS 방송국으로 물려갔다. 공수부대의 만행이 극단적으로 치달을수록 시민들의

분노도 높아져 갔다. 특히 이날 여성들이 당했던 일들은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남성 시민들이 항쟁에 직접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천순남(남, 27세)은 19일 도청 옆 보이스카우트 건물과 마주한 골목길에서 공수부대가 여자를 붙잡아놓고 옷을 벗겨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힌 채 손으로 속옷을 당기는 것을 보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런 공수부대를 그냥 보고만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시위대에 가담하게 된다. 천순남은 이후 시민군이 되어 항쟁 기간 식량보급반으로 활동했다.¹²⁴ 박남선(남, 26세)은 19일 양동 복개상가 앞에서 공수부대가 흰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가슴을 대검으로 희롱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광경을 보고 격분한 시민들이 “그러지 말라” 항의했고, 한 할머니가 “내 새끼를 왜 이러느냐?”고 말하자 할머니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공수대원들을 향해 시민들이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돌을 던졌다. 이내 공수대원들은 대검을 들고 그들을 쫓아갔다. 이런 극악무도한 상황을 목격한 박남선도 시민군이 되어 항쟁 기간 도청지도부 상황실장으로 활동하게 된다.¹²⁵

서경원(남, 43세)은 19일 북동성당에서 열리기로 한 농민대회가 경찰의 차단으로 무산되자 조비오, 김성용, 정규완 신부 등과 함께 가톨릭센터가 있는 금남로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서경원 일행은 금남로에 장갑차를 앞세운 공수대원들이 젊은 사람들을 쫓아가 가차 없이 몽둥이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어 최루탄 가스가 자욱하고, 쫓고 쫓기는 공방전이 계속되는 거리에 한가운데 여대생처럼 보이는 여성이 상의가 벗겨져 유방이 노출된 채로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20명의 젊은이들이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경원 일행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길가에는 구두, 힐, 고무신짝들이 널려 있고, 시내 담벼락 곳곳에는 시민들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전봇대와 전화박스가 부서지고 깨어져 나뒹구는 시내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¹²⁶

당시 의무 전투경찰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박시훈(가명, 남, 24세)은 19일 시위 진압과정에서 출근길로 보이는 원피스 차림의 여성에게도 공수대원

들이 고향을 지르며 때려눕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가톨릭센터 앞에서 공수대원이 부부처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녀를 군홧발로 걷어차고, 피가 낭자하는 남자를 닦아주는 여자를 향해 또다시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투경찰이었던 본인도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고 고백했다.¹²⁷

6. 폭증한 성폭력

공수부대의 성폭력은 19일 들어 폭증하게 되는데, 피해여성 및 가족들의 증언에 의해 기록된 건수만 13건이다. 이 중 6건이 ‘5·18조사위’에서 진상규명되었다. 18일(3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 이는 공수부대의 진압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 4시부터 공수부대가 투입된 데 반해, 19일엔 아침부터 시위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길었던 만큼, 피해도 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날의 성폭력은 강제탈의를 포함, 추행, 강간(4건) 및 강간 미수(1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이날부터 집단강간의 형태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강간 1건은 임신부의 태아가 사망할 정도의 사건으로 끔찍한 잔혹성을 보인다. 또한, 여고생들은 성폭력 피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확한 성폭력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낮 도심 시위진압 현장에서는 강제탈의와 강제추행, 재생산폭력이 자행되었다. 금남로 상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19세 여성 19-B는 이날 거리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퇴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점을 나왔다. 그때 쫓아오던 군인(공수대원)이 어깨를 잡아채서 벽 쪽으로 밀어 가슴을 추행했다. 장소는 막다른 골목이었고, 입구 쪽에 군인 2명이 더 있었다. 군인의 얼굴을 쳐다보면 나중에 보복당할까 두려워 눈을 감아버렸다. 이후 ‘그때 왜 출근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 극

심한 자기혐오에 빠졌다. 출산 이후에도 모유수유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신체 노출 트라우마를 겪었다.¹²⁸ 금남로 한일은행 앞에서 33세 임신부 19-D는 공수부대원의 폭행으로 유산하였다. 공용터미널 인근 상가에서도 32세 임신부 19-E는 시민연행에 항의하다 구타당하여 유산하였다.

밤이 되자 강간 및 강간 미수사건이 일어났다. 19-C는 차량 운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전남여고 인근에서 2명의 군인에 의해 강간당했다. 다른 군인들은 차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이후 그녀는 하혈과 함께 아이를 유산했다. 하지만 가해 군인들에게서 났던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평생을 따라다녔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냄새에 민감해졌다. 그 후유증으로 가정생활도 순탄치 못했다.¹²⁹ 31세 여성 19-F는 시위하다 다친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처치에 필요한 도구를 챙겨 나오는 길에 공수대원을 만났다. 그는 19-F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대검으로 상·하의를 찢은 후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응급처치용 가위로 공수대원의 어깨를 힘껏 찢은 후, 치욕을 입고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도 찢르고 기절했다. 다행히도 인근 병원에서 그녀의 비명을 듣고 나온 사람들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¹³⁰

19일 발생한 성폭력 가운데 특징적인 유형은, 시위 현장에서 여성들을 체포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제3의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 강간하는 형태이다. 18세 여성 19-D는 학교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시골집에 내려갈 생각으로 시외버스공용터미널로 가다가 30대 여성 두 명과 함께, 총으로 위협하는 공수대원들에 의해 야산으로 끌려갔다. 운전사까지 총을 들이댄 채 10분 정도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저항하다 온몸을 얻어맞았다. 이후 정신 이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면서 학업도 중단했으며, 한때 비구니로 살기도 했다.¹³¹ 18세 여성 19-f는 18일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찾아 나섰다가 공수대원들에게 붙잡혀 트럭에 실려 끌려갔다. 알 수 없는 으스스한 숲속에서 그들에게 강간을 당한 후, 긴 시간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정신과 병원을 찾는다. 대학도 휴학하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1986년 12월, 그녀는 고향 집 마당에서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¹³²

한편, 19일에 행방불명된 여성은 3명으로, 모두 시내에서 실종되었다. 친구와 함께 시내 시위에 참가한 10대 여성, 일자리를 구하러 시내에 나갔던 40대 여성이 사라졌다. 점심 식사 후 시내에 나갔던 20대 여성은, 금남로 3가 한일은행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녀의 뒤로 계엄군이 뒤따라가는 것을 이웃집 아주머니가 보았으며, 그 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7. 트럭에 실려 간 곳

19일 아침까지 계엄군에게 붙잡혀 트럭에 실려 온 시민과 학생들은 상무대로 옮겨졌다. 18일 붙잡혀 전남대와 조선대 운동장 그리고 31사단 등에 있다가 광주경찰서를 거쳐 상무대에 도착한 것이다. 계엄군은 이들이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이 새끼들 본보기로 죽여 버려야 한다.”, “고개를 쳐들면 쏜다.” 등 온갖 협박의 말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남자들은 팬티만 입힌 채 바로 기합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 진이 빠지게 한 후 영창에 수감시켰다. 영창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어 방사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앞에 앉아서 감시하면 각 방이 한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곳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함께 수감되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하혈을 해서 피 때문에 청바지가 딱딱해져 앉아 있기도 불편할 정도였다. 그 모습들을 보고 너무도 끔찍한 상황이었어서 기억하기도 싫었다.¹³³

11공수여단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폭력적인 진압의 강도는 거세졌고, 이어 시

민들을 무분별하게 연행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연행자 중 여성의 숫자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5·18조사위’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결과보고서를 통해 19일 여성 1명의 연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여성은 시위 가담 여부와 상관 없이 계엄군에게 체포, 연행되었고, 공공장소에서 신체 노출이라는 고초를 겪었다.

19일 오후 2시, 21세 여성 19-A는 고향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 도착했다. 터미널에서 밖을 보니 군인들이 젊은이들을 쫓아가 진압봉으로 때리고, 최루탄을 터트리는 모습이 보였다. 자취집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정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 함께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난리가 났다며 집으로 빨리 오라”고 했다. 그때 갑자기 2명의 군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를 붙잡고 대검이 장착된 총으로 구타를 하면서 옷을 찢었다. 날카로운 대검이 등에 닿더니 겹옷과 속옷이 사선으로 찢어져 맨살이 드러났다. 계엄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도 죽고 싶냐”며 그녀를 승차장 쪽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그녀보다 먼저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상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린 상태로 엎드려 있었다. 그녀도 그들 사이에 엎드렸는데 옷이 찢어진 그녀가 안타까운지 누군가 양복 상의로 덮어주었다. 얼마 후 군용트럭에 태워졌고 계엄군이 “눈감아, 너도 치박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어느 운동장에 하차하고 보니 그녀가 다니는 대학이었다. 여기저기서 연행된 사람들이 기합을 받고 있었고, 한 줄로 세워 질문하며 욕하고 때렸다. 그녀에게는 왜 시위에 참여했는지 물었다. 대학생으로 고향에 다녀오던 길이라고 답하니 죽일 듯이 노려보며 욕을 했고 때리려 했으나 지휘관이 만류하여 구타는 피했다. 지휘관의 말 한마디로 그녀는 풀려났으나 때는 이미 어둑해진 시간으로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19-A는 이 일을 겪은 후 자신의 자취방을 아지트 삼아 김대중의 내란음모 체포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이것이 발각되어 10월 경찰에 또다시 연행되었다.¹³⁴

3공수여단과 20사단 증파 결정

정웅 31사단장은 오전에 군이 약속했던 유혈 강경진압 금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위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유혈 강경진압을 지켜보면서 광주시민을 향한 이러한 군의 대응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날 밤 11시경, 정웅은 권승만 7공수여단 33대대장, 김일옥 35대대장, 최웅 11공수여단장, 안병하 전라남도 경찰국장 등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강경 진압 중지, 무혈진압, 대검사용 금지, 진압봉 머리 타격 금지, 시위대 분산 주력, 연행 금지 명령을 담은 ‘31사단 작전 명령 제3호’를 지시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웅 사단장의 의지와는 달리 전개되고 있었다.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광주시민들의 시위에 시종일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윤홍정, 정웅 등 현지 지휘관들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중앙의 군부 실세들인 주영복 국방부 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광주 소요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으며 계엄군 증파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은 3공수여단과 20사단을 증파시키기로 결정했다. 지역 기관장들은 무고한 시민들의 유혈사태 확산을 막고자 나름 고심했으나 전두환 군부세력은 오히려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억누르기 위해 계엄군을 추가로 증파한 것이다.¹³⁵

그리고 정웅 사단장이 ‘31사단 작전 명령 제3호’를 지시하고 있던 그 시각, 3공수여단 5개 대대 1,392명(장교 255명/하사관·사병 1,137명)의 병력이 부대를 출발해 청량리역을 향하고 있었다.



5월 20일 : 폭발적 저항과 불타는 가두

1. “내 아들이다”
2.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
3. 교체된 진압봉
4. 민주 기사들의 봉기
5. 불타는 파출소
6. 광주MBC 화재
7. 광주역 집단 발포
8. 어머니들의 부상과 아이들의 실종
9. 계엄군 주둔지역의 성폭력

5월 20일 :

폭발적 저항과 불타는 가두

1. “내 아들이다”

5월 20일 아침 7시경, 3공수여단 전체 병력이 광주역에 도착했다. 이들이 출동할 당시 휴대한 탄약은 개인별 M16탄 60발 등 경계용 탄약 휴대 규모를 벗어나, 대침투작전에 준하는 규모의 탄약을 휴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3공수여단은 정웅 31사단장의 안내로 숙영지인 전남대로 이동했다. 일명 최세창(3공수여단장) 부대라고 불리는 3공수여단이 들어오자 7공수여단 33대대는 숙영지를 전남대에서 조선대로 옮겼다. 오전 8시,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각 대대가 도청, 상업은행, 광주은행, 한일은행, 계림파출소에 배치되었다.¹³⁶

전날부터 밤새 내리던 비가 오전 9시경에 그쳤다. 비가 내리던 새벽 4시에는 시민궐기를 호소하는 유인물이 광주 시내에 뿌려졌다. 아침 라디오에서는 “광주 시민 여러분, 공수부대는 이미 철수했습니다.”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지만, 시민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3공수여단이 투입되면서 자리 배치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을 찾아 신문사, 방송국, 경찰서 등지를 돌면서 수소문하고 다녔다.

오전 10시경, 대인시장 주변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날 아침 이광호(남, 21세)는 금남로 쪽으로 들어가려다 MBC방송국 앞에서 더 이상 가지 못했다. 공수부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전남역고 뒤쪽으로 돌아 대인시장 앞으로 갔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공수부대

의 만행들을 이야기하며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이날 아침 광주공원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안부의 소문도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헬기에서는 “데모하는 사람들은 자중하라. 직장도 근무하지 말고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흥분한 시민들은 보도블록을 깨어 전경과 공수부대가 있는 곳을 향해 있는 힘껏 던지기 시작했다. 대인시장 노점상 여성들은 빵과 우유, 김밥 등 먹을 것을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며 몸조심하고 잘 싸우라고 격려했다.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가슴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주변의 시민들은 “광남로와 시민관은 공수부대가 장갑차부대를 주둔시켰다. 이쪽은 전경이 있으니, 저쪽으로 가라!”며 위험한 곳을 알려주기도 했다.¹³⁷ 시위대는 광주고등학교를 돌아 시민관 사거리로 진입했다. 하지만 금남로에 도착하기도 전에 장갑차를 앞세운 공수부대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시각 금남로와 충장로는 상가들이 완전 철시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다. 공수부대의 경계도 삼엄했다. 정태호(남, 19세)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충장로로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나오는데, 광주우체국 앞에 조금 전까지도 없었던 1백여 명의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수대원들은 정태호를 보더니 갑자기 쫓아오기 시작했다. 순간 당황한 정태호는 건너편 건물 2층의 미용실로 뛰어들었다. 미용실의 주인아주머니가 쫓아온 공수부대원들에게 “내 아들이다”라고 해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그를 수협 건물 앞까지 바라다주기까지 했다.¹³⁸ 김행주(남, 16세)도 백운동에서 친구들과 아침 일찍부터 시내로 나갔다. 시내 여기저기에서 시위에 합세하여 돌도 던졌다.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고, 거리는 최루탄이 터져 있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매웠다. 황금동 쪽으로 갔더니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길거리에 늘어놓은 모습도 보였다.¹³⁹

대검에 쓰러진 여성들

오전 11시, 공수부대의 시내 배치와 완료되고,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졌다. 이미 그 이전부터 공수대원들은 연행한 시민들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민들의 긴장된 분위기가 서서히 소규모 시위로 발전해 폭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대검 살상은 오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명원(남, 41세)은 이날 오전 가톨릭센터 앞에서 젊은 남녀를 반으로 나눈 뒤 두 군데서 기합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쪽은 7~8명 정도였고 한쪽은 2~3명 정도였다. 동작이 조금만 느리면 진압봉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짐승이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옆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¹⁴⁰ ‘옆드려뻘쳐, 뒤로 누워, 옆으로 누워, 다섯 번 굴러, 쭈그리고 앉아, 손을 귀에 대고 뛰어, 옆드려 기어, 한발 들고 서’ 등 수없는 갖가지 동작을 강제로 하게 했다. 이런 동작에 여성들의 곤욕스러움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¹⁴¹

김연태(남, 33세)는 이날 오전 어수선한 바깥 상황 때문인지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오전 11시쯤 사무실 문을 닫고 지하상가 공사장 근처로 걸어 나왔다. 가톨릭센터 부근에서 금남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우’하는 소리와 함께 전남도청 부근에서 무장한 공수대원들이 진압봉과 대검을 들고 쫓아오는 것이었다. 도망가느라 정신없이 뛰는 도중 지하상가 공사장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파란색 얇은 스웨터에 회색 바지를 입은 30~40대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김연태가 그녀를 일으켜주기 위해 목을 감쌌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몸은 축 처진 상태였다. 머리 뒷부분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대검에 찔린 것 같았다. 김연태는 공수부대의 눈을 피해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공수부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하도로 도망가는 여학생을 보고 공수대원 한 명이 쫓아갔다. 공수부대원은 여학생을 끌고 지하도 위로 올라온 뒤 진압봉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여학생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공수대원은 더욱 악랄하게 굴었다.

대검을 들고 여학생의 옷을 갈기갈기 찢었다. 순식간에 옷은 모두 찢어져 벗겨졌고 팬티만 입혀져 있었다. 여학생의 몸은 이곳저곳이 대검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다. 여학생의 가슴에 대검을 들이대고 “찢러 죽여 버려야 해. 너는 간첩이야!” 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 여학생은 어깨너머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는데, 공수대원은 한 손으로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제쳤다. 여학생은 반항도 못 하고 쓰러지듯 내팽개쳐졌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김연태는 온몸이 부르르 떨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세상에..., 세상에...’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그에게까지 공수대원들이 쫓아왔다.¹⁴²

2.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

오전 10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전남북계엄분소장 윤홍정이 소집한 두 번째 광주지역 기관장 회의가 전교사에서 열렸다. “시민들의 분노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공수부대를 철수시키든가, 철수가 불가능하면 공수부대 복장을 일반 군인 복장으로라도 교체해달라.”는 기관장들의 건의에 윤홍정은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답을 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20분간 각계 시민 대표 56명과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 외 참모 8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남의사회장, 전남약사회장, 한국부인회 광주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수부대의 과격진압과 유언비어 문제가 제기됐다.¹⁴³

실제로 19일을 지나면서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라는 등의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유언비어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 소문 때문에 경상도 표시의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시위군중들에게 돌팔매를 맞는 일도 일어났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19일, 20일 이들 동안에 벌어진 극히 소수 사례일 뿐이었다. 전교사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에 ‘유언비어 중 경상도군인이 전

라도 사람을 모두 죽인다고 하였으나 광주 시내 거주 영남 출신자 및 군인 가족 피해 전무함¹⁴⁴이라는 기록이 있다. 광주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지역감정 때문이 아니라 계엄군의 폭압적이고 살인적인 진압 행태 때문이었다.

개인적인 항의도 있었다. 당시 광주YWCA 회장이었던 조아라(여, 68세)는 전날 YWCA 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고 20일 광주에 도착해서 광주 소식을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계엄군의 YWCA 난입과 2층 양서조합 황일봉의 구타, 건너편 전남고시학원생 구타 연행 사실을 전해 듣고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려 미공보원으로 한달음에 쫓아갔다. 거기서 그녀는 책임자를 만나 “계엄군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조만 하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이오. 당신들은 민주주의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왜 죄 없는 시민들을 죽이는 거야? 한미연합사령부가 군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군인을 투입해 양민을 학살하다니.”¹⁴⁵

한편, 서울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5월 20일 오전에 전두환을 찾아간다. 김 추기경은 전날 광주에서 올라온 윤공희 대주교를 통해 광주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당장 이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당시 실권을 잡고 있는 전두환을 만나러 간 것이다. 전두환을 만난 곳은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은 궁정동 바로 그 집이었다. ‘이런 유혈사태를 지속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간 김수환 추기경은 전두환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전화가 왔다. 시시각각 광주에서 사태가 자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군의 보고 때문이었다. 한 시간도 채 머무를 수 없었다. 이야기는 중단되었고, 전두환은 “지금 내란 사태가 벌어졌다. 미안하지만 지금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국방부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고 말았다.¹⁴⁶

3. 교체된 진압봉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고, 시위대열이 곳곳에서 공수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후 1시 20분경 상업은행과 충장로, 도청 앞에 각각 2백여 명, 계림동 지역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공수부대가 장갑차를 앞세우고 진압하자 시위대는 광주로 쪽으로 밀려가며 대형화분과 가드레일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도로변의 시민들은 공수대원들에게 야유하고 공수부대는 확성기로 경고하며 대응했다.¹⁴⁷ 오후 2시 40분경에 계림극장 옆 다리에서 시위대 70여 명이 공수부대와 대치하다가 해산당하고, 같은 시간 계림동 동문다리 근처에는 중·고교생 200여 명이 모여 공수부대와 대치하다가 가스탄을 발사하자 해산됐다.¹⁴⁸

오후 3시경 금남로에 모이는 시민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청년들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금남로로 쏟아져 나왔다. 군경은 최루탄을 쏘며 몰려드는 군중을 해산시켰지만 금방 다시 몰려왔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중들은 금세 수만 명으로 불어났다. 청년 학생들의 주도로 금남로-중앙로 교차로와 지하상가 공장 부근에서 연좌 농성이 시작됐다. 시위양상은 시민들의 공세로 바뀌었고, 금남로 여기저기서 수천 명 단위의 충돌이 벌어졌다.¹⁴⁹

같은 시각, 송정리 비행장에서는 서울에서 공수된 진압봉을 접수하고 있었다. 계엄사는 19일, 특전사와 2군, 3군 및 수도군단, 1군단 등에 육군 1공병여단에서 제작한 진압봉을 수령하도록 지시했다. 총 1만 개의 진압봉 중 5,438개가 특전사에 할당됐고, 이 중 2,313개가 광주로 공수됐다. 새로 배분된 진압봉은 원래의 진압봉보다 길이가 긴 것이었으며, 송정리에서 곧바로 시내 시위진압을 하고 있던 각 공수여단과 전교사에 배분됐다. 3공수 710개, 7공수 420개, 11공수 638개, 전투병과교육 545개 등이었다.¹⁵⁰ 이로써 지난 이틀 반 동안, 시민들의 몸에 끔찍한 상흔을 남겼던 진압봉은 더욱 위세가 강해진 상태로 시민들을 향해 된다.

오후 3시가 지나자 시내 중심가는 최루탄 가스로 꽉 찼고 시위대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각 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무차별적인 최루탄 속에서도 수창

국민학교 옆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였다. 이와 함께 무등경기장에서는 택시 40여 대가 광주역 쪽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 시청에서부터 금남로, 대한극장, 대인동 골목에 이르기까지 온 시내가 시위대로 가득 찼다. 이때 총장로에 운집한 시위대가 스크럼을 짜고 도청을 향해 육탄돌격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였지만 시위대는 대도호텔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며 ‘살인마 전두환은 물러가라.’, ‘군은 38선으로 복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¹⁵¹

대인동과 금남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잠깐 일을 보러 길을 나섰던 여성들이 공수대원들에게 붙잡혀 온몸을 구타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효순(여, 44세)은 오후 4시경 김치를 담그기 위해 대인시장으로 갔다. 밖이 소란스러웠지만 시장이 집과 가까워 금방 다녀오려고 한 것이다. 대인시장 입구에 이르렀을 즈음 시민관 사거리에 진주해 있던 공수대원들이 갑자기 그녀가 있는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시장 보러 가는 평범한 주부라 거리낄 것이 없었지만 공수부대의 잔인함을 익히 들었던 터라 시장 안으로 도망쳤다. 몇 명의 시민들과 함께 어느 가정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곧바로 뒤쫓아 온 공수대원들에게 그 안의 사람들 모두 붙잡혀 밖으로 끌려 나왔다. 공수대원들이 이효순의 머리를 진압봉으로 내리치고 온몸 여기저기를 두들겨 뺐다. 그들이 사라진 후 주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인근 제재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니 큰 도로에 교복차림의 남학생이 꼭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다. 식구들이 연락을 받고 그녀를 업고 왔는데, 집안은 그녀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당장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병원에 가면 군인들이 다 죽인다는 말에 포기하고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고 지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머리의 통증은 계속되고 온몸은 새까맣게 멍들어 있었다.¹⁵²

금남로에서 시위대와 군경이 공방을 벌이고 있던 4시경, 친척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던 최봉희(여, 43세)는 점점 다가오고 있던 공수대원들을 피해 가톨릭센터와 전일빌딩 사이의 3층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피신하려고 들어섰던 곳의 출입문을 닫기도 전에 공수부대가 뒤쫓아와 사람들을 패기 시작했다. 그녀도 진압봉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맞았는데,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왼쪽 머리를 만졌을 때 너무 당황했다. 영락없이 바람 빠진 공처럼 한쪽 머리가 푹 꺼져버리고, 찢

어진 자국에서 하얀 뇌가 보인 것이다. 그녀는 병원에서 마취도 못한 상태로 아홉 바늘을 꿰매야 했다.¹⁵³

공수대원들에게도 빵과 우유를

오후 5시경 동구청 쪽에서는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더욱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학생 한 명이 지하상가 공사장 한국은행 쪽 입구의 난간으로 올라서더니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이를 보던 시민들도 따라서 외쳤다. 얼마 후 어떤 시민들이 자동차용 배터리에다 소형 앰프를 달아 만든 확성기를 들고 시위대 가운데로 들어가 선동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먼저 가신 님들과 같이 죽읍시다.” 그러자 시위대의 사기가 한꺼번에 고양되었다. 시민들은 계속 붙어났고, 할머니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살인마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어디선가 “공수들을 똥자” 하는 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열이 편성되었다. 각목과 쇠파이프 하나씩을 든 건장한 청년들이 선두에 서고 공수부대의 저지선을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갔다. 이제 구경만 하거나 방관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었다. 도로 부근의 상점이나 주택가에서도 물통과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밖으로 내놓았고 리어커와 자전거는 공사장 주변의 돌과 자갈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시민들은 최루가스가 터져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주머니들과 요식업소 여성들도 물수건과 치약을 준비하여 군중들 사이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시민들은 얼굴과 코밑에 치약을 바르기도 했다.¹⁵⁴

시위 군중은 연좌 농성을 하다가 공수부대가 오면 흩어졌다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모두 함께 스크럼을 짜고 육탄돌격을 하는 등 치열하게 시위에

동참하였다. 공수부대는 진압봉을 휘둘러 농성장을 피투성이로 만들기에는 했으나 골목까지 쫓아오거나 대검을 쓰지는 않았다. 공수부대가 소규모로 쪼개지면 오히려 군중들에게 거꾸로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부터 공수대원의 집요한 추격은 줄었다. 이제 더 이상 시위대를 추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소수의 공수대원이 추격하면 골목으로 쫓기다가도 시위대가 갑자기 돌아서서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빈발했다. 비좁은 골목의 앞뒤에서 수많은 시위대에게 포위되면 공수대원이 오히려 고립돼 공격을 당하는 처지로 변했다. 이렇게 되자 공수부대는 분산 배치된 병력을 대대단위로 통합하여 대규모 시위대와 맞서는 대응 방식으로 전환했다.¹⁵⁵

오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나와 시위에 참여했던 김행주(남, 16세)는, 오후에도 조흥은행 앞에서 시위대열 속에 있었다. 그때 공수대원들이 시민들의 수에 밀렸는지, 아니면 오랜 진압에 지쳤는지 은행 앞에 추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김행주는 며칠간 공수부대라면 이가 갈리고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더니, 며칠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쭈그리고 있는 것을 보니 무섭고 미운 생각보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더 들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걷어졌다. 당시 공수부대에게는 가게에서 물건조차 팔지 않을 때였다. 모은 돈으로 빵과 우유를 구해 군인들에게 나눠주었다. 김행주는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고 서서 돌과 최루탄으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야 하는가. 그들도 우리의 형제이고 친구인데 말인데...’라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¹⁵⁶



군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시민 ©촬영 : 이창성 출처 : 5·18기념재단

4. 민주 기사들의 봉기

저녁 6시가 되자 무등경기장에 택시 100대와 6대의 버스, 트럭들이 집결했다. 차량 행렬은 임동~유동삼거리 경로와 광주역~시외버스공용터미널 경로로 나뉘어 이동한 뒤 금남로에서 합류했다. 트럭과 버스 위에는 청년들이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차량 행렬 뒤로는 2천 명의 시민이 뒤따랐다. 도청으로 가는 길에 다른 택시들도 합류하여 차량 행렬은 200여 대로 늘어났다. 저녁 6시 30분경 차량 행렬이 일제히 전조등을 밝힌 채 금남로에 진입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맨 앞에 택시 몇 대가 오더니 짐을 가득 실은 대한통운 소속 12톤 대형 트럭과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따르고, 그 뒤로는 영업용택시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채 뒤를 따랐다. 이를 보고 있던 시위대 중 누군가가 “민주 기사들이 드디어 봉기했다.”면서 공수들을 밀어버리자고 소리쳤다. 이재의(남, 24세)는 이 광경을 바라보다 ‘민중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이 나서 앞장서 나아가

자고 소리치기도 했다.¹⁵⁷

저녁 7시경, 선두의 버스 8대, 택시 50여 대, 10톤 화물트럭 1대가 동구청 앞까지 진출했다. 시민들은 모두 흥분하여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고 승리에 찬 모습들이었다. 택시와 버스 기사들 역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도청을 향해 전진했다.¹⁵⁸ 버스 속에는 태극기를 든 청년, 각목을 든 젊은 여성들도 타고 있었다. 물밀듯 밀려오는 차량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광주시민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다. 비인간적인 계엄군의 폭압에 쫓기면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광주시민들은 그 시간 금남로에서 민중들의 투쟁 역량을 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¹⁵⁹

19일에도 택시로 시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적어서 무산되었다. 20일 무등경기장으로 150~200대의 차량이 모였다. 아직 헤드라이트를 켜진 이른 시간이었으나(5시, 6시) 모두 헤드라이트를 켜고 광주역을 지나 유동으로, 그리고 금남로를 통해 도청으로 향했다. 시민들의 환호 또한 대단했고 도청 앞의 공수대들도 움츠러들었던 것 같다. 수백 대의 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모여드니 그 여세가 가히 대단했다. 나는 그때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금남로에 들어서서 한참 도청으로 진입하려는데 최루탄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골목으로 빠져나왔는데, 뒤에 들으니 유리창을 깨고 곤봉으로 안내양, 기사, 가릴 것 없이 때리고 잡아갔다고 했다.¹⁶⁰

택시 기사들은 당시의 시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택시 운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며 보니 공수대원들이 젊은 사람만 보면 차에서 끌어내려 때리고 기사가 말리면 기사도 같이 폭행하는 것이 아닌가. 공용터미널에서도 시외에서 차가 들어와도 젊은이들을 끌어내리는 모습들이 여러 번 목격됐다. 광주시민들 사이에는

“안내양도 죽였다.” “기사를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 “시민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의 소문들이 흥흥하게 나돌고 있었다. 택시기사 이정팔(남, 33세)은 20일 오전, 서부경찰서 앞에서 공수부대가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젊은 학생을 끌고 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타하는 것을 보고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집결 시간이 되어 집결 장소인 무등경기장 앞을 가보니 이미 많은 택시들이 준비하게 줄지어 있었다. 그곳에 모여서 간단하게 집회를 갖고 차량에 탑승했다. 선두차량이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도청으로 향했다.¹⁶¹

시민들과 차량 행렬이 다가오자 도청을 방어하던 11공수여단 61·62대대는 급히 도로 옆 화분대를 도로 중앙으로 옮겨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저녁 7시 20분경부터 군경은 차량 행렬에 엄청난 양의 페퍼포그를 쏘아댔다. 금남로 거리는 온통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시야가 가려졌다. 그 사이 공수대원들은 골목 부근에 숨어 예의주시하면서 공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선두에 있던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서자 공수대원들이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운전기사과 시민들을 난타하면서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쏘아대는 독한 가스탄이 진격하는 차량의 유리문을 부수며 차 안에 떨어졌다. 차를 멈춘 운전기사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연기 속에서 사방을 헤맸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구역질을 하면서 비틀거렸다. 이 틈을 타고 공수대원들이 달려와 진압봉으로 때고 군홃발로 짓밟은 뒤 연행해갔다. 차량 주위에 서 있던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만행을 보면서 돌을 던졌고, 금남로에서는 비명과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공수부대원들은 도망가는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 대검으로 찌르기도 했다.¹⁶²

이날 차량 시위에서 잡힌 사람들은 도청이나 광주경찰서로 끌려갔다. 조선대 부속고 1학년인 임재구(남, 16세)는 공수대원에게 끌려가 YMCA 앞의 도로에 앉아 있었다. 25~26명의 시민들이 잡혀와 있었고, 모두 땅에 코를 박고 옆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잠시 후 임재구는 이들과 함께 미니버스에 태워져 도청 사무실에 갇혀 있게 되었다. 여기서 공수대원들의 구타는 멈추질 않았고, 잡혀온 사람들의 얼굴들은 부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다. 공수부대원들

은 ‘평생 불구로 만들겠다.’라며 군화와 진압봉으로 척추를 찍어댔다. 머리를 앞 사람 가랑이에 처박고 뺨 둘러선 상태로 한 방이 가득 찼다. 공수대원들은 5~10분 간격으로 들어와서 계속 때렸다. 모두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처럼 덜덜 떨었다.¹⁶³도청 본관 뒤편에도 대략 40~50명의 잡혀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역시 고개를 처박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 중 여성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성은 옷이 거의 벗겨진 상태로 정신을 잃고 책상 위에 누워 있었다.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도 공수대원들이 너무했다고 생각했는지 잡혀있는 시민들에게 물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그러다 공수대원에게 들키면 주전자는 박살이 났다. 공수대원들은 경찰관들조차도 아무렇게나 대해 경찰관들도 겁을 먹었다. 이날 저녁 도청 안으로 잡혀간 이들은 땅에 엎드린 자세로 밤을 섰다.¹⁶⁴

5. 불타는 파출소

저녁 8시경 전투경찰 1백여 명이 남동성당과 전남대 의대 오거리 사이에서 버스 2대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그때 시민들은 양쪽 바리케이드 사이 너머에 있는 골목 등에 모여 있었다. 거의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었다. 전투경찰은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르더니 갑자기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로 전남대병원 오거리가 가득 찼다. 불어난 시위대는 그 기세를 몰아 학동파출소까지 진출하였고, 잠시 후 학동파출소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격앙된 시민들은 이를 보고 함성을 질렀다.¹⁶⁵

강분회는 바깥 상황을 살피려 나가보니 학동파출소가 불타고 있었다. 전남대 의대 앞 사거리와 도청으로 나가는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도청 방향에서는 군인들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각목과 돌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강분회는 시위대와 함께 돌을 주워 나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치약을 얼굴에 바르고 고무호스를 사용해 계속 물을 뿜었다. 두 시간 가량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다 지



화염에 싸인 광주역 부근 ©촬영 : 이창성 출처 : 5·18기념재단

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학동 쪽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내려오는 중·고등학생들이 보였다.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었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노동청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돌격”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여섯 명의 공수대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진압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온갖 욕지거리를 해댔다. ‘이렇게 죽는 구나’ 싶어 “엄마”하는 신음이 나오자 “이 쌍년아! 엄마 좋아하네, 가시내가 데모를 해? 저년 대학생 같은데 죽여 버려!”라며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옆에 있던 공수부대원이 칼을 뽑아 들고 자신이 처치하겠다고며 끌고 가 도로가에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땅에 처박았다. 옆에는 대여섯 명의 어린 학생들이 맞아 쓰러져 있었고 공수부대원 몇 명이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려 뛰어갔다. 그 사이 칼을 뽑아든 공수부대원이 다시 그녀를 끌고 그 옆 불탄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도 너만한 여동생이 있다. 여기 있으면 죽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 했다. 그 순간 혼이 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멍청히 서 있는 그녀를 구석에 밀어 넣고 가버

렸다. 숨을 죽이고 한참 있으니까 조용해졌다. 다시 나와 밖을 보니 여전히 공수 부대가 서 있었다. ‘이젠 할 수 없이 이대로 앉아 죽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체념했다. 잠시 후 갑자기 불빛이 비치고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렸다. 잠시 후 불빛이 대낮같이 환하게 비치고 공수대원들이 욕을 하며 도망갔다. 시민들이 큰 트럭에 불을 질러 공수부대를 밀어버렸던 것이다.¹⁶⁶

이날 밤 9시 경까지 학동파출소를 포함, 산수동파출소, 양동파출소, 계림동파출소가 불탔다. 김영민(남, 43세)은 계림동파출소가 부서지고 불에 타는 것을 목격하였다. 순식간이었다. 파출소가 불타는 계림극장 사거리에는 시민들이 공수 부대와 대치하면서 격렬한 투석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어떤 여고생이 최루탄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공수부대들이 달려와 그 여고생의 발을 짓밟고 끌고 가려는 순간 시민들이 공수대원들에게 달려들었고 여학생을 구출해냈다. 김영민은 여고생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서 근처 동성제재소로 데리고 갔다. 얼굴과 손목을 씻어주며 정신을 차리게 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¹⁶⁷

한편, 밤 9시 20분경 노동청 앞 오거리에서는 돌진하는 광주고속 버스에 깔려 경찰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밤 광주고속버스 기사 배용주(남, 34세)는 광주~남원 간 정기운행을 마치고 터미널에 도착했더니 회사 간부가 그에게 고속버스에 시위대원을 태우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동료 운전기사 김갑진(남, 30세)과 서너 명의 시위대원을 태우고 노동청 오거리를 지나 상무관 앞에 다다르자 군경들이 페퍼포그와 최루탄을 쏜 새 없이 터트렸다. 배용주는 정신을 잃고 운전대를 놔버렸으나 시동이 걸린 차는 그대로 군경 저지선을 향해 내달았다. 버스는 도로 귀퉁이로 미끄러져 어딘가에 부딪치며 멈추었는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차가 멈추자 그는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이때 시위진압을 위해 동원됐던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차에 치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¹⁶⁸

6. 광주MBC 화재

밤 8시가 넘는 시각, 시위대 400여 명이 MBC방송국 앞에 모여 있었다. 당시 까지도 MBC는 광주 상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오락프로그램만 방영하고 있었다. 방송국과 가까운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공수부대의 총과 칼에 죽어가고 있는데 불순분자의 난동, 김대중의 배후 조종, 폭도라는 허위, 왜곡 보도와 계엄당국의 강경 일변도식 발표만이 보도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시위대가 방송국 앞에 가 있을 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시민들 중 몇 명이 목재소에서 큰 나무기둥을 가져와, 수십 명이 힘을 합쳐 닫혀 있는 방송국 문을 강타했다.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방송국 뒤편에서 불길의 솟아올랐다. 치솟은 불길은 건물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수많은 시민, 학생은 환호성을 질렀고 박수를 치면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독재 타도” 등을 외쳤다. 뒤늦게 달려 온 소방차는 시민들의 환호성에 접근도 못 하고 모두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불이 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¹⁶⁹

이때 문화방송국 뒤편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시민들은 방송국 앞쪽에 있었고 문을 열려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뒤편에서 불길이 솟았는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의문이 간다.¹⁷⁰

녹두서점에 있던 정현애는 ‘갑자기 ‘핑’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놀라서 나가보니 MBC 건물 위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세찬 불길이 솟고 있었다. 불길이 솟은 것을 본 윤상원, 김상집, 박효선이 다시 서점으로 돌아왔다. 박효선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건물 뒤쪽 3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에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곳은 세트장이어서 휘발성 물질이 많아 금방 불이

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민들이 직접 MBC에 불을 질렀을 것 같지는 않았다. MBC방송국 옆 건물에 ‘문화상사’라는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었는데, 그곳에 불이 옮겨붙을까 싶어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때 중앙국민학교 쪽으로 꺼내놓은 전자제품들을 훔쳐가거나 훼손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¹⁷¹

광주MBC방송국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시위대에 의한 집단방화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제3자에 의한 방화인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그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김용철(남, 24세)은 방송국을 태우자는 아우성과 함께 MBC방송국 건물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외쳐대며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밖에서 이를 보던 시민들이 사다리를 대어 주자 방송국 안에 있던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고 이후 바로 MBC방송국의 2층, 3층에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순식간에 까맣게 그을렸다. 서채원(남, 19세)도 그 시간 광주MBC방송국 건너편에 있는 전남여고 담 근처에서 화재를 목격했다. 통나무 같은 길로 50~60명이 ‘으쌔으쌔’하고 밀어버리니까 방송국 셔터문이 부서졌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변압기에서 ‘파박!’ 하고 불이 튀면서 삽시간에 불이 당겨졌고, 바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서채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 전기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당시 변압기를 만질 사람은 주변에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었다. 일반 시민들은 겁나서 어찌 손을 댔겠소?”라고 말했다.¹⁷²

시위대와 공수부대는 MBC방송국 앞에서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였다. 공수부대가 최루탄을 쏘면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으로 맞섰다. 한번은 시위대가 공수부대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밀어붙이자 공수부대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 쪽으로 최루탄을 쏘면서 밀고 왔다. 수많은 시민이 방송국 맞은편의 전남여고 담을 넘거나, 골목으로 피신했다. 김경환(남, 20세)은 사촌 형제들과 함께 시내로 나가 시위대에 섞여 문화방송국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최루탄이 쏟아지면서 시위 군중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함께 나간 형제들과 헤어지고 말았다. 그는 전남대학교병원 부근 골목에 이르러 추격하는 공수부대에게 붙잡혀 진압봉으로 머리를 맞고 대검으로 배를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공수대원들은 김경환이 죽자 그 자리에 두고 가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김경환의 사인이 구타와 대검에 의했다고 알려졌으나 총상 사망자라는 것이 ‘5·18 조사위’의 조사로 확인되었다.¹⁷³

7. 광주역 집단 발포

오후 6시, 양동사거리 일대를 지키던 3공수여단 15대대는 지시에 따라 광주역으로 이동한다. 16대대는 전남대와 신안사거리를 방어하고, 12대대도 저녁 7시경 시청에서 광주역으로 이동했다. 밤 9시 50분, 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각 대대에 M16 실탄을 배부, 장착하도록 한 뒤 시내에서 작전 중이던 예하 모든 대대장에게 광주역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3공수여단이 광주역에 전부 집결한 것은, 19일 증파하기로 결정된 20사단 병력의 도착 예정지인 광주역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21일 새벽 0시 26분경 제 20사단 병력 광주역 도착을 송정리역으로 변경 도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교사 「작전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⁷⁴

밤 9시 30분경, 대인동 시민관과 시외버스공용터미널 거리를 채우고 있던 2천~3천여 명의 시위대원은 광주역 부근 KBS방송국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광주역 앞 도로에는 3공수여단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위대는 광주역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공수부대가 무섭게 달려들면 골목으로 도망을 갔다가 공수부대가 밀리면 다시 골목에서 나와 투석전을 전개했다. 시위대가 악을 쓰면서 달려가 돌을 던지면 공수부대는 최루탄을 쏘았다. 최루탄을 몇 발만 쏘아도 “우”하고 밀던 시위대들은 순식간에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되풀이했다. 공수부대에게 쫓기던 시민 몇 명이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주위에 있던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가득 든 드럼통

을 끄집어내 트럭에 싣고 광주역으로 향했다. 공수부대의 바리케이드 20m 전방에서 운전하던 청년은 뛰어내리고 트럭은 천천히 전진해가서 바리케이드에 부딪혔다. 엄청난 폭발음이 나고 불길이 치솟았다. 암흑천지였던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뒤이어 시위대는 동양고속버스 몇 대를 몰고 공수부대를 향해 밀고 들어갔다.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은 채 공수부대 방향으로 차량을 돌진시킨 후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때였다. M16 자동소총의 연발사격 소리가 나면서 시위대 맨 앞에 섰던 청년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차 뒤에 유리창이 “퍽!” 하면서 깨지고 바로 차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배를 움켜쥐면서 쓰러졌다.¹⁷⁵ 이날 밤 차량을 이용한 시위대의 공격은 수십 차례 이어졌으며, 20여 분 동안 지속된 집단 발포에 광주역 인근에서 사망한 시민은 7명,¹⁷⁶ 총상 부상자는 16명이었다. 밤 11시 20분, 2군사령부가 발포금지와 실탄 통제 지침을 하달하였으나 3공수여단이 전남대로 퇴각하기 전까지 발포가 이어졌다.

광주역에서 데모하는 모양이니 나갔다 오겠다며 밤 10시경에 집을 나간 남편이 밤새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부터 광주역 부근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으나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새벽녘에 설핏 잠이 들었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새벽 5시였다. 남편이 광주역에서 총에 맞아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부근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가서 보니 남편의 가슴에 총구멍이 커다랗게 나 있었다.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 남편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자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남편은 3일 후에 죽었다.¹⁷⁷

이날 광주역을 향해 돌진하는 시위대 차량에 공수대원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전남대 근처 신안사거리에서는 3공수여단 16대대 정관철 중사가 전복된 시위대의 화물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5·18 기간 중 최초로 사망한 계엄군이었다.¹⁷⁸

도청 앞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밤이 되어도 시민들은 무수히 많은 차량으로

도청을 향해 돌격해 왔고 불타버린 차량들 잔해가 도청에 남아 있었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 도청 앞에 탐조등을 설치하여 운집해 있는 시위대를 향해 계속 비추는 작전을 펼쳤다. 밤중에 불빛을 들이대면 시민들이 두려움에 흩어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흩어지기는커녕 시민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울렸다.¹⁷⁹ 계엄군은 공포를 쏘아대다가, 밤 11시경부터 M16 자동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시청 앞에서도 사격이 개시되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월산동파출소, 지원동파출소, 백운동파출소를 점거해 나갔으며, 시내 곳곳의 시위는 자정을 넘겨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

8. 어머니들의 부상과 아이들의 실종

20일에도 자식 걱정애 길을 나선 여성들이 구타 및 총상으로 인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다. 김앵도(여, 42세)는 중학생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시청 앞에서 부상을 당했다. 호남전기에서 구내식당을 하고 있던 김앵도는 서방 주위와 시내가 어수선했지만 구내식당이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튿날에 있을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남편은 아들을 찾지 못한 채 먼저 장성으로 출발했고, 그녀도 시청 쪽으로 나가보았다. 시청 앞에서 최루탄을 쏘아대고 있어 앞뒤를 분간할 수 없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 위쪽으로 무엇인가 파편이 튕 것 같았다. 그 순간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¹⁸⁰ 당시 시청 앞에서는 3공수여단의 발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김앵도의 부상은 총상에 의한 것이었다.

15일부터 광주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던 마순란(여, 46세)은 당시 대학생이던 큰아들이 걱정되어 도저히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다. 공수대원에게 맞아 부상당한 환자들이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새벽에 병원을 몰

래 빠져나와, 집을 향해 걸어갔다. 무등경기장 앞에 이르렀을 무렵, 그곳을 지키고 섰던 공수대원이 마순란을 불러 세웠다. 이것저것을 묻던 그는 집을 확인해야겠다며 따라오다 갑자기 “아들 있소?, 아들이 대학생이요?”라며 물었다. 그때 공수대원들이 집마다 뒤져 젊은 사람을 잡아간다고 들었던 말이 생각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었다. 공수대원은 마순란이 이상했는지 다그치며 욕박지르다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군홧발로 짓밟았다. 다리, 얼굴 등 온몸을 얻어맞고 질질 끌려가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¹⁸¹

그리고 이날 3명의 여성이 실종되었으며, 일가족이 행방불명된 사건도 일어난다. 어머니와 함께 화순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9세 여아, 집안 심부름을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14세 여학생이 있다. 일가족 실종사건은 송정역 인근에서 일어났다.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은 가족과 함께 무안에 내려왔다가, 5월 20일 10시 30분발 여수행 기차를 타고 무안을 출발했다. 그날 이 기차는 목적지까지 못 가고, 송정역까지만 운행한 후 멈췄다. 송정역에서 내린 후 다른 가족과 전화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4명의 가족이 모두 행방불명되었다.¹⁸²

9. 계엄군 주둔지역의 성폭력

5월 20일 공수대원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3건이다. 이 중 1건이 ‘5·18 조사위’에서 진상규명되었다. 공수대원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19일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이날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시위양상 때문이다. 이날 공수부대의 진압작전은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 잔혹하게 펼쳐졌으나, 오월항쟁사에서 20일은 ‘전면적인 민중항쟁의 날’로 명명될 만큼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날이다. 대략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금남로를 가득 채웠으며,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

의 저항도 지난 이틀과는 달리 공격 태세로 전환되었다. 이 때문에 공수부대들 또한 시민들에 의해 쫓겨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의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0일에도 시위진압 중에 여전히 여성들이 강제탈의 당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기록상의 3건은 모두 야간과 새벽에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학동파출소에서 불길에 치솟고 있을 무렵, 당시 전남대병원 방향의 공수부대들이 학동 방향 쪽의 시위대를 향해 쫓아오면서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 시간 18세 여성 20-A는 남광주시장 인근의 언니 집에서 공부하고 학동 집으로 향하는 길에 시위대에 휩쓸리게 되었다. 시위대를 쫓던 공수부대를 피해 전남대병원 방향으로 뛰어가다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공수부대원 다섯 명이 20-A와 남성 1명을 폭행했다. 군인들은 20-A를 벽 쪽에 밀어붙이더니 성추행을 하였고, 양쪽 어깨 부위를 대검으로 찌른 뒤 군홧발로 차고 가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20-A는 당시 인근에 숨어 있던 학생들의 도움으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¹⁸³

22세 여성 20-a는 광주교육대학에서 백림약국 인근 집으로 가던 중 공수부대에 구타당하고 옷이 찢긴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발견된 직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정확하게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 수피아여고 인근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34세 여성 20-b는 계엄군에게 끌려가 구타당하고 실신한 뒤, 강간당했다.¹⁸⁴ 20-a와 20-b는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거점별 경계근무 및 책임지역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이다. 새벽에 백림약국 주변에서 발생한 20-a 사건은 인근 광주교육대학에 주둔한 계엄군에 의한 것이며, 야간에 수피아여고 인근에서 발생한 20-b 사건은 당시 기독교간호대와 호남신학대에 주둔 중이던 계엄군에 의한 것이었다.



5월 21일 : 피의 대가로 계엄군을 몰아내다

1. 잠들지 않는 광주 : 전옥주와 차명숙의 가두방송
2. 협상대표로 나선 전옥주
3. 여성들의 주먹밥
4. 도청 앞 집단 발포
5. 전남대 전투 : 임신부 최미애 총상 사망
6. 속출하는 부상자와 헌혈 활동
7. 차량시위대와 항쟁의 확산
8. 21일의 녹두서점
9. 투사회보를 만든 여성들
10. 총격 속에 사라진 여아

5월 21일 :

피의 대가로 계엄군을 몰아내다

1. 잠들지 않는 광주 : 전옥주와 차명숙의 가두방송

5월 21일 0시, 광주는 잠들지 않았다. 곳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공수부대와 시위대의 치열한 전투로, 두 눈 부릅뜨고 깨어있었다. 시위대는 지칠 줄 몰랐다. 공수부대의 살인적인 시위진압 만행이 강도를 높일수록 시민들의 저항과 시위도 한층 가열되었다. 0시 30분경 고속버스 3대와 3,000여 명의 시위대가 조선대학교 앞에서 정문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으며, 0시 40분경에는 성난 시위 군중에 의해 광주세무서가 불타기 시작해 새벽 2시경 전소되었다.¹⁸⁵ 광주역을 지키던 3공수여단에 대한 시위대의 분노와 공격이 한층 가열되자 3공수여단은 새벽 2시에 전남대로 퇴각을 시작했다. 새벽 5시경에는 광주역 앞 KBS방송국도 불이 붙었다.

20일 밤부터 시위대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거리에서는 시위대를 독려하는 날카롭고도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용달차에 매단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격렬하면서도 단호했다.

“계엄군 아저씨,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 동생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일 밤 성난 군중들의 대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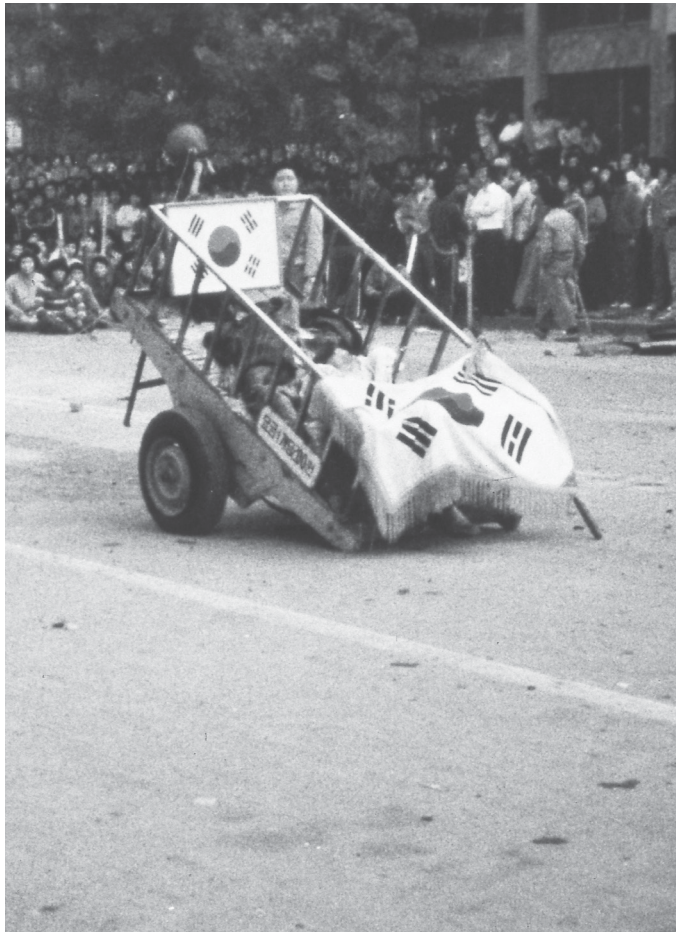
지휘하며, 내 머릿속에 꽉 찬 한 가지 생각은 이대로 외치다 죽어도 좋다는 것, 내 목숨 역시 저 참혹한 몇 구의 시신들처럼 이미 죽은 목숨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폭력과 참상, 거대한 불의에 대한 맹렬한 적개심과 분노가 솟구쳐 나를 어떤 지점으로 끝없이 휘몰아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¹⁸⁶

이 가두방송의 주인공은 전옥주(전춘심에서 개명, 31세)¹⁸⁷와 차명숙(19세)¹⁸⁸이었다. 20일 오후 1시경, 두 사람은 금남로 시위 현장에 있다 시위대의 가두방송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가두방송을 하던 어떤 남성이 차명숙에게 “혼자서 하기가 지치고 힘드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는 차명숙에게 방송문안을 써주면서 마이크를 건넸다. 차명숙은 메모를 받아 그대로 방송했지만, 방송을 하다 보니 메모에 없는 다른 내용들도 술술 나왔다. 차명숙이 가두방송을 하다가 지치면 옆에 있던 전옥주에게 마이크를 넘겼다.¹⁸⁹

전옥주와 차명숙의 여성 특유의 목소리는 애절하고 호소력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이끌어냈고, 공수부대에게는 심리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김범태(남, 26세)와 함께 용달차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 금남로, 광남로, 유동, 임동, 광주역 등 격전지를 오가며 시위대를 격려하며 가두방송을 전개했다. 한번은 전파사에서 구입해 사용하던 방송장비가 고장 나자 학운동 동사무소 옥상의 스피커와 앰프를 떼어내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21일 새벽 2시, 전옥주와 차명숙이 가두방송을 하며 선도하는 2천여 명의 시위대는 양동복개상가를 거쳐 광주천을 따라 내려가다 일신방직, 전남방직, 무등경기장을 경유하여 광주역으로 집결했다.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는 격렬한 상황에서 전옥주의 방송은 광주역 근처 시위대의 사기를 드높였고, 공수대원들의 귀에 선명한 각인을 남겼다.

21일 새벽, 시위대는 공수부대가 철수한 광주역에서 2구의 시신을 발견하였다.¹⁹⁰ 둔력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허봉(남, 26세)과 총상으로 사망한 김재화(남, 26세)였다. 광주역 광장은 차량 시위로 돌격했던 차량의 잔해들이 불에 타

양상한 뼈대를 드러낸 채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전옥주와 차명숙은 광주역에서 발견된 희생자 2명의 시신을 리어커에 싣고 태극기로 덮은 다음 금남로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앞까지 1천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벌였다. 그때까지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소문은 무성했으나 직접 시신을 시위군중의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¹⁹¹



리어커에 실린 시신 2구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 협상 대표로 나선 전옥주

21일 아침 전옥주와 차명숙은 시신을 실은 리어커와 함께 금남로에 섰다. 수천의 시민들이 그들의 뒤에 있었다. 전옥주는 공수부대 대대장에게 시내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이 전옥주와 대화에 나섰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계엄군 철수, 연행자 즉각 석방, 폭력사용 금지’ 등이었다. 안 중령은 전교사에 머물고 있는 11공수여단장 최웅 준장에게 무전으로 시위대의 요구를 전한 후 지침을 기다렸다. 잠시 후 최웅 여단장은 ‘도청 사수 명령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철수 불가, 체포자는 전원 경찰에 인계해서 계엄군이 보호하고 있지 않음, 시위대가 폭도화하지 않으면 일체 폭력 사용 금지’ 등 계엄군의 대응 방침을 내렸다. 그러자 시위대는 “더 이상 계엄군과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도지사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부대 대대장들은 더 이상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결국 도지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전옥주, 김범태(남, 27세), 김상호(남, 21세) 등이 협상 대표가 되었다. 7공수여단 35대대장 김일옥 중령이 도청으로 전옥주 일행을 안내했다.¹⁹²



도지사와의 협상대표단 (왼 안은 전옥주) ©촬영 : 나경택 출처 : 5·18기념재단

도청 안으로 들어간 전옥주 일행은 주민등록증 제시 등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구용상 광주시장을 만났다. 한참 후 장형태 도지사가 들어왔다. 협상 대표는 시민들의 요구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지사 자신도 “시민들 못지않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계엄군이 주둔하면 도지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지사는 ‘공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계엄 당국과 책임자 면담 주선’ 등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계엄군의 시 외곽 철수와 연행된 시민, 학생들의 석방 및 소재 파악 문제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협상 대표는 “합의된 사항을 도지사가 시위대 앞에서 직접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¹⁹³ 전옥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시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으니 ‘계엄군을 철수하라. 연행된 학생과 시민들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말했다. 도지사는 “12시까지 계엄사령관을 만나게 해줄 테니 나가서 시민들을 자제시켜 달라. 그러면 5분 후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밖으로 나와 시민들에게 협상 내용을 말한 후 〈아리랑〉, 〈선구자〉 등의 노래를 부르며 도지사를 기다렸다.¹⁹⁴

옥외 마이크가 준비되는 동안 도지사는 잠시 도청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 구용상 시장이 시위대를 우선 진정시켜 보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시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자제와 질서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집어치워라!”는 야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시장은 시민들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도청 직원들은 “위험하다”며 도지사가 시민들 앞에 나서는 것을 만류했다. 도지사가 나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자 시위대

의 분위기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시위 군중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공수부대와 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오전 10시 45분쯤 장형태 도지사는 시민들 앞에 직접 서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도청 옥상에서 경찰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향해 선무방송을 하였다. “여러분의 요구는 모두 관철시키겠습니다. 12시까지 계엄군을 철수시키겠습니다. 모두 해산하십시오. 저는 도지사입니다.” 시내에는 온통 헬기에서 나온 스피커 소리로 덮여버린 듯했다. 몇 바퀴 도청 상공을 돌던 헬기는 곧바로 전교사를 향해 날아갔다.¹⁹⁵ 금남로의 중앙교회 스피커와 시위대의 스피커에서는 ‘끝까지 싸우자’는 투쟁 의지를 담은 대응방송이 쏟아졌다.¹⁹⁶

3. 여성들의 주먹밥

광주 시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거나 부서졌고, 도로 곳곳에는 불에 탄 차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 모습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5월 18일부터 대학생들의 시위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구타, 야만적인 진압과 연행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계엄군에게 야유를 퍼붓거나 도망가는 시위대를 숨겨주었고, 물이나 음료를 전해 주었다. 공수부대의 만행이 극악해질수록 시민들의 지원은 더욱 견고하고 활발해졌다.

21일 새벽부터 주택가의 여성을 중심으로 시위대에게 먹이고자 술을 걸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녹두서점의 정현애와 동생 정현순은 이른 아침부터 골목 여기저기에서 머리에 대야를 이거나 옆구리에 바구니를 든 여성들을 볼 수 있었다. 아침 9시가 넘어서자 금남로 1가 도청 앞에서부터 3가 한국은행 앞까지 군중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도청 앞에서는 전옥주와 시위대가 리어커에 시신 두 구를 싣고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전옥주

일행이 도지사 면담에 나서기로 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면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시내 골목에서 대야와 바구니를 들고 나타난 아주머니들이 요구르트와 김밥, 주먹밥을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감격했다. 계엄군 만행에 분노하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기다리면서 타들어가던 긴장감에서 잠시 해방된 기분이었다. “어제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3일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어보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 한 분이 정현애의 손에도 주먹밥을 쥐어줬다. “어쨌든 일을 해도 밥을 먹으면서 해야 해.” “동네 이웃끼리 모여서 학생들에게 밥이라도 먹이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다.”며 어서 먹으라고 권했다. 순간 정현애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주던 여성이 활짝 웃었다.¹⁹⁷

오전 11시경 관광호텔에서 근무하던 홍성표(남, 26세)는 공수부대의 장갑차가 관광약국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장갑차 상단에 철모를 쓴 사수가 기관총을 잡고서 상반신만 내놓고 있었다. 시위대는 도열한 공수부대 병력과 30m 거리를 두고 대치했다. 홍성표의 눈에는 공수부대의 표정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한국은행 앞 도로에는 작은 피켓과 현수막을 든 여성들이 합지박과 양동이에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와서 시위대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주먹밥, 빵, 음료수, 담배 등이었다. 피켓과 현수막에는 주월동 부녀회, 양동상인회 등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홍성표의 가슴이 뭉클해졌다.¹⁹⁸

양동시장에서는 여성 노점상인들이 18일부터 ‘계엄해제,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시위하다가 공수대원에게 쫓기는 학생들을 구출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했다. 시위대가 배가 고프다는 말을 듣고 나채순(39세), 오옥순(34세), 염길순(44세), 김정애(33세), 박금옥(36세), 오판심(35세), 이영애(37세), 강선자(33세), 이성자(29세) 등 양동시장 노점상 30여 명이 빵과 우유를 사서 시위대에게 전달했다. 항쟁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두 내 자식 같고 가족 같아서였다. 그리고 가마로 구입한 쌀을 방앗간(현 양동주민센터 자리)에서 찌서 밤새 주먹밥을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된장국과 함께 주먹밥을 박스에 담아 유동삼거리, 도청과 전남대병원 등에 전해주었다. 그러나 양동시장 여성 노점상인들의 이러한 주

먹밥 지원활동은 27일 항쟁이 끝난 뒤 합동수사단 등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항쟁의 지원세력이라는 명목을 붙여 주먹밥을 만들어 준 노점상들을 색출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양동시장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도청과 전남대병원 등지에 전달했던 노점상 여성들은 자신들이 5·18 당시 주먹밥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기고 살아야만 했다.¹⁹⁹

김정기(남, 19세)는 21일 10시경 한일은행 앞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미 도청 앞에서부터 금남로 일대 동방생명 사옥 부근까지 사람들로 뻗뻗이 차 있었고, 유동삼거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김정기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한일은행쯤 갔을 때 비좁은 틈을 뚫고 차량 한 대가 다가왔다. 다른 차량과는 달리 외관이 비교적 깨끗했다. 그때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위대가 각목 등으로 두드리고 다녔기 때문에 유리창 등이 깨지거나 뜯어져서 겉모습이 엉망이었다. 김정기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까이 갔더니 그 차에 삶은 계란과 김밥이 가득 실려 있었다. 사실 김정기는 무척 배가 고프는 상태여서 김밥과 삶은 계란을 보자 걸신들린 사람처럼 입에 넣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싣고 왔던 차량 쪽으로 눈을 돌리자 한쪽에 조그만 글씨로 양동 주민 일동이라고 쓰여 있었다.²⁰⁰

김경애(여, 59세)는 18일 시내에서 계엄군이 학생들을 죽도록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주월동 집에 돌아온 뒤 문을 걸어 잠근 채 바깥출입을 삼갔다.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다. 그녀는 2~3일을 그렇게 두 문불출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식 키우고 사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같은 동네 사는 여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쌀을 모아 밥을 짓기 시작했다. 라면상자에 비닐을 깔고 주먹밥을 만들었다. 전남대 의대 앞으로 가서 시위차량이 지나가면 차에다 주먹밥을 올려주면서 몸조심하라고 격려했다. 목숨 걸고 공수부대와 싸우는 젊은이들이 모두 자식 같았다.²⁰¹

김종희는 18일 새벽 총기를 들고 집에 들이닥친 합수단 수사관들에게 남편 문덕희가 연행되는 것을 지켜본 이후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시민들이 계엄군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집에서 만든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 도청광장 시민들



차량시위대에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여성들 ©촬영 : 이창성 출처 : 5·18기념재단

이 모여 있는 곳에 가져다 놓았다. 시위대 중 배고픈 사람 누구라도 먹을 수 있도록 했다.²⁰² 여고생 표강님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위대에게 밥을 해준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걷는 것을 보았다. 표강님은 당시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고, 집안에 쌀이 떨어져 동생들과 라면을 먹고 있는 신세였지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라면을 내주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밥과 김치를 바구니에 담아 시위대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주먹밥과 김밥, 빵과 우유, 음료수 등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키가 컸던 표강님은 시위대 차량이 지나가면 세워서 먹을거리들을 직접 올려주기도 했다.²⁰³ 이 밖에도 양동시장 부녀회장이던 김양애(47세)는 시장상인들과 함께 쌀 한 가마니로 김밥을 만들어 리어커에 싣고 도청으로 달려가 전달했다. 쌀 한 가마니 분량의 김밥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마음은 뿌듯하고 흐뭇했다.²⁰⁴

광주시민들이 보여줬던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비단 김밥과 주먹밥에 한정된 것

은 아니었다. 차량의 연료도, 얼음도, 약품도 아낌없이 나누는 가운데 시민들의 항쟁 대오는 더욱 강고해져 갔다. 광주시민들은 손에 꼭 각목을 들거나 돌을 들고 공수부대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김밥과 주먹밥, 기타 필요한 물품을 아낌없이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광주시민 모두는 한 가족처럼 공동체로 동화되어 갔다.

4. 도청 앞 집단 발포

오전 9시가 넘어서자 도청 앞에서부터 금남로 3가 한국은행 앞까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10시쯤에는 5만여 명으로 불어나 6차선 도로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오전까지 공수부대의 공격행위는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공수부대는 20일 오후부터 시작된 차량 시위에 이어 끝없이 밀려오는 시위대의 파상적인 공세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시위대의 공세에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우며 노동청 인근부터 도청을 지키다 아침이 되자 병력을 집결시킨 뒤 도청 주위로만 방어 범위를 좁혀 두텁게 경계 병력을 다시 배치했다. 11공수여단 61, 62대대가 선두에서, 그 뒤 도청 쪽으로는 경찰병력이, 좌우 측방으로는 경찰과 63대대 및 7공수 35대대가 대기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시위대는 계엄군에게 정오까지 퇴각할 것을 요구했고, 도지사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할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계엄군을 철수시키도록 하겠다는 도지사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선두에 선 11공수여단을 향해 밀어붙일 기세로 격앙되어 있었다. 점차 시위대와 공수부대의 간격은 서로 마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좁혀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깔린 가운데 갑자기 화염병이 날아와 대기 중인 장갑차에 불이

붙었다. 급히 장갑차를 후진시키는데 시위 군중이 일제히 밀고 들어왔다. 이때 계엄군의 장갑차가 급히 퇴각을 하면서 넘어진 군인을 덮쳤다.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권용운 일병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장면을 바로 곁에서 같은 부대 소속 이경남 일병이 목격했다. 뒤이어 시위대가 관광버스 2대를 몰고 공수부대가 장악한 도청광장 한가운데로 진입해 들어갔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분수대 옆에서 멈춰 선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²⁰⁵ 오후 1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다.

그때였다. 오후 1시 정각, 도청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계엄군의 사격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1시 이전 발포가 명령 없이 돌발적으로 이뤄졌다면 1시부터는 명령에 따라 ‘집단 발포’가 시작된 것이다.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금남로는 순식간에 텅 비었고, 적막감이 감돌았다. 아스팔트에는 총을 맞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충격을 피한 사람들은 주변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금남로 방면뿐 아니라 도청의 북쪽인 노동청 방향으로도 충격을 가해 사람들이 쓰러졌다. 금남로 이면도로인 전일빌딩과 동구청 건물 뒤쪽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가했다. 잠시 후 ‘무릎 앉아 썬’, ‘서서 썬’ 자세를 취하고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시작했다. 도청 앞 건물 2, 3층이나 옥상으로 올라 여기저기 골목에 숨어 있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21일 YWCA신협 직원 황수진(여, 21세)은 도청 앞 집단발포를 직접 목격하였다.²⁰⁶

시간이 지나자 도청광장에서 300m쯤 떨어진 금남로 4가 한국은행 사거리 보도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지하상가 공사장 위 인도에 모여든 젊은이들은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며 애국가를 불렀다. 5~6명의 청년들이 금남로 한복판으로 뛰어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때 총성이 잇따라 울리면서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의 머리, 가슴, 다리에서 붉은 피가 쏟아졌다. 공수대원들은 3~4명씩 조를 편성해서 주변의 높은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을 조준하여 저격했다. 잠시 사격이 멈춘 순간에는 사람들이 도로에 뛰어들어 쓰러진 시신과 꿈틀거리는 부상자들을 끄집어냈다.



계엄군과 시민들 간 대치(중앙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전옥주) ©촬영 : 나경택 출처 : 5·18기념재단

최초의 여성 총상 사망자

오후 2~3시경, 금남로 3가 가톨릭센터 맞은편에서 장갑차를 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도청으로 향하던 김준동(남, 17세)이 계엄군 저격수가 쏜 총을 맞고 머리가 폭 꺾어지며 쓰러졌다.²⁰⁷ 그 충격적인 장면은 오랫동안 시민들 기억 속에 강렬하게 새겨졌다. 총장으로 입구 건물 5층에 살던 황호정(남, 64세)은 집에서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총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장갑차 위 청년의 죽음이 목격된 후에도 아시아자동차에서 끌고 나온 시위대의 장갑차가 도청의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하였다.

오후 2시 35분, 공수대원들은 금남로 70m쯤 떨어진 곳에 소형트럭과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시민들은 도청광장에서 300~400m 정도 떨어진 금남로 3

가 근처로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끌고 나온 군용트럭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3시경 대동고 3년생 전영진이 노동청 부근에서 저격병의 M16 총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구 시청 사거리에서도 5~6명의 청년들이 총에 맞아 신음하고 있었다. 공수대원들은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총을 난사했다. 이광영(남, 27세)이 지프를 타고 부상자에게 접근하여 손을 뻗는 순간 총탄이 그의 허리를 관통했다. 같은 차에 탔던 5명 중 2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2명은 부상, 운전하던 사람만 무사했다. 장동 로터리와 노동청 방향에서는 두 사람이 총에 맞아,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21일 전남도청 일원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많은 상해자가 발생했다. 21일 당일에만 상해자 36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2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 투입된 몇몇 공수대원들은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실행했다고 고백하거나 조준사격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²⁰⁸ 도청 앞 집단 발포로 1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8명 이상의 여성이 총상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성자(14세)는 5·18 기간 중 첫 여성 사망자다. 옛 동구청 뒤 홍안과의원 앞 도로에서 도청 일대에 배치된 공수부대의 조준사격에 의해 사망하였다. 주요 사인은 가슴 총상이다.²⁰⁹ 이성자의 사망원인은 ‘5·18조사위’가 개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조준사격이었음이 입증되었다.²¹⁰ 총격 직후 광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날 김종배(남, 26세)는 홍안과 앞에서 나이 어린 이성자의 사망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 김종배는 당시 가톨릭센터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상자들을 홍안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있었다. 그때 눈앞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 이성자를 발견했다.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을 맞고 쓰러진 이성자를 병원 안으로 데리고 와 살펴보니 이미 숨진 후였다. 김종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에 뛰어들게 되었고, 시민군으로 활동하게 된다.²¹¹

도청 앞 집단 발포 시 조준사격으로 사망한 이성자 외에도 박수자(19세)를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의 여성이 21일 도청 인근지역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발포

로 총상을 입었다. 박수자는 당시 황금동 소재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오후 1시쯤 가톨릭센터 앞을 지나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박수자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총알이 그녀의 복부에 박혔다. 적십자병원에 옮겨진 그녀의 얼굴에는 하얀 손수건이 덮여 있었는데 그렇게 덮여 있는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이었다. 박수자는 병원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복부에 박힌 총알로 인한 내장손상이 심해서 두 달이 넘게 복부 봉합을 하지 못한 채로 병상에 누워 보냈다.²¹² 그런데 항쟁 이후 7월경에 합수단에서 박수자를 찾아왔다. 총상 피해로 고통스러운 치료과정을 받고 있는 그녀에게 합수단은 ‘사회 혼란을 조성하여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과오를 반성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를 재발하지 않겠다. 조사 기간 중 알게 된 사항과 조사받은 사항은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받아들였다. 또한 박수자의 보호자에게도 ‘상기인의 범법 행위가 재발치 않도록 교화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여 이를 보증하고 상기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즉각 요구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합수단이 박수자에게 받은 각서와 보호자의 보증서는 이후 이들이 5·18 관련 증언을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²¹³

세 남매의 꿈을 앗아간 총격

남현애(여, 24세)는 노동청 앞에서 총상을 입었다. ‘탕탕탕’ 도청 쪽에 있던 공수부대가 갑자기 총을 난사하자, 노동청 앞에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남현애는 총탄을 피해 노동청 건너편에 있는 대원주유소 쪽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녀의 다리가 좀 이상했다. 감각이 없었다. 팔도 마찬가지였다. 다리와 팔에 총상을 입은 것이다. 그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

다. 이미 옷과 살은 찢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붉은 피가 설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공수부대의 사격은 멈추지 않았고 주유소 화장실 창문을 뚫고 총알은 계속해서 날아들었다. 잠시 후 총성이 멈추자 그녀는 주유소 화장실을 정신없이 뛰어나왔다. 수건으로 부상 부위를 감싸고 2층 담을 필사적으로 뛰어넘었다. 그녀는 시민의 도움으로 트럭을 타고 서석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²¹⁴

조선대 사거리에 위치한 주택 옥상 장독대에 날아든 총탄은 세 남매의 꿈을 앗아가기도 했다. 21일 오후, 도청에서 콩 볶듯 쏘아대는 총소리에 놀란 임지명(가명, 여, 9세)의 가족은 모두 방안에 숨어 있었다. 임지명의 아버지(임현준, 가명)는 틈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려는 세 남매를 한방으로 모아놓고 바깥 상황을 살피러 마당에 잠시 나왔다. 그때 대문 틈으로 무장한 공수대원들 50여 명이 총을 메고 진압봉을 든 채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임현준은 무서움에 떨며 재빨리 세 남매를 살피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에 있어야 할 세 남매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집이 울리고 유리창이 요란스럽게 흔들리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임현준은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지나가던 공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막내딸 임지명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고, 그 옆으로 임지명의 언니와 오빠가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임지명은 오른팔에 총상을 입어 출혈이 심했다. 다행히 병원치료를 받으며 완쾌되어 갔지만 이날 막내 동생의 총상을 지켜보고 기절했던 둘째 아들(20세)과 둘째 딸(22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매의 정신분열 증세는 점점 심해졌다. 남매는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동원해 치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결국 둘째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저버리고 1988년 2월 병원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된다.²¹⁵

이들 외에도 의료기록에 따르면 20대 여성 3명은 각각 좌측대퇴골 총상, 좌측 상박부에 관통상, 총알이 머리를 스치는 부상을 당했다. 이 여성들은 파편이 몸 속에 박혀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²¹⁶

5. 전남대 전투 : 임산부 최미애 총상 사망

21일 날이 밝자 전남대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오전 10시경 모여든 시민들 숫자는 정문 쪽 4만여 명, 후문 쪽 1만여 명에 달했다. 그동안 연행된 시민들이 전남대에 억류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며 모여든 것이다. 시민들은 아시아자동차공장 등에서 노획한 차량과 버스와 트럭, 소방차와 군용 지프 등을 앞세운 채 전남대 정문과 후문 그리고 농대 후문 등 세 방향에서 3공수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 무렵 13대대 중대장 이상 장교들에게는 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계용 실탄이 지급되었다. 12시경, 갑자기 모여 있는 시민들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 발사장치’인 E-8이 발사되었다. 발사된 최루가스 양이 엄청나서 넓은 면적에 연기가 자욱했다. 방독면을 착용한 공수대원들이 시위대를 체포하기 위해 달려왔다.²¹⁷ 전남대 앞에서 시민들과 계엄군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때 임산부였던 최미애(23세)가 공수부대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날 임신 8개월째이던 최미애는 전남대 정문 앞 평화시장 입구에서 교사인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기 위해 골목에 나가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녀가 공수대원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식구들이 뛰어나갔을 때 그녀는 땅바닥에 피를 쏟아놓은 채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다. 당시 최미애는 부상당한 남학생을 공수대원이 군 차량에 싣고 연행하는 것에 항의하다 공수대원이 정조준으로 발사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식구들이 최미애를 집으로 옮겨 놓으니 뱃속의 태아가 마구 뛰었다. 태내의 아이라도 살려보려고 여러 병원에 연락해 보았으나 병원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후 4시경 남편이 귀가했을 때 태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²¹⁸ 임신 8개월이었던 최미애의 죽음은 시민의 분노와 항쟁 참여를 더욱 촉발하는 동기가 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 3공수여단이 전남대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3시경까지 정문 주변 민가와 도로에서 계엄군의 발포와 시위대의 희생이 이어졌다. 이날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전남대 앞에서는 최미애 외에도 이성귀(남, 16세)가 총상으로 사망하였고, 안두환(남, 44세)과 장방환(남, 58

세)이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하였다.²¹⁹

6. 속출하는 부상자와 헌혈 활동

저녁 7시경, 7공수여단 33대대는 조선대에서 퇴각하여 주남마을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로를 따라 이동하였다. 7공수여단 차량제대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가와 시위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남대병원-남광주역-송의실업고 방향으로 장갑차를 앞세우고 전진하면서 길 양쪽 주택가에 기관총과 M16 소총을 난사해 총알이 안방까지 날아들 정도였다. 이들의 무차별 총격은 시내 주택가를 지나 학동과 지원동을 거쳐 주남마을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이어졌다.

박금희(여, 17세)는 21일 친구와 함께 헌혈에 동참하러 나갔다가 공수부대의 총탄에 사망하였다. 여고 3학년이었던 그녀는 이날 오후 5시경 헌혈을 위해 광주기독병원에 도착했으나 헌혈 용기가 부족해 헌혈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때 그녀가 타고 있던 버스에 주남마을로 퇴각하던 7공수여단 선두 장갑차가 총을 난사하였다. 총상을 입은 박금희는 광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7공수여단이 주남마을로 가는 도중 주변 민가에 가한 총격으로 조선대 부근 양복점에서 일하고 있던 송승석(남, 24세)이 부상을 당하였고, 임수춘(남, 38세)은 학운동 자신의 가게 앞 도로에서 철수하는 공수부대의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다. 택시회사에 다니던 전정호(남, 55세)는 귀가하던 중 지원동 부근에서 장갑차에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박찬욱(남, 25세)은 지원동에서 도청으로 헌혈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해 광주기독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²²⁰

조아라 YWCA 회장은 이날 오후 시내에 나와보니 총을 든 청년들이 시위차량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중·고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차에 타고 다니며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혈을 합시다.”고 외쳐대고 있었다. 조아라는 광주기독병원을 방문하려 했는데 “지금 환자들 많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병원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헌혈을 권유하며 다녔다.²²¹ 송백희 회장 홍희운도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부상자들이 광주기독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을 독려했다.²²²

김준봉(남, 21세)은 당시 고려시멘트에 근무하던 회사원으로 21일 도청 앞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옥상에서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피범벅이 된 것을 목격하였다. 그 아이를 업고 적십자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병원은 부상자들의 신음과 가족들의 울부짖음으로 아비규환이었다. 부상자들 얼굴이 피를 많이 흘려 하나같이 백지장 같았다. 김준봉은 피가 부족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시위차량을 타고 헌혈을 독려하고 다녔다. 헌혈할 수 있는 시설이 1회에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금방 두 상자가 되었다.²²³

7. 차량시위대와 항쟁의 확산

지난밤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숨진 시신들이 발견된 상황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시민들은 광주의 참상을 외부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곧바로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가, 군용트럭과 장갑차 등을 끌고 나왔다. 이날 오후까지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는 56대의 군용트럭을 포함해, 장갑차, 버스, 가스차, 지프 등 총 414대의 차가 시내로 나왔다. 항쟁 기간 중 아

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끌고 나온 차량 외에도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각종 화물트럭, 승용차 등 일반차량 529대, 공용차량 83대로 총 1,026대의 차량이 시위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동원된 차량들은 사람들을 싣고 시외지역으로 가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기 위해 돌아다니게 된다.

21일 오전 시민들이 확보한 차량은 시위의 기동성을 높였고, 시위를 일시에 광주일원에서 전남지역으로 확산시켰다. 전남지역으로 빠져나간 차량시위대는 유리창이 깨진 버스나 트럭에 앉아 각목으로 차체를 때리며 구호를 외쳤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주위로 모여들었다. 차량 위 청년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흥분된 어조로 광주의 참상을 알렸다. 차량시위의 목적은 광주 시내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광주 시위에 동참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광주에서 시위대가 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 사람들은 순식간에 읍내로 모여들었다. 광주에서 자취하거나 하숙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친척이나 지인들의安危도 걱정이었다. 그러던 차에 광주에서 시위대가 나타나자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21일 오후 1시가 지나면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집단발포를 했다는 소식이 전남 서남부 지역에 나가 있던 차량 시위대에게 전해졌다. 집단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차량 시위대들은 우리도 이에 맞서 무장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오후 2시 이후부터 전남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던 차량시위대들은 경찰서와 각 면의 지서로 무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시위대의 한 갈래는 나주~함평사거리~무안~목포 방향으로 움직였고, 다른 한 갈래는 영암~해남~완도~진도까지 내려갔으며, 일부는 도중에 영암~강진~장흥~보성까지 진출하였다.

여성들의 차량시위

21일의 차량시위에는 10대와 20대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항쟁을 전남 지역으로 확산시킨 차량 시위에 여성들이 참여하였던 장면을 목격한 증언은 여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차량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광주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학살 만행을 고발하고, 항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차량방송을 많이 했다는 증언이 많다. 21일 정오 무렵, 해남읍에 도착한 시위 차량에서 여고생이 태극기를 들고 애절한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당시 여고생이 낭랑하게 급박한 광주의 상황을 호소하자 몰려든 해남 주민들이 박수로 환호하면서 지지하였다. 이 외에도 당시 영암에서 축산업을 하던 김삼남과 해남에서 시위대를 목격한 휴학생 손귀봉, 차량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이순노와 이덕준의 증언 등이 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21일 차량시위에 적잖은 여성들이 참여하였고, 여성들은 차량시위에서 방송활동을 주로 하였다. 여성들이 마이크를 구호를 외치는 모습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이는 전남지역 시위와 항쟁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²⁴



차량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촬영: 이창성 출처: 5·18기념재단



차량 시위에 참여한 여성 ©촬영 : 이창성 출처 : 5·18기념재단

김정순은 1980년 당시 일신방직 기숙사의 실장이었다. 회사 안에 18일 군인들이 시위하는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서 피범벅이 된 채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자 회사 측에서는 19일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였다. 20일까지 여성노동자들을 기숙사에 묶어두었던 회사 측에서, 21일 아침이 되자 ‘집에 갈 사람은 가라’는 통보를 내렸다. 김정순은 오전 10시경부터 구내식당 여성들과 함께 일신방직 옆을 지나가는 시위차량에 보리차와 주먹밥을 올려주었다. 그때 김정순과 기숙사에 남아 있던 일신방직의 여성노동자들²²⁵ 대부분이 시위차량에 탔다. 여성노동자들을 태운 시위차량은 화순읍을 지나 해남, 강진까지 갔다가 저녁놀이 질 무렵 광주에 돌아왔다. 가는 곳마다 여성들이 딸기, 음료, 빵 등을 차량으로 올려주었다. 그 때문에 김정순은 더욱 용기를 얻었고, 시위에 참여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면 더 열심히 시위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²²⁶

남민아(가명, 25세)는 항쟁 당시 총을 들었던 ‘여성 시민군’이다. 21일 남민아는 일신방직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 시위행렬과 마주쳤다. 그녀는 지나가는 차량의 보닛을 쳐서 멈춰 세운 뒤 시위차량에 탑승했다. 시위차량을 타고 발산마을 지나 양동과 유동을 수 바퀴 돌면서 ‘전두환 물러가라’, ‘구속학생 석방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계엄령을 철폐하라’고 외쳤다. 각목을 들고 차량을 통통 치며 구호를 외칠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발생한 직후 남민아가 탄 차량은 나주경찰서로 향했다. 잠겨있는 경찰서 무기고를 차량으로 무너뜨리고 총을 쏘았다. “여자는 안 된다.”고 했던 남학생들은 어느새 남민아를 동료로 생각하며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남민아는 총을 들고 전남 해남까지 내려가 시위대와 함께 해남 군민들에게 광주의 실상을 알렸다. 남민아는 ‘전시 상황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현실은 항쟁 이후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부딪쳐야 했다. 그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여자가 5·18에 참여했다고 여자답지 못하다, 왈가닥이다.” 등의 말이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유 없이 비판을 받아야 했다. “다소곳하게 있지. 왈패도 아니고 뭐 하려고 거

길 갔냐”는 말과 함께 “계집애가 다소곳하게 있어야지, 왜 나대고 다녔냐?”는 비난 섞인 말들을 들어야 했다.²²⁷



몹둥이를 들고 가는 여성들 ©기증 : 조상기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8. 21일의 녹두서점

21일 날이 밝아오자 녹두서점은 자연스럽게 운동권 사람들의 결집장소가 되었다. 이날 정현애는 시외버스가 통제되어 장성에 있는 학교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서점에 나와 있었다. 아침 6시경인데도 가톨릭센터 앞에는 벌써 수많은 시민이 군인과 대치하고 있었다. 도로 가운데로 나오니 시민군이 리어커를 가운데 두고 모여 있었다. 그때 정현애는 사람들이 “리어커에 눈이 파이고 얼굴이 난자된 시신 두 구가 실려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정현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

다. 그녀의 눈에 리어커 밖으로 빠죽 나와 있는 시신의 발이 보였다. 시신 위에는 태극기가 덮여 있었다. 정현애가 다시 서점에 와 보니 윤상원과 김상집, 윤태원, 김효석 등이 금남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윤상원은 금남로에 시민들의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면 오후 1시에 가톨릭센터 앞으로 사람들과 차량을 집결하도록 알리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녹두서점에 모인 몇몇의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 시내와 외곽에 홍보하러 나갔다.

오전 10시경 정현애는 동생 정현순과 함께 다시 금남로로 나갔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시내로 모여들었고, 금남로뿐만 아니라 충장로와 도청 주변 골목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다. 광주 시내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팽팽해지고 있었다. 계엄군들은 이제 도청 앞 분수대까지 물러나 있었다. 헬리콥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길 위에 있는 사람은 폭도로 간주한다.”며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 시간 서점에는 정상용, 이양현, 윤상원, 김상집 등이 모여 향후 전개될 일들에 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 공통된 의견은 ‘서점은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하지 않으니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청에서 가깝고 광주천변에 있는 보성기업²²⁸으로 모임장소를 옮기자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났다. 놀라서 모두들 뛰어나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혈떡거리며 서점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잠시 바깥 상황을 살펴러 나갔던 김상집이 “군인들이 총을 쏜다!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점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최대한 빨리 서점을 정리한 후 보성기업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녹두서점에서 보성기업으로 가려면 격전지인 금남로를 건너야 했다. 도청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길을 따라 보성기업에 도착했다. 그런데 곧이어 전화가 왔다. 상무대 쪽에서 20여 대의 군용트럭이 잿등(화정동)을 넘어 시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이제 군인들이 대거 진입하여 본격적인 진압작전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은가? 당시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은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다. 일단 각자 알아서 피해야 했다. ‘살아서 만나자.’ 그때가 오후 3시경이었다.

정현애, 정현순, 김상집은 피신의 길에 오르기로 하였으나 무장한 시위대를 보

고 마음을 바꾸었다. 정현애는 총을 든 시민들을 보면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읽었다. 순간 많은 생각을 했다. 목숨을 걸고 쫓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하지 않겠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녹두서점을 다시 열게 되면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서점으로 다시 가야한다’고 결심했다. 정현애는 정현순과 함께 시내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금남로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군인들은 도청을 둘러싸고 있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계속 구호를 외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여기저기서 돌멩이를 가져왔다. 정현애는 오후 5시경 서점으로 돌아왔다. 구호 소리가 가까워서 들리더니,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시민군과 군인이 대치하고 있었다. 녹두서점 앞이 격전지가 되었다. 정현애와 정현순은 공수대원들과 대치하는 시위대에 물, 치약, 샴푸, 약품 등을 가져다주며 독려하였다. 녹두서점 앞에 있던 시민들도 도청 앞 금남로로 옮겨갔다. 잠시 후에 요란한 경적이 울렸다.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군인들이 화순 쪽으로 물러간다고 했다.²²⁹ 이날 임영희도 노동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집단발포를 목격했다. 광주여고 부근에서 공수부대가 쏜 총에 한 사람이 거꾸러지는 것을 보는 순간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다’라며 울분에 차 눈물을 흘렸다.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시위대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아리랑을 부르며 거리를 누볐다.²³⁰

9. 투사회보를 만든 여성들

공수부대의 학살 만행을 알리는 유인물은 18일부터 ‘대학의 소리’ 구성원과 극단 광대 회원이 무등영아원에서 제작하여 시내에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개인 별, 단체별로 시위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이 제작되었다. 19일부터는 들불야학에서도 윤상원과 서대석 등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다. 들불야학이

만든 유인물은 21일부터 ‘투사회보’라는 명칭을 달고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초기에는 들불야학의 교실로 사용되는 광천동 가정집에서 제작되다가, 24일부터 YWCA 내 신흥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투사회보’라는 명칭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1호부터 8호까지 제작되었으며, 25일 도청에서 투쟁위원회가 조직된 이후인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민주시민회보’로 이름을 바꾸어 9호부터 11호까지 제작되었다. 당시 투사회보는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을 뿐 아니라 항쟁 기간 시민들의 투쟁 열기를 끌어올리고, 투쟁의 방향을 제시해준 아주 중요한 매체였다.

투사회보의 원고는 도청에서 윤상원이 보내온 내용과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시민궐기대회에서 낭독되었던 성명서 등을 참고로 작성되어 교대로 날을 새며 등사기를 밀어 만들었다. 제작팀은 낮에는 틈틈이 시내 지업사에서 종이를 구하는 등 물자 조달 활동을 하였다. 회보의 주된 내용은 당시 항쟁 상황과 항쟁 지도부의 계획, 구호, 지침, 행동강령 등을 담았다. 물자조달, 문안작성, 필경등사, 배포조 등으로 나뉘어 윤상원, 김영철, 박용준, 전용호, 김성섭, 윤순호, 나명관, 김경국, 정재호, 신은주, 박용안, 여성으로는 오경민(오정숙에서 개명, 19세), 이영주, 노영란, 조순임, 양오숙 등이 참여했다.²³¹ 다섯 명의 여성들은 항쟁이 진압되면 연행과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사회보를 만드는 활동에 임했다. 들불야학 학생이었던 오경민은 광주시민이 모두 한 식구처럼 느껴졌고, ‘혼자 살기보다는 죽더라도 같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언론은 광주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를 만드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녁이면 불을 끄고 몰래 필경하고 등사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만큼 초기에 참여하다가 겁을 내고 집에 간 사람도 많았다. 투사회보 팀은 15명 내외였고, 그중 5~6명이 여성이었다. 투사회보팀은 낮이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여기저기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구하고, 종이

를 구했다. 오후가 되면 내용을 정리하고, 필경과 등사를 하여 제작된 투사회보는 배포조를 통해 시민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때는 광주 시민들이 모두 한 식구 같았다.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죽더라도 꼭 같이 싸워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다.²³²

총소리에 어머니가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 이 외에 10~20대 3명의 여성은 대인시장, 금남로 등 시위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²³³

10. 총격 속에 사라진 여아

오후 5시경 광주 시내에서 퇴각한 계엄군은 곧바로 광주시 외곽의 주요 도로를 봉쇄했다. 도청 앞 집단발포로 인한 광주의 참상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남지역으로 빠져나갔던 차량시위대들은,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의 봉쇄를 뚫지 못하고 총격을 당하면서 희생되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외곽도로 봉쇄 사실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상자들 중에는 무장한 시위대도 있었지만, 광주에 있는 가족 친지 소식이 궁금해 만나러 들어오거나 혹은 시골로 피난하기 위해 빠져나가던 시민들도 많았다. 그리고 봉쇄지역 주위의 마을 사람들도 계엄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다수 발생했다. 도청 집단발포와 외곽봉쇄작전으로 21일 하루 동안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자 광주 시내 전역의 의료현장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비규환이었다. 시내 각 병원에는 이미 사망한 시신 관리뿐만 아니라 중상자들을 치료할 여력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외곽지역의 시위차량과 계엄군 간의 교전에 의한 사상자, 그리고 피난길에 계엄군의 공격을 받은 시민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부상자 처치와 사망자 수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21일에 특히 많은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에 여성으로 신고된 행방불명자는 총 4명이다. 몸이 아파 어머니와 함께 화순에서 광주로 나왔다가 실종된 10세의 여아는,



5월 22~26일 : 승리를 위한 해방공동체

1.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투쟁위원회로
2. 외곽봉쇄와 민간인 학살
3. 제2의 항쟁지도부, 여성들의 활동
4.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 전면에 나선 여성들
5. 도청 취사반의 여성공동체
6. 전운의 그림자

5월 22~26일 :

승리를 위한 해방공동체

1.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투쟁위원회로

시민들의 무장 조직화

22일 이른 아침, 총을 든 사람은 광주공원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광주공원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난밤 지역방어 전투에 참여했던 무장 시민군들도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지휘자도, 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김원갑(남, 19세)과 김화성(남, 21세) 등 네댓 명의 청년들은 광주공원에 모여 드는 차량을 일일이 점검하며, 번호를 매겼다. 이들은 차량의 앞뒤 면에 하얀 페인트로 일련번호를 크게 적어가며, 일종의 '등록' 작업을 하였다. 소형 차량은 의료, 연락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대형차량은 병력과 시민을 수송하거나 보급과 청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군용 지프는 지휘통제와 순찰상황 통제 그리고 전달 등의 헌병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군용트럭은 전투 업무에 배치되었다. 이날, 등록된 차량은 총 78대였다.²³⁴ 등록 작업이 끝난 차량은 번호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는 도청에서 백운동까지의 구간을, 11번부터 20번까지는 도청에서 지원동까지의 구간을 담당하였다. 21번부터 30번까지는 서방에서 도청까지의 구간을, 31번부터 40번까지는 동운동에서 도청까지의 구간을 맡았다. 41번부터 50번까지는 화정동에서 도청으로 향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차량 배치는

각 지역의 지원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직되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점차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무장한 시민군은 약 500명 정도였다. 이들은 도청을 본부로 삼고, 본관 건물 1층의 서무과를 상황실로 사용하였다. 김원갑과 김화성은 광주공원에서 도청으로 들어와, 도청을 지킬 '경비반'을 조직했다. 경비반은 도청 정문 출입을 통제하며, 시신을 옮기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계엄군과 대치하는 지역을 담당할 '기동순찰대'도 조직되었다. 기동순찰대는 총기를 소지하고 차량을 이용해 외곽지역을 순찰하며 상황을 점검했다. 또 환자를 수송하고,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불순분자나 강도, 절도 혐의자를 체포하는 등의 치안 활동도 맡았다. 22일부터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무기 회수를 홍보하고, 회수된 무기를 도청으로 운반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광주 외곽으로 계엄군이 퇴각한 후, 도청은 5·18항쟁의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오전에 녹두서점으로 송백회 회원들과 광대 단원들, 들불야학 윤상원, 그 밖에 이재의, 안길정(남, 23세), 손남승(남, 22세) 등 청년·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계엄군 철수로 행정 공백의 도시이자 해방의 도시가 된 광주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논의하였다.

시내는 수십 대의 시위대 차량이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으며, 상황이 궁금한 시민들이 시내로 모여들고 있었다. 도청에 모인 시민군과 시민들은 승리했다는 감격에 휩싸였지만, 계엄군이 금방이라도 다시 쳐들어올 거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무질서한 상황을 정리하고 곧 들이닥칠 계엄군의 반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했다.

낮 12시 30분경, 도청 2층 정시채 부지사실에 독립운동유공자 최한영 옹, 박운중 전 광주시장, 이종기 변호사, 조비오 신부, 한완석 목사, 장휴동 태평극장 사장, 장세균 목사, 김재일 목사 등 15명의 각계 인사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수습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으로 최한영 옹이 추천되었다. 이어서 당시 상황 수습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여 계엄사와 협상할 7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결정하였다.

한편 오전 11시경 남동성당에서는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종교계와 학계,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였다. 김성용 신부, 조아라 YWCA 회장, 이성학 장로, 이애신(여, 57세) YWCA 총무, 이기홍 변호사, 홍남순 변호사, 명노근 전남대 교수, 송기숙 전남대 교수 등이 모여 수습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던 중, 이들은 도청 수습대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조비오 신부로부터 도청에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 분위기와 7개 항목의 수습조건을 듣고 모두 도청으로 향했다.

이튿날(22일) 아침 YWCA 사무실로 출근해 보니, 홍남순 변호사와 YWCA 이사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신·구교가 함께 현 사태를 해결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신·구교가 공동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선교위원회’가 있는데, 남동성당 김성용 신부가 회장이고 나(조아라)와 이성학 장로가 부회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남동성당 김성용 신부를 찾아갔어요. 김 신부님도 무척 걱정하고 있더군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알아보자고 제의했어요. (중략) 남동성당에 있던 분들과 도청으로 갔습니다. 도청 정문에서 청년들이 길을 막고 진입을 제지했으나, “우리는 재야인사들인데 빨리 안으로 들어가 부지사와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자 들어 보내 주더군요.²³⁵

재야인사들이 도청에 도착해 부지사실로 들어갔을 때, 7개 항목의 수습조건에 대한 논의는 거의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다. 재야인사들은 계엄사에 요구할 7개 항목의 요구사항에 동의했으며, 계엄사와의 접촉은 도청에서 활동했던 수습위원들이 맡기로 합의하였다.²³⁶ 이날 결의한 7개 항목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태 수습 전에 군 투입을 말라
2. 연행자를 석방하라
3. 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라
4. 사태 수습 후의 보복 금지
5. 책임면제
6. 사망자에 대한 보상
7.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면 무장 해제하겠다

오후가 되자 녹두서점에서 모여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던 대학생 이재의, 안길정, 손남승은 도청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도청 1층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사무실 전화로 외곽지역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군들과 연락을 취해 계엄군의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근처 다른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도청으로 들어온 여학생들이 출입증을 만들거나, 사망자 명단을 작성하고 시민들로부터 모금된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²³⁷ 대학생 이춘희(여, 20세)는 도청에 온 시민들에게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시신 확인을 돕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바쁘게 뛰어다녔다.²³⁸

계엄당국과의 1차 협상

오후 1시 30분경, 수습위원 중 선발된 협상 대표 8명은 전남북계엄분소를 찾았다. 수습위원들이 상무대에 도착한 시각, 전교사령관이 윤흥정 중장에서 소준열 소장으로 교체되었다.²³⁹ 수습위원과 협상에는 부사령관인 김기석 소장이 참석했다. 계엄군 대표로 김기석 소장 외 준장 3명, 보안대장(대령), 헌병대장(중령) 등이 참석해 수습위원과 협상을 시작했다.²⁴⁰ 협상은 수습위원이 요구한 7개 항목 중 무기를 반납하면 선별 석방하겠다는 내용과 사태수습 후의 보복 금지에 관한 사항에만 동의했다. 나머지는 보류하거나 상부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한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수습대책위원회와 계엄사 측 간 1차 협상 결과

수습대책위원회의 7가지 요구사항	계엄사측 입장
계엄군의 과잉진압 인정	시민들의 과격한 시위에 대한 과격한 저지
구속학생 및 민주인사 연행자 석방	선별하여 체포한 사람들 대부분 석방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보장	선별보상
발포명령 책임자 처벌과 국가 책임자의 사과	상부에 건의
사망자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치를 것	시민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류
수습 후 시민, 학생들에게 보복하지 말 것	동의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면 무기 자진 회수 반납 무장 해제	빠른 무기회수 및 무조건 반납

협상 결과 보고대회

오후가 되자 도청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앉아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분수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 끝나자, 이어서 50대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식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사람들은 차례로 분수대 위로 올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공수부대의 만행과 혈육의 죽음을 알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했다. 발언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뜨겁게 만들었다.

그동안 시민군의 차량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운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에 안치된 사망자들의 시신을 급히 관에 입관시킨 뒤, 도청으로 옮기고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다시 도청 앞 분수대 앞으로 옮겼다. 오후 4시경, 18구의 시신이 도청 앞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에 태극기로 덮인 관 주위로 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목념부터 합시다.”하고 외쳤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목념, 애국가 제창 순으로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도청 앞 광장으로 옮겨진 관과 애도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사

오후 5시 18분, 전남북계엄분소를 방문한 8명의 협상 대표들이 상무대에서 돌아왔다. 수습대책위원회는 도청 앞 광장 분수대를 연단으로 하여 ‘협상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정시채 부지사가 사회를 맡으며 대회가 시작되었다. 수습위원들이 차례로 분수대에 올라가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북계엄분소장이 개인적으로 ‘과잉 진압’을 인정하며, 다른 사항들은 상부와 협의를 거친 후 결과를 전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수습위원들은 유혈 방지와 질서유지를 강조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다.

수습위원으로 참여한 사업가 장휴동(남, 39세)이 분수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결국 폭도밖에는 안 된다. 어서 빨리 무기를 모두 계엄사에 반납하고, 시내 치안 질서 유지권을 군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마치 시민들을 향해 꾸짖는 듯이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에 시민들이 놀라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청년이 분수대 연단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장휴동의 마이크를 가로채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무조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어찌란 말이나. 시민들이 흘린 피는 생각지도 않느냐. 도대체 시민들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하고 소리쳤다. 그는 계속해서 장휴동과 정시채 부지사를 향해 “야! 이 광주시민들의 피를 팔아 출세하려는 놈들아. 너희들은 필요 없다. 다 꺼져라.”라고 외쳤다. 이에 시민들은 큰 호응과 박수로 화답했다.²⁴¹

협상보고대회는 갑자기 수습위원들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잠시 후 병원에 있던 23구의 시신이 도청광장에 도착했다. 희생자들의 시신을 본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협상보고대회는 추모대회로 변한 채 끝나고 말았다. 당시 연단에 뛰어 올라 마이크를 빼앗은 청년은 조선대 학생 김종배(남, 26세)였다.

학생수습대책위원회 구성

22일 오후에 도청 앞 남도예술회관 벽에 “대학생은 모입니다!”라고 써진 종이가 붙여졌다. 그동안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명노근 교수가 벽보를 붙이고 휴대용 마이크로 대학생들은 모이라고 방송했다. 전남대 학생 정해민은 “대학생 모이자”는 피켓을 여러 개 만들어 들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알렸다. 협상보고대회가 어수선하게 끝난 후 대학생들이 남도예술회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20여 명의 대학생이 모이자 명노근, 송기숙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8시경, 대학생들은 송기숙 교수 입회하에 정해민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 결과 명칭을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이하 학생수습위원회)라고 정하고 위원장 김창길(남, 23세), 부위원장 겸 장례담당 김종배, 총무 정해민, 대변인 양원식, 무기관리 담당 허규정 등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총기 회수반, 차량 통제반, 질서 회복반, 의료반 등의 부서도 정했다. 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밤늦도록 논의해 청소, 장례, 질서유지 등 대민업무를 맡기로 결정한다.

상무관에 안치된 영령들

23일 이른 아침, 도청 앞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나둘 모여든 시민들은 애절한 눈빛으로 잃어버린 이들을 찾고 있었다. 오전 7시경, 시내 여러 병원에 분산, 안치되어 있던 시신이 도청으로 옮겨졌다. 도청 정문 앞에서는 ‘수습대책위원회’라는 띠를 어깨에 맨 청년들이 사망자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대조한 후 시신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이들은 22일 저녁 구성된 ‘학생수습위원회’의 장례반이었다. 장례 담당 부위원장

김종배는 도청 안마당에 시신을 입관시켜 놓고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을 한 사람씩 들여보내 신원을 확인해 나갔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상무관에 안치되었다.

23일부터 학생수습위원회 장례반은 시신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들을 찾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례반 대원들은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조선대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신원이 파악된 시신을 입관시키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지장을 찍는 일을 하였다. 또한, 공수부대가 21일 퇴각하면서 여기저기에 방치하거나 매장한 시신을 찾아 병원이나 도청으로 옮겼다. 다음 시급한 문제는 관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광주 외곽에 방치되어 있던 시신들을 찾아 도청으로 옮겨 왔지만 시신을 담을 관이 부족했다. 김종배는 광주 시내 장의사를 찾아다니며 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제때 관을 구할 수 없어 베니어합판을 사다가 임시로 관을 짜기도 했고, 비닐과 태극기를 구입해 시신을 감싸기도 했다.²⁴²

도청 본관과 민원실 2층 회의실 사이 구름다리 아래에 30여 구의 관이 놓였다. 전남대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한 시신은 관에 넣어진 후 도청으로 옮겨졌지만, 길에서 계엄군의 공격을 받아 숨진 시신은 보자기에 싸인 채 도청으로 옮겨졌다. 시신들 상당수는 총상이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짓이겨진 시신, 뼈가 한쪽으로 밀려나 있고, 얼굴에 황토색 흙이 묻어 있는 시신 등 참혹한 모습이었다. 여러 시신 가운데 눈에 띈 여성 시신이 있었다. 그녀는 발깎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 계엄군이 이 여성의 뒤에서 노끈으로 목을 조른 것처럼 보였다.²⁴³ 관에 넣어지지 않은 채 밖에 방치되어 있던 시신은 부풀어 있었고, 부패가 진행되어 지독한 냄새가 났다. 시신을 보고 코피를 쏟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 옆에 드라이아이스와 얼음을 쌓아두었지만, 시신 확인을 위해 관을 열어 두었기에 냄새는 더욱 심했다.²⁴⁴

일단 시신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솜으로 눈, 코, 입 등을 막았다. 시신 아래에는 비닐을 깔고, 부패가 진행되어 냄새가 심한 시신은 비닐로 덮었다.²⁴⁵

장례반 대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신마다 염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시신을 보러 온 사람들 대부분 침통한 표정이었다. 가족들이 나타나면, 염을 하고 관을 만들어 흰 천으로 관을 두르고 그 위에 태극기로 덮어 상무관으로 인계했다.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은 시신은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옷, 나이, 성별 등을 매직과 사인펜으로 기재하여 상무관으로 옮겨놓았다.²⁴⁶

도청 맞은편 상무관 앞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3~4명은 길게 늘어선 줄을 정리하며, 10명씩 상무관으로 들여보내고 있었다. 상무관 입구에는 명령을 모시는 분향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향이 퍼져나가면서, 그 냄새는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제 냄새와 뒤섞였다. 상무관 안, 바닥에는 입관을 마친 50여 구의 관이 놓여 있었고, 각 관 위에는 사진과 향이 올려져 있었다. 분향을 위해 상무관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시신들의 숫자와 처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오열을 삼키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사진을 붙들고 통곡하였다. 시민들은 2층에서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애국가와 묵념을 하며 숨진 사람들을 위해 명복을 빌었다.

남도예술회관과 YWCA 벽면에는 사망자 명단과 함께 시신 사진이 게시되었다. 전일빌딩 앞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대자보가 붙였으며, 그중 하나에는 '민주 시민 강령'이 공고되었다.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4개 항이 적혀 있었다. ①시민은 시민군을 믿고 적극 협조합시다. ②시민군은 위장된 계엄군 및 불순분자를 주의합시다. ③질서 회복에 힘쓰시다. ④평소 생활로 복귀합시다.²⁴⁷

2차 협상: 무기 회수를 둘러싼 갈등

23일 오전, 학생수습대책위원들은 현안을 토론했던 결과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무기 반납’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위원장 김창길 등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무조건 무기를 회수하여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위원장 김종배와 허규정 등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었을 때 무기를 반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오전 10시, 도지사실에서는 수습대책위원회 조직개편이 진행됐다. 개편된 수습대책위원회에는 명노근 교수, 신승균 목사, 박영봉 목사, 박윤봉 적십자사 전남지사장, 교사 신영순 등이 새로 위촉되었다. 이때부터 시민수습대책위원회와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확대회의가 시작되었다. 12시경, 첫 번째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계엄사에 요구할 8개 조건을 다시 확정하였다.

1. 계엄군, 공수부대의 지나친 과잉 진압을 인정하라
2. 연행자를 석방하라
3. 계엄군의 시가지 투입을 금지하라
4. 시민, 학생 처벌 및 보복 엄금하라
5. 정부 책임하에 사망자, 부상자의 피해 보상하라
6. 방송 재개 및 사실 보도를 촉구한다
7. 자극적인 어휘 사용을 금지하라
8. 시의 통로를 열어라

계엄사와의 두 번째 협상에는 조비오 신부, 명노근 교수, 한완석 목사, 장휴동 사장, 김창길 학생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오후 1시경, 대표단은 상무대 전 남북계엄분소로 향했다. 회수된 총기 3천여 정 중 150여 정의 카빈총을 함께 가지고 갔다. 이는 아직 무기 반납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여전했지만, 수습위원회의 의지를 먼저 보여주자는 취지에서였다. 계엄사 측은 무기가 너무 적다고 트집을 잡았고, 수습위원들은 “또 회수해 올 테니 시민들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상이 길어지자, 명노근 교수는 계엄사에 남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

비오 신부와 장휴동, 김창길은 연행자 중 계엄군이 분류한 34명의 시민을 데리고 도청으로 돌아갔다. 상무대에 남은 명노근 교수는 계엄 당국과 계속 협상을 이어갔으나, 예비검속자 및 연행자 전원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투항’이나, ‘투쟁’이나

22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무기 회수는 23일에도 계속되었다. 수습위원들이 시 외곽을 돌면서 시민군들에게 무기 회수를 권유했다. 시내 안에서는 여기저기에 방치된 총기들을 시민들이 모아서 도청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자진해 총기를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엄군과 인접한 광주 외곽지역에서 지역방위를 맡고 있던 시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시민군들은 백운동 철길, 화정동 공업단지 입구, 동운동 고속도로 진입로, 서방 삼거리, 산수동, 학운동 등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무기 회수에 강력히 반대하며, 광주시민의 피 값을 보상받기 전에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제1차 ‘민주수호시민결기대회’에서 시민들은 무기를 회수해 안전하게 관리하자는데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계엄 당국에 무기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도청의 수습대책위원회가 이러한 시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수렴해서 계엄사와 협상을 벌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녁 7시경, 2차 협상을 위해 계엄분소로 떠났던 수습위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석방된 34명을 데리고 왔지만, 돌아온 이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다. 수습위원회에서는 무기 반납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김창길 등 ‘무조건 무기 반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엄사가 실제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했으므로, 무기만 모아서 반납하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엄청난 피를 흘릴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맞서 김종배 등 ‘조건부 무기 반납’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기를 반납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라며, 시민군들이 쉽게 무기를 반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적어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과 사망자의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치르는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수습위원회의 분위기는 점차 무기 반납으로 기울어져 갔다.

하지만 24일 오후와 밤에 연이어 열린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무기 회수 및 반납을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게 된다. 이날 밤 9시, 도청 상황실에서 오후 1시에 이어 다시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열렸다. 김종배가 “지금 시점에서 무기를 반납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자, 김창길은 “총기 150여 정을 반납하니까 연행자 34명을 풀어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계속 정규군과 대결하다가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며 무기 반납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무기 반납에 동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무기 반납을 둘러싼 김창길과 김종배 사이의 의견 차이는 ‘투항’과 ‘투쟁’이라는 노선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새벽 3시경에 황금선(남, 28세), 박남선(남, 26세) 김화성 등 일반인까지 포함하여 학생수습위원회 기구가 보강, 개편된다.²⁴⁸

재야 민주인사들의 대책회의

25일 오전 10시, 재야인사들은 YWCA 2층 총무실에 모였다. 무기반납을 둘러싼 현 사태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윤상원과 정상용이 재야인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루어진 회합이었다. 이때까지 재야인사들은 도청 내 수습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었다. 한 번쯤 전체 회합을 가져 사태수습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재야인사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무기반납을 증지하고 투쟁조직을 만들자는 윤상원, 정상용의 의견에 일부는 반대하거나 관망하는 입장이었고, 진보적인 재야인사들은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을 지지하던 진보적인 재야민주인사들도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결정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날 전체적인 결론은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²⁴⁹

YWCA에서 회의가 끝난 후 김성용 신부, 조비오 신부, 송기숙 교수 등 재야인사 일부는 오후 2시 남동성당 유치원에서 다시 모였다. 김성용 신부의 주관하에 회합을 갖고 시민들의 여론과 계엄군 측과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도청 수습위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오후 5시경 남동성당에 모인 재야인사들이 도청으로 들어가 수습위원회에 합류해, 김성용 신부가 제안한 네 가지 사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1)국가 최고 원수인 최규하 대통령은 광주의 이번 사태를 인정할 것, 2)사과하고 용서를 청할 것, 3)보상과 복구를 책임질 것, 4)어떠한 보복 조치도 없을 것 등이었다.²⁵⁰

한편, 새벽에 학생수습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개편된 가운데 위원장 김창길 등은 무기를 회수하여 반납하는 쪽으로 의견을 밀고 나갔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결정을 단행했다. 회수된 무기를 반납하는 방법은 시민군으로부터 총기를 회수하여 도청 안에다 집결시켜놓은 다음, 전부 도청에서 빠져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위원장 김종배와 상황실장 박남선은 무기 반납을 강력하게 제지하는 입장이었다. 윤상원은 이러한 학생수습위원회 안의 대립된 분위기를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한 뒤, 박남선과 김종배 등을 별도로 만났다. 무기 반납을 반

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함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쫓겨대회가 끝난 뒤에 YWCA에서 조직된 청년·학생들과 함께 도청에서 만나 새 집행부 구성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윤상원의 제안에 김종배와 박남선 등은 적극 환영했다.²⁵¹

항쟁지도부 결성

25일 늦은 오후, 조아라 YWCA 회장은 재야인사들의 수습위원회 합류를 결정한 회의를 끝내고 도청을 나왔다. 여성인 본인과 이애신 총무를 제외하고 수습위원들 대부분은 밤새 도청에 남기로 한 터였다. 조아라 회장은 잠시 YWCA에 들렀는데 그때 마침 쫓겨대회를 끝내고 평가 회의를 하고 나오는 정현애와 이운정을 만났다. 조아라 회장은 도청 회의장을 나오면서 남아 있는 재야민주인사들이 저녁을 거르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²⁵² 그래서 정현애에게 “여기 YWCA 건물을 이제 쓰소.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보네. 그 대신 여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히 써주게.”라는 말과 함께 3만 원을 건네며 도청 안으로 빵과 음료수 등을 사서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때까지 정현애는 도청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망설이고 있는 순간 옆에 있던 이운정이 “언니, 갑시다.”하며 앞섰다. 당시 YWCA에서도 밥을 해서 도청과 YMCA로도 많이 보내고는 했다. 그런데 도청에 있는 어른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 ‘도청 취사팀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현애는 이운정, 김성애와 함께 빵과 음료수를 사서 도청 2층 회의실에 전달하고 나와 도청 안을 둘러보니 어린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한쪽 구석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한쪽에 쌓여 있는 설거지를 가리키며 “와서 보고만 있지 말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에는 충을 든 시

민군들이 군데군데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중 몇몇은 “아직까지 밥을 못 먹었다. 배가 많이 고프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도청 안의 분위기는 모두 지치고 힘든 탓인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잔뜩 쌓여 있는 설거지를 마친 정현애와 이운정이 YWCA로 돌아가려는 데 출입이 통제되어 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복도에 들어서는 윤상원과 정상용, 이양현, 김영철, 정해직, 윤강옥, 박효선 등의 모습이 보였다. 박효선이 정현애를 보더니 여기 쫓겨대회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함께 들어가자고 했다. 정현애는 회의가 진행되는 식산국장실로 이들과 함께 들어갔다.²⁵³

이날 저녁(7시경) 윤상원의 안내로 식산국장실로 들어간 정상용, 이양현 등은 학생수습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종배와 허규정 등과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이때 윤상원 등이 데리고 온 대학생 50여 명은 식산국장실 옆 회의실에 대기시켰다. 이들은 쫓겨대회 후 YWCA로 모인 대학생들이었다. 이미 사전에 윤상원 등 녹두서점 팀들은 무기 반납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회합에서 윤상원과 김종배 등은 당장 무기반납을 중단하고 협상력을 강화시키자는 방침에 합의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창길은 도청에 YWCA에서 윤상원을 따라 들어온 대학생들이 곳곳에 배치되고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밤 9시경 김창길은 학생수습위원회에서 본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그는 수습위원장직을 내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25일 밤 10시 도청 식산국장실에서 기존의 지도부를 해체하고 김종배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었다. 명칭은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민주투쟁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들은 최후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투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밤샘 회의를 진행한다.²⁵⁴

위원장 : 김종배(26세) - 업무 총괄
 내무 담당 부위원장 : 허규정(26세) - 도청 내부 문제, 대민, 장례 업무
 외무 담당 부위원장 : 정상용(30세) - 계엄사 협상 업무
 대변인 : 윤상원(29세) - 기자회견 및 집행부의 공식적인 대외 발표 업무
 상황실장 : 박남선(26세) - 시민군 군사업무
 기획실장 : 김영철(32세) - 지도부의 제반 업무 및 기획
 기획위원 : 이양현(30세) - 기획업무
 기획위원 : 윤강욱(29세) - 기획업무
 홍보부장 : 박효선(26세) - 궐기대회 및 제반 홍보업무
 민원실장 : 정해직(29세) - 제반 대민업무, 장례 업무
 조사부장 : 김준봉(21세) - 치안 질서 위배자 조사
 보급부장 : 구성주(25세) - 식량 조달 및 식사 공급

2. 외곽봉쇄와 민간인 학살

외곽지역 일가족 총상

5월 21일 오후 5시, 광주 시내에서 퇴각한 계엄군은 광주 외곽의 주요 지점들에 배치되었다. 자위권 발동과 함께 대량의 실탄을 지급받고 무장한 계엄군은 퇴각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그로 인해 광주 시내 접경지역에서 총격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21일 밤, 광주-나주 간 봉쇄 작전에 따라, 효천역 일대에는 20사단 61연대 2대대 5중대와 6중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21일 밤부터 계엄군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 차에 총알이 박히는 요란한 소리와 사람들

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22일 새벽 0시 15분, 61연대장은 시민군과 계엄군의 교전 상황을 보고 받고 곧바로 병력을 증원했다. 이른 아침, 20사단 61연대는 효천역을 중심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광주 방향으로 송암 공단 앞 도로를, 목포 방향으로 나주 남평 다리 입구를 차단하고, 송암동 연탄공장 앞 도로에는 돌을 쌓아 길을 막았다. 민간인 차량은 물론 보행자조차 예외 없이 멈춰 서야 했다.

목포 주민 황남열(남, 43세)은 21일 아내와 함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목포에서 광주로 향했다. 아들 황재영은 20일 광주 교육대학 앞에서 계엄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 친구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이날 황남열은 아들이 머물고 있던 집 근처 산봉우리에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포로 가는 계획을 포기한다. 22일 새벽 5시, 황남열 가족은 지인 박재영(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포로 출발했다. 남평을 지나던 중, 갑자기 계엄군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총소리가 나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황남열의 아내는 아들을 감싸 안은 채 앞드렸고, 머리, 팔, 등에 유리 파편이 박혔지만, 다행히 아들은 거의 다치지 않았다. 총을 쏘지 말라고 큰소리로 외치자, 잠시 후 총소리가 멎었다. 계엄군이 “살고 싶으면 빨리 나와.”라고 위협하며 외쳤다. 황남열이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운전수 박재영이 갑자기 차량 뒤쪽으로 재빠르게 5~6m 정도 달려갔다. 계엄군은 그 즉시 그를 향해 총을 쏘았다. 총알은 머리를 뚫고 지나가 그의 얼굴에 큰 구멍을 내었다. 결국 박재영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황남열 가족은 상무대로 이송된다.²⁵⁵

이날, 광주-담양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광주교도소 일대에서도 일가족이 총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교도소의 각 사면에는 3공수여단이 주둔하면서,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군과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22일 오전 10시경, 김성수(남, 46세)는 아내 김춘화(43세), 막내딸(5세)과 함께 트럭을 타고 진도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량이 광주교도소 근처 호남고속도로 검문소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공수부대의 정지 신호가 떨어졌다. 김성수는 급히 차를 세웠고, 그 순간 대여섯 명의 공수대원이 달려들어 검문을 시작했다. 아내 김춘화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사정했다. “집에서 어린 새끼들이 굶고 있는지, 잠을 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발 집에 가게 해주세요.” 공수대원이 갑자기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빼 들어 실탄을 장전하기 시작했다. 김성수는 서둘러 아내 김춘화와 함께 차에 올랐다. 광주를 향해 차를 돌리는 순간 차 뒤쪽에서 총탄이 쏟아졌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려보니 도착한 곳은 전남대병원 응급실이였다. 김성수의 등에는 차에 맞고 튕 총탄이 박혀 있었다. 아내 김춘화는 총탄이 목에서 머리 위쪽으로 스쳐 지나가 머리가 수박처럼 벌어졌고, 막내딸은 척추에 정통으로 총탄을 맞았다. 김춘화와 딸은 시민들의 헌혈로 혼수상태에서 깨어났고,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김춘화는 뇌수술을 세 번이나 받아야 했고, 막내딸은 하반신 불구로 1급 장애인 되었다.²⁵⁶

22일, 광주교도소 인근 민간인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23.7세로 모두 남성이었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김병연(남, 18세)은 오후 2시~3시경 고향인 전남 담양으로 향하던 중 북구 두암동 광주동일실업고등학교 건너편 보리밭에서 공수대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외 6명(서종덕, 이명진, 이용충, 서만오, 노경운, 최열락)은 버스나 트럭 등에 탑승한 채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²⁵⁷

통합병원 확보 작전, 여성 총상

21일 오후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퇴각할 때, 시내 서쪽의 화정동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쌍촌동까지 후퇴했다. 당시 국군통합병원에는 부상당한 상당수의 군인들이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었다. 계엄당국은 군부대를 방어하고 군 사상자를 처리하기 위해 통합병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²⁵⁸ 이에 계엄사령부는 광주에 새로 투입된 20사단으로 하여금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22일 오후 4시경,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오후 5시까지 광주통합병원을 확보

하라는 지시를 받고 탱크 3대를 앞세우고 상무대-쌍촌동-화정동 도로를 따라 시내로 진입했다. 당시 시민군은 조직과 명령 체계가 잡히지 않은 채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오가며 산발적으로 경계하고 있을 뿐이었다. 쌍촌동 지역을 지키고 있던 10명도 되지 않은 소수의 시민군들이 탱크 3대를 앞세우고 진입하는 군인들을 보고 놀라서 총을 쏘다가 시내로 퇴각하였다. 시민군들은 수습대책위원회가 있는 도청 상황실로 계엄군이 총격을 가하며 진입하고 있다고 전화로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도청의 수습대책위원회는 시민군을 조직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계엄군 20사단은 쌍촌동에서 화정동 통합병원 앞 도로까지 이동하면서 인근 민가에 무장 시민군이 숨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도로 양쪽 상가와 민간인 주택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 그 총격으로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등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²⁵⁹ 국군통합병원 인근의 민간인 희생자는 계엄군이 발사한 총탄이 집 안으로 들어와 사망하거나, 자택 앞 골목에서 그리고 자택 옥상에서 바깥 상황을 살피다 계엄군이 발사한 총탄에 의해 쓰러졌다. 그 자리에 사망한 사람도 있으며, 일부는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 중에 또는 입원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매실(여, 68세)은 국군통합병원 인근 사망자 중 최고령자였다. 그녀의 집은 쌍촌동 화정국민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22일 오후 4시 50분~5시 50분 사이, 이매실은 2층 방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인공시대(한국전쟁)도 아닌데 설마 동족을 죽이려고 하겠냐’고 생각하면서, 데리고 있던 손자들만 바깥출입을 못하게 했다. 그때 밖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계엄군이 대로를 오가며, 옥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 모두 밖이 궁금했지만, 내다 볼 생각은 못하고 있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순간, 갑자기 이매실이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 함께 있던 어린 손자와 손녀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이매실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²⁶⁰

여성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다. 시민과 대치 중이던 계엄군은 주택가를 향해 총을 쏘아댔다. 가정주부 손명선(32세)은 22일 아들(5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

다. 옆집 대문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그동안 시내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총을 쏘면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민군을 향해 총을 쏘더니, 갑자기 민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 집까지의 거리는 겨우 10m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옆집 2층으로 달려갔다. 2층에는 이미 7~8명의 사람들이 엎드려 있었다. 총격은 계속되었다. 손명선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그때, 계엄군은 열린 창문을 통해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하자마자, 집중 사격을 가했다. 총알은 손명선의 왼쪽 턱을 맞추고 뒷목을 관통했다. 또한, 아들의 오른쪽 팔에도 총알이 박혔다. 실신해 있던 손명선은 계엄군에 의해 상무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손명선은 복도에 방치되어 있다가, 이후 통합병원으로 아이와 함께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6월 13일경, 두 사람은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아들은 손목에 박힌 파편을 뺄 수 있는 데까지 제거하고 손명선도 인조 뼈를 넣는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했다.²⁶¹

최복순(여, 39세)은 22일 오후 5시 무렵, 불안한 마음에 2층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하는 순간, 창문을 뚫고 총알이 날아왔다. 총알은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박혔다. 남편이 박힌 총알을 빼려고, 어깨에 난 구멍에 손을 집어넣었지만, 피만 계속 흐를 뿐이었다. 다급해진 남편이 “사람 살려 달라!”고 외치면서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집 앞, 길 건너편에는 군용트럭 2대가 서 있었고, 그 트럭 위에는 계엄군에 의해 부상당한 환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녀 또한 남편과 함께 트럭 뒤쪽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앞에는 배에 총상을 입은 청년이 고통스러워하며 누워있었다. 통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복도는 환자가 가득했다. 여기저기 악쓰는 소리, 우는 소리로 소란스러웠고 그 와중에 방망이로 환자들을 구타하는 군인도 있었다. 그녀는 저녁 9시가 돼서야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²⁶²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이추자(23세)는 22일 오후 5시경,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 내다보니 송정리 쪽에서 탱크가 수없이 몰려오고 계엄군들이 줄을 지어 오고 있었다. 잠시 후 요란한 총소리가 들리자 2층 방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 ‘탕’ 소리

와 함께 총알이 오른쪽 눈가와 귀를 스쳤고,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와서 몸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면서 아이가 유산되었는지 모른다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렀다. 잠시 후 계엄군 두 명이 군화발로 방안까지 들어오더니 욕박질렀다. “폭도 새끼들 어디다 숨겨놨냐?”라고 하면서 벽장과 장롱문을 열어젖히고 온 방을 어지럽게 휘저어 놓았다. 그들은 이추자를 병원으로 가자며 잣등 욕고 밑에 대기시켜 놓은 차에 실었다. 의무병한테서 대충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23일) 통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²⁶³

최복덕(여, 61세)은 쌍촌동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다. 22일 오후 7시~8시경, ‘늙은 사람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집 근처 공터의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군들이 나타나 총을 쏘기 시작했다. 몸을 숨길 곳도 없이 움쭉달싹 못 한 채 총을 맞고 말았다. 총알은 왼쪽 귀를 뚫고 들어와 볼에 박혔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업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방바닥에 그녀를 눕히고 보니, 그녀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옆집 신혼부부가 국군통합병원에 연락을 한 후에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²⁶⁴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 :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

22일부터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은 광주~화순 간 도로를 봉쇄하고 있었다. 11공수여단은 22일 새벽 6시경, 소태동에서 주남마을 앞까지 화순 방향의 지원동 15번 국도와 바랑산, 부영산 등에 매복해 있었고, 7공수여단은 제2수원지와 너릿재 부근의 도로와 산길에 매복해 있었다. 7공수여단은 화순군에서 지원나온 트럭과 오토바이에 총격을 가해 불태운 뒤, 이를 도로와 터널의 차단물로 사용했다. 이때부터 화순과 광주 사이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했다.

22일 오전 9시, 강해중(여, 38세)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아들 둘과 함께 지원동 집에서 화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던 딸을 발견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보고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불안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걷고 있었다. 지원동 버스 정류장을 지나갈 때였다. 유리창이 깨진 버스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10여 명의 시민군이 타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인근 산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시민군이 탄 버스를 향해 일제히 집중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군이 탄 버스는 도로 옆 전봇대 앞에 멈춰버렸다. 아들이들이 군인의 사정거리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한 후, 강해중은 급히 도로 옆 보리밭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딸도 강해중의 뒤쪽에 었드려 있었다. 그러나 불현듯 강해중은 순간 딸이 죽은 것 같은 예감에 휩싸여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갑자기 양 눈에 뭔가 스쳐 지나더니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강해중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이후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았지만, 결국 두 눈을 잃었다.²⁶⁵

23일, 일신방직에 근무하던 고영자(여, 22세)와 김춘례(여, 18세)는 함께 기숙사를 나섰다. 김춘례는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영자와 함께 화순에 있는 고향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된 상태여서, 두 사람은 시위대가 탄 미니버스 차량에 동승하게 된다. 이 버스에는 시민군 일행(김남석, 백대환, 황호걸), 손옥례(여, 19세), 박현숙(여, 19세), 홍금숙(여, 17세)이 함께 타고 있었다. 미니버스가 지원동 1번 버스 종점을 막 지날 때였다. 화순 방향 벽돌블록 공장 앞에 이르렀을 때, 계엄군 지휘관이 차를 멈춰 세웠다. 이곳은 11공수여단 62대대 4·5지역대가 매복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복 중이던 계엄군은 미니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고영자, 김춘례, 손옥례, 박현숙은 다발성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고영자, 박현숙의 시신은 5월 24일, 11공수여단 61대대 정보장교 등 10여 명에 의해 피격 현장에서 수습되어 인근의 도로와 논 사이 배수로에 가매장되었다. 이후 두 사람의 시신은 미니버스 탑승 사망자 6구의 시신과 함께 5월 29일 수습되어 전남대병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²⁶⁶ 김춘례의 시신은 전남대

병원 영안실 입구의 콘크리트 바닥에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들 가운데 있었는데, 가족들(두 명의 오빠)이 5월 28일 장례를 치른 후 망월동에 안장했다.²⁶⁷ 손옥례의 시신은 다른 희생자 3명과 함께 피격 직후 현장에서 수습되어 가매장되었다.²⁶⁸

박현숙은 22일부터 도청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23일, 정오가 다 되어 미니버스를 탔다. 버스 뒷좌석에서 함께 앉아 있었던 홍금숙의 구술에 따르면, 박현숙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한다.²⁶⁹ 박현숙은 검시 당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묘지에 매장되었다가, 광주시청과 경찰서에서 가족의 실종자 및 미확인 시체에 대한 사진 확인 과정을 거쳐 8월 20일 가족에게 인도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박현숙은 뇌좌상에 의한 심혈성 쇼크 및 혈흉이었다.²⁷⁰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은 23일 오전(9시 30분경)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은 이날 사건이 오후 2~3시경에 있었다고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²⁷¹ 그녀는 23일 오전 어머니와 함께 전남대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오빠를 찾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점심이 지나 어머니와 헤어진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광주공원 부근에서 미니버스를 탔다. 당시 시내 교통이 모두 마비된 상태였다. 그녀는 미니버스가 나주 가는 길목에 위치한 옥천여상 근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 하여 탑승했다. 미니버스 안에는 18명의 남녀 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M1과 카빈 등 무장을 하고 있었고, 차 안에는 무전기도 있었다. 이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다. 미니버스가 월산동 대창주유소 근처를 지날 때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홍금숙은 그 이유를 물었고, 운전자는 다른 곳을 들른 후 나주 쪽으로 간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박현숙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서로 인사를 나눴다.

1980년 5월 23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내가 탄 차가 광주를 벗어나 화순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5인승 미니버스로 모두 18명

의 남녀 학생들이 타고 있었지요(여고생 2명, 여대생 2명, 남학생 14명). 남학생들은 M1과 카빈 등으로 무장을 했고, 차 안에는 무전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았어요.²⁷²

미니버스가 광주천을 지나 지원동을 막 벗어났을 때였다. 군인 한 명이 도로변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버스에 탄 시위대는 일단 멈추면 어떻게 되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멈추지 않고 속력을 내 달렸다. 그 순간 갑자기 요란한 총격 소리와 함께 버스에 총탄이 쏟아졌다. 계속해서 총알이 날아오자 누군가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다. 차를 돌리려는 순간, 버스 기사가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차 안에 있던 청년들도 산을 향해 응전하기 시작했지만, 더 많은 총탄이 날아왔고,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했는지, 한 청년이 총을 쏘지 말고 각자 총을 높이 들어 항복하자고 제안했다. 남성들은 총을 흔들었고, 여성들은 양손과 손수건을 흔들며 쏘지 말라고 외쳤으나, 계엄군의 총탄은 멈추지 않았다. 총알은 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홍금숙은 중간 자리로 이동해 의자 밑에 엎드려 있었다.

차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맞은편의 남자는 내장이 터져 차 바닥으로 쏟아진 채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한순간 총소리가 멈추고 사람들의 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긴장 속에서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눈을 뜨자, 오른쪽 팔과 등 옆구리, 엉덩이, 장딴지 할 것 없이 몸 전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까이서 “죽은 사람을 확인해 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너 명의 군인이 차 안으로 올라와 군홃발로 한 사람씩 툭툭 치며 생사를 확인했다. 뒤쪽에서 한 사람이 공포에 떨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계엄군은 그를 끌어내린 뒤 다시 차에 올라 소리쳤다. “살아 있으면,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앞쪽에서 살려달라는 신음 소리가 들렸다. 홍금숙은 죽은 듯이 엎드려 눈을 살짝 뜨고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군홃발이 옆구리로 날아와, 심한 통증에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계엄군이 사망자를 다시 확인하는 동안 구급차가 도착했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그녀는 경운기

에 실려 산속으로 옮겨졌다. 그녀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계엄군은 대검을 들이대며 “너도 유방이 잘리고 싶냐?”고 위협을 했다. 교련복을 입은 남학생은 부상을 입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주남마을 옆 산에는 많은 계엄군이 매복하고 있었다. 잠시 후, 높은 계급의 군인이 와 “귀찮게 왜 데려왔느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두 남성은 손수레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홍금숙은 군인 한 명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녀를 감시한 군인은 “앞으로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모른다고 대답해라. 나도 너와 같은 동생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오늘 오전에도 11명이나 죽었다.”고 말했다.²⁷³ 홍금숙은 한참 후, 헬기에 실려 송정리 비행장으로 이송되었다.

송암동 민간인 학살

무기 반납을 둘러싼 도청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엄사의 광주재진입 작전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었다. 광주시민의 강한 저항에 밀려 공수부대를 외곽으로 철수시킨 계엄 당국은 광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새로운 진압 작전을 준비했다.²⁷⁴ 그 과정에서 계엄군은 국도를 통하는 시위 차량과 민간인들에게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이다.

24일 오전 9시경, 주남마을 뒷산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은 20사단 61연대에 임무를 넘겨주고 오후가 되어 광주재진입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비행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1시 30분경, 11공수여단 선두가 광주~목포간 도로에 인접한 송암동 효덕국민학교 삼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트럭을 타고 그곳에 와 있던 무장시위대를 발견하면서 일방적으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²⁷⁵ 그러자 뒤따라가던 5백여 미터에 이르는 병력들이 그 총소리를 듣고 도로

좌우측으로 무차별 사격을 퍼부으며 전진했다. 11공수여단이 발견한 무장시위대는 최영철(남, 20세), 최진수(남, 17세), 이강갑(남, 21세) 등이었다. 이들은 공수부대가 난사한 기관총 소리에 놀라 재빨리 주변 민가로 들어가 몸을 숨겼으나 이어진 공수부대의 수색으로 5명이 생포되고 다른 1명은 공수부대가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하였다.²⁷⁶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이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때 방광범(남, 12세)은 동네 친구들과 공수부대가 지나는 곳에서 멀지 않은 원제저수지에서 먹을 감고 있었다. 갑작스런 총소리에 놀란 아이들은 먹을 감다 말고 재빨리 둑 너머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맨 뒤에서 서서 뛰어오던 방광범은 저수지 수문 쪽으로 몸을 피하는 순간 뒷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국민학교 4학년생이던 전재수(남, 10세)는 이날 효덕국민학교 부근 마을 언덕 배기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고 있었다. 11공수여단 차량 대열이 이곳을 지나가자 전재수와 친구들은 군부대 차량 대열에 손을 흔들기도 하였다. 군인들은 대열의 선두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리자 도로 주변 양측에 집중 난사를 하였고, 총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뒷동산으로 도망쳤다. 허겁지겁 뛰어가던 전재수는 신고 있던 고무신이 벗겨져 이것을 주우려고 다시 돌아서는 순간 집중사격을 당해 사망하였다. 전재수의 어머니는 M16을 십여 발이나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어린 아들의 시신을 보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상심하다 1984년 세상을 떠났다.²⁷⁷

11공수여단이 효덕국민학교 삼거리에서 무장 시위대를 발견하고 자행했던 무차별 총격은 뒤이어 9명의 군인 사망자를 낸 군 오인전투로 이어졌다. 무장시위대를 향한 총격전을 재개하면서 이동하던 11공수여단 63대대 선두장갑차가 효천역 전방 5백여 미터 지점에 도착했을 때 도로를 차단하고 매복 중이던 보병학교 교도대가 기습공격을 하였다. 보병학교 교도대는 11공수여단 63대대를 시민군으로 착각하여 90mm 무반동총으로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다. 11공수여단은 즉각 반격을 가해 30분 넘게 격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1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9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당했다.²⁷⁸

11공수여단 군인들은 오인전투가 끝나자 이성을 잃고 눈에 띄는 사람이나 근

처 민가에 총격을 가했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을 끌어내어 사살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날 송암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박연옥(여, 50세)은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늦둥이 막내아들이 걱정되어 옷가지를 몇 벌 챙겨 같은 동네 아주머니랑 길을 나섰다. 진흥중학교 1학년이던 막내아들은 오ちに 사는 작은 아들네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광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의 길로 걸어가던 박연옥 일행은 도로에서 공수부대가 총을 쏘아대자 일시에 흩어져 숨을 곳을 찾았다. 일행이던 동네 아주머니는 모래더미 뒤에 숨었고, 박연옥은 도로 근처 하수구로 들어가 숨었다. 총격전을 마치고 주변을 수색하던 11공수여단 군인들은 박연옥을 찾아내어 총구를 들이대며 “나와라!”고 고함을 질렀다. 겁을 먹은 박연옥이 주춤하는 사이, 군인들은 하수구 안으로 총을 난사하였다. 쪼그려 앉아 있던 박연옥은 복부와 회음부에 총이 관통해 사망하였다.²⁷⁹

같은 날 오후 2시경 김평용(남, 16세)은 광주 중흥동 자취방을 나와 영암 본가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효덕국민학교 앞에서 11공수여단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김평용은 양쪽 복숭아뼈 관통상을 입은 뒤 대검으로 등을 찔리는 가혹 행위도 당하였다. 송정교(남, 50세)는 둘째 딸(16세)과 함께 걸어서 나주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었다. 오후 3시경 송암동 효덕국민학교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군인들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도로 양편으로 피했고, 송정교는 계엄군의 총격을 피해 딸을 숨기는 순간 총탄이 그의 어깨와 배를 관통하여 사망하였다.²⁸⁰

11공수여단 군인들은 계엄군 간 오인전투가 끝난 후 시민군을 색출한다며 마을 일대를 수색하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군화를 신은 채 민가에 들어가 김승후(남, 19세), 권근립(남, 25세), 임병철(남, 24세)을 끌어내 마을 앞 도랑 부근에서 사살했다. 선반공으로 일하던 김승후는 광주 시위가 날로 거세져 공장이 문을 닫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김승후 집에는 임병철과 권근립이 세 들어 살고 있었다. 그때 이들 세 명은 집에서 장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오후 3시경 총성과 굉음이 멈춘 후 5명의 군인들이 집안으로 들어닥쳤다. 군인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국가의 반역자들이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여 차량이 폭파되었는데 반역자들을 수색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군인들이 집에 있던 청년 3명을 데리고 나간 후 몇 발의 총성이 울렸다. 잠시 후 군인들이 철수하는 소리가 나자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빗물과 섞인 핏물이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김승후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다. 벌써 숨이 끊긴 김승후는 축 늘어져 아버지 김기수(50세) 가슴에 안겨 왔다. 권근립과 임병철도 인근 수로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²⁸¹ 이처럼 5월 24일 송암동 일대에서 계엄군에 의해 학살된 사망자들은 미성년자, 여성 등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의 민간인들이었다.

군인끼리의 오인전투에 대한 급보를 받고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상무대에서 헬기를 타고 급히 현장을 달려왔다. 정호용은 부하가 죽고 다친 데만 신경을 쓰고 그들이 주민들을 살해한 행위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강변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국군이 어떤 사람을 무자비하게 쏘려 죽인다는가 더구나 아녀자나 어린애를 무자비하게 살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유언비어가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해야 된다. 절대로 믿지 않는다.”

군부대 간 오인전투는 공수부대가 현지 부대의 지휘체계와 통신체계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부대이동과 작전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지휘체계 이원화의 결과이다. 송암동 군 오인전투와 양민학살 사건은 국회 광주 청문회에서 계엄군 ‘지휘체계 이원화’의 증거로 꼽혀 논란이 되었다. 또한 무반동총과 클레이모어를 동원한 기습공격은 ‘자위권’이 사실상 ‘선제기습공격’ 즉 말살작전으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 신군부는 오인전투 사망자를 ‘폭도의 흉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을 날조해 공적조서를 만들어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²⁸²

외곽봉쇄작전 중의 성폭력 사건

5월 21일 오후 4시경, 윤흥정 전교사령관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공수부대의 시외곽 철수와 자위권 발동을 승인받아 전남도청에 있는 7·11공수여단의 철수를 지시했다. 이와함께 예하 부대에 예비군 무기 및 탄약 확보, 도로봉쇄를 지시하고, 이어 광주 도시권 외곽도로의 완전 봉쇄를 지시하였다.²⁸³ 외곽봉쇄작전에 따라 20사단은 21일 오후 4시경 시위대의 광주시 진입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봉쇄하기 위한 최초 부대 배치 명령을 수령하였다.²⁸⁴ 같은 시각 “20사단의 61연대는 광주~목포간 도로를 차단하고 톨게이트를 봉쇄하였고, 62연대는 통합병원과 광주비행장에 투입”²⁸⁵되었다. 오후 7시에는 31사단 1개중대는 오치, 3공수 1개여단은 교도소(순천방향), 11공수 1개여단은 소태동(화순방향), 20사단은 1개 대대는 백운동(광주~목포간 도로), 1개 대대는 백운동(광주~목포간 도로), 1개 대대는 광주~전주간 톨게이트 점령을 완료했다.²⁸⁶

계엄군이 퇴각한 21일 오후부터 시작해 광주재진입작전 직전까지 도심외곽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 동안, 외곽 각 방면에서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지원동 인근과 화순 방면에서 2건, 담양~광주교도소 방면 1건, 송암동 방면 1건, 목포 외곽지역 1건, 상무대 인근 1건, 학운동 1건 등 총 7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유형은 강간 6건과 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유산 1건이다. 특히 집단강간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80년 당시 외곽봉쇄작전은 사주방어²⁸⁷에 용이한 주요고지를 점령하여 지형적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고, 효과적인 외곽봉쇄를 위해 도로상에 장애물과 대화구²⁸⁸를 설치하여 주요지점에 매복을 실시하였다. 외곽봉쇄작전 특성상 장애물과 지형을 활용한 계엄군의 사주방어는 계엄군이 지나가는 여성을 쉽게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성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21세 여성 23-A는 23일 오후 1시경, 동료와 함께 퇴근해 학운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사복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들은 군복 입은 어떤 사람을 불렀다. 군인은 23-A와 동료에게 순순히 따라오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들은 두려움에 그들을 따라갔고, 도착한 곳은 산과 산 사이의 골짜

기 같은 곳이었다. 옷을 벗기려고 해 저항하자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쳐버려 치아 3개가 부러졌다. 3명은 윤간 후 가지고 있던 돈을 갈취하고 가버렸다.²⁸⁹

24일 오후 6시경, 학살의 광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 송암동 일대는 무거운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군인 간 오인전투로 인한 광란의 총탄이 마을 전체를 흔들어 놓았지만 주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집안에서 숨죽여 흐느끼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간 송암동 근처에서 살고 있던 19세 여성 24-A는 시위대 버스를 타고 대동고 근처 정류장에 내렸다. 낮에 광주 시내에서 차량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암동 일대 동네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참 집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얼굴에 검은 칠을 한 것 같은 군인 2명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고, 이후 각각 양팔을 잡더니 도로 옆 야산으로 끌고가 강간했다.²⁹⁰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은 광주 외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22일 목포에서도 발생했다. 22일,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던 22세 여성 22-A는 시택의 학대로 쫓겨나 친정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웃 할머니는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검문소 쪽으로는 가지 마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라며 알려주었다. 친정집이 있는 나주로 가는 버스는 운행되지 않고 있었고, 수중에는 돈도 없어 무작정 걸었다. 검문소를 피해 그녀가 걸어간 곳은 산속이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산속에서 그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두려움과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총 같은 것이 부딪쳐 나는 소리로 군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살려 달라고 사정했으나, 그들은 그녀를 강간했다.²⁹¹

3. 제2의 항쟁지도부, 여성들의 활동

애도 : 조기 계양과 검은 리본 제작²⁹²

22일 새벽 6시경, 김영철(남, 32세)은 녹두서점을 찾았다. 그는 전날 시위대와 함께 있다 학동에 있는 고아원에서 밤을 새고, 동이 트자마자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서점에 들어서며 급하게 말문을 열었다. “군인들이 완전히 물러갔어요. 시민들이 이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이 서점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사망한 시민들에 대한 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때, 김영철이 도청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고 말하자, 정현애는 “사람들이 도청광장으로 모일 테니, 태극기를 조기로 바꿔 게양하면 억울한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검은 리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제안했다. 김영철은 그녀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다.

옷장을 뒤져 검은 천을 찾아낸 정현애는 조기 게양을 위해 필요한 조각을 만들었다. 김영철은 그 천을 들고 도청으로 향했고, 정현애와 정현순은 남은 천으로 검은 리본을 만들어 나갔다. 그 사이 윤상원, 김상집, 박효선, 임영희, 정유아, 이윤정 등이 속속 서점으로 모여들었다. 본격적인 대책 논의와 함께, 애도를 포함한 홍보, 장례식, 모금 운동, 홍보활동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갔다. 여성들은 3천여 개의 검은 리본을 만들어 도청 앞 광장으로 가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광목은 시신이 있는 상무관으로 보내고 나머지 광목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정오 무렵, 전남도청 옥상에는 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을 애도하기 위한 태극기와 검은색 천으로 만든 조기가 게양되었다.

한편, 그동안 매일 금남로에 나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또한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었다. 이 여성들의 발걸음은 시신이 안치된 상무관으로 향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곳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들을 이끌

었다. 상무관 안은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여성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상무관 내 분향소에서 조의금 접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조의금 명단도 쓰고. 시민들이 분향하고 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그냥 정말로 아깝지 않게 다 내놓았어요. 동전까지 쏟아 내놓고 그랬어요. (중략) 검은 리본도 우리가 하자 해서, 그때 남동성당 주변에 양장점이 많았어요. 저쪽 양림동 쪽까지 가서 검은 천을 구하고. 광주여고 쪽으로 가면 문방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옷핀을 얻어 가지고 와서 상무관 앞에서 저희가 리본을 달아드렸어요.²⁹³



도청에 걸린 조기
©촬영: 나경택 출처: 5·18기념재단

헌혈에 앞장선 여성들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대규모 총상 환자가 발생하면서, 광주의 종합병원(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은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병원에 후송된 환자들 대부분은 총상에 의한 부상자들이었고, 그 외에도 타박상과 자상에 의한 환자들이 속속 들어왔다. 각 병원은 급증하는 환자들로 인해 혼잡했지만, 의료진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은 전쟁터처럼 참혹했다. 부상자와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실려 왔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웠다. 병원의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적십자병원에는 21일 집단 발포 이후 총상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민군들은 적십자 깃발을 달고 부상자들을 후송하며, 의약품을 수송하기 위해 적십자병원을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적십자병원은 병실 침상 100여 개 정도에 6명 정도의 전문의와 50여 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소규모 종합병원으로, 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 각각 한 명씩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²⁹⁴ 간호사들은 응급실 한 쪽으로 침대를 밀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썼다. 침상에 눕지 못한 환자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22일 오전 10시, 적십자병원에는 22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다.²⁹⁵ 이들은 21일 공수부대의 집단사격으로 사망한 이들로, 각각 비닐로 덮여 있었다. 관 안에는 얼음이 들어 있었고, 그 수증기로 인해 영안실은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보였다. 이날 오후 적십자병원에는 UPI 통신 기자와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방문했다. 두 기자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하나씩 시신의 비닐을 벗기며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시신은 머리가 보이지 않고, 두 개의 치아만 남아 있었다. 몸 전체에 구타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²⁹⁶ 시간이 흐를수록 적십자병원의 병실은 물론 복도까지 총상 환자들로 가득 찼다. 병원 안은 혼잡하고 고통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으며, 환자들의 신음과 절박한 상황은 의료진과 병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응급처치를 한

후 적십자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를 분류하였다. 치료가 불가능한 중상 환자들은 전남대병원이나 광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대부분은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중환자들이었으며, 일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하기도 했다.

21일부터 23일 이렇게 3일 동안을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매달렸죠. 환자는 많고, (간호사) 수는 적고 그러니까. 주사를 잘 놓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전부 혈관 수축으로 주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 근무가 아니어도 와서 다 놓아주고. 저는 정말 그 흔히 ‘5·18이 대동 정신이다.’하고 그러는데, 정성스럽게 온몸과 마음이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있었나 하는 기억이 나요.²⁹⁷

치료에 부족한 의약품과 물품은 시민들의 협조로 조달되었고, 의료진의 식사 또한 시민들이 주먹밥을 가져오거나 필요한 부식품을 지원하여 큰 무리 없이 해결되었다. 환자들도 상황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보낸 그들에게 아침이 밝을 무렵 아주머니들이 끓여 온 죽 한 그릇은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²⁹⁸ 부상자 치료를 위한 ‘헌혈 운동’ 또한 21일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시민 여러분 헌혈합시다. 지금 피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방송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다.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황금동 여성들도 있었다.²⁹⁹

송희성(여, 43세)은 헌혈하러 온 시민들을 줄 세우는 등 병원에서 ‘질서유지’를 돕고 있었다. 그때 내과 과장이 여성 무리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느그들(너희들) 피는 필요 없어야.” “그러면 우리 피를 검사라도 해서 써주세요.” 검사를 받으면서까지 헌혈을 하려고 했던 이들은 소위 ‘황금동 콜박스’라는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거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다.³⁰⁰ 적십자병원에 가지 못한 황금동 직업여성들이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적십자병원 헌혈차



헌혈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들 ©촬영 : 이창성 출처 : 5·18기념재단

에 오르기도 했다. 임춘식(남, 28세)은 그들에게 “병원에 피가 남아도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간절하게 “제발 내 피도 좀 뽑아주세요. 저도 한 뭇을 하고 싶어요.”라고 사정했다.³⁰¹ 적십자병원 헌혈 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일손이 부족해지자 젊은 여성들이 차 위로 올라가 도움을 주기도 했다.

도청 안의 시신들 : 자식 잃은 어머니의 애틋한 모정

윤청자는 24일 아침부터 도청과 상무관 그리고 YWCA를 오가며 분주하게 일을 도왔다. 도청 안 시신이 안치된 곳을 지나칠 때였다.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시

골에서 올라온 어떤 어머니가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시신은 형상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 어머니는 아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찾겠다며 비닐로 덮인 시신 구석구석까지 확인하더니 결국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리고 신발을 양손에 들고서 낮이 나간 모습으로 도청 안을 걸어 다녔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청자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어쩌다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이런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도청 안 여기저기서 시신을 확인하던 가족들은 통곡하다 탈진해서 쓰러졌다.³⁰²

윤청자는 오후에 열린 켈기대회에 참석하였다. 대회 내내 도청 안에서 보았던 유가족들의 오열과 시신의 참혹한 모습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날 켈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의에 찼고, 하나로 뭉쳤다. 광주는 고립되었지만, 그럴수록 시민들은 더욱 똘똘 뭉쳤다. 윤청자는 이날 시민들과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결의를 다지면서 불안함과 공포감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켈기대회는 광주시민들의 응어리진 한을 토해내고 억울함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회가 끝나고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텅 빈 분수대 광장을 보고 있자니 불안함과 공포감이 더욱 크게 엄습해 왔다.

켈기대회 때부터 내린 비가 저녁까지 추적추적 그치지 않고 있었다. 향불이 타고 있는 상무관과 도청광장의 분수대는 유난히 적막했다. 그때 윤청자는 도청 안에서 시신을 관리하고 있는 홍순권(남, 20세)이 떠올랐다. 같은 JOC 회원인 홍순권은 주로 세례명인 ‘비오’라고 불렸는데 한쪽 팔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북동성당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그는 22일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청에서 자면서 시신을 씻고 염을 하는 등 남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았다. 26일 계엄군의 도청 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청 안이 술렁거릴 때였다. 윤청자가 시신들 옆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홍순권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다. 홍순권은 덤덤한 목소리로 “죽음밖에 더 있겠소.”라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홍순권은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았고, 27일 새벽 도청에서 경비를 서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³⁰³

요한병원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JOC 활동을 하는 정숙경(여, 26세)은 항쟁 기간 동안 도청 취사반의 배식과 상무관 등을 오가며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돕고 있었다. 정숙경은 취사반 배식업무 사이에 비는 시간이 생기면 상무관에서 시신 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한번은 상무관에서 이런저런 일을 돕고 있던 중에 시골에서 올라와 자식들을 찾으러 온 부모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왜 우시느냐” 물었더니 “시골에서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두 자식을 광주로 보냈는데 다 죽었다.”고 하면서 “인자 무슨 희망으로 사느냐”며 통곡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시신들이 들어오면 그 모습들이 너무 진짜 표현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못하거든요. 그 염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거들어주고 그랬죠. 상무관에서 염할 때도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상처 입은 거 닦아주고.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막 죽어있고 순간적으로는 엄청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무섭고 격식 따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죽고 희생됐는데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안 본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때는 누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서로 도와준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가서 보면 이렇게 ‘내 가족이다, 동생이다’ 그런 생각으로. 보고 안 할 수가 없죠.³⁰⁴

최정님(여, 21세)은 24일 이날도 도청과 상무관을 오가며 일손을 도왔다. 하지만 20일 시위에 나간 후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남동생(최태인, 17세)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다. 조선대 근처 자취방에 중학생이었던 둘째 동생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동생 태인이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였다. 최정님은 상무관에 입관되지 못한 채 안치되어 있는 시신들의 장례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거나 필요한 관을 구하러 가는 길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상무관 장례식에 필요한 여러 일을 도우면서 그저 동생이 무사히 살아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청 안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채 안치되어 있는 시신들 속에 혹시나 동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적으로 덮여져 있는 시신들을 확인하면서 무너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시신은 형상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적십자병원과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을 다니면서 사망자들을 직접 확인 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동생으로 보이는 시신은 없었다. 최정님은 도청 주변과 상무관 그리고 YWCA 등을 오가면서 모금운동, 취사일, 리본 제작 등 일손을 돕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 동생 일은 그나마 잠시 잊을 수 있었다.³⁰⁵



희생자 수습을 돕는 여성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 ©촬영 : 나경택 출처 : 5·18기념재단

독침사건 : 빨갱이로 의심받아 조사받은 김선옥

25일 아침 8시, 자청 정보반 반장 장계범(남, 23세)이 “독침을 맞았다!”고 소리쳤다. 조사부 신만식(남, 22세)이 어깨를 살피보려고 다가가자 장계범은 옆에 서있던 정형규(남, 32세)를 지목하며 도와달라고 했다. 정형규는 장계범의 옷을 벗겨 상처 부위에 입을 대고 몇 번 빨아내는 시늉을 하더니 그도 갑자기 쓰러졌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조사부원들이 이들을 부축하여 전남대병원으로 급히 실어 갔다. 도청 안에는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민군 지도부는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엄군 측 정보요원이거나 그들과 연계된 프락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학생수습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배는 도청 안 시민군들의 동요를 가라앉힌 다음, 즉각 조사부장 김준봉(남, 21세)에게 장계범의 행동이 수상하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김준봉은 병원과 도청을 오가며 장계범을 감시했다. 가족들이 벌써 와 있었고, 기자들이 북적거렸다. 이때 장계범이 김준봉을 조용히 불러 “도청 안 지도부 김종배도 빨갱이고 방송실 아가씨들 중에도 빨갱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라.”고 말했다. 김준봉은 장계범에게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뒤, 도청으로 돌아와 지도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병원의 담당 의사는 두 사람의 몸에서는 이상한 물질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오후 6시경, 장계범이 병실에서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했다. 정형규는 병원을 빠져나가려다 붙잡혀 도청 조사과에 구금되었다가 27일 새벽에 계엄군에게 체포되었다.

아침에 일어난 독침사건으로 인해 도청 안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등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도청을 빠져나가는 사람도 생겼다. 25일 김선옥(여, 21세)은 새벽에 도청에서 귀가한 후 낮 12시경 도청 상황실로 들어왔다. 그동안 식당에서 배식하는 일들을 돕다가 24일부터 상황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로 전화를 받거나 사무실 청소 등의 일을 했다. 낮 12시에 상황실에 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다. 아침에 독침사건이 일어나 도청이 발각 뒤집혔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때 조사실에서 나왔다는 청년(신만식으로 추정)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김준봉에게 데려갔다. “독침사건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있

나.”며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김선옥은 “나는 아침에 도청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하고 조사부장이 주소와 직업 등을 묻기에 알려주고 상황실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³⁰⁶

전남대 음악교육과 4학년이었던 김선옥은 5월 22일 책을 사러 시내에 나갔다가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대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대자보를 보고 도청으로 들어가 학생수습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처음 도청에 들어갔을 때, 시멘트 바닥에 놓인 시신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 이건 전쟁이다. 광주시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수습위원회’라고 써진 띠를 매고 도청에서 활동을 했다. 이경희와 함께 식사 배달 등의 일을 도왔고, 죽은 자식을 보고 기절하는 부모를 적십자병원으로 인도하기도 하였다. 24일부터는 상황실에서 출입증, 유류보급증, 야간통행증, 외신기자출입증 등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도청 안내방송 등을 하였다. 김선옥은 25일 독침사건 이후 빨갱이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은 후에도 상황실에서 일하다가, 26일 계엄군의 광주 시내 진입이 예고되면서 도청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도청에서 빠져나왔다.³⁰⁷

4.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 전면에 나선 여성들

1차 시민궐기대회(23일)³⁰⁸

23일 날이 밝자, 녹두서점으로 정유아, 이운정, 임영희, 김영철, 윤상원, 박효선, 김태종, 윤기현 등 들불야학 강학, 극단광대 단원, 송백회 회원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은 전날 협상보고대회에서 보고된 수습대책위원회의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무조건적인 무기 반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수습대책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가면 수습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뜻과 의지와는 별개로 물과 기름처럼 이원화되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껴졌다.

그들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자유롭게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자보나 가두방송 등 홍보 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모두들 그 의견에 공감했다. 최종적으로 시민궐기대회를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매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민궐기대회는 극단 광대 단원들이 진행을 맡기로 했다. 궐기대회 문안 작성과 대자보 제작, 가두방송, 모금 등은 송백회와 JOC 회원, 녹두서점으로 찾아오는 대학생들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투사회보는 들불야학이 21일부터 발행하고 있었다. 윤상원은 도청으로 들어가 학생수습위원장인 김창길을 만나 시민궐기대회와 가두방송, 홍보전단 제작 등 선전활동을 맡겠다고 제안했다.

1차 시민궐기대회는 극단 광대 단원 김태종과 이현주가 사회를 맡기로 했다. 이운정, 임영희, 정현애, 정유하 등 송백회 회원들과 박몽구 등 대학생들이 궐기대회에서 낭독할 성명서와 구호 등 문안을 작성하였다. 극단 광대의 박효선과 김태종은 그동안 흩어진 단원들을 수소문해서 모으기 시작했다. 송백회 회원들도 다른 회원들에게 녹두서점으로 모이라고 연락을 돌렸다.

시민궐기대회장에 설치할 플래카드를 제작하기 위해 녹두서점 건너편의 국세청 넓은 마당을 사용했다. 극단 광대의 김정희와 이현주, 최인선, 윤만식(남, 28세), 그리고 송백회 회원들과 미술대 학생 홍성담이 국세청 앞마당에서 여러 가지 구호를 담은 플래카드 제작에 들어갔다, 이 플래카드는 분수대 주변과 도청 담장, 상무관, 경찰서 차고 등에 걸렸다. 빨강, 검정, 파란색 페인트로 현수막에 ‘민주시민 만세’, ‘살인마 전두환 찢어 죽여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유신잔당 물러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죽을 때까지 싸운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등이 쓰였다.³⁰⁹

시민궐기대회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일은 궐기대회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이었다. 윤상원이 “전남대 스쿨버스로 가두방송을 하자.”는 의

견을 내었다. 이에 이윤정과 정유아, 김상집, 김영철, 전용호, 서대석, 김윤기, 박정열, 김광섭 등은 전남대로 갔다. 전남대에서 스쿨버스를 끌고 나와 광주고등학교에서 방송 장비를 구해 설치하여 거리를 순회하며 켈기대회를 알리는 방송을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도청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박효선, 김태종, 박몽구, 윤기현 등이 스쿨버스에 설치한 가두방송용 앰프를 분수대 주변에 설치했다. 모여든 군중 사이에서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이 나타나 방송 장비 설치를 도와주기도 했다.

22일 이후 노동자들도 대거 시위에 참여하였다. 남성 사업장으로는 아시아자동차, 화천 기공사, 남선선반 노동자들이, 여성 사업장으로는 전일섬유, 일신방직, 전남방직, 광주어망, 남해어망, 호남전기의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착용하고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에 탑승하여 항쟁에 참여하였다. 여성 사업장의 경우 그 전에는 회사 측에서 직원들을 기숙사에서 못 나가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다가 22일 이후 거리로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³¹⁰

도청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여 점덕이, 영심이, 나(김정순, 23세) 3명이 나갔다. 도청 앞에는 시체들이 쭉 일렬로 늘어져 있었는데 22구의 시체가 당목으로 덮여 있었고 지독한 냄새가 풍겼으며 파리가 우글거렸다. 사람들은 ‘나라꼴이 어찌 되려는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워했다. 집회에서 외쳤던 구호는 “전두환을 때려잡자” 등이었고 정의파, 애국가 등의 노래를 불렀다. 군중 속에는 황금동 술집 여자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신기해하며 “야!” 하는 감탄을 하기도 하고, “그들도 광주시민인데 당연하다”는 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도 대개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장형태 도지사가 헬리콥터로 내뺐버렸다는(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다.³¹¹

오후 3시, 켈기대회를 보려고 도청광장으로 몰려든 시민들이 15만 명에 이르

렀다. 켈기대회는 개회사, 항쟁 기간 중 목숨을 잃은 민주 영령에 대한 묵념, 애국가로 시작하여 경과보고, 광주항쟁에 대한 경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태종과 이현주의 사회로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교사, 주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차례로 분수대에 올라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동자 대표로는 김영철, 농민 대표로는 윤기현, 시민대표로는 홍희운이 차분한 목소리로 계엄군의 만행을 성토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 등 피해 상황을 보고 할 때면, 연신 울음을 터뜨렸고, 연사들이 발언할 때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등 시민들의 호응은 매우 뜨거웠다. 마지막은 박효선이 연단에 올라가 2차 민주수호범시민켈기대회가 다음날인 24일 열린다는 것을 알린 후 모두 함께 ‘민주주의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했다. 대회가 끝났음에도 시민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고, 고등학생 10여 명은 학우들의 시신이 담긴 관위에 대형 태극기를 덮고 운구를 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켈기대회가 끝난 오후 6시경, 극단 광대와 송백희, 들불야학 회원들은 YWCA에 모여 평가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1차 켈기대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분명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단 켈기대회 준비 장소를 녹두서점에서 YWCA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동안 가두시위에 참여해오던 임영희, 홍희운, 이윤정, 정유아, 김정희, 최인선, 김영희 등 수십 명의 여성들은 21일부터 녹두서점과 YWCA를 오가며 대자보를 쓰고, 플래카드, 검은 리본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녹두서점은 서점과 방 한 칸, 뒤편 작은 공간밖에 없어 대자보를 쓰거나 홍보물을 만들기에 공간이 좁았다. 23일 밤, 정유아와 이윤정의 허락을 받고 켈기대회 준비 장소를 녹두서점에서 YWCA로 옮겼다. 이때부터 YWCA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궐기대회 준비본부, YWCA

24일 아침, YWCA에서는 오후에 열릴 2차 시민궐기대회 준비로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전두환 화형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 김정희와 김태중, 홍성담, 들불야학팀 등이 전두환 화형식에 필요한 허수아비를 만들기 위해 녹두서점에 들렀다. 마침 녹두서점 옆이 수석 좌대를 깎는 가게로 허드레 판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가게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널빤지들을 끄집어내어 허수아비 기본골격을 만든 다음 솜을 입히고 천을 둘러쳐서 화형식에 사용할 모형을 만들었다.

화형식에 기름이 필요했지만 근처 주유소 기름이 모두 동이 나 구할 수 없었다. 정현애, 정유아, 이현주, 최인선, 김상집 등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 가두방송을 하는 전남대 스쿨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버스에 설치된 마이크로 행인들을 향하여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석하라는 방송을 했다. 아시아자동차공장에 도착해보니 거기에도 기름이 없었다. 그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서점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화형식에 쓸 폐유를 구해왔다.³¹²

24일부터 YWCA는 선전활동의 본부가 되었다. YWCA는 1층에 강당, 사무실과 안채가 있고, 2층에 양서조합과 소규모 회의실이 있을 뿐 아니라 도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활동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았다.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 및 행사장소로 쓰였던 YWCA는 JOC 회원들에게도 친숙한 공간이었다. JOC회원 윤청자, 김순이, 최정남, 정숙경 등도 23일부터 YWCA로 나와 현혈, 대자보 작성, 검은 리본 제작 배포 등을 도왔다. YWCA에는 이들 외에 궐기대회나 가두방송에서 ‘청년·학생들은 YWCA로 모입시다’라는 말을 듣고 모여든 여러 청년·학생들도 함께 궐기대회 준비와 각종 행사 등을 도왔다.

2차 시민궐기대회(24일)

24일 아침, 도청을 위시하여 시내 중심가에 도청 수습위원회의 투항주의적 자세를 비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 붙은 대자보와 유인물 그리고 가두방송 안내를 듣고 도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2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도청 수습대책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분수대 광장에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토대회와 전두환 화형식이 거행되었다. 날씨는 비가 올 듯 잔뜩 흐려 있었으나 시민들의 열기는 높아갔다. 시민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비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고 저항의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청 수습위는 궐기대회가 사태의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궐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피커 소리가 자주 끊기는 등 궐기대회를 무산시키려는 계엄군 편의대의 방해 공작도 나타났다. 궐기대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편의대원이 도청으로 들어가 방송시설을 조작해서 마이크를 꺼버리거나 시내 전파사에 남아 있던 앰프, 스피커를 몰래 거두어가는 일도 있었다. 시민들은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어 방송 앰프의 전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³¹³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분수대에 올라가 ‘책임자 처벌’과 ‘피의 보상’을 외치며 열변을 토했다. ‘계엄사와의 협상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다. 수습위 쪽 대표로 이종기 변호사가 나와서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김성용 신부를 비롯해 몇몇 수습위원들도 분수대 맨 앞줄에 앉아 듣고 있었다. 한두 번 박수가 있었을 뿐 야유와 불신의 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다.³¹⁴

대회 도중에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잠시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자 사회를 맡은 김태중이 “이 비는 오월 영령들이 눈을 못 감고 흘리는 눈물이니 모두 우산을 접읍시다.”라고 말했다.³¹⁵ 우산을 접은 시민들의 얼굴 위로 빗물과 눈물이 함께 뒤섞여 흘러내렸다. 김태중과 함께 사회를 본 이현주는 대회 도중에 분수대 위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에서 궐기대회를 지켜보는데 웬지 눈물이 쏟아졌다. 시민들의 열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충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다.³¹⁶ 예정된 식순이 끝날 무렵

대학생들은 남도예술회관 앞으로 모이고, 시민들은 각 동별로 집결하자는 홍보가 있었다. 오후 5시경 가두행진을 마지막으로 쫓기대회가 모두 끝났다.

쫓기대회 추진체계의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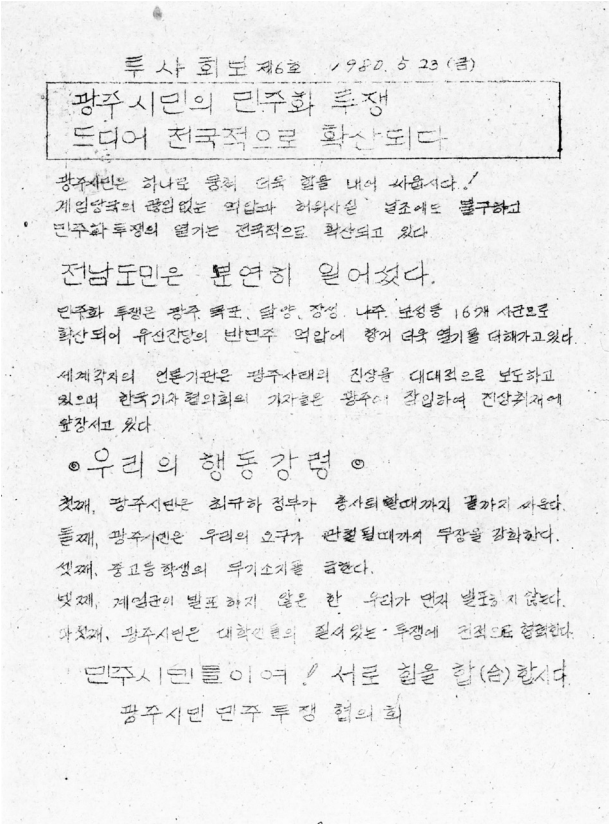
오후 5시 30분경 쫓기대회를 마치고 YWCA 1층 소심당에 이윤정, 정유아, 정현애, 정상용, 김영철, 이양현, 윤상원, 박효선 등이 모였다. 쫓기대회 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에서 쫓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자 충원, 메시지 작성, 모금, 쫓기대회 후 가두시위 진행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인원을 배치하였다. 그 외에도 투사회보 제작, 대자보 작성, 가두방송, 재야 민주인사 섭외 등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점검하였다.³¹⁷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쫓기대회 추진 조직도

조별 구성	인적 구성내용
사회	이현주, 김태종, 엄태주
메시지 작성	이윤정, 정현애, 정유아, 홍희윤, 최인선, 박효선, 김태종, 윤기현, 박몽구, 김선출
모금	정현애, 임영희, 최정님, 김순이, 윤청자, 김영희
쫓기대회 후 가두시위 진행	이현철
『투사회보』 제작	전용호, 박용준, 김성섭, 나명관 등
대자보 작성 등	김정희, 임영희 등
가두 방송	이현주, 김상집, 박정렬 등
재야 민주인사 섭외	정상용, 정해직

저녁 8시경 쫓기대회 평가 회의를 마친 후 정상용, 정해직, 이양현, 김영철, 윤기현 등은 호남동에 있는 보성기업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여러 당면 문제들을 토의하면서 청년·학생들을 조직하여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다음날 YWCA로 대학생들을 집결시키기로 하였다.³¹⁸

이날 저녁 정현애와 임영희는 들불야학 김성섭을 데리고 양림동 홍희윤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의 집에 있는 고속등사기를 YWCA로 옮겨왔다. 투사회보는 처음에는 하루 5천~6천 매 정도의 수공업적 작업이었으나 YWCA로 옮겨온 고속등사기와 타이프용 등사기까지 사용하면서부터 하루에 수만 장씩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³¹⁹



투사회보 제6호
소장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4일 2차 쫓겨간대회 평가 회의를 통해 극단 광대와 들불야학 등이 주축이 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치러진 쫓겨간대회는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YWCA는 선전활동의 거점으로서 쫓겨간대회 진행, 대자보 작성, 가두홍보, 투사회보 제작까지 총괄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YWCA라고 하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과 편리성 그리고 접근성의 효과가 컸다. 항쟁 초기 녹두서점이 재야인사와 청년·학생들의 상황실 역할을 했다면, YWCA는 쫓겨간대회 추진체계의 조직화를 통해 대중의 결집된 힘을 발산시키는 명실상부한 '홍보본부' 역할을 담당했다. 쫓겨간대회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교사, 주부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 현장에서 바로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 입장으로 채택하는 등 민주적인 대중 자치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YWCA를 중심으로 전개된 선전 활동과 물적 제공활동 등은 당시 투항주의적 입장을 보였던 도청 내 수습위원회를 제어하고 새로운 항쟁지도부를 탄생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3차 시민쫓겨간대회(25일)

25일 오후 3시, 3차 민주수호범시민쫓겨간대회가 열렸다. 어제 쫓겨간대회가 끝날 무렵 공지한 대로 각 동별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모여들었다. 당시 시민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YWCA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투사회보를 비롯한 유인물과 대자보 등이었다. 시내 곳곳에 유인물을 뿌리면 시민들은 서로 받으려고 했다. 당시 YWCA 안에는 사택이 있었는데 쫓겨간대회 진행, 대자보 작성, 가두방송, 투사회보 제작까지 그 안에서 숙식을 해가며 작업을 하였다.³²⁰

5만여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개최된 쫓겨간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후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이 보고되었다. 도청 본부

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시내 각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가 약 520명, 경상자가 2,170명이고, 사망자는 총 70여 명이었다.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시신은 상무관에 안치하고, 미확인 시신은 도청 뜰로 옮겨 안치하였다.³²¹

이날 쫓겨간대회에서는 윤강옥이 '우리들의 결의'라는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시민군 이관택이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임영희는 이윤정이 작성한 '민주시'를 낭독하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³²² 이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우산을 쓰지 않을 정도로 쫓겨간대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쫓겨간대회 후 시민들은 검정 리본을 달고 가두시위를 하였다. '계엄 철폐하라'는 플래카드와 구호를 외치며 도청 앞을 출발하여 금남로, 광주역, 광주고속버스터미널, MBC방송국 등을 돌아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한 후 해산하였다.³²³

4~5차 시민쫓겨간대회(26일)

26일 새벽,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농성동 한전 앞까지 진입하여 도청에 비상령이 떨어졌다. 도청에서 밤새워 회의를 하던 수습대책위원들이 계엄군을 막기 위해 화정동까지 걸어가는 죽음의 행진을 하였다. 식산국장실에 있던 항쟁 지도부는 오후로 예정된 쫓겨간대회를 앞당겨 오전에 열기로 결정했다.

새벽 도청에 있었던 홍보팀들은 아침 6시경 YWCA로 돌아와 오전에 열릴 쫓겨간대회 준비로 부산하게 움직였다. 우선 대자보와 유인물을 작성하여 시내 곳곳에 부착하고, 홍보 차량의 가두방송으로 오전 11시에 4차 민주수호범시민쫓겨간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렸다. 계엄군의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3만여 시민이 모인 오전 쫓겨간대회는 엄태주와 박몽구의 사회로 계엄군이 약속을 위반하고 새벽에 시내로 진입한 사실

을 알리며 성토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등의 성명서가 낭독되었다. 특히 이날 7개 항으로 된 「80만 민주시민의 결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25일 밤 새롭게 출범한 민주투쟁위원회의 주장을 오롯이 담고 있었다.

- 1) 이번 사태의 책임은 과도정부에 있다. 과도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나라.
- 2) 무력탄압만 계속하는 명분 없는 계엄령은 즉각 해제하라.
- 3) 민족의 이름으로 울부짖는다. 살인마 전두환을 공개 처단하라.
- 4) 구속 중인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고, 민주인사들로 구국 과도정부 수립하라.
- 5)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 의거를 허위 조작, 왜곡 보도하지 말라.
- 6)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피해보상과 연행자 석방만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 7)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우리 80만 시민 일동은 투쟁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³²⁴

이 성명서는 ‘수습’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전 것들과 달리 항쟁의 대의명분을 ‘민주화’로 분명히 했다. ‘구국 과도정부 수립’과 ‘민주정부 수립’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항쟁의 성격을 ‘과잉 진압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군사 쿠데타를 거부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궐기대회를 마친 후 수많은 시민들은 전남대 스쿨버스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에 참여하였다.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금남로 6차선 도로를 꼭 메웠고, 금남로~광남로~광주공원~양림교~전남대병원~청산학원~계림동파출소~광주역~한일은행 코스를 따라 순회한 후 다시 도청 앞으로 집결하였다.³²⁵

조아라 회장은 아침부터 YWCA에서 계엄군을 만나러 간 수습위원들이 돌아오

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1시가 지나서야 허탈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성학 장로를 만났다. 그를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이성학 장로는 “아무리 설득해도 계엄군이 쳐들어오겠다고 했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도청에서 조아라 회장을 찾는 전화가 왔다. ‘지금 도청에서 도지사와 유가족, 학생들이 장례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니 빨리 참석하라.’는 연락이었다. 조아라 회장이 이애신 총무와 함께 부지사실에 들어서니 장형태 도지사가 유족대표 8명과 구용상 시장, 투쟁위원회 김종배, 정상용 등과 함께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다. 시신이 부패하므로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였고, 장지는 광주시 망월동 시립공원묘지로 정하고 도민장 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날짜는 5월 28일로 정하였다.³²⁶

오전 궐기대회를 마치고 오후 3시에 5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가 3~4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어떤 여성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나”고 묻기도 했다. 오늘 도청에 처음으로 와 본다는 아주머니는 “텔레비전에서 폭도와 깡패들이 총을 함부로 쏘고 다닌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도 했다. 궐기대회가 끝나갈 무렵 30대 남성도 연단에 올라 논리적으로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들의 자유발언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날 사회를 본 김태중은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버렸다.

항쟁지도부는 시민들에게 ‘오늘 밤 계엄군이 공격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방위병으로부터 ‘오늘 밤에 계엄군이 쳐들어간다.’거나, ‘군 가족으로부터 병력이 증원되고 계엄군의 사기 양양을 위한 돼지고기 회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나왔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상무대에 근무하는 장교의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위험하니까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도청 상황실로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대회가 끝나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 광주를 지켜야 한다고 결의한 시민 5천여 명이 화정동 군 대치지역까지 시위를 한 후 도청으로 돌아왔다.³²⁷

5. 도청 취사반의 여성공동체

취사반의 첫 활동

22일 오후 2시경, 도청 앞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취사반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방송을 듣고온 이들에게 취사반 활동하려는 사람들은 도청 민원실로 가라는 안내가 있었다. 당시 회의실 지하는 구내식당이었고, 이곳 주방에서 밥을 했다. 배식은 회의실 2층 대강당에서 했다. 주소연(여, 18세),³²⁸ 김정임(여, 17세) 등 여고생과 대여섯 명이 회의실 지하 구내식당에 모였다. 이들은 어떠한 연고도, 소속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광주항쟁으로 휴교령이 내려지자 저는 친구들과 함께 도청으로 나갔습니다. 아수라장 속 “취사반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친구들과 함께 도청을 향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³²⁹

취사반이 구성되었지만 식재료가 많지 않았다. 그들은 쌀과 김치 등을 얻기 위해 몇 명씩 팀을 나누어 주택가로 갔다. 주소연은 남성 한 명과 함께 방림동 쪽으로 갔다. 벨을 누르고, “도청 시민군 취사반인데, 저희가 먹을 게 필요합니다. 쌀과 김치, 된장 등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 집에서는 “김장 김치인데, 좀 많이 쉬었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말하며 김치를 담아주었다. 몇 집만 돌았을 뿐인데도, 많은 음식이 모였다. 그 음식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저녁 6시쯤이었다.

주소연 등 취사반은 도청 민원실 2층 회의실에 모여 앉았다. 그들은 김밥을 만들어 소쿠리에 담아 시민군에게 보냈다. 다음날은 취사반에 모인 인원이 10여

명으로 전날보다 늘어난 숫자였다. 사람들은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고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며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³³⁰

이날 제가 한 일은 먼저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 위에 식판을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밥과 반찬은 아래에서 올라왔고, 시민군들은 3교대로 이곳에 들어와 식사를 했어요.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저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날 밤까지는 저희가 주먹밥과 김밥을 맡았지만, 좀 더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³³¹

시민군의 식사를 준비하는 여성들

23일, 광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새벽 6시경, 시내 곳곳에서는 남녀 고교 700여 명이 중심이 되어 청소를 시작했고, 시민들도 이에 동참하여 시내 전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중 여학생은 약 50여 명이었다. 대부분의 상가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고, 시장 주변 길가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아주머니들이 솥을 걸고 밥을 짓고 있었다. 밤새 경계 근무를 한 시민군들은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 아무 곳에서나 자리를 잡고 주저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³³²

광주뿐만 아니라 영암에서도 여성들은 솥을 걸고 시위대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영암 주민 이서운(여, 48세)은 이날 광주에서 시민군이 영암으로 내려온 후 장사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을 보러 갔다. 그곳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언니를 만났고, 언니는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시위대에게 밥을 해주기로 했는데, 너도 참여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서운은 “학생들이

내 자식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 밥이라도 해주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 10여 명의 여성들이 밥을 찌고, 김과 단무지를 사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든 김밥을 터미널에 있는 시민군에게 가져다주었고, 흑여 체할까 봐 음료수도 전해 주었다.³³³

도청 취사반의 고등학생들

24일 아침 9시, 취사반 주소연, 김경임, 박미숙(여, 17세)은 박병규(남, 20세)와 함께 상무관에서 묵념을 한 후 도청 2층 강당으로 돌아왔다. 민원실 2층 강당에서는 시민군을 비롯해 도청에 있는 사람들의 식사를 배식하고 설거지 등을 하였다. 음식은 주로 양동시장, 서방시장 여성 상인들과 여성들이 준비해온 밥과 김치 또는 김밥 등이었다. 도청 민원실 지하 구내식당에서 밥을 해서 김치와 함께 2층 강당으로 올려주면 식판에 담아 시민군들에게 배식하였다.

취사반 업무는 아침부터 저녁 9시 또는 10시까지 이어졌다. 박병규는 상무관 안내와 도청 취사반 여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였다. 그는 저녁에 여학생들이 취사반 업무가 끝나면 학생들을 모아서 마무리 평가를 하곤 했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녁 12시가 훌쩍 넘었다. 박병규는 취사반 학생들에게 “오늘 상무관에 몇 구의 시신이 들어왔으니 내일 아침에 가서 간단히 묵념을 하자”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³³⁴ 식사 배식과 설거지 등은 주소연과 김경임 등 여고생 외에도 대학생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이 함께 하였다.³³⁵ 이들은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는 일이 서툴러 주로 배식을 담당했다. 그들은 2층 강당에 있던 기다란 테이블을 정리한 후 밥과 반찬이 지하 취사실에서 올라오면 식판을 테이블에 올려 배식하였다. 식사 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그때그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배식하였다.

취사반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아침이 되면 한 장소에 모

여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도청 바깥으로 연결된 계단을 타고 내려가 상무관으로 향했다. 그곳에 안치된 시민들을 향해 묵념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식당으로 시민군들이 도착하면 바로바로 밥이 담긴 식판을 날랐다. 시민군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무엇보다 몸이 고단했다.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이 고향에서 보내주는 반찬에 친언니가 지어주던 밥만 먹어 왔다. 지쳐서 주저앉고 싶고, 졸음이 밀려왔지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휘청휘청’하면서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저 내가 해야 하는 일’ 그 생각만 했던 것 같다.³³⁶



시민군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여성들 ©촬영 : 이창성 출처 : 5·18기념재단



시민권기대회에 참석한 여학생들 (원 안의 여학생은 김경임) ©촬영 : 이창성 출처 : 5·18기념재단

취사반에 합류한 여성노동자들

22일부터 취사를 해왔던 구성주(남, 24세)는 새벽에 새롭게 개편된 학생수습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보급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구성주 보급부장은 시장에서 부식 거리 등을 사서 솔단지 3개와 큰 버너로 하루에 한 가마 이상의 밥을 지었다. 거의 하루 종일 밥을 지어야 했다. 밥과 국이 지어지면 대야와 곰솥에 담아 회의실 2층 강당으로 보냈다. 하루에 어림잡아 3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을 짓고 국을 끓여야 했기 때문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잠도 못 자고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 취사반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5일, 취사를 도와줄 JOC 여성들이 여러 명 들어왔다. 그들은 밥과 국을 끓이는 데 능숙해서 취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가 맡았던 보급일도 점점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상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도저히 사람을 뺄 수 없다면 두 사람씩 교대로 도와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주었다. YWCA에서 부엌일을 도와주려고 식당으로 왔다. 나는 이들에게 웃으며 물어보았다. “밥은 할 줄 아세요?” “아, 밥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³³⁷

정숙경은 25일 새벽에 김성용 신부로부터 도청 취사를 도울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JOC 간사 김성애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여성들을 모았다. 그날 김성애, 정향자, 이정, 정숙경, 윤청자, 김순이, 최정님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23일부터 JOC사무실과 YWCA를 오가며 헌혈, 모금, 대자보 작성, 검은 리본 제작 배포 등 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순이는 새벽 5시경 김성애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둘러 도청으로 들어갔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적 사항을 적어 제출한 후 지하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반찬은 시민들이 가져다주는 김치와 도청 지하 주방에서 끓인 국으로 배식하였는데 시장과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시로 김치와 김밥을 광주리에 담아 리어카에 가득 실어 도청으로 가지고 왔다.³³⁸ 젊은 형제가 운영하던 유동 삼거리의 ‘형제빵집’에서는 거의 매일 새로 만든 빵을 상자에 담아 가져왔다.³³⁹

주소연은 22일 도청 취사반으로 들어온 이후 계속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에 배식하는 식사량은 엄청났다.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해서 무척 힘들었던 차에 JOC 언니들이 와서 일을 분담하게 되니 한결 일이 수월해졌다. 그런데 이날 도청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게 어수선하고 긴장감이 도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총기 반납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침에는 독침사건이 터졌다는 뒤숭숭한 이야기도 들렸다.³⁴⁰

6. 전운의 그림자

죽음의 행진

26일 새벽 4시경, 계엄군이 농성동 한전 앞까지 진입했다는 급보가 상황실에 보고되자, 곧바로 도청 전 병력이 무장 출동할 수 있도록 무기와 탄약 보급이 이루어졌다.³⁴¹ 그리고 가두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렸다. 도청에서 밤을 새워 회의를 하던 수습대책위원들도 즉각 긴급사태를 논의했다. 김성용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 “탱크가 진을 치고 있는 데로 나갑시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들은 탱크 앞에 나가도 죽을 것이며 여기 있어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원 나갑시다.”고 하자, 그 자리에 있던 수습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³⁴² 식산국장실에서 밤샘 회의를 하던 항쟁지도부 사람들도 새벽 계엄군 진입 소식을 들었다. 이들은 당초 오늘 오후로 예정된 쫓겨나기 회의를 앞당겨 오전에 열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이날 새벽 도청에서 항쟁지도부 결성과정을 지켜보며 밤샘 회의를 함께 했던 쫓겨나기 홍보팀들은 서둘러 YWCA로 이동하였다.³⁴³

아침 7시 수습위원들은 결연한 분위기 속에 화정동 농촌진흥원까지 걸어갔다. 죽음을 각오한 행진이었다. 일부 외신기자들도 동행했다.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걸어서 도청~금남로~돌고개~농촌진흥원 앞까지 약 4km 구간을 1시간 동안 걸어 계엄군의 전차 앞에 멈추어 섰다.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오기 시작한 시민들이 어느새 수백 명에 달했다. 드디어 이중으로 쳐진 바리케이드까지 갔다. 양측 인도에서 착검한 계엄군이 실탄을 장전하고 시민을 경계하고 있었고, 양측 빌딩 2층과 옥상에서도 군인들이 보였다. 그때 수습위원들 앞에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소장이 나타났다. 항의하는 수습위원들에게 김기석 소장은 수습위원들에게 상무대로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홍남순, 이성학, 김성용, 이기홍, 김천배, 이영생, 김창길 등 11명의 수습위원들이 상무대 전교사로 갔다. 4시간 30분 동안 계엄분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다.

군의 입장은 한마디로 “우리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밤 12시까지 모든 무기를 수거해서 주면 선처를 하겠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협상이 이번이 마지막이니 제발 무기를 반납하고 시위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수습위원회 대변인으로 주로 이야기를 한 김성용 신부는 군의 입장을 들으니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제야 수습위원들은 계엄군이 오늘 중에 도청진입작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김기석 소장은 밤 12시까지 수습하지 않으면 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을 했다.³⁴⁴

외신기자회견

오후 5시경 외신 기자회견이 윤상원 대변인 주관으로 도청 본관 2층 대변인실에서 열렸다. 계엄군 진입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항쟁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가진 첫 기자회견이라 큰 관심을 끌었다(결국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대략 20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윤상원은 단 위에서 발언하고 기자들은 대부분 서서 회견에 참석하였다.

대변인 윤상원은 새로 구성된 ‘민주투쟁위원회’의 입장과 계엄분소와 협상 결과, 피해 상황 등을 간략히 브리핑했다. 그는 외신기자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와 연결해 달라.’는 것과 ‘국제적십자사에 구호를 요청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윤상원은 다음과 같은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북쪽을 향해야 할 군인들의 총이 왜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상황이 어렵다.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물도 바닥나고...,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반공 구호’를 외치고 시작한다. 그렇게 몰고 가지 마라. 억울하다.”³⁴⁵

외신기자들은 대변인 윤상원에 대해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당시 미국 일간지 『볼티모어 썬(The Baltimore Sun)』의 브래들리 마틴(Bradley Martin)

이 송고한 5월 28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항쟁자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러나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훗날 그는 1994년 월간 『샘이 깊은 물』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나는 이미 그가 죽을 것임을 예감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표정에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배어 있었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지적인 눈매와 강한 광대뼈가 인상적인 그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울 것입니다’(We will fight until the last man)라고 했다.”³⁴⁶

마지막 수습대책회의

오후 6시 도청 부지사실에서 수습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윤공희 대주교, 이종기 변호사, 오병문 교수, 김재일 목사, 장세균 목사, 조비오 신부, 조아라 회장, 이에신 총무, 노수남, 황금선, 구성주, 정상용, 김종배, 김창길 등이 모였다. 김창길이 “오늘 낮에 계엄분소에 다녀왔는데 계엄 당국에서 오늘 자정까지 무기 반납 시한이니 빨리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책임질 사람, 수습위원들만 도청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식투쟁을 하자. 그럼 우리를 잡아갈 거 아니냐. 그럼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무기를 반납하고 투항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정상용은 “우리는 죽을 각오를 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미국 항공모함이 출발했다.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주장했고, 김창길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제국주의 국가일 뿐이다. 우리 군대가 움직였다는 것은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이다.”라고 하며 무기 반납을 계속 주장했다. 회의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거수투표를 진행하였고, 결국 정상용, 김종배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정상용이 회의장을 나갔다.

윤공희 대주교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정되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조아라 회장, 이에신 총무와 함께 퇴장하려는 순간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박남선, 윤석루가 총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박남선이 총을 허공에 대고 쏘면서 회의장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회의는 무산되었다. 박남선과 윤석루는 “싸울 사람만 남고 항복할 사람은 나가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창길과 황금선 등 무기 반납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김창길은 도청을 나가면서 약 1시간가량 도청 일원을 한 바퀴 돌면서 경비를 서고 있는 시민군들에게 “이제 곧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빨리 피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들과 함께 일부 사람들이 도청을 빠져나갔다.³⁴⁷

다 죽을 수 있다. 나가야 한다.

26일 오후 3시경, 2층 식당에 있던 주소연은 박병규로부터 “계엄군과 협상이 결렬되었고, 곧 군대가 들어올 것이니 서둘러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고등학생과 여성들은 귀가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거의 쫓기다시피 도청을 나와야 했다. 집에 들어와 방에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에 억울했다. 그리고 도청에 남아 있는 사람들 걱정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도청 취사반 일은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했던 일이었다. 그런 아버지도 “이젠 안 된다.”며 엄마에게도 “더 이상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다. 그러나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가족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저녁 6~7시경 집을 나서 도청으로 다시 들어갔다.³⁴⁸

주소연이 도청으로 돌아왔을 때 김경임 등 함께 일하던 여고생들과 JOC 여성들이 한창 저녁 식사 배식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배식이 다 끝나고 취사반 여성들은 부지사실로 갔다. 다시 돌아온 그녀를 보고 걱정을 하던 박병규가 “JOC

언니들이 있는 본관 2층 부지사실에 가서 같이 있으라.”고 했다. 부지사실은 카펫이 깔린 바닥 위에 넓은 탁자와 의자들이 있었다. 안쪽에 커튼이 쳐진 작은 방이 있었고, 그 안에 누워 쉴 수 있는 침대가 있었다.

박병규는 부지사실로 30분마다 한 번씩 들어와 외부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때 그는 잠시 짬을 내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도청으로 달려와 집으로 가라며 자신의 손을 이끌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우리 병규는 그때 도청 안에서 시체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소식을 듣고 도청으로 달려갔더니, 병규는 어깨에 수습위원 띠를 두르고 일하고 있었다. 나는 병규를 발견하자 곧바로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병규야, 집에 가자. 이러다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이러냐. 응? 지금 빠져나올 수 없으면 나중에라도 몰래 빠져나오너라” “어머니, 걱정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염려 말고 돌아가 계세요”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서야 했다. 그 뒤 26일쯤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청에 시신 확인을 위해 간다고 했다. 나는 병규도 다시 만나볼 겸 따라나섰다. 도청에는 죽은 사람이 많은 데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아는 얼굴이 나오면 서로 알려주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다. 영접절에 아무 신분증도 없이 나갔던 나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시 도청으로 갔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보람도 없이 내 바로 앞에서 내일 다시 오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저녁 8시 30분경에 병규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네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5월 27일 새벽 광주를 재진압하러 쳐들어온 군인들의 총을 맞고 병규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말았다.³⁴⁹

한편, 주소연이 집에서 다시 나와 도청으로 들어간 그 시각, 최정님은 도청 분수대 앞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다. 켈기대회가 끝난 텅 빈 도청광장은 계엄군 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욱 스산했다.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일찍 모금 활동을 접고 도청으로 들어왔다. 그즈음 도청에 있던 사람들은 최정님이 소식이 끊긴 남동생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도청 안으로 무연고 시신이 들어올 때 최정님한테 담당자들이 알려주면 달려가서 혹시 동생이 아닌지 확인을 하곤 했다. 모금함을 들고 막 도청에 들어온 최정님한테 무연고 남자 시신이 들어왔다고 했다. 가보니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건이 없었다. 시신은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옷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시신 밑에 넣어둔 피범벅이 된 옷을 보여주었다. 다행히 동생이 입고 나간 옷은 아니었다. 한숨을 돌리고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발길을 돌려 취사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큰 숨을 내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양현이 “여기 이쪽에서 전화 받을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지사실로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부지사실에는 지도부로 보이는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³⁵⁰

그때부터 최정님은 부지사실에서 지도부가 나가거나 일을 보는 사이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전해 주는 일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26일 오후, 계엄군 측에서 여러 차례 걸려 오는 전화를 받던 지도부 일원의 모습을 그녀는 이렇게 기억했다. 계엄군 측과 여러 차례 나누던 주된 전화 내용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너희가 아무리 들어와도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는 총을 버리고 나갈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다. 도청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전화 통화를 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전화가 와도 없다고 하라.”는 말을 했다. 저녁 8시경 최정님이 부지사실에서 전화 업무로 바빠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정과 김순이, 윤청자, 정숙경 등이 취사반 업무를 끝내고 부지사실로 들어왔다.³⁵¹

26일 저녁 도청에는 부지사실 외에 방송실에도 여성들이 남아 있었다. 이날 박영순(여, 21세)은 오후 내내 가두방송을 하러 다녔는데 다른 날에 비해 시내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시민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다. 식사도 거른 채 저녁 7시 30분경 도청에 돌아와서 본관 1층 나무 의자 앉아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언니, 오

늘 계엄군이 들어온대요. 집에 데려다주세요.”라고 말했다. 여학생을 집에 데려다주고 싶은데 순찰대가 차를 모두 가지고 나가버린 후였다. 남아 있는 차가 없는 데다 시간이 늦어져 여학생에게 “날이 밝으면 데려다 줄테니 오늘은 언니랑 같이 있자.”고 달랬다. 식사를 거른 터라 배가 고파 식당에서 달걀을 찌서 먹고, 밤 10시쯤 가두방송차를 운전하는 이흥철(남, 20세), 여학생 한 명과 함께 방송실에 들어가 있었다.³⁵²



5월 27일 : 최후의 항전

1. 광주재진입작전과 도청사수대 모집
2.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시민군 : 여성들의 선택
3. 비상, 그리고 박영순의 애절한 새벽방송
4. 전남도청, 시민군 최후의 항전
5. 전일빌딩과 YMCA의 항전
6. YWCA 항전 : 시민군의 밥을 위해 돌아온 여성들
7. 계림동에 배치된 도청사수대
8. 진압작전 완료, 계속되는 수색과 연행
9. 하늘의 별로 박히다
10. 끝나지 않은 여성들의 수난, 그리고 투쟁

5월 27일 :
최후의 항전

1. 광주재진입작전과 도청사수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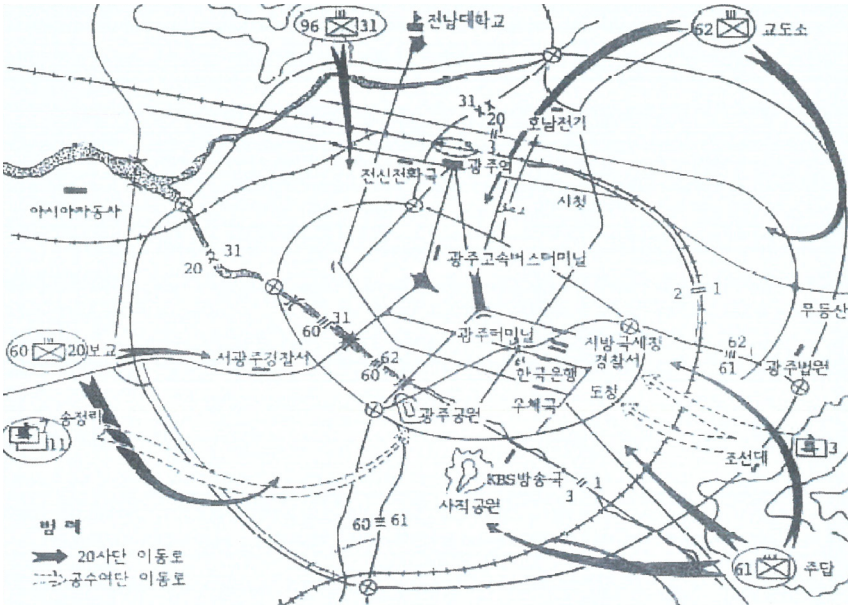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광주 시내로 재진입했다. 5월 21일 오후 5시경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다. 광주재진입작전은 5월 22일부터 계획되고 있었다.³⁵³ 5월 22일 오후 3시경 제2군사령부 작전참모가 육군참모총장에게 계획을 보고한 후, 제2군사령부는 5월 23일 새벽 2시경 육군참모총장에게 충정작전 계획을 건의했다. 육군참모총장은 ‘한·미 간 협의사항: 24일까지 진압작전 대기, 무력으로 평정은 지역감정 해소 곤란’ 등을 이유로 광주재진입작전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³⁵⁴ 하지만 제2군사령부는 5월 25일 오후 12시 5분 「작상전 517호(충정작전 유효지시)」 전교사령관 지휘 아래 5월 27일 새벽 1시 이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다.³⁵⁵

계엄군 광주재진입작전 계획 수립 과정

5.22. 15:00	제2군사령부 작전참모, 육군참모총장에게 계획 보고
5.23. 02:00	제2군사령부 육군참모총장에게 계획 건의
5.25. 12:05	제2군사령부 광주재진입작전 실시 지시「작상전 517호(충정작전 유효지시)」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사령관실에서는 광주재진입작전을 일선에서 직접 수행할 진압작전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20사단장, 31사단장, 3·7·11공수여

단장과 전교사 예하 보병학교 교장들까지 모두 참석한 이 작전회의에서 실행명령이 구체화 되었다. 공수부대가 ‘특공대’로 선두에서 도청, 전일빌딩, 광주공원 등 시내 각 목표지점으로 진입하여 시민군을 제압한 다음, 20사단과 31사단에 책임 지역을 인계하도록 했다.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병력은 ‘봉쇄부대’로 외곽선 차단을 담당했다. 각 부대별로 구체적인 임무가 하달됐다. 최정예로 꼽히는 3공수여단은 전남도청, 11공수여단은 관광호텔과 전일빌딩, YWCA, 7공수여단은 광주공원을 맡았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출동 명령을 받은 각 부대는 ‘격리지역 활동’을 위해 집결해 있던 광주 비행장 내의 각기 다른 격납고로 이동했다. 광주 시내 지도, 목표지점과 건물의 구조 도면을 펼쳐놓고 침투 목표지점까지의 진입로와 공격할 때 부닥칠 상황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³⁵⁶



광주재진입작전 투입병력 이동경로 출처 :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I

5월 26일 5차 쫓겨대회가 끝날 무렵, 항쟁지도부는 ‘오늘 밤 계엄군이 공격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도청을 사수하기 위해 싸워줄 사람들은 남아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예비군의 참여를 호소했다. 항쟁지도부는 예비군들에게 총기를 재지급하면 계엄군이 선불리 들어올 수 없고, 협상을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집회가 마무리되자 도청을 사수하려는 시민군(이하 ‘도청사수대’) 약 150명이 YMCA 1층 강당에 모였다.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노동자들이었다. 넓은 YMCA 강당이 도청사수대로 꽉 들어찼으나 이들 중 예비군은 사실상 많지 않았다. 그중에는 여성도 눈에 띄었다. 매일 여동생과 함께 쫓겨대회에 참석했던 전남대 학생 김윤희(여, 19세)도 남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앞장서지 못했던 본인의 부끄러움을 만회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YMCA에 모인 이들은 YWCA에서 준비한 카레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잠시 후 상황실장 박남선이 권총을 차고 YMCA에 나타나 비장하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었다. 모인 사람들을 향해 고맙다고 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 부대에게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방어해서 죽는 게 명예롭다고 했다. 모두가 집중하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저녁 8시 반 경, YMCA에 모인 사람들은 예비역 대위 출신 송진광(남, 28세)의 지도에 따라 총을 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총을 쏠 줄 아는 80여 명은 9~12명씩 1분대에서 7분대까지 편성하고, 총을 쏠 줄 모르는 70여 명은 1조부터 7조까지 조별 인원 7~11명씩으로 편성하였다.³⁵⁷ 총을 쏠 줄 아는 사람 수십 명은 밤 10시경 전남도청 1층 회계과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은 다음날 새벽 비상이 발령되자 계림국민학교로 배치되었다.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들은 YMCA에 남아서 송진광의 시범에 따라 총기 교육을 받았다. 박병준(남, 20세)도 총 쏘는 법을 배웠으나 눈짐작으로만 이해해야 했다. ‘군대라도 다녀왔더라면 다룰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지금 당장 총알 하나라도 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긴장하면서 배웠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민들의 무장력이 얼마나 허술했던가를 뼈저리게 느

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제대로 총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민군의 총기 조작법은 허술했다.³⁵⁸

여성들도 총기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실제 개개인에게 총기가 배부된 것은 아니었기에 총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총기 교육이 끝난 후 누군가 여성들은 취사반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여 밤 10시경 YWCA에 배치되었다. 김윤희도 이들과 함께 YWCA로 이동했다.³⁵⁹

YMCA의 밤, 총기 교육 후 남은 사람들은 자유시간을 가지다가 자연스럽게 잠을 청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들어 웅크리고 자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뜬 눈으로 보냈다. 지인들과 함께 왔거나 그곳에서 아는 이를 만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며 스스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2.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시민군 : 여성들의 선택

도청도 서서히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이제 도청에는 투항에 반대한 사람들이 남았다. 상황실에 있던 최치수(남, 19세)는 의자에 앉아 오늘 하루를 새겨보았다. 박남선 상황실장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곧 계엄군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상황실 밖으로 나와서 바라본 도청광장엔 아무도 없었다. 도청 마당에서 전일빌딩 위로 하늘을 쳐다보니 별들이 많이 보였다.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았다.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다. 다만 하늘을 보니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쉽 없이 달려왔던 며칠간의 우리의 합성이 여기까지 끝인가’하고 잠시 생각을 했다. 다시 상황실로 들어왔다. 외곽에 배치된 시민군들로부터 무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계엄군이 유덕동으로 들어왔다.”, “조선대 뒷산 들어왔다.”, “서방사거리 들어왔다.” 무전

이 빗발쳤다. 고요한 가운데 상황실에서 “전원 도청으로 들어와라.”고 답하는 박남선 상황실장 목소리만 들렸다. 이것이 힘없는 민초들의 한계인가? 일종의 무력감마저 들었다.³⁶⁰

밤 12시, 시내전화가 불통이 되었다. 불안이 엄습해왔다. 항쟁지도부가 JOC 회원 김순이, 최정님 등 취사반 여성들에게 도청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제일 나이가 많은 이정(여, 30세)은 “안 나가겠다. 우리에게도 총을 달라, 총 쏘는 법을 알려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총을 쏘는 법을 지금 배우는 것은 어렵고, 지금 배워 총을 쏘다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 말을 들은 일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³⁶¹ 결국 이정이 취사반 여성들에게 함께 도청을 나가자고 결정하였다. 그러자 박병규와 1명의 시민군은 취사반 여성들이 피신하는데 동행해주기로 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취사반 여성들과 시민군 박병규는 남도예술회관, 노동청, 광주여고를 지나면서 몇몇 집의 문을 두드리며 숨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가 동명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다. 취사반들은 박병규 등 시민군에게 도청으로 돌아가지 말고 함께 있자고 하였으나 그들은 가야 한다며 되돌아갔다. 동명교회 유치원 바닥은 매우 차가웠다. 다들 피곤해서 잠이 들 무렵 도청에서 울리는 새벽 방송을 들었다. 그리고 곧 깊은 잠에 빠졌다.³⁶²

취사반 김경임도 동신여고 친구 3명과 함께 22일부터 취사반 활동을 했다. 잠깐 들어가서 도와주자고 했던 것인데 26일까지 꼼짝없이 취사반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다. 26일도 똑같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계엄군에게 오늘 밤 도청 작전을 하겠다는 최후 통보가 왔다. 모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 번에 나가면 위험하니 몇 명씩 짝을 지어 나갔다. 친구들 모두 풍향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총을 멘 시민군이 앞에서 길을 안내하면서 함께 도청을 나왔다. 풍향동 즈음에서 각자 자기 집 방향으로 헤어졌다. 혼자서 터버터벅 집을 향해 가다가 김경임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건 아니다. 도청에 남은 사람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래도 1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는데 나만 산다는 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나는 다시 도청으로 되돌아갔다. 도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되돌아온 것이다. 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하였던 것인지 지금 돌이켜봐도 내가 순진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발길을 돌렸던 것은 ‘동지애’였을 것이다.

김경임이 다시 도청에 도착했을 때 정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도청 경계를 맡은 시민군에게 좀 전까지 일하던 사람이니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했지만, 누구인지 신분이 불확실하므로 열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마침 순찰하고 들어오는 듯한 차가 오자 정문이 열렸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틈에 몰래 들어올 수 있었다. 작은 몸집이 그때는 유용했다. 도청에 들어와 취사반이 일하던 곳에 갔더니 늘 함께 일했던 ‘오빠’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면 김경임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였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고급스런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고, 침대가 있었다. 오빠는 이곳은 높은 사람이 잠깐씩 쉬는 공간인데 계엄군들도 잘 모르는 곳이라 안전할 테니 절대 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 오빠가 나가고 김경임 혼자 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³⁶³

3. 비상, 그리고 박영순의 애절한 새벽방송

7공수여단 33대대는 5월 27일 새벽 1시경 광주비행장을 출발하여 통합병원에 도착, 이후 월산동을 거쳐 점령지역인 광주공원으로 이동하였다. 2시에서 3시경

월산동에서 9지역대가 앞장서고 8지역대가 100m 간격으로 뒤따라 가다가 교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군 김성근(남, 24세)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³⁶⁴ 7공수여단이 광주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시민군과의 교전 없이 5시 6분 점령을 완료했다.

7공수여단의 작전 전개³⁶⁵

5.26.	15:00	광주공원 진압 명령
	16:00	광주공원 2개 지역대 투입 명령
5.27.	01:00	송정리 비행장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국군광주통합병원 앞에서 하차
	01:20	국군광주통합병원 앞에서 월산동 주택가를 가로질러 광주공원 방향으로 이동
	02:20	월산동을 지나던 중 8지역대 유도병이 시민군 10~15명 발견, 10분간 교전
	03:10	9지역대 침병지대 시민군으로부터 총격 받음
	03:10	광주공원 도달
	05:00	광주공원 확보
	06:00	제20사단 61연대에 광주공원 인계 후 송정리 비행장으로 철수
	07:05	송정리 비행장 도착

새벽 3시, 도청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월산동에서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의 교전 중 울린 총성은 계엄군이 광주에 이미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시각 기동타격대 4조도 마지막 순찰을 도는 중, 동명동 청산학원 인근에서 계엄군을 목격했다. 4조는 서둘러 도청으로 돌아와 회의실부터 본관 복도를 다니며 자는 사람을 깨우고 비상을 걸었다.

박남선이 도지사실에서 한두 시간 잤을까, 누군가 잠을 깨웠다. 계엄군이 밀고 들어온다며 1층 상황실로 내려와 달라는 것이었다. 박남선을 중심으로 항쟁지도부는 시민군들을 지정된 경계지역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총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군들은 도청 정문 수위실과 회의실 입구에서 총기 1정과 실탄을 1

클립(15발) 혹은 2클립(30발)씩 배분받았다. 다들 긴장하면서 총기를 수령했다. 실탄이 많은 것이 웬지 든든한 것 같아 대부분 2클립씩 받아 갔다. 교복이나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총기를 수령할 때는 항쟁지도부의 마음도 무거워 총기를 다룰 수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다들 총기를 수령하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YMCA에도 비상이 걸렸다. 누군가 “계엄군이 왔다!”라고 소리치자 다들 벌떡 일어났다. 잠을 자고 있던 박병준도 그 즉시 일어나 도청으로 달려가 카빈총과 총알을 받았다. 계엄군이 총을 쏜다면 자신도 총을 쏘아 도청과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신념으로 총을 받았다.³⁶⁶

항쟁지도부는 도청과 도청 주변 일대에 시민군을 배치했다. 도청 정문 앞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 화분마다 2명의 시민군이 배치됐다. 이 위치가 시민군의 최전방인 셈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금남로를 통해 계엄군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청 본관 1층과 2층 복도, 그리고 회의실 건물에도 시민군들을 배치했다. 시민군들은 모두 총기를 꼭 쥔 채 총부리를 금남로를 향했다. 이날 계엄군의 진입에 맞선 시민군의 정확한 수는 알기 어렵지만 전남도청과 인근 건물에 배치된 시민군의 숫자는 대략 25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중 전남도청에 약 200명, 전일빌딩, 수협, YMCA에 20~30명, YWCA에 3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림국민학교에 30여 명이 배치되었고, 이 외에도 전남대병원, 월산동, 대인동 등 주요 거점에 시민군이 배치되었다.

같은 시간, 갑자기 방송실 문이 확 열리더니 김종배가 “계엄군이 포위했다. 급하다 빨리 방송하라.”면서 박영순에게 A4용지 절반보다 약간 작은 메모지에 방송 내용을 적어주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되자 박영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옥외방송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데 머뭇거리자, 이흥철이 박영순의 손을 잡아 같이 스위치를 올리고 볼륨을 최대한으로 올렸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오셔서 시민학생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
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도청을 사수할 것입니다.

죽음이 실감 나 떨리고 울먹인 채 3번을 반복했다. 더 이상 목이 메어서 할 수
없었다. 방송이 끝나자 소등이 되었고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³⁶⁷

4. 전남도청, 시민군 최후의 항전

새벽 4시 직전, 3공수여단 선발대가 도청 후문에 도착했다. 후문과 도청 좌우
측 세 방향에서 기습 침투하되, 정문은 시민군 방어가 공고할 것으로 예상하여
나중에 공격한다는 계획이었다.³⁶⁸ 새벽 4시 10분, 3공수여단 3중대-2중대-1중
대-특공중대-4중대-11중대 순으로 도청 후문 담을 넘어 진입하였다. 3중대와
11중대는 도청 별관 쪽으로, 4중대와 특공 중대는 도청 본관과 회의실 쪽으로,
2중대는 도청 후문 쪽에서 경찰국 본관 쪽으로 진격했다.³⁶⁹

계엄군은 도청 내 각 건물의 1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대항하는 시민군을 사
살하거나 숨어 있는 시민군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제압해 나갔다. 남쪽 별관을 진
압한 2중대는 재빨리 옥상으로 올라가 위층부터 아래층 쪽으로 내려가며 건물을
장악했다. 그들은 시민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투항하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총을 버리고 항복한 시민군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
으며 군화발로 구타한 뒤 허리로 결박해 본관 앞마당으로 끌고 가 땅에 고개를
치박게 하였다. 도청 상공에서는 헬기가 날아다니며 항복을 종용하고 있었다.

3공수여단의 작전 전개³⁷⁰

5. 26.	15:00	특공조 광주재진입작전 임무 및 장비 수령 및 광주 시내 지도로 도상 연구
	17:00	특공조 식사
	18:30	헬기로 광주~화순간 도로 중 20사단 61연대 3대대 지역으로 이동
	22:30	특수화학탄 10발을 작전팀에 정보참모가 공수
	23:00	20사단 61연대 3대대 지역 출발
5. 27.	01:30	3공수여단 조선대학교 뒷산 도착
	03:00	조선대학교 뒷산 출발, 목표지역으로 이동
	04:00	3공수여단 도청 후문 도착, 작전 개시
	04:10	전남도청 후문 월담 (3중대, 2중대, 1중대, 특공중대, 4중대, 11중대 순으로)
	05:30	체포한 시위대 집결
	05:31	제20사단 61연대와 접촉
	07:05	제20사단 61연대에 전남도청 인계
	07:30	상무대로 철수

도청 후문

계엄군이 도청 뒷담을 넘고 있을 무렵, 시민군들은 계엄군이 금남로 방향에서
올 것을 예상하고 모두 정문을 향해 총부리를 대고 있었다. 그 시각 도청 뒷담에
서는 서호빈(남, 20세)과 김인환(남, 21세)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

난 3일 동안 무기 회수를 위해 도청과 시내를 오가다가, 26일 도청에 무기 반납을 위해 들렀을 때 옥내 방송을 통해 계엄군의 재진입작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도청에 남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도청 뒷담을 따라 뚫려 있는 방공용 구멍에 총구를 대고 경계를 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이에 귀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김인환은 앞쪽 골목에서 계엄군들이 지그재그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다가오는 헬기를 보기 위에 고개를 든 순간, 총소리가 들리면서 옆에 있던 서호빈이 고꾸라졌다. 그 순간 김인환도 계엄군의 발길질에 정신을 잃었다.³⁷¹ 서호빈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는 5월 21일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뒤, “내 한 몸이 희생되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면 나라를 구하는데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일기를 쓰고 활동하였다.³⁷²

도청 본관-1층 상황실

도청 본관 1층 복도, 시민군들은 창문 2~3개 정도 간격을 두고 2명씩 짝을 지어 경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후문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듯싶었는데 곧이어 정문 앞에서도 총격이 시작됐다. 모두 겁이 나 총은 쏘보지도 못하고 사무실 안으로 피신했다.

도청 본관 1층 좌측 시민군 상황실로 이용되고 있었던 서무과에는 가장 많은 시민군이 모여 있었다. 계엄군의 총격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청 정문 수위실에서 얼굴에 총상을 입은 이강준(남, 19세)이 서무과로 들어왔다. 위성삼(남, 26세)이 이강준의 상처 치료를 위해 몸을 굽히는 순간, 계엄군이 M16을 난사하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들로 서무과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20~30분이 흘렀을까 ‘투항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먼저 선불리 움직이

지 못하였다. 그때 전날 통금 위반으로 잡혀왔던 시민 김종명(남, 50세)이 자신의 와이셔츠를 벗어 “항복이요~”를 외치면서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약 20~30명이 줄줄이 밖으로 나갔다.³⁷³

상황실 내 방송실에는 박영순, 이흥철과 여학생(성명 미상) 한 명이 있었다. 최후 방송을 마친 후 이흥철은 주머니에 있던 차량통행증 등을 입으로 잘게 찢어서 버렸다. 잠시 후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사무실 뒤쪽 창문을 깨고 서무과 내로 쏜 폭탄 난사했다. 계엄군이 나오라고 소리쳤다. 박영순이 “여학생이 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나가는 순간, 군화발과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계엄군이 “어떤 년이 방송했어? 옷을 벗겨서 갈가리 찢어 죽이겠어. 나와!” 하는 소리에 박영순은 다시 정신을 잃었다.³⁷⁴

취사부 오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안내받은 곳에서 잠을 자던 김경임은 “다다다다~” 총소리에 잠이 깼다. 그때부터 총소리, 창문 깨지는 소리에 혼이 나갔다. 누군가 김경임을 데리러 왔고, 그 사람을 따라 밖으로 나오는데 어디쯤에 선가 “여기 옆드려 있어라, 절대 일어나지 마라.”고 해서 그렇게 옆드려 있는 내내 총소리는 요란했다. 다시 누군가 김경임의 어깨를 쳐서 고개를 들었더니 계엄군이였다. 계엄군도 놀랐다. “살아있네?” 그렇게 김경임은 연행되었다. 계엄군을 따라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아침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도청 본관 앞에 시민들은 한 곳에 몰려 있었고, 김경임은 버스에 실려 상무대로 옮겨갔다.³⁷⁵

“나랑 같이 붙잡혔던 여학생은 동신여고 학생 경임이다. 께간해 갖고 뽐테 안경 쓰고.” 도청에서 취사부로 활동했던 문종호(남, 17세)는 김경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문종호는 26일, 하루 종일 취사부 활동을 한 후에 취사부 여학생 2명을 데리고 경찰국 본관 2층에 있는 경찰국장실에 들어갔다. 경찰국장실 옆에는 침대가 있는 별도의 방이 있어서 여학생을 그곳에서 쉬게 하고 본인도 경찰국장실에서 잠이 들었다. 총소리가 나자 여학생을 깨워 본관 상황실로 들어갔다. 문종호 일행이 상황실로 몸을 피한 후 사방에서 총탄이 쏟아졌고 시민군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 그때 부상자 치료 일을 해왔던 김순희(여, 19세)가 총상을 입은 시민군을 치료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 순간, 김순희의 둔부에 총알이 박혔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어슴푸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³⁷⁶

도청 본관-2층 부지사실

도청 본관 2층은 부지사실을 비롯해서 각 국장들의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다. 본관 2층 역시 시민군들이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복도 창문에서 광장을 향해 경계 중이었다. 하지만 계엄군의 총격이 시작되자, 2층에 있던 시민군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전도 하지 못한 채 경계지 앞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경창수(남, 19세)가 정문 경계병이던 백종환(남, 18세)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 갑자기 폭탄 같은 것이 도청 앞 분수대 쪽에서 날아와 터졌다. 수위실 창구 밑으로 쪼그려 앉아 급하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다. 경창수는 급히 도청 본관으로 뛰어 올라가 2층 부지사실로 들어갔다.³⁷⁷ 그곳에는 이종기 변호사가 시민군들과 함께 있었다. 이종기 변호사는 시민수습위원들 중 유일하게 5월 26일 밤늦게 도청으로 되돌아왔다. 이종기 변호사가 도청에 나타났을 때 많은 시민군은 큰 위안을 받았다. 이종기 변호사는 부지사실로 들어온 시민군에게 총을 버리라고 하였다. 죽지 말고 살아서 꼭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본관 2층 복도에 있던 김태찬(남, 19세)도 부지사실로 들어간 것은 같이 경계 근무를 하던 시민군이 총을 맞고 쓰러졌기 때문이다. 별관 쪽에서 계엄군이 조준 사격한 것으로 생각된다. 옆에 있던 시민군이 쓰러졌지만, 김태찬이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M16의 위력은 그만큼 강력했다.³⁷⁸

1층 상황실에 있던 최치수는 도청 후문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문 쪽은 조용하여 무슨 일인가 싶어 1층 현관 복도로 나왔다가 별관 쪽을 보는 순간 불빛이 반짝였다. 그때 박남선 상황실장이 “2층으로 뛰어!”라고 소리치고 올라가자 최치수도 2층으로 올라갔다. 박남선과 최치수가 들어간 곳도 부지사실이었다. 박남선이 다시 복도로 나와 시민군들에게 ‘사격 중지’를 외쳤다. 잠시 후 계엄군이 부지사실 출입문 옆 창문을 깨고 문을 연 후에 바닥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한 후 나오라고 하였다. 이종기 변호사가 “총을 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계엄군은 “기어서 나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³⁷⁹ 2층에서 연행된 시민군들도 모두 복도로 기어갔다. 계엄군들은 이들을 군홧발로 등을 밟아 뭉개고 개머리판으로 허리를 내리쳤다. 총구를 머리에 갖다 대는 군인도 있었다.

회의실

도청을 마주 보았을 때 왼쪽에 위치하고, 1층에 민원실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흔히 민원실 건물로 생각하는 건물은 회의실이다. 2층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대회의실이었고, 공간이 넓어 항쟁 기간 시민군들의 식사와 휴식 장소로 이용되었다. 지하 1층에는 이발소, 구내식당 등이 있다. 구내식당의 주방은 취사반과 보급부원들이 밥과 반찬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고,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에는 시민군이 탈취한 폭약류 등이 보관되었다. 폭약류가 있는 공간은 무기고 관리팀들이 안전을 위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었다.

5월 27일 새벽, 기동타격대장 윤석루를 비롯하여 30~40명의 시민군이 회의실 건물 2층 대회의실에서 경계 중이었다. 회의실 무대 뒤편 공간에서 창문 하나씩을 맡아 경계 중이던 윤상원, 이양현, 김영철은 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젖었다. 이양현은 본인이 죽을 것이라 예감하고 윤상원에게 “상원 씨, 우리 참 이승에서 좋은 친구였어. 저승에서 다시 만나고, 저승에 가서도 민주화운동을 같이하자!” 하니, 윤상원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러자고 했다. 그때 시민군 한 명이 뒤 경찰국 쪽에서 달려왔다. 후문 쪽이 무너지면서 쫓겨 온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윤상원이 폭 쓰러졌다. 복부에 관통상을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윤상원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이양현과 김영철은 시민군들이 쓰던 담요를 깔고 윤상원의 시신을 회의실 중앙으로 옮겼다.³⁸⁰

본격적으로 총격이 계속되자 어린 시민군들은 낯이 나간 표정이었다. 윤석루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다. 몇몇은 끝까지 총격전을 벌였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계엄군이 총을 난사하자 시민군들은 점차 회의실 앞쪽으로 물리고 있었다. 더 이상 저항은 어려웠다. 계엄군은 회의실 2층에 있던 시민군들을 계단을 통해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층 회의실 난간 옆으로 있는 나무를 타고 내려오게 하였다. 이들이 한 명씩 난간에서 뛰어 나무를 타고 내려오면 밑에 있던 계엄군들은 그들을 구타하면서 포박하였다.

이날 회의실에서 사망한 시민군은 윤상원과 김동수(남, 22세)다. 윤상원은 복부에 총상을 입고 절명한 후 계엄군의 진입 과정에서 사용된 섬광수류탄(스턴트탄)에 의해 불이 옮겨붙으면서 시신이 손상된 것으로 ‘5·18조사위’의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³⁸¹ 김동수는 회의실 2층 강당 무대 뒤에서 왼쪽 목 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다. 김동수는 조선대학교 불교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전남도청에서 시신 관리 업무와 도청 경비 업무를 담당했었다.³⁸²

후관동

항쟁 기간 회의실 지하 1층은 회수된 탄약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 대상이었다. 비상이 걸리자 무기고 관리팀들은 보관하고 있던 실탄을 시민군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잠시 전열을 정비하는 사이 계엄군은 곧바로 회의실 앞까지 진격했다. 지하에 있던 무기고팀이 회의를 통해 피신하기로 결정한 순간, 1층과 2층에 있던 시민군들과 계엄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무기고팀 6명은 약속이나 한 듯 뛰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주방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 차례로 나가느라 제일 마지막에 나갔던 양홍범(남, 20세)과 박선재(남, 23세)는 앞 사람들을 놓치고 회의실 바로 옆 건물인 경찰국 민원실 1층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양홍범은 이왕 죽기로 결심한 판에 계엄군의 손에 의해 죽기는 싫으니 서로에게 총을 쏘아 죽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선재의 만류로 대기하다가 연행되었다.³⁸³

총기 수령 후 정문 앞 화단에서 경계를 서던 변형섭(남, 18세), 박병준 등 YMCA 사수대는 총소리가 들리자 도저히 무서워서 총을 쏘 자신이 없었다. 도청은 어느새 정전이 되어 캄캄했고 총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도청 지리를 잘 몰랐던 이들은 도청 안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어 무조건 도청 안으로 뛰어갔고, 가다 보니 도청 맨 뒤 건물로 들어갔다. 당시 도청 후관동은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이들이 들어간 사무실은 집기들이 많아 창고처럼 보였다. 잠시 후 계엄군의 화력이 집중되었다. 이때 박병준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다. 박병준이 3일 후 눈을 떴을 때 다리 절제 수술

이 이미 끝마친 뒤였다.³⁸⁴

후관동 인근에서 사망한 시민군은 문용동(남, 27세)이다. 그는 신학대학 학생이면서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였으며, 5월 22일 이후 전남도청에서 무기고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³⁸⁵ 문용동은 박미숙의 야학 선생님이기도 하다.

도청 정문

시민군 기동타격대는 도청 정문 앞에 놓여 있는 화분들을 엄폐물로 삼아, 정문 앞은 3조, 선관위 건물 쪽은 6조가 맡아 경계를 섰다. 각 화분마다 2인 1조로 편성되었다. YMCA에서 온 사수대원들도 화분 사이에 배치되었다. 처음 총소리가 났을 때 3조 염동유(남, 23세)는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의 오발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곧바로 총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졌고, 염동유와 정광호(남, 21세)는 총 한 번 쏘지 못한 채 계엄군에게 연행되었다.³⁸⁶

선관위 쪽 화분을 경계로 있던 6조는 총소리가 들리자 그 소리가 들리는 후문 방향으로 지원사격을 위해 이동했다. 그 순간 6조장 박인수(남, 17세)가 목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박인수가 동료들 향해 총에 맞았다고 말하자 김여수(남, 19세)와 사무라이(신원미상)가 박인수를 부축하고 인근 가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밖에서는 총성이 계속되었다. 식당 안에 숨었던 김여수는 “여기 부상자가 있다.”라고 소리치고 박인수를 업고 밖으로 나와 계엄군에게 연행되었다. 그때부터 함께 활동했던 사무라이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일성은 도청 안으로 뛰어서 이동 중에 계엄군에게 체포되었고, 김현채(남, 19세)는 수위실 옆 차량 하부에 숨었다가 체포되었다.³⁸⁷

천순남(남, 27세)은 상무관 앞 전경버스에 여섯 명과 함께 있었다. 기동타격대원들이 계엄군의 진입 소식을 무전기로 전해 주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 갑자

기 도청 쪽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소리가 진동했다. 총알이 사방 군데서 불뚱 튀듯 튀졌다. 헬기가 불을 환하게 내비쳤고 탱크도 쿵쿵거렸으며 거리는 대낮처럼 환하게 보였다. “총 들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버스 문을 열고 손을 들고 나가는데 계엄군이 계속 총을 쏘아댔다. 발사기로 총알이 튀어 나갔다.³⁸⁸

새벽 5시경, 3공수여단에 의한 전남도청 진압작전은 종료되었다.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으로 전남도청 내에서 사망한 시민군은 총 14명이다.

전남도청 내 장소별 사망자 명단

구분	계	도청		경찰국		미상
		회의실	후관동	본관	민원실	
사망자 수	14	2	3	3	3	4
사망자		김동수 윤상원	문용동 서호빈 박병규	문재학 안종필	이정연 홍순권 박진홍	유동운 이강수 민병대 박성용

검시 기록으로 14명 사망자 사인은 모두 총상이며, 이 중 단발성 총상자는 윤상원 등 6명, 다발성 총상자는 문용동 등 8명이다. 사망자 총창의 흔적이 1개라는 것은 당시 계엄군과 시위대 간의 교전이 격렬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최정에 병력의 압도적 화력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⁹

5. 전일빌딩과 YMCA의 항전

11공수여단장 최웅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전교사 회의에 참석한 후, 61대대 2지역대 4중대장 최영준 대위를 불러 “우리 여단이 1개 중대 규모의 특

공조를 편성하여 전일빌딩과 층장으로 관광호텔을 점령하라는 작전명령을 전교사에서 받았다. 특공조로 4중대를 선정하였으니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여단장의 명령을 받은 특공조 대장 최영준 대위는 61대대에서 차출한 중대 병력(장교 4명/사병 33명)의 장비를 갖추어 준비한 후, 송정리 비행장에서 오후 6시경 헬기를 타고 20사단 61연대가 있던 주남마을로 이동했다. 특공조는 밤 11시경 조선대학교 뒷산을 출발하여 새벽 4시경 전일빌딩, 관광호텔에 도착해 진입했다. 61대대 특공중대 중대장 백OO가 전일빌딩 작전팀장, 61대대 2지역대 6중대 16지대장 겸 중대장 오OO이 관광호텔 작전팀장, 61대대 3지역대 8중대 23지대장 천OO은 예비대(YMCA) 팀장으로 각각 배치되었고, 천OO팀은 최영준의 명령에 따라 YWCA를 진압했다.³⁹⁰

11공수여단의 작전 전개³⁹¹

5.26.	18:00	작전병력 이동(UH-1H 5대)
	18:15	주남마을 도착
	23:15	침투 개시
5. 27.	03:30	조선대학교 뒷산 출발, 목표지역으로 이동
	04:10	전일빌딩 및 관광호텔 점령
	05:10	도청 지역 병력 증원 지시
	05:15	YWCA 건물 앞에서 30여명의 시민군과 교전
	05:30	부상자 2명 발생
	06:20	YWCA 완전 장악
	06:40	보병(제20사단)과 연결, 작전 지역 인계
	07:15	병력 철수

전일빌딩

YMCA에서 대기 중이던 사수대 13명은 도청에서 총기를 지급 받고 전일빌딩에 배치되었다. 이중 황의수(남, 28세)는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나이가 많아 1조 1번으로 편성되어 조장 역할을 맡았다. 계엄군의 진입이 임박할 무렵 조원들을 인솔해서 도청으로 가 무기를 지급 받은 뒤, 본인을 포함하여 13명은 전일빌딩에 배치되었다.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고등학생이었다. 빌딩 정면 셔터가 굳게 닫혀 있어서 서쪽 통로로 들어가 캄캄한 계단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갔다. 황의수는 바깥 동정을 살피기 위해 조원들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고등학생인 김승렬(남, 18세)만 데리고 1층 입구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손들었!”하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철모에 하얀 띠를 두른 6~7명의 계엄군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계엄군들은 두 사람을 묶어서 도청 앞으로 끌고 갔다.³⁹²

전일빌딩 안에 있었던 선만호(남, 19세)는 항쟁 기간 내내 도청 상황실과 외곽을 오가면서 활동하다 27일 새벽 도청으로 들어왔고, 박연훈(남, 19세)과 함께 전일빌딩에 배치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민가로 들어갔다가 계엄군에게 연행되었다.³⁹³

최영준 대위가 전일빌딩에 직접 들어가 보니, 당초 첩보와 달리 소수 인원만 있는 데다 별다른 저항이 없었기에 사격 없이 곧바로 시민군을 생포할 수 있었다.

YMCA

김종연(남, 19세)도 5월 26일 YMCA에 있었던 사수대 일원이었다. 김종연 역시 총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YMCA에 대기하던 중, 5월 27일 새벽 비상이 발령되자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도청 정문 수위실에서 총기를 지급 받는다. 그는 정OO(남, 20대)와 함께 YMCA 정문 앞 인도에 있는 화단을 엄폐

물로 삼아 금남로 5가를 향해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한참 후, 점차 등이 트면서 바깥이 환해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 YWCA 쪽에서 ‘드르르르’ 소리가 났다. 정OO이 금남로 5가 방향 정면을 향해 총을 한 발 쏘았다. 김종연은 정OO에게 총 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 잠깐 위치를 바꿔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김종연이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고, 정OO도 화단에 총알이 튀면서 왼쪽 가슴 상단에 파편이 박혔다.

당시 YMCA 맞은편 전일빌딩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항쟁을 취재하기 위해 광주에 와 있던 프랑스 외신기자 패트릭 쇼벨(Patrick Chauvel)이었다. 김종연은 그를 향해 “Help Me.”라고 소리쳤다. 김종연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다. 쇼벨은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³⁹⁴

11공수여단은 YMCA도 손쉽게 점령했다. 그들이 전일빌딩과 YMCA, 관광호텔을 완전 장악하는 데까지는 겨우 1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11공수여단 본부에서는 무전으로 아직 진압 작전이 진행 중인 도청의 3공수여단을 지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11공수여단 특공대는 관광호텔과 전일빌딩에 각 1개 중대씩을 배치한 후 나머지 병력을 도청에 투입키로 했다. 새벽 5시경 도청의 3공수여단 지원을 위해 이동하던 11공수여단 병력이 전일빌딩을 끼고 좌회전하려는 순간이었다. YWCA 2층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도청으로 향하던 11공수여단은 전혀 예상치 않은 YWCA에서 총탄이 날아오자 즉각 YWCA를 향해 응사했다.³⁹⁵

6. YWCA 항전 : 시민군의 밥을 위해 돌아온 여성들

26일 밤, YWCA에는 50여 명이 남아 있었다. 투사회보 제작 들불야학팀, 켈

기대회 진행을 맡은 극단 광대, 대자보 작성과 모금 등 활동하는 송백회 회원들과 YWCA 2층 양서조합 회원인 고등학생들, 쫓기대회에서 모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홍보활동을 해온 대학생들이었다. 밤늦은 시간 마지막 석별식을 하였다. “살아서 만납시다!” 어둠과 무거운 침묵 속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나중에 만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모금한 돈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때 박용준(남, 24세)은 “필요 없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 죽을 건데”라면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³⁹⁶

자정이 넘어가자 YWCA에 있던 사람들이 잠이 들었으나 일부는 투사회보를 제작하고 있었다. 새벽 3시경, 도청에 비상이 걸리고 곧바로 YWCA에도 계엄군의 광주 진입 사실이 통보되었다. 여기저기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협의했다. 먼저 계엄군의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류를 1층 현관에 쌓았다. 그리고 여성들과 쫓기대회 사회를 보아 얼굴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김태종과 엄태주에게 먼저 피신하라고 하였다. 1층 현관을 집기로 막아버려 여성들과 김태종 등은 담을 넘어 옆 병원 건물 문으로 나갔다.

들불야학 학생 오경민(여, 19세)은 박용준이 주는 손목시계를 받아서 나왔다. 남자들이 YWCA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어깨동무를 해주었다.³⁹⁷ 이들은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어린 시민군들을 놔두고 나가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당시 YWCA 간사인 정유아는 주인의 입장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싸운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계엄군의 진입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³⁹⁸ 정유아, 임영희는 본인들이 YWCA에 있던 마지막 여성들이라고 생각하고 뒷담을 넘어 녹두서점으로 향했다. 평상시엔 3분이면 갈 거리였는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 멈추기를 여러 번 한 끝에 녹두서점에 도착했다.³⁹⁹ 도청에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박영순의 마지막 방송이 유독 구슬프게 들려왔다.

여성들이 빠져나가자 남은 사람들 숫자가 20여 명인데, 총은 10정밖에 없었다. 투사회보 팀 박용준, 나명관 등 10여 명이 도청으로 총을 가지러 갔다. 총을 가지러 간 사람들이 오지 않자 김상집, 전용호가 확인하기 위해 도청으로 출발한 사이, 도청에서 20여 명이 총을 가지고 왔다. 이들은 26일 저녁 도청에 대기하

고 있다 비상이 걸리자 총을 보급받고 YWCA로 배치된 사람들이었다. 총을 확보한 30여 명의 YWCA의 청년·학생들은 강당, 1층 안채, 2층 사무실 등 구역을 나누어 배치되었다. 박용준은 2층 건물 모서리 사무실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도청으로 총을 가지러 갔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확인차 도청으로 출발한 김상집과 전용호는 상무관 옆을 지나다 도청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 정현애가 김상집, 전용호를 보고 지금 계엄군이 공격을 시작했으니 피신해야 한다고 하자, 그녀를 따라 녹두서점으로 피신했다.

이때 부엌에서 잠을 자느라 미쳐 빠져나가지 못했던 일부 여성들은 도청에서 들리는 방송 소리에 잠에서 깨어 급하게 YWCA 옆 건물로 피했다. 그중 이남순(여, 23세), 김윤희(여, 20세), 강임아(여, 22세)는 다시 YWCA로 돌아왔다. 그리고 총소리가 잠잠해진 것 같아 솔에 밥을 안치고 국을 데웠다. 아침이면 시민군들에게 밥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대생 김윤희의 총상

천영진(남, 20세)은 26일 오후 YWCA에 갔다가 김윤기(남, 23세)의 인솔로 몇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전남도청으로 이동했다. 도청에서 만난 윤상원은 “굳은 각오가 아니면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굳은 각오와 결의가 없는 사람은 지금 나간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고 연설을 하며 시민군의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천영진은 그곳에서 알게 된 김인순(남, 20세)과 대기하다가 잠을 청했다. 한참 잠을 자던 중 비상이 걸렸고, 총기를 받은 후에 조를 편성해 YWCA로 갔다. 천영진이 속한 조에는 예비역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소대장이 되었다.⁴⁰⁰

YWCA에서 잠을 자던 김효석(남, 18세) 등 청년들은 새벽방송 소리에 대부분 잠이 깨었다. 잠시 후 분위기를 살피려고 옥상에 올라가는데 2층과 3층 사이 계

단에 박용준이 창박을 보면서 앉아 있었다. 김효석은 박용준에게 “형 그렇게 있으면 대번에 총 맞아요.”라고 하자, 박용준은 “효석아, 우리가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잠시 후 YWCA에 총성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놀라서 2층으로 올라가 양서조합 문을 여는 순간 ‘펑’ 소리가 나면서 한 사람이 피범벅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좀 전에 도청에서 온 예비역 출신으로 총기 교육을 했던 사람이었다. 김효석은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나오면서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쳤다. 그 후 ‘투항하라’는 메가폰 소리가 들렸다.

김윤희를 비롯해서 YWCA 주방에 있던 여성들은 총소리가 잠잠해지자 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YWCA에도 총알이 빗발치고 주방 요리창들이 깨져나갔다. 주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렸다. 잠시 후 김윤희는 등 쪽에 파편상을 입었다. 김윤희는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다. 광주시민들에게 빗졌다고 생각한 부끄러움을 어찌면 만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김윤희의 등에서는 피가 흘렀다. 이때 함께 있던 이남순이 재빨리 뒤쪽에서 김윤희의 총상 부위를 손으로 막았다. 근처에 있던 이덕준(남, 17세)도 가세했다. 이남순과 강임아가 계엄군에게 그만 총을 쏘라고 소리를 질렀다.⁴⁰¹

김향득(남, 17세)은 1층 창가에서 총을 들고 경계를 서다가 총소리가 나자 2층으로 올라갔다. 총소리가 빗발치던 중 김효석은 소대장이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는 투항하라는 방송이 들리는 등 어수선했다. 1층에서 김윤희의 비명 소리가 들리자 2층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총을 버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YWCA에서는 약 30명이 연행되었다.⁴⁰²

들불야학 학생인 윤순호(남, 22세)와 나명관(남, 18세)은 1층 소심당 창가 양쪽에 배치되었다. YWCA에서 듣는 박영순의 새벽방송은 너무 처절했다. 잠시 후 계엄군과 엄청난 교전이 오갔고, 2층을 보니 총알이 빗발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품 창고로 몸을 숨겼다. 2층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비명, 헬기 소리, 계엄군의 선무방송 소리, 연행자들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너무 숨 막히고 오금이 저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순호와 나명관은 각자의 총을 세워 총구가 턱 밑으로 오게 한 후 하나, 둘, 셋하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

알이 발사되지 않았다.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을 깜박했기 때문이다. 둘은 약 3시간 동안 숨어 있다 아침 9시경 연행되었다.⁴⁰³

장렬한 죽음

이날 YWCA에서 계엄군의 충격에 사망한 시민군은 박용준과 소대장으로 활약한 유영선(남, 27세) 그리고 YWCA 인근에서 숨진 시민군은 염행렬과 권호영이다.

박용준은 5월 27일 새벽 YWCA 2층 사무실에 있다가 계엄군(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4중대)의 충격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박용준은 항쟁 기간 왜곡되고 통제되던 언론을 대신하여 광주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었던 투사회보의 필경 작업을 담당했다.⁴⁰⁴ 유영선 또한 YWCA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⁴⁰⁵ 그는 광주지역 유일한 여성 예비검속자인 유소영의 삼촌이기도 했다. 형사들에 끌려간 조카를 찾기 위해 매일 시위 현장을 찾았다가, 시민군에 합류해 활동하다 27일 사망한 것이다.⁴⁰⁶

염행렬(남, 16세)은 5월 27일 오전 9시 25분경 동구 대의동파출소 근처에서 총기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계엄군(11공수 61대대 2지역대 4중대)의 충격에 사망했다. 계엄군이 기습해오기 전까지 도청이나 YMCA, 혹은 YWCA에 머물고 있다가 피신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에게 발각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⁴⁰⁷ 권호영(남, 17세)은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내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기동타격대의 일원으로 대원들과 함께 5월 27일 새벽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부근 여인숙의 옥상에 있다가 20사단 62연대 병력에 의해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그동안 권호영은 행방불명자로 분류되어 있다가, ‘5·18조사위’ 조사 결과 27일 사망자로 확인되었다.⁴⁰⁸ 전남도청 인근 지역 사망자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⁴⁰⁹

전남도청 인근지역 장소별 사망자 명단

구분	계	YWCA회관	YMCA회관	대의동(대의동파출소)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사망자수	5	2	1	1	1
사망자		박용준 유영선	김종연	염행렬	권호영

7. 계림동에 배치된 도청사수대

26일 밤 10시가 넘는 시각, YMCA에서 도청 별관 1층 회계과로 이동한 사수대는 약 30명 정도 되었다. 이중 이충영(남, 20세)은 특별한 경우였다. 아버지 이종기 변호사는 본관 2층 부지사실에, 아들 이충영은 별관 1층 회계과에 있으면서도 당시에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회계과에서 대기하던 사수대원들은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기에 통성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김병수(남, 20세)는 누군가 편지를 쓰라고 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쓴 뒤 함께 들어온 동네 형들과 누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벽 1시경쯤 우유와 빵 하나씩이 시민군들에게 나누어졌다.⁴¹⁰ 어쩌면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었다. 간식을 먹고 막 잠이 든 순간, 비상이 걸렸다. 비몽사몽간에 다들 우왕좌왕했다. 사수대는 서둘러 정문에 있는 수위실에서 총기류와 실탄을 지급 받고, 도청 마당에 세워진 트럭에 태워져 계림국민학교로 이동했다. 사수대는 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중심으로 각자 위치를 정한 후 총구를 도로 방향으로 한 채 대기했다. 하지만 한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20사단 62연대 2대대 6, 8중대는 5월 27일 새벽 2시 30분경 광주교도소를 출발하여 작전통제선 1선을 통과한 이후 3시 20경 계림국민학교와 광주고등학교 인근에 도착했다. 이때 누군가 “계엄군이다”라고 소리쳤고 동시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서방시장 쪽에서 총을 쏘며 계엄군이 나타났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

다. 실제 총격 상황에 시민군들은 놀라 제대로 대응 사격을 하지 못하고 인근 주택가로 숨어들기 시작했다.

신광성(남, 20세)도 계림국민학교 안에서 대기 중 교전이 발생하자 놀라 순간적으로 공포탄을 쏘고 도망가다가, 오른쪽 허벅지 관통상을 당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쓰러진 그에게 계엄군이 다가와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이겨 기절시켰다. 신광성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광주고등학교 교실 안이었다.⁴¹¹

새벽이 지나 동이 밝아올 무렵까지 계림동 일대 주택가는 숨어든 시민군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한 강간 미수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23세 여성 27-A의 주택 2층에, 이날 새벽 계엄군 한 명이 “빨갱이를 잡으러 왔다.”며 침입했다. 그는 총과 수류탄을 들어 위협하며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 27-A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27-A가 강력히 저항하자, 자신의 손에 든 수류탄의 핀을 뺄 듯 시늉하며 “터지면 모두 죽는다.”고 위협하면서, 대검으로 상처를 입혀 옷이 젖을 정도로 피가 흘렀다. 곧이어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닥쳤고, 계엄군은 그들에게 붙잡혀 갔다.⁴¹²

광주고등학교로 잡혀 온 시민군은 대략 15명 정도였다. 이때 시민군 중 한 명이 빨간 잠바를 입고 있었다. 계엄군이 그를 따로 빼내어 구타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시민군 소대장이 빨간색 잠바를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계엄군의 구타 끝에 쓰러지고 의식을 잃자 계엄군도 당황하여 그에게 물을 뿌렸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였다. 계엄군은 시민군의 시신을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 시민군이 바로 조일기(남, 32세)다.

조일기 외에 이날 이 인근에서 민간인의 희생도 잇따랐다. 광주고등학교 수위양동선(남, 45세)은 근무 중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총격 소리에 광주고등학교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보려다 총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⁴¹³ 동명동에 위치한 옛 유한양행 전남영업소에서 숙직 근무 중이던 오세현(남, 25세)은 계엄군이 숙직실 침입을 시도하자, 피신하던 중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⁴¹⁴ 계림동에 있는 한약방 직원인 이금재(남, 29세)는 27일 아침 7시 30분경, 출근하던 도중 전남여고 뒤편에서 허리에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⁴¹⁵

계림동 인근 사망자는 다음 표와 같다.⁴¹⁶

계림동 인근 사망자 명단				
구분	계	광주고등학교 구내	전남여고 뒤 동계 천변	유한양행 전남영업소
사망자수	4	2	1	1
사망자		양동선, 조일기	이금재	오세현

8. 진압작전 완료, 계속되는 수색과 연행

진압작전 완료

최남심(여, 49세)은 쫓겨대회 사회자였던 김태종의 어머니다. 최남심은 5월 27일 새벽방송을 듣고 서둘러서 계림동 집을 나섰다. 도청 인근에서 계엄군이 최남심을 막았으나 아들 잡으러 간다며 그대로 뿌리치고 빠져나왔다. 도청 앞에 있는 큰 건물(상무관 추정)의 계단 위에 약 30분 정도 쪼그려 앉아 있는데, 도청 위에서 누군가 최남심을 발견하고 그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최남심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의자 하나를 뒤집어쓰고 앉았다. 그때부터 계엄군들이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가 그치자, 최남심은 손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⁴¹⁷

한편 회의실에서 계엄군과 교전 중에 쫓기듯 회의실 건물을 빠져나온 기동타격대장 윤석루는 본관 앞 전경 버스 하부 원통형 관에 매달려 버티고 있다 힘이 빠지자, 쓰고 있던 철모를 떨어트리면서 발각되었다. 윤석루는 철모를 떨어트리면서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지휘관으로 보이는 계엄군을 향해 권총 2발을 발사했다. 윤석루가 총격한 대상은 3공수여단 임수원 중령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총알은 빗나갔다. 윤석루가 잡히면서 함께 매달려 있던 다른 시민군들도 연행되었다.

연행되어 포박된 시민군들은 총기 소지 여부에 따라 등에 ‘극렬분자’, ‘총기 소

지’ 등이 매직으로 쓰여진 채 도청마당으로 옮겨졌다. 4시부터 시작된 도청진압 작전은 5시 무렵 도청 각 건물에 있던 시민군들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마무리되었다. 3공수여단은 5시 30분경 20사단과 인수인계를 했다. 3공수여단은 도청 및 광주재진입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승리에 도취해, 도청 앞에서 큰소리로 군가를 불렀다. 그 시각 광주시민들이 하나둘 도청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일부 외신기자들은 도청 내부를 다니며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한편 인수인계를 마친 20사단은 이때까지 연행되지 않고 숨어 있는 시민군을 수색하러 나섰다.

계속되는 수색과 연행 : ‘도청 정문 배회자’ 박미숙

전남도청 앞 수협에 배치된 이들은 YMCA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수대였고,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분류된 시민군들이었다. 이들도 비상과 함께 도청 수위실에서 총기와 실탄을 지급 받고 도청 맞은편에 있는 수협 앞 화단에 배치되었다. 수협에 배치된 사수대는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8명이 1개 조로 이루어졌다. 이들 중 조장은 나이가 많은 서우석(남, 23세)이었다. 화단을 바리케이드 삼아 8명이 듬성듬성 몸을 웅크린 채 모두 도청 정문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러다 총격이 시작되자 다들 죽은 듯이 엎드렸다. 어느 누구도 총을 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수협 건물 유리창을 열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숙직실에 몸을 숨겼다. 안도감이 생기자 도청에서 들리는 요란한 총소리를 들으면서도 깜박 잠이 들었다. 잠시 후 건물 관리인이 나타나자 투항 의사를 밝혔다. 곧이어 계엄군이 들어와 총기를 수거한 뒤 포승줄로 묶어 도청 앞으로 끌고 갔다.⁴¹⁸

한편 동명교회에 피신해 있던 취사반 여성들은 헬기에서 나오는 “너희들은 포위됐다. 폭도들은 다 나와라”, “공무원들은 신분증을 차고 도청으로 출근하라.”는 방송을 들었다. 동명교회 총탑에 올라가 도청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서 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계엄군이 도청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동명교회 측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해 2명씩 짝을 지어 나왔다.⁴¹⁹

동명교회를 나온 박미숙은 다시 도청으로 돌아왔다. 계엄군이 도청 정문을 경계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떨찌감치 서서 도청을 보고 있었다. 박미숙은 항쟁 기간 도청에서 본인의 야학 선생이었던 문용동을 오랜만에 만났던 터였다. 동명교회에서 나오자마자 문용동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도청 정문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군이 박미숙을 붙잡아 도청 안으로 연행했다. 박미숙도 손을 뒤로 묶인 채 본관 앞마당에 엎드렸다. 등에는 '도청 정문 배회자'라는 글씨가 쓰여졌다. 박미숙은 상무대에 연행되어 한 달가량 구금되었다가 훈방되었다. 그 후에야 야학 친구들로부터 문용동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⁴²⁰



광주재진입작전의 희생자들 (원 안의 여성이 박미숙) 출처 : 미상

빠르게 정리되는 도청, 시신 수습

오전 7시경,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출근하라는 방송이 들리자 도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출근하면서 맨 처음 마주한 것은 당일 사망한 시민군의 시신이였다. 그때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상무관으로 옮기지 못한 시신들은 관에 있었고, 당일 사망한 시민군들의 시신은 본관과 회의실 사이 공간으로 옮겨졌다. 이 시신들은 주변에 있던 커튼이나 철판 위에 올려 옮겨지기도 했고, 어떤 시신은 질질 끌리며 이동했다. 공무원들은 교전으로 난장판이 된 공간을 청소하고 사무실 집기를 새로 정리해 나갔다. 오후 2시경, 도청과 상무관에서 각각 시신

검시가 이루어졌다. 도청에 있던 시신의 검시는 보건과가, 상무관에 있던 시신의 검시는 사회과 직원들이 동원되었다. 형식적인 검시였다. 도청에서 검시가 끝난 시신은 쓰레기차에 실려 상무관으로 옮겨졌다.

광주시청 사회과 노정계 직원 조성갑은 이무길 노정계장과 함께 이날부터 구급차를 몰고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몰두했다. 시청 직원들이 아무도 안 나서니 부득이 맡게 된 것이었으나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했다. 접수처나 보고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누가 어디서 시신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27일 광주고에서 시신을 수습하다 계엄군이 시신을 향해 욕을 해대니, “사람을 이렇게 무참히 죽여놓고 욕을 하나”고 싸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구급차를 가지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시신에서 물이 흐르고 비닐에 담아 묶어서 쟁여야 하니 청소차를 가지고 다녔다. 시민군들은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싸웠다. 그 마음을 알기에 시신을 만지면서도 더럽다는 생각이 없이 ‘너는 얼마나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냐’는 생각이었다.⁴²¹

9. 하늘의 별로 박히다

별이 된 시민(군)들

이날 광주재진입작전 과정에서 시민(군) 25명이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도청 구내 및 인근지역에서 19명, 그 외 지역에서 6명이 사망했다. 최소 19명은 무장을 하고 계엄군에 저항했던 시민군이었으며, 나머지 5명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이었다. 이날 사망한 시민(군)을 사망 장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²²

사망장소별 사망자 수

구분	합계	도청 내	도청 인근	계림동 등	월산동	전남대근처
사망자 수	25	14	5	4	1	1

이날 사망한 25명 중 여성은 김명숙(여, 15세) 1명이다. 김명숙은 5월 27일 저녁 전남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집에서 잠시 외출했다가 집 근처에서 저녁 8시경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녀는 좌측 골반에 총창을 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오후 9시 40분경 사망하였다. 당시 전남대학교 지역에서 소탕수색작전을 전개했던 부대는 31사단 96연대다.⁴²³

상무대로 끌려간 여성 시민(군)

5월 27일 연행된 여성들 중 확인된 수는 17명이다. 전남도청 내에서 연행된 여성들은 총 7명으로 이 중 연행장소가 본관 1층 상황실로 확인된 여성은 김순희(19세), 김경임, 박영순이고, 최남심, 박미양(21세), 김복희(18세), 원정심(16세)의 체포 위치는 미상이다. 문용동의 안위가 걱정되어 온 박미숙도 전남도청 앞에서 연행되었다. YWCA에서 체포된 여성은 김윤희, 강임아, 이남순 등 3명이고, 이중 김윤희는 총상 부상자다. 녹두서점에서 체포된 여성은 정현애와 정현순, 적십자병원에서 체포된 사람은 이경희(20세), 자택에서 연행된 사람은 문정순(37세), 이숙자(35세), 박정란(15세) 등 3명이다.

계엄군에게 체포된 순간부터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잡힌 시민군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엎드려 있는 시민군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여기저기서 폭언과 군홧발이 날아왔다. 호주머니에 실탄이라도 나오면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구타를 당해야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

던 것은 손목을 단단히 묶인 줄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날 상무대에 도착해서 줄이 풀렸을 때에도 통증과 흉터가 몇 달씩, 몇 년씩 지속된 경우도 많았다.

버스에 실린 시민군들이 도착한 곳은 상무대 연병장이었다. 5월 27일 당일은 하루 종일 원산폭격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상무대 연병장에서 여성들은 한쪽에 별도로 모아놓았다. 이들은 하루 종일 피약벌에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고개를 들라고 해서 들어보니, 장계범이 도청에서 입은 옷과 안경을 쓰고 수건으로 입만 가린 채 나타났다. 그는 25일 도청 안에서 ‘독침사건’ 소동을 일으켰던 계엄사의 프락치였다. 장계범은 박남선, 김종배, 정상용 등 투쟁위원회 간부들을 골라 한 명씩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은 곧바로 화정동에 있는 505보안부대로 옮겨졌다. 그리고 다시 무자비한 구타와 고문이 시작되었다.

10. 끝나지 않은 여성들의 수난, 그리고 투쟁

광주재진입작전으로 도청과 YWCA 등지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된 여성들은 무차별 구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여성들은 연행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여성들은 주로 상무대와 505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광산경찰서에 구금되었는데, 구속된 이후에도 고통과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각목으로 온몸을 구타당하고, 욕설 폭언 성적 모욕을 당했다. 상무대 조사과정에서는 3명의 여성이 군인 혹은 수사관에게 강간을 당했다.

5월 27일 이후에도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이 체포 연행 구금되었다. 5월 28일 오치동 자취방에서 연행된 여성은 31사단으로 끌려가 옷을 벗긴 채 구

타를 당하는 등 성적 모욕과 학대를 당했다. 5월 29일에는 시민수습위원이었던 조아라와 이애신이 505보안부대로 연행되었다. 조아라와 이애신은 보름 동안 505보안부대 맨바닥에서 자면서 기합과 함께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평소에 고혈압을 앓아오던 이애신은 몸이 붓고 마비증세가 나타났다. 68세 노구의 조아라 역시 좌골신경통이 생겨 일어나기도 힘들었다.⁴²⁴ 유인물 제작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된 30대 여성은 6월 30일 계엄사 합수부에 자수하여 출석하였는데, 다음날 505보안부대로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계엄군이 군홧발로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앞니 4개가 부러졌고, 성적인 희롱과 모욕으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여성들의 수난과 투쟁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되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여성들의 투쟁은 주로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리는 형태로 나타났다. 계엄군의 학살이 자행되고 있던 5월 21일, ‘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전주교구로부터 받은 후 박창신 신부가 이를 추가 제작하여 충남지역 마전공소에서 배포하였다. ‘광주살육작전’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마전공소 여중생 김양순, 현미숙, 유영희가 강경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⁴²⁵ 광주재진입작전이 행해지던 5월 27일 전주 신흥고 시위와 관련하여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김명희가 전주경찰서에 구속되었다.⁴²⁶ 춘천에서는 5월 말경, 20세 여성이 보안대로 연행되어 조사과정 중에 수사관들에게 성고문을 당했으며, 무차별 구타와 강간 협박을 받았다.⁴²⁷

6월 13일 서울여대 유인물 배포사건으로 임○○가 태릉경찰서에 연행되어 구타당하고 물고문 위협을 받았다.⁴²⁸ 같은 날 종로 시위 주동 혐의로 이화여대 최○○이 합수5국에 연행되어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고문협박을 당했다.⁴²⁹ 10월 12일 동덕여대 유인물 배포사건으로 동덕여대 총학생회 간부인 김종분 외 김○○과 장○○이 서울 종암경찰서로 연행되었다.⁴³⁰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과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전국에 널리 알린 여성은 명동성당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일하던 정양숙(여, 41세)이다. 정양숙은 명동성당 전진상 교육관 사무실에서 광주의 진실을 유인물로 만들고 녹음테이프를 복사해 전국에 알렸다. ‘움직이는 안테나’라는 별명을 가진 정양숙은 광주에서 죽음의 길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로부터 광주의 실상을 들었

다. 정양숙은 그 이야기를 ‘찢어진 깃폭’이라는 제목의 녹음테이프로 만들었다. 진실과 정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했던 정양숙은 1980년 7월 10일 명동성당 전진상 회관에서 서빙고 보안사로 연행되었다. 무수한 군홧발에 짓밟혀야 했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578번이라는 수형번호를 가슴에 달고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던 정양숙은 그 안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다. 그때의 고문과 고통으로 몸이 상한 정양숙은 담 속을 다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 가슴 바로 밑부터 시작해 아랫배까지 사선으로 길고 굽은 수술자국을 새겨야 했다.⁴³¹



제3부
광주민중항쟁 45년,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

1. 1980년 광주의 여성과
2024년 남태령의 키세스 시위대
2. 여성 항쟁 활동의 특성
3. '총의 서사'에서 배제된 여성들
4. 여성들의 피해 상황(종합)
5. 항쟁 이후의 투쟁과 정신 계승

1. 1980년 광주 여성과 2024년 남태령의 키세스 시위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다시는 우리 역사에 없으리라 생각했던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발표 후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그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았고, 담장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올렸으며, 서로의 팔들을 묶은 스크럼으로 기나긴 담장을 둘러쌌다. 계엄군 그 누구도 국회의 공간에 들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리고 4일 새벽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되었다.

이 무도한 내란의 밤이 지나는 동안, 45년 전의 광주민중항쟁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소환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와 동시에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리한 송곳처럼 되살아났다.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내란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될 수 있었던 것은, 45년 전 광주가 목숨 바쳐 지켜냈던 ‘민주주의 DNA’의 강력한 힘 덕분이었다. 어느 정당의 한 여성 당직자가 맨손으로 계엄군의 총부리를 붙잡았던 용기에서, 총은 들었으나 차마 시민을 향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며 되돌아가는 계엄군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광주민중항쟁이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가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음을 목도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시작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한 20~30대 여성들의 조직화 된 힘은 희망의 불빛이 되었다. 이들이 들고나온 탄핵 응원봉의 불빛은, 오래전 광주민중항쟁이 발신한 메시지를 현재로 불러내어 어두운 창공을 향해 색색의 빛으로 발산시켰다. 특히 12월 22일 영하의 눈 내리는 밤,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 고개를 지켰던 ‘키세스 시위대’⁴³² 여성들의 강인함은, 이들이 미래 광장 권력의 새로운 주체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어느 순간, 가두방송으로 시민들을 금남로에 모으고 주먹밥으로 대동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1980년의 광주 여성들과, 빛의 응원봉으로 트랙터 행진단(‘전봉준투쟁단’)을 보호했던 2024년 키세스 시위대의 여성들은 45년의 시간을 넘어 만나고 있었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광주민중항쟁 10일 동안 여성들의 항쟁 활동 및 피해 상

황을 총정리하면서 그 의미와 현재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을 살피려 한다. 그리고 그 ‘의미’와 ‘과제’는 1980년 광주 여성들이 시공을 초월해 발신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다른 이름들이기도 하다. 이 메시지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2024년의 대한민국 상황이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집필진이 이 메시지를 정리하기도 전에, 2024년의 키세스 시위대 여성들은 정말 현명하게도 감각적으로 이미 읽어내 버린 것 같기도 하다. 그 또한 광주가 각인시킨 ‘민주주의 DNA’의 힘일 수도 있겠다.

2. 여성 항쟁 활동의 특성

·여성들의 조직화 된 힘

최초의 시민상황실, 녹두서점

18일 계엄군과 대학생들 간에 최초의 충돌이 있었던 장소는 전남대 앞이었지만, 17일 자정을 전후해 실행된 예비검속과 계엄군 진입은 그때부터 광주에서 벌어질 참혹한 일들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계엄령 선포, 김상윤(녹두서점 주인)의 예비검속, 새벽부터 서점의 문을 두드리는 예비검속자 부인들, 그리고 전남대 앞 충돌 등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가장 먼저 감지한 장소는 녹두서점이었다.

18일 오전부터 윤상원과 김상집은 서점을 거쳐 시내 상황점검에 나서고, 정현애(김상윤의 부인)는 지역 밖 각처에서 오는 전화를 통해 광주의 상황을 알린다. 시위대의 학생·시민들이 서점에 와 시위상황을 알려주면 그것을 기록해, 전화를 걸어온 시민들에게 시위동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내상황을 전달해주었다. 이렇게 지역 내외와 시내 안의 정보가 최초로 수집되고 전달되었던 곳이 녹두서점이었다. 시민·학생들이 서점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오후부터는 예비검속자 부인들과 송백회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부상을 입고 들어오는 시위대의 치료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다가 단순하게나마 업무가 구분, 분담되기 시작한 것은 20일부터다. 시내 전체상황 점검과 소식지 제작(윤상원, 김상집), 연락·상황일지정리·재정 및 서점 내 업무 배정(정현애), 소식지 배포(송백회 회원 등 여성들, 학생들), 취사(정현순, 박승채), 화염병 제작(안길정) 등으

로 업무를 분담했다. 21일에는 들불야학 강학과 학강(노동자학생)들이 만든 투사회보 제1호가 녹두서점의 소식지 배포팀에 의해 시내에 뿌려진다. 계엄군이 외곽으로 물러난 후 22일에 시민들이 도청을 접수하게 되자, 녹두서점의 업무분담 구조도 재구성된다. 서점 업무 총괄(정현애), 도청과 서점 간의 연락(김상집), 도청 일(윤상원), 시민궐기대회 준비(극단 광대, 송백회 등) 등이 그것이다.⁴³³

23일, 극단 광대와 송백회 회원들이 함께 준비한 '1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간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활동을 YWCA로 옮겨 지속하기로 결정한다. 점차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궐기대회 준비를 하기엔 서점이 너무 좁은 상황이었고, 도청과 YWCA는 바로 인접해 있어 활동 동선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었다.⁴³⁴

18일 첫날부터 시작된 녹두서점의 활동과 조직화 진행 과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도청을 중심으로 한 항쟁지도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실상 최초의 시민상황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녹두서점이 가진 특수성 혹은 자산(서점주 김상윤의 이력, 민주인사 및 학생들의 회합과 학습장소, 시민들의 신뢰 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둘째, 녹두서점의 조직화는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점주인 정현애를 중심으로 한 송백회 회원,⁴³⁵ '극단 광대'의 여성 단원들, 예비검속자 부인들, 학습 소모임을 통해 서점공간에 익숙해 있던 대학생들 등 수많은 여성들이 이곳에서 각자 맡은 업무들을 해나갔다. 셋째, 녹두서점에서 구성된 초기 업무분담 구조는, 여성들의 활동이 YWCA로 옮긴 이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화하는데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제2의 항쟁지도부, YWCA

24일 오전, YWCA 강당에서 간사인 정유아와 이윤정, 양서조합 직원들과 극단 광대 단원들이 모여 2차 시민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각엔 YWCA로부터 공간 사용에 대한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⁴³⁶ 이 때문에 24일 오후까지 녹두서점에서 화형식 준비, 검은리본 제작, 궐기문 작성, 투사회보 배포, 부상자 치료 등의 활동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저녁 7시, 2차 시민궐기대회가 끝난 뒤 YWCA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당시는 학생수습위원회의 무기회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저항들이 곳곳에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날 YWCA에 모인 사람들은 무기회수 반대 결정과 함께 새롭게 투쟁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곧바로 업무분장과 함께 조직이 재편된다. 크게 공간별로 파악하면, 도청(재야 민주인사와의 교섭, 대학생 시민군 조직 등), 상무관분향소(사망자 및 실종자 파악과 정보제공), YWCA(홍보 및 가두방송, 투사회보 제작, 궐기대회 준비, 취사, 모금 등)로 구분할 수 있다.

25일부터 YWCA에서는 그간 각각의 장소에서 진행해 왔던 모든 활동들이 총집결하면서 조직 또한 훨씬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광천동에서 투사회보를 제작하던 들불야학팀이 24일부터 YWCA로 들어와 있었으며, 24일까지 녹두서점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던 활동도 25일엔 모두 YWCA로 옮겨왔다. 이로써 기획조, 선전·홍보조, 대자보조, 궐기대회준비조, 투사회보조, 인쇄조, 검은리본제작조, 모금조, 취사조 등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여기엔 남성들과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여성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실이 다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송백회 회원들과 극단 광대를 비롯해, JOC 여성노동자들, 여학생들, YWCA 회원 및 임원진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간호사 30여 명을 포함해 일반시민 여성들도 들어와 각자 할 일을 찾아 헌신을 다해 도왔다. 이때 조직 내 각 조의 책임 주체를 중심으로 참여 여성들에게 부여된 활동들을 해나가긴 했으나, 인력이 갑자기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같이 활동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6일 밤, '5차 시민궐기대회'까지 마친 YWCA에서는 계엄군이 곧 광주에 재진입한다는 소식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고, 27일 새벽에는 3명의 여성(정현애, 임영희, 정유아)과 30여 명의 청년·학생들이 남아있었다. '폭도들은 항복하라'는 헬기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들리자 청년·학생들에 의해 여성들은 떠밀리듯 탈출하게 되고, 이후 도청 함락과 동시에 YWCA도 계엄군에 의해 함락된다.

광주민중항쟁에서 YWCA 팀의 활동이 갖는 의미 역시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당시 도청에 시민군을 중심으로 한 항쟁지도부가 있었다면, YWCA에는 다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제2의 항쟁지도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전활동 및 궐기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힘을 규합해내고, 투사회보와 대자보를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등 대시민 활동이 모두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도청의 항쟁지도부와 끊임없이 연대하면서 의사결정을 건인하고 지원했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항쟁지도부'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세분화와 함께 여성들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광주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궐기대회, 가두방송, 대자보를 통해 "청년학생들은 YWCA로 모입시다."라고 홍보한 결과, 다양한 여성 그룹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항쟁 활동은 훨씬 더 역동성을 얻게 된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는 YWCA라는 공간이 갖는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녹두서점의 활동이 주로 송백회나 극단 광대 등 사회변혁운동에 관련된 핵심 그룹 및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YWCA로 옮겨온 뒤에는 훨씬 더 다양한 여성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JOC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자들과의 합류는 물론, 일반시민 여성들의 참여도 대거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YWCA의 공간이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는 것도 한몫을 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YWCA가 갖고 있던 사회적 인지도 및 친숙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부터 JOC 여성노동자들에게 이곳은 각종 회합 및 교육장소로 익숙했던 공간이었으며, 시민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항쟁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랐던 시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되면서 항쟁의 에너지가 증폭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⁴³⁷

도청 권역의 특수성과 인적 연계망

항쟁 기간에 녹두서점과 YWCA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조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유신체제와 함께 시작된 1970년대 광주지역은 ‘함성지’ 사건(1973), ‘민청학련’ 사건(1974)과 긴급조치 9호 발동, ‘교육지표’ 사건(1978) 등을 겪어나가면서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는 한편, 여성·노동·농민·학생·종교·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저항운동 세력들도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시내 중심에 있는 도청 앞의 YWCA와 YMCA에서 회합이나 강좌,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상호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게다가 YWCA 안에는 재야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양서조합’ 사무실이 있었고, ‘엠네스티’와 ‘기독교인권위원회’의 활동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YWCA에서 창단한 극단 광대의 모임과 연습 장소도 이곳이었다. 당시 YWCA와 YMCA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었고, 이곳에서 도보로 3~4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녹두서점과 현대문화연구소가 나란히 같이 있었다. 이 두 장소에 오는 사람들도 모두 YWCA·YMCA 이용자와 상당 부분 겹치고 있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 안에서 민주인사 및 여성 활동가와 노동자, 청년·학생들이 상시적으로 만나면서 축적된 힘이 항쟁기 여성들의 조직화를 수월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 항쟁 활동의 주요 거점

전 계층을 망라한 여성들의 참여 : 화염병에서 헌혈까지

광주민중항쟁 동안, 여성들은 도청에 있었다. 도청과 YWCA를 거점으로, 여성들은 가두방송, 유인물 제작과 배포, 대자보 작성, 부상자 간호 및 수송, 대민업무, 모금과 취사, 화염병 제작, 시신처리, 장례 준비 등의 활동을 도맡아 진행해 나갔다. 거리에서는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폭증하는 부상자들 치료에 필요한 헌혈을 호소하고, 주부와 시장 상인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을 먹였다. 유흥업소 여성들은 시위대를 위해 물 대야를 들고 거리에 서 있었으며, 시신 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시위대열의 1/3이 여성들일 만큼, 모든 계층을 망라한 여성들이 가두투쟁에도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2천여 명의 일신·전남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시민결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임동공장에서부터 금남로를 가로질러 도청 앞 분수대까지 걸어 들어오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었다. 여기서는 그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먹밥과 가두방송, 도청 취사조의 활동을 정리한다.

대동세상을 연 주먹밥

지금도 5·18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먹밥’은 ‘시민군’과 함께 광주민중항쟁의 대표적 상징으로 인지되고 있다. 광주는 당시 시외전화선마저 끊기고 모든 물자의 유입이 막힌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10일을 보내게 된다. 도청, YWCA, YMCA, 녹두서점 등에는 매일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이 오가고,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에 넘실거리고 있을 무렵,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고 같이 나누었다. 그 물자로 도청과 YWCA에서는 각자 취사반이 운영됐고, 거리의 식사는 광주 전역의 여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민들이 18~19일 동안에는 초유의 사태로 공포에 떨며 망연자실해 있다가, 20일부터 시위가 벌어지는 거리에 김밥, 빵, 우유, 약품, 음료, 주먹밥 등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네جت, 내جت’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시민들이 함께 돌파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매우 강해졌다. 주부들과 시장 노점상 여성들이 아침부터 거리에 나와 시위대들에게 먹을 것을 건넸다. 이런 개별적 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화된 것은 21일부터다. 이날부터 각 동네 어귀마다 주부들이 모이고, 시장(양동시장·대인시장·학동시장·산수시장·서방시장 등)에서는 상인들이 나와 길거리에 벽돌을 쌓아 가마솥을 올렸다. 특히 시장 노점상 여성들이 가장 열성적이었다. 이들은 십시일반 쌀을 모아 주먹밥을 만들고, 지나가는 시위차량을 세워 시민군을 먹였다. 시위가 치열했던 금남로에는 동별로 나온 수백 명의 가정주부들이 김밥을 함지에 담아 도로에 펼쳐놓았다. 여성들은 마치 혈육을 먹이듯 시민군을 먹였고, 그들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났다. 떠나는 차량에는 음식과 옷, 양말, 수건 등이 올려졌다. 여성들이 만든 밥상에 시민군은 물론 시민 누구나 와서 요기를 할 수 있었으며, 시내 중심에서 외곽경계까지 모든 거리에서 이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위대의 시민들은 즉석에서 모금한 돈으로 빵과 우유를 사서 계엄군에게 건네주기도 했다(거부하기도 했으나, 받기도 했다).

물자가 끊겼으나, 광주에 오히려 더 풍요로웠다. 여성들이 만들어낸 주먹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한 식구’라는 ‘식사의 연대’를 만들어냈으며, 광주시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인 고정희는 주먹밥을 ‘피로 땀어진 약속의 밥’이라 하고, 화가 홍성담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식사의 풍경에 대해 ‘밥상공동체’라 명명했다. 오월광주가 죽음과 패배를 이겨내고 역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대한 힘이 이 ‘밥상공동체’에서 비롯되었음을, 광주시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후 주먹밥은 1987년 ‘6월항쟁’, 1991년 강경대 열사 운구차량 진입시위,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청 앞 농성장 등 주요 민주화운동 시위 현장에 다시 등장했으며, 현재도 특정 이슈로 광장이 만들어지면 어김없이 거기엔 주먹밥이 있다.

영원히 기억될 가두방송

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 중 가두방송은 가장 효과적인 선전활동이었다. 가두방송은 20일 정도부터 시작되었다. 이날은 18~19일 동안 공수부대의 잔인한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었다. 공수부대의 공격에 집결과 분산을 반복하던 시위대는 이날 오후 수만 명으로 불어나 금남로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구호와 노래를 해나가던 중, 한 시민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스피커 구입을 위한 모금을 해서 마이크와 스피커가 등장한다. 이후 마이크와 스피커가 차량에 실리면서 아주 강력한 기동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항쟁에서 기억하고 있는 ‘가두방송’이다.

당시 가두방송 차량에는 운전을 하는 남성과 방송을 하는 여성들이 타고 시내 중심지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시위대열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다. 남성들도 간혹 마이크를 잡기는 했으나 금방 목이 쉬는 바람에, 방송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다. 특히 여성의 목소리는 높고 맑아 선명하게 멀리 퍼지는 데다,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방송원고는 주위 사람들이 그때그때 적어서 넘겨주거나, 혹은 이동하면서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던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전해 주었다. 21일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뒤, 22일부터 가두방송은 헌혈 독려와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을 주로 전달했다.

전옥주, 차명숙, 박영순 등은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방송을 했던 여성들이다. 전옥주와 차명숙은 20일 오후부터 밤잠을 자지 않고 교대로 가두방송을 해가며 시위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일깨웠다. 그들의 목소리는 계엄군조차 전율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전옥주와 차명숙은 22일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다. 21일 오후부터 26일 밤까지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은, 계엄군의 재진입작전이 시작된 27일 새벽 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뒤 체포된다. 그날 새벽 광주시민 모두가 잠들지 못한 상황에서, 밤하늘에 올려 퍼졌던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로 시작된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항쟁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다.

여학생과 JOC 여성노동자의 도청 취사

각 동네의 여성들과 시장 상인들이 거리의 시민군을 위해 밥을 짓고 있는 동안, 도청 안에서는 중·고 여학생들과 여성 노동자들이 취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 JOC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의 민주노조 투쟁을 벌이면서 조직화 경험을 쌓아온 여성노동자들은, 18일 YWCA와 살레시오수도원에서 진행된 교육이 중단된 직후부터 시위대열에 참여한다. 시내 차량시위는 물론, 전남지역으로 돌면서 광주항쟁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여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다 22일부터 도청 취사를 도왔으며, JOC 여성노동자들은 25일에 대거 들어가 취사 활동을 맡게 된다.

22일은 시민군들이 도청을 접수한 날이다. 22~26일 동안 광주시민들은 ‘해방기간’이라고 부르며, 22일부터 시민자치공동체가 열리게 된다. 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은 스스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행동에 옮겼다. 도청 내에서 취사 활동이 시작된 것은 22일부터다. 22일 오후 2시, 취사반 모집을 통해 들어온 여학생들과 남성들이 주변 동네를 돌며, 쌀과 김치 등을 구해 식사를 준비했다. 여기에 시장 아주머니들이 밥을 지어 손수레로 실어다 주고, 가족 생사 확인을 위해 들렀던 사람들이 주먹밥, 빵, 우유 등을 가져다 주었다. 23일부터 도청 민원실 지하에 솥과 버너를 준비해 취사실을 만들고 2층 강당은 식당으로 사용했다. 하루에 한 가마 이상의 밥을 지었으며, 시장이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시로 김치나 부식거리, 김밥 등을 도청으로 가져왔다. 매일 3백여 명이 넘는 식사를 만들어야 했기에 취사반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 넘어까지 하루 종일 바빠 돌아갔다. 취사반의 일정은,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활동 소식을 공유한 뒤 상무관으로 가서 묵념을 하고 취사실로 돌아와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이 끝나면 간단한 마무리 평가시간을 가졌다. 살림에 경험 있는 여성들이 밥을 하고, 여학생(중·고·대)들은 식사 배식과 설거지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취사부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인원들이 빠져나가자, 25일부터는 JOC 여성노동자 20여 명이 들어와 취사 활동을 도맡았다. 이들은 JOC 사무실과

YWCA를 오가며 헌혈, 모금, 대자보 작성, 검은 리본 제작 배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김성용 신부로부터 도청 취사부 사정을 듣고, 모두 이곳으로 달려와 준 것이다. 이들은 2교대로 팀을 짜서 취사 활동을 해나갔으며, 몇 명의 여고생들은 이들 옆에 남아 있었다. 26일 밤, 취사부 여성들은 마지막 식사 배식까지 끝낸 후, 자정을 넘어 도청을 빠져나와 동명교회(유치원)로 피신한다. 그러나 첫날부터 친구들과 함께 취사 활동을 시작했던 여고생 김정임은 다시 도청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27일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다.

3. ‘총의 서사’에서 배제된 여성들⁴³⁸

광주 오월 이후, 항쟁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은 구속과 도피 생활에 접어들게 된다. 한편에서는 유가족과 구속자 가족의 여성들이 치열한 거리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었지만, 다수의 여성들은 개별화된 채 일상으로 몸을 숨기거나 광주를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오월항쟁의 서사는 긴 시간 동안 빈 공백으로 남아 있게 된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 훼손된 몸과 마음, 도망칠수록 더욱더 두터워지는 기억의 두께들. 그래서 침묵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여성들이 긴 침묵에 빠져 있는 동안, 오월항쟁은 분노와 울분의 초기 서사를 넘어 국가에 의해 공식적 역사로 인정되는 과정을 지나면서 무수한 영웅서사들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웅서사의 한 중심엔 ‘시민군’이, 정확히 말해 ‘총을 든 남성 시민군’들이 있었다.

남성들의 항쟁이 ‘시민군’이라는 상징으로 표상화되는 동안, 여성들의 항쟁은 ‘주먹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열했던 여성의 오월항쟁이 ‘주먹밥’에 갇힌 순간, 여성들이 전개했던 다양한 투쟁들은 이름을 잃어버린 채 공중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총을 들고 싸웠던 자에 비해, 그래서 죽거나 부상 당해 불구가 된

자에 비해, 여성들이 했던 일들은 어느새 ‘하찮은 일’이 되어 있었고, 여성 자신은 ‘보조적 존재’로 규정되어 있었다. ‘총을 들고 안 들고’의 잣대는, 당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해냈던 모든 일을 한없이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항쟁 당시 비록 단기간이지만, 총을 든 소수의 여성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총을 들고 안 들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잣대에 의해 여성들은 물론 총을 들지 않았던(혹은 못했던) 광주시민들의 다양한 항쟁활동이 평가절하되었다는 데 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성들이 YWCA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갖춰서 활동을 시작했고, 비타협적인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은 ‘끝까지 죽음으로써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남성들이 하라마라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내용 만들어서 대자보 쓰고, 프랑카드 쓰고, 켈기대회 준비하고 그랬다. 여성들이 선전활동을 많이 했다. 총은 안 들었지. 총은 들 수가 없었지. 그 상황에서 남성들이 총은 주지도 않았다. ‘총을 들고 안 들고’의 차이였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총을 들고 도청으로 들어갔고 여성들은 YWCA에서 필경조와 홍보조 등에 남아 있었다. YWCA가 필요 없었으면 왜 도청 항쟁지도부의 남성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YWCA에 와서 회의를 했겠느냐.⁴³⁹

우리 여자들은 남자가 딱히 하지 못한 것들을 여자들이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항쟁 기간 동안 여성들이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동체 정신이나 형제애 같은 것들을 실천했었지 않나 ..., 우리들은 여성으로서 모성적인 본능이 나왔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했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했던 일 자체가 굉장히 하찮은 일, 하

찮게 여기는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개인적이고 하찮은 일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⁴⁴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앞서 녹두서점과 YWCA의 항쟁활동을 ‘최초의 상황실’ 및 ‘제2의 항쟁지도부’라고 명명한 바 있지만, 더 나아가 도청에서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 그들의 모든 ‘몸’이 그 자체로 ‘항쟁지도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거리로 나온 몸들. 헌혈을 위해 병원을 다녀오다 죽은 여고생의 몸, 청년을 숨긴 대신 시뻘건 피멍을 기꺼이 감당했던 할머니의 등허리, 마지막 밤 새벽까지 울리던 가두방송의 목소리, 좌판 대신 솔을 내걸었던 여성 상인들의 손. 리본을 만들고, 대자보를 쓰고, 시위대를 위한 돌자갈을 깨고, 시신을 염하던 그 무수한 ‘손들’. 그리고 고문과 구타로 얼룩진 몸까지, 모든 몸들 하나하나가 항쟁지도부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런 몸들의 역사를 찾아내고,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여성항쟁사를 오롯이 복원하는데 필요한 일들이다.

4. 여성들의 피해 상황(종합)

항쟁에 여성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피해도 참혹했다. 계엄군에게 여성들은 백주에 옷이 벗겨진 채 기합을 당하고, 가슴이 대검과 총탄에 의해 찢려 나갔으며, 후미진 골목 곳곳에서 성폭력에 유린당하고, 임신 8개월의 여성조차 총탄에 숨겨야만 했다. 항쟁 직후, 구속된 여성들은 무차별적 구타와 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일부 여성에게는 성고문까지 자행되었다. 전시 상황에서나 벌어

질 법한 일들이 법치국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여성들의 몸은 그 폭력에 무방비로 점령당했다.

· 연행과 가혹행위

예비검속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초부터 ‘비상계엄 확대, 국회 해산,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준비하고, 보안사 각 처벌로 ‘5·17 내란’을 위한 역할 분담에 들어간다. 이때 정보처는 정세분석과 언론통제, 보안처는 전국주요지휘관회의 준비, 대공처(처장: 대령 이학봉)는 예비검속을 담당한다. 이중 예비검속은 ‘시국수습방안’ 및 ‘국기문란자 수사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대공처는 5월 17일 밤 10시부터 시작해 김대중을 비롯한 학생·정치인·재야인사 등 전국적으로 총 2,699명을 검거한다. 예비검속된 이들은 구속영장도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장기 구금 수사를 받아야 했다.⁴⁴¹

광주에서는 총 22명의 대상자들 중 12명이 자정을 전후해 체포되었으며, 이중 유소영은 광주에서 예비검속된 유일한 여성이었다. 이 시간에 서울과 부산, 강원 지역에서도 5명의 여학생이 연행되었다. 17일 자정과 18일 아침 사이에, 이들 역시 유소영처럼 형사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각 지역 보안부대로 끌려갔다. 이들은 학내시위 관련 외에도 김대중으로부터 활동 자금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취조당했다. 김대중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을 내란음모죄로 엮어 ‘5·17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군부의 술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예비검속으로 끌려간 이들에게 가해진 폭행과 고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다. 특히

취조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 겁박과 성희롱을 당해야 했다.

항쟁 기간 연행

육군본부가 1982년 발간한 「계엄사」에는 항쟁 10일(18~27일) 동안 소위 ‘광주소요 관련자’ 2,577명을 검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⁴⁴² 이 기간 중에 체포된 사람들은 제31사단, 상무대, 공군헌병대, 광주교도소, 지역 경찰서 등으로 연행, 구금된다. 하지만 이들의 명단에는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 연행된 여성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후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언도 받은 여성들의 명단도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공개되지 않아, 그 숫자 또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이 연행되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항쟁 일자별 연행 상황의 특성만 간단히 정리한다.

5월 18일에 연행된 사람들은 직접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위와 무관한 행인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금남로(1~5가)를 중심으로 길을 걷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위를 구경하다가 마구잡이로 공수대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19~20일에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된 사람들이 많았다. 공수부대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적극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공세 수위도 훨씬 높아진 데다 시위대의 이동 범위도 넓어진 상황이었다. 금남로, 광주역 앞, 전남대 앞 사거리, 대인동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연행된다. 18~20일에 연행된 사람들은 조선대 및 전남대 운동장을 거쳐 광주교도소와 상무대 헌병대로 이송된다. 연행되기 전부터 이들은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폭행은 1차 집결지인 대학 운동장에서도, 상무대와

광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탈의, 삭발, 결박, 기합 등이 모든 과정에서 동반되었다. 구금 당시 끔찍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보았다는 증언도 있다. 이때 끌려 들어간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상태였으며, 구타와 기합에 하혈을 해도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21~26일 사이에 연행된 사람들은, 시위 전후 이동하면서 검문 중이던 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탐문 수사 대상이었다가 검거된 경우가 많다. 이들이 연행된 지역은 광주, 서울, 해남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었다. 연행장소 또한 자택, 식당, 주택가, 검문소 앞, 군부대 앞, 광주교도소 등 다양하다. 남편과 함께 광주를 빠져나가려던 20대 임신부는 광주교도소로 연행되어 계엄군에 의한 강제 탈의와 무차별 구타로 유산되기도 했다. 이 시기 연행자들 역시 구금, 조사과정에서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27일에는, 전남도청과 YWCA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시민군, 그리고 군의 가택 수색에 의해 체포된 시민들이 연행된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총상을 입거나 군 화발, 총 개머리판 등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다. 전남도청에서는 계엄군의 진압작전 중 발포 외에 구타로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체포와 연행은 27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5·17 예비검속에 따른 수배, 항쟁 참여와 관련한 수배, 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고 피탈 관련 방위병에 대한 소환조서 등에 의한 것이었다. 연행장소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연행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는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폭력이 동반되었다. 조사·구금과정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항쟁 기간과 항쟁 직후에 체포된 여성들 중, 주요 관련자들은 상무대를 거쳐 광산경찰서에 별도로 구금되었다. YWCA에서 활동했던 정현애와 정현순, 정유아,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주와 차명숙, 도청에서 마지막 새벽방송을 했던 박영순, 수습대책위원이었던 조아라(YWCA 회장)와 학생수습위원인 김선옥, YWCA 총무이애신, 도청에서 제반업무를 수행한 이경희와 취사를 도왔던 여고생과 여중생들, 항쟁 때 사망한 시신들 염을 해주었던 유흥업소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명의 여성이 있었다.⁴⁴³ 이들 중 일부 여성은 연행과정과 취조 과정에서 성폭

력을 당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성이 항쟁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수배명단에 오른 여성들은 수개월 동안 광주를 떠나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5·18 성폭력’ 문제는 오랫동안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었다. 보수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도 쉽지 않았거니와, 설령 공개 증언을 한다고 해도 조사하고 보도하는 문화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광주민중항쟁 당시 잔혹하게 짓밟혔던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조사는, 2018년(‘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과 2020~2023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의 증언 불능력(사망, 자살, 정신분열, 치매 등)과 피해자 및 가족들의 조사 거부, 여전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자신이 당한 일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다. 성폭력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의 이런 상황은 조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공개된 ‘5·18조사위’의 보고서(‘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성폭력 사건의 유형별 특성

‘5·18 성폭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면서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모든 성적인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의미”하며, 그 유형은 ①강간 및 강간미수, ②강제추행, ③성고문, ④성적 모욕 및 학대, ⑤재생산폭력으로 구분된다.⁴⁴⁴ 당시 성폭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특히 체포·연행되어 구금된 일부 여성들의 경우엔 조사과정에서 군인은 물론 수사관들에 의해서도 성폭력을 당했다. 5·18 성폭력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공간, 작전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도심시위진압작전 중 성폭력(5.18.~5.20.), 둘째, 외곽봉쇄작전 중 성폭력(5.21.~5.26.), 셋째, 연행·구금·조사과정 중 성폭력(1980.5.17.~1981.1.24.)이다.

다음 표는 ‘5·18조사위’의 사건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사건발생일이며,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사건발생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27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특히 27일 이후 연행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긴 시간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22일의 2건(35~36번)과 광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44~52번)도 오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편의상 27일로 표기했다.

영문 대문자는 진상규명된 사건으로 총 17건이다. 영문 소문자는 기록조사 결과 성폭력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다양한 사유로 진상규명 불능(2건) 혹은 조사가 중단된 사건 등(33건)이다.⁴⁴⁵ 이를 모두 합하면 5·18 성폭력 사건은 총 52건이다.⁴⁴⁶

진압작전 등에 따른 5·18 성폭력 사건 피해(종합)

no	일자	발생 장소	연령	성폭력 관련 사항	유형	구분
1	5·18.	수창초교 앞	21세	공수대원이 작전구역 도착 직후 강제 탈의 및 무차별 구타(18-A)	④	도심 시위 진압 작전
2	"	공용터미널 인근	18세	공수대원이 공용터미널 인근 00다방에서 강제탈의 및 무차별 구타(18-a)	④	
3	"	도청앞 도로	19세	공수대원이 시내버스안내원 성추행(18-b)	②	
4	"	가톨릭센터 앞 도로	19세	공수대원이 시내버스안내원 성추행(18-c)	②	
5	"	대인동 주택	27세	공수대원이 대인동 야간수색 중 강간(18-d)	①	
6	5.19.	공용터미널→전남대	19세	공수대원이 강제 탈의 후 트럭으로 호송(19-A)	④	
7	"	금남로 4가	18세	공수대원이 주택가 골목에서 강제추행(19-B)	②	
8	"	전남여고 인근	27세	차량 안에서 공수대원이 집단강간(19-C)	①	
9	"	백운동 야산	18세	군용트럭으로 이동 후 백운동 야산에서 공수대원이 집단강간(19-D)	①	
10	"	운천저수지 인근	20세	고속버스로 이동 후 공수대원이 집단강간(19-E)	①	
11	"	황금동 5거리	31세	공수대원이 대검으로 강제 탈의 후 강간 미수(19-F)	①	
12	"	가톨릭센터 인근	17세	공수대원이 진압봉으로 구타하며 강제추행(19-a)	②	
13	"	중앙여고 인근	16세	속옷이 찢기고 온몸을 구타당하여 귀가. 정신질환 발병(19-b)	④	
14	"	가톨릭센터 인근	19세	공수대원 2~3명이 진압봉으로 구타하고 대검으로 강제 탈의(19-c)	④	
15	"	금남로 한일은행 앞	33세	임신 5개월 중 공수부대 폭행으로 유산(19-d)	④ ⑤	
16	"	공용터미널 인근 상가	32세	공수대원이 시민연행 항의하는 임신부를 구타하여 유산(19-e)	④ ⑤	

no	일자	발생 장소	연령	성폭력 관련 사항	유형	구분
17	"	도심→야산	18세	도심에서 차량으로 이동 후 야산에서 공수대원이 집단강간. 1986년 분신 자살(19-f)	①	도심 시위 진압 작전
18	5.18. ~19.	장소 불상	18세	전신 상처와 붉은 페인트 범벅되어 귀가. 후유증으로 7월 사망(19-g)	④	
19	5.20.	대우병원 인근	18세	공수대원이 강제추행 후 대검 자상(20-A)	②	
20	"	백림약국 인근	22세	공수부대에 구타당하고 옷이 찢긴 채 쓰러져, 시민에게 구출(20-a)	④	
21	"	수피아여고 앞	34세	남편을 기다리던 여성을 계엄군이 폭행하고 강간(20-b)	①	
22	5.21.	지원동 인근 야산	45세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는 여성을 잠복 중인 계엄군이 끌고 가 강간(21-a)	①	외곽 봉쇄 작전
23	5.22.	목포 야산	22세	계엄군이 검문소 인근 야산에서 집단 강간(22-A)	①	
24	"	주남마을 인근 야산	31세	불공 드리고 내려오던 여성을 잠복 중이던 계엄군이 집단강간(22- a)	①	
25	5.23.	학운동 야산	21세	귀가 중 계엄군이 야산 골짜기로 끌 고 가 집단강간(23-A)	①	
26	5.24.	효덕동 야산	19세	귀가 중 계엄군에게 야산으로 끌려가 집단강간(24-A)	①	
27	5.25.	광주교도소	20세	검문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연행되어 계엄군의 강제탈의와 구타로 유산됨(24-a)	④ ⑤	
28	5.26.	상무대 인근	21세	상무대 검문소에서 계엄군이 끌고 가 강간(26-a)	①	
29	5.27.	계림동 주택	23세	계엄군이 가택수색 후 대검으로 옷을 찢고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27-A)	① ②	광주 재진입 작전과 연행· 구금·조사 과정
30	"	YWCA→통합병원	23세	계엄군이 호송 차량 탑승 전 성기부분 자상(27-B)	④ ⑤	
31	"	서석병원→광주시청	26세	계엄군이 호송 차량 탑승 직전 강제 추행(27-C)	②	

no	일자	발생 장소	연령	성폭력 관련 사항	유형	구분
32	"	상무대	18세	계엄군이 상무대 화장실에서 강간(27-D)	①	광주 재진입 작전과 연행· 구금·조사 과정
33	7.3.	상무대→여관→광산서	21세	수사관이 광산경찰서 인근 여관에서 강간(27-E)	①	
34	10.22.	자취방→광주서부서	19세	수사관이 가택수색후 연행시 강제추행(27-F)	②	
35	5.22.	505보안부대(광주)	30세	수사관이 성적 모욕·구타로 생식기능 상실(27-a)	③ ⑤	
36	"	505보안부대(광주)	19세	수사관이 하복부 등 특정부위 각목으로 구타하여 임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문(27-b)	③ ⑤	
37	5.27.	상무대 조사실	22세	수사관이 무차별구타 및 성적 모욕(27-c)	③	
38	"	상무대 조사실	16세	조사받던 중 군인 3~4명이 끌고 가 강간(27-d)	① ③	
39	"	505보안부대(광주)	20세	수사관이 성고문(27-e)	③ ⑤	
40	5.28.	상무대 조사실	19세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옷을 벗기고 구타, 성적 모욕(27-f)	③	
41	6.1.	광주경찰서	27세	수사관이 옷을 벗기고 전신구타, 성 적 모욕 (27-g)	③	
42	6.30.	505보안부대(광주)	39세	수사관이 무차별 구타와 성적 모욕(27-h)	③	
43	8.5.	505보안부대(광주)	31세	수사관이 만삭의 임산부를 칼로 위협하고 성적 폭언(27-i)	③ ⑤	
44	5.17.	205보안부대(부산) 205보안부대(부산) 205보안부대(부산)	23세	수사관이 수사 중 옷을 벗기고 수갑 을 채운 상태로 조사(27-j)	③	
45	5.18.		20세	수사관이 막대기로 가슴 등 특정 부 위를 찌르며 성적 모욕(27-k)	③ ⑤	
46	5.19.		22세	수사관이 옷을 벗긴 상태에서 막대기로 특정 부위를 찌르고 성적 모욕 (27-l)	③ ⑤	
47	5.27.	510보안부대(전주)	25세	수사관이 신체 특정 부위를 구타하여 옷이 모두 찢기고 부상당해 생식기능 손상(27-m)	③ ⑤	

no	일자	발생 장소	연령	성폭력 관련 사항	유형	구분
48	5월말	102보안부대(춘천)	20세	수사관이 신체 특정부위 구타 및 강간 협박(27-n)	③	광주 재진입 작전과 연행· 구금·조사 과정
49	6.2.		21세	수사관이 특정부위를 폭행하고 성적 모욕 (27-o)	③ ⑤	
50	6.8.	서울 수사기관	23세	수사관이 구타하여 흉부중앙부위 함물. 후유증으로 2002년 사망(27-p)	③ ⑤	
51	6.19.	서울 안가 조사실	24세	수사관이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 및 강간(27-q)	① ③	
52	7.10.	보안사 서울본소	41세	수사관이 신체특정부위 성추행, 성고문 (27-r)	② ③	

* 색깔로 처리된 부분은 진상규명된 사건임(영문 대문자 표기).

* 괄호로 처리된 사건번호는 (발생일자·영문)으로 구성함.

* 연행·구금·조사과정 중 성폭력 사건은 ‘27-영문’으로 일괄 표기함(1980.5.17.~1981.1.24.). 조사과정 중 성폭력의 일자는 성폭력 발생일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행일자로 표기함.

* 44~52번은 광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날짜순으로 표기함.

* 성폭력 유형 : ① 강간 및 강간 미수 ② 강제추행, ③ 성고문, ④ 성적 모욕 및 학대, ⑤ 재생산 폭력

도심시위진압작전 중 성폭력은 4유형으로 드러나며, 이 유형들은 당시 계엄군의 작전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도심의 대로변, 시위집결지에서 주간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 체포 위주의 진압작전과 지시에 의한 강제탈의의 상황에서 대검으로 여성들의 옷을 찢고 발가벗기고 무차별 구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⁴⁴⁷ 2)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거점별 경계근무 및 책임지역 수색(3~5명이 야간 정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성폭행하였다.⁴⁴⁸ 3)시위 거점에서 임시구금장소(저수지, 야산 등)로 여성을 호송하여 성폭행하였다.⁴⁴⁹ 4)시위집결지에서 시위대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나 골목 등지에서 여성에게 대검을 사용하거나 구타하며 성추행하였다.⁴⁵⁰ 발생일자별로는 5월 18일 5건, 5월 19일 13건, 5월 20일 3건이며, 총 21건의 성폭력사건이 도심시위진압작전 중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하였다. 총 21건의 성폭력 사건 중 6건

이 강간이었다.

외곽봉쇄작전 중 성폭력은 계엄군의 외곽봉쇄지점 이동 간 사전정찰을 보내고, 주요 거점에 매복·정찰활동, 보호시설 경계 등의 작전 수행과정에서 발생⁴⁵¹하였으며, 주로 집단강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교도소, 상무대 등 주둔시설로 연행하여 강간, 성적 모욕 및 학대하는 유형도 있다.⁴⁵² 이 시기 성폭력은 총 7건 중 6건이 강간이었다.

연행·구금·조사과정 중 성폭력은 5월 17일 예비검속 이후 여성들을 연행·구금·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연행과정에서 3건이 발생하였다.⁴⁵³ 피해 여성들은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 연행과정 중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특정 부위에 자상과 집중 구타로 재생산기능에 손상을 입었다. 구금·조사과정에서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취조를 받고, 수사실 복도·화장실·여관 등의 공간에서 강간당했다. 구금·조사과정에서 생리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하혈하는 여성들을 방치하고, 수시로 성적 모욕과 기합을 주기도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었던 경찰서와 505보안부대, 상무대가 주된 성폭력 발생의 공간이 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군인 혹은 수사관에게 강간당한 여성은 모두 4명이다. 이 밖에도 서울, 춘천, 부산의 수사·구금기관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성고문과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자별로 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위에서 정리한 52건 외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상처를 감당해내야 했던 여성들도 많을 것이라 추정된다. 성폭력 특히 강간의 경우는 목격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황상 계엄군들에 끌려간 여성들을 목격한 증언은 상당수 발견된다. 당시 목격담으로는 여성들이 군용트럭으로 납치되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끌려간 여성들이 모두 성폭력의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해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성폭력 조사의 한계

계엄군 등의 강제진압이나 연행·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이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제13대 국회에서 처음 시도된 1988년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5·18 성폭력 관련 제보와 증언이 시도되었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청도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5·18 성폭력 피해자의 사연이 책자에 실리거나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사회적인 반향을 얻거나 후속 조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⁴⁵⁴

2010년대 후반 들어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2018년 한 피해 여성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 구성)이 발족한다. 조사활동 결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때 공식적으로 확인된 17건의 성폭력 사건 외에 40여 건의 추가적 내용이 있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⁴⁵⁵ 이 조사 이후 국방장관은 ‘5·18 계엄군 성폭행’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였다.⁴⁵⁶

그리고 2020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공동조사단의 자료를 인계받아 후속 조사를 개시해, 2023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위의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많은 숙제를 남겨준 셈이 되었다. 이미 피해 기록이 확보된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에 대한 조사가 배제되었다. 또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품도 없고 피해자의 정확한 기억이 없어진 상태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장소도 제대로 모른다.’ 등의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사위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를 찾아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시간이 안타까울 뿐이다.

2024년 12월,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40여 년 동안 이들을 돌봐야 했던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다시 피해 경험을 떠올리

며 고통받아야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앞장서자”라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였다.⁴⁵⁷ 피해자들의 어려운 결정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 부상·사망·행방불명

부상자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여성 상해 피해자(상이 후 사망자 포함)는 172명으로 전체 상해 피해자 2,617명의 7% 정도이다. 상해 피해의 심각성은 남성이 훨씬 높다. 이를 보면, 남성들에 대한 계엄군의 공격이 훨씬 더 격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전체 여성 상해자 172명 중 장해등급 8급 이상의 중증 상해자가 32명(19.4%)인 것을 보면, 여성이 겪은 신체적 피해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부상당한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견디다가 병증이 더 깊어진 사례를 다수의 여성 증언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료가 지연되면서 후유증이 더 심해진 것이다. 특히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한 여성들은 후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여성 상해 피해자 172명이란 숫자는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 한한 것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이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상처가 가볍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다친 사실이 나중이라도 자식 등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병원을 가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사망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쟁 기간 중 사망자 수는 166명이고, 이중 여성은 12명(7.2%)이다. 여성 사망자는 다음 표와 같다.⁴⁵⁸

항쟁 기간 중 여성 사망자(종합)

no.	성명	나이	사망일	사망원인	사망장소	비고
1	이성자	14	5. 21	총상	옛 동구청 뒤 홍안과의원 앞 도로	집단 발포에 의한 사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여성
2	최미애	23	5. 21	총상	중흥동 평화시장 입구 자택 앞	임산부. 전남대 앞 집단발포로 사망
3	박금희	16	5. 21	총상	지원동 소재 현대교통 1번 버스 종점 일대	소태동 버스 종점 부근에서 시위대 측 현열 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총격
4	이매실	68	5. 22	총상	국군통합병원 인근 자택	통합병원 확보 작전 중, 자택 안방에서 총상을 입고 현장 사망
5	김오순	57	5. 22	차량사	산수동 무등로 557번길 입구 근처	집 앞 도로에서 시위대의 차량에 치여 사망
6	고영자	22	5. 23	총상	소태동 채석장 앞 도로	주남마을 미니버스 탑승 중 계엄군의 총격
7	김춘례	18	5. 23	총상	소태동 채석장 앞 도로	주남마을 미니버스 탑승 중 계엄군의 총격
8	박현숙	16	5. 23	총상	소태동 채석장 앞 도로	주남마을 미니버스 탑승 중 계엄군의 총격
9	손옥례	19	5. 23	총상	소태동 채석장 앞 도로	주남마을 미니버스 탑승 중 계엄군의 총격
10	오정순	52	5. 23	총상	운암동 자택	운암동 변전소 인근 총격
11	박연옥	49	5. 24	총상	인성고등학교 입구 교량 밑 하수구	송암동 계엄군 간 오인사격 이후 계엄군의 총격
12	김명숙	14	5. 27	총상	전남대 정문 인근	광주민중항쟁 기간 마지막 희생자

여성 사망자 12명 중 11명은 총상이다. 항쟁 초기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여성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총상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최초의 총상 여성 희생자는 14세 이성자였으며, 동구청 뒤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화순으로 가는 미니버스에 탑승한 고영자, 김춘례, 박현숙, 손옥례는 주남마을 앞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사망하였다. 박현숙과 손옥례는 집단 발포로 사망한 시민들의 관을 마련하기 위해 화순으로 가는 길이었다. 김명숙은 광주 재진입 작전 이후 전남대에 주둔하였던 계엄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김명숙은 항쟁 기간 마지막 희생자였다. 여성 사망자의 연령대별·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⁵⁹

여성 사망자 연령대별·직업별 분포

직업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학생		3						3
농축수산업					1		1	2
생산노무직		1	1					2
주부			1			2		3
무직		2						2
계	0	6	2		1	2	1	12

여성 사망자 12명 중, 1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는 2명이었다. 이들은 어린 여성 노동자와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이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 진학을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미애는 20대 주부였고, 임신 8개월이었다. 최미애의 죽음으로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 희생되었다.

행방불명자

행방불명은 법률에서 ‘실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실종’은 실종된 상태에서 일체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특별실종’은 비행기 추락이나 선박의 침몰 등으로 실종되면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광주민중항쟁과 같이 국가폭력 등에 의해 실종된 사건이나 피해의 경우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행방불명자’라는 규정이 있으며, 행방불명자를 희생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⁴⁶⁰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 중 5·18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73명이다.⁴⁶¹ 이 가운데 여성은 16명이다. 16명 중 마지막 목격된 날은 18일 4명, 19일 3명, 20일 3명, 21일 4명, 22일 2명이며, 23일 이후 여성 행방불명 인정자는 없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 2명, 10대 5명, 20대 5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1명으로, 10대와 20대가 많다. 최연소 여성행방불명자는 5세였으며, 최고령 여성행방불명자는 57세이다.⁴⁶² 5세부터 10세까지 여아 3명은 모두 보호자와 함께 있다가 계엄군의 작전과 관련된 현장에서 실종되었으며, 이 중 2명은 초등학생이었다.

실종장소별 여성행방불명자는 도심시위지역 11명, 화순방면 외곽지역 3명, 기타 전남 외곽지역 1명, 통합병원 확보 작전 관련 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행방불명자 가운데 11명은 대부분 시위 관련 지역에서 시위대와 함께 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광주 외곽지역으로는 화순방면 주남마을 인근에서 행방불명된 여성이 3명이었다. 송정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된 50대 여성은 가족 4명이 모두 함께 실종된 경우였다.

연령대별·일자별·장소별 여성 행방불명자(종합)

구 분						계
연령대별						16명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2	5	5	1	2	1	
일자별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4	3	3	4	2		
장소별						
도심시위지역	광주외곽 (화순방면)		전남외곽	통합병원		
11	3		1	1		

여성들은 손주 돌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되었다. 길거리에서 심한 총소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어머니 곁에서 사라져버린 아이도 있었으며, 아버지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하고 있는 사이에 사라진 어린아이는 겨우 5살이었다. 이렇게 나이 어린 딸들이 실종된 가족의 경우엔, 4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딘가 살아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국가는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조사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행방불명자와 가(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일치된 사례는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지만, 암매장에 대한 의심은 유효한 상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⁴⁶³

고통과 트라우마

항쟁이 끝난 후 광주는 물리적·정신적 상중(喪中) 상태였다.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연행되어 구금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상황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던 자들도 가족과 친족, 친구, 직장 동료 공동체가 온전한 이는 드물었다. 사실상 광주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집단적 트라우마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의 일상도 무너져 내렸다.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여성들은 자식들을 가르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도할 시간도 없이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했으며,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생계조차 팽개치고 “내 자식 살려내라”며 길거리 투쟁에 나서야 했다.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어린 자식과 부모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야 했으며, 구속자 가족 여성들은 갇난아기를 업은 채 전국을 돌아다니며 구명활동을 해야 했다. 구속된 남편이 석방된 후에도 이들의 삶은 전쟁이었다. 출감한 남성들은 모진 고문 끝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망가져 있었으며,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 사망해갔다.

항쟁 활동을 핵심적으로 해나갔던 여성들은 구속되거나 수배되어 광주 밖으로 도망쳐야 했으며, 이후 결혼한 젊은 여성들 중 일부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이력을 들이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가슴 속의 분노도 같이 응축되어 갔다. 동료들이 묻힌 망월동 묘지에도 가보지 못할 만큼 죄책감과 상처가 흔해진 채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으며, 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은 기억상실과 정신분열, 반복적 자살 시도라는 끔찍한 상황 속으로 내몰렸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미 생채기가 나버린 심리적 훼손 상태가 몇 가지 치유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해서 원상 복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순간, 그 생채기는 유령처럼 다시 살아나 세상을 떠돌게 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광주가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

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5. 항쟁 이후의 투쟁과 정신 계승

항쟁 이후 여성들의 투쟁

항쟁은 27일 계엄군의 도청 재진입작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광주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온 나라가 침묵을 강요받았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은 수배되거나 잡혀가 구속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일어선 이들은, 광주의 여성들이었다.

광주민중항쟁 직후부터 광주는 항쟁의 진상을 외부에 알리는 동시에 정부 당국에 진상구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980년 6월 10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송백회, 들불야학, 극단 광대, 그리고 JOC로 연결된 수도권 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이 이에 동참해 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 투쟁의 시간에 가장 참혹한 고통을 겪었고 싸웠던 이들은 예비검속으로 연행되었던 구속자 가족들(어머니, 아내, 누이)과 항쟁 때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었다. ‘내 남편과 동생’이 내란죄에 몰리고, 내 자식이 ‘폭도’가 되어 죽거나 수배자가 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견딜 수는 없었다. 구속자 가족들은 전국적 서명운동, 대통령 면담 요구 시위, 명동성당 점거 등을 전개해 나갔으며, 유족 어머니들은 망월동 묘지를 분산 이장시키려는 정부와 싸워가며 끝내 망월동을 지켜냈다. 어느 누구도 광주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시절에, 여성들의 싸움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⁴⁶⁴ 광주청문회(1988), 특별법 제

정(1995), 5·18민주묘지 조성법 제정(1997) 등의 성과는, 여성들의 적극적 투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2001년 각 오월 단체들에서 활동해오던 여성들은 ‘오월여성회’(2006년 ‘오월어머니회’로 개칭)를 발족시키고, 2006년 ‘오월어머니집’을 개관해 매년 ‘오월어머니상’ 시상을 비롯한 교육·상담·치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5월광장어머니회’ 등 외부 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항쟁 당시 YWCA 및 도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은 2008년 ‘오월민주여성회’를 발족해, 후세대 여성들과 연대하면서 평화캠프, 구술증언, 강연 및 세미나를 통해 오월정신 계승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80년 이후, 가혹했던 한국사회의 시간을 관통하면서 수많은 민주열사가 고문과 최루탄, 쇠파이프에 의해 스러져 그 젊은 장례 행렬이 광주로 들어올 때면, 늘 그 곁엔 오월 여성이 함께 있었다. 2014년 생때같은 자식들을 보내고 망연자실해 있는 세월호 가족들을 가장 먼저 ‘시민상주’라는 이름으로 품었던 것도 광주였으며, 2022년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을 온몸으로 껴안았던 이도 오월 어머니들이었다. 그동안 고립되고, 힘으로 짓밟히고, 훼손된 모든 장소에 광주가, 광주 여성이 있었다.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2024년의 겨울. 다시는 고립되지 않기 위해, 다시는 힘을 가진 권력에 짓밟히거나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1980년의 광주를 소환하고 있다. 2024년 12월 7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은 스웨덴 한림원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답으로 이 글을 마친다.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라라!”⁴⁶⁵

광주는 도처에 있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 중에서

[부록 I]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여성 (가나다순)

연번	성명	묘역번호	사망일	비고
1	고영자	I -1-96	1980.05.23.	
2	고효숙	I -6-58	2009.04.27.	
3	김경순	I -10-05	1980.05.21.	행방불명
4	김경희	I -3-62	1992.02.13.	
5	김광임	I -3-27	1986.06.06.	
6	김군자	I -7-10	1996.07.27.	
7	김기묘	I -9-26	2016.07.27.	
8	김명숙	I -2-28	1980.05.27.	
9	김미정	I -10-49	1980.05.20.	행방불명
10	김방심	I -6-37	2008.08.15.	
11	김성애	I -8-20	1994.01.03.	
12	김순희	I -7-01	2010.09.30.	
13	김영도	I -3-81	1997.02.19.	
14	김연님	I -10-54	1980.05.21.	행방불명
15	김연순	I -9-18	2016.03.22.	
16	김영님	I -2-85	1982.09.12.	
17	김오순	I -1-70	1980.05.22.	
18	김옥섬	I -3-05	1984.02.01.	
19	김천례	I -2-90	1982.11.02.	
20	김춘례	I -1-100	1980.05.23.	
21	김춘화	I -3-23	1985.12.07.	
22	김혜옥	I -6-67	2009.07.25.	
23	김혜정	I -3-80	2005.09.10.	
24	남영님	I -10-15	1980.05.22.	행방불명
25	마순란	I -6-01	2007.04.15.	
26	문미숙	I -10-16	1980.05.21.	행방불명
27	문연애	I -5-13	2018.11.14.	
28	박금희	I -1-26	1980.05.21.	
29	박연옥	I -2-17	1980.05.24.	
30	박현숙	I -10-53	1980.05.20.	행방불명
31	박현숙	I -2-03	1980.05.23.	
32	손옥례	I -1-80	1980.05.23.	
33	송복심	I -6-02	2007.04.19.	

연번	성명	묘역번호	사망일	비고
34	송희성	II -1-140	2021.11.24.	
35	오정순	I -2-07	1980.05.23.	
36	유복남	II -1-27	2018.06.28.	
37	윤명희	I -10-67	1980.05.20.	행방불명
38	윤순애	I -10-03	1980.05.19.	행방불명
39	윤이정	I -5-77	1992.12.22.	
40	이매실	I -1-84	1980.05.22.	
41	이성자	I -1-44	1980.05.21.	
42	이애신	I -3-41	1987.02.05.	
43	이영례	II -1-70	2020.01.05.	
44	이옥기	II -1-101	2020.12.02.	
45	이요승	I -3-34	1980.07.10.	
46	임소례	I -10-57	1980.05.20.	행방불명
47	임정숙	I -8-08	1991.09.02.	
48	임채송	I -4-21	2002.04.18.	
49	전옥주	II -1-114	2021.02.16.	
50	정금숙	I -10-65	1980.05.19.	행방불명
51	정인순	I -3-31	1986.11.03.	
52	정태선	II -1-95	2020.10.07.	
53	조덕례	I -10-39	1980.05.18.	행방불명
54	조아라	I -4-86	2003.07.08.	
55	진수전	I -5-75	2006.09.29.	
56	최미애	I -1-60	1980.05.21.	
57	최복덕	I -4-51	2000.11.21.	
58	최복순	II -1-109	2021.01.26.	
59	최봉례	I -10-28	1990.01.01.	행방불명
60	추길례	I -5-89	2007.02.28.	
61	한강례	I -10-61	1980.05.18.	행방불명
62	허덕례	I -10-12	1980.05.19.	행방불명
63	황금례	II -1-131	2021.09.04.	
2023.5.기준				

[부록 II] 5월 17~26일 정부 및 군 동향

5월 17일

10:00	전두환, 최규하 대통령에게 안보 및 국내 치안상황 보고 * ‘시국수습방안(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과 ‘소요 배후조종자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체포·조사 계획’ 추진 예정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39면.
10:40	진중채(제2군사령관), 정웅(31사단장)에게 광주지역 8개 전문대학에 31사단 병력 투입 지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55면.
11:40	주영복(국방부장관)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 시국수습방안 3가지 중 ‘비상계엄 전국 확대’만 결의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록(수기)」 (보안사령부, 『383-1980-103』, 335~358면).
17:00	진중채(제2군사령관), ‘군사령관 지시’ 사항 하달 * “5월 18일 00:01을 기해 불순분자 체포, 04:00 이전 주요 학교 점령” 지시 * 22:45, 학교 점령 시간 변동 지시(“04:00 이전 명령을 02:00까지로”) ** 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보안사령부, 『383-1980-95』, 143면).
19:00	최규하 대통령, 계엄확대 방안 수용 결정 및 신현확(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 지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42면.
21:42	신현확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 찬반 토의 없이 8분 만에 계엄 전국확대 선포 의결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42면.
22:00	전국 예비검속 시작 * 광주지구 505보안부대, 23:00경부터 예비검속 실시 7공수여단(중장 신우식) 여단본부·33대대·35대대 전복 금마 출발 * 총 774명(여단본부 86명, 33대대 366명, 35대대 322명) ** 특전사령부(1980), 「전투상보(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36면.
22:30	이희성(계엄사령관)이 전군에 소요 진압부대 투입 작전명령 하달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43면.
23:40	이규현(문화공보부장관)이 24:00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 발표
24:00	7공수여단 33대대(전남대/광주교대)·35대대(조선대/전남대 의대) 도착, 교내 수색 시작 * 광주교대(7공수여단 33대대 8지역대 4중대), 전남대 의대(7공수여단 35대대 12지역대 9중대)

5월 18일

01:00	이희성(계엄사령관) ‘계엄포고령 제10호’ 발령 * 정치활동 중지, 집회 금지, 대학 휴교령 * 언론, 출판, 보도, 방송 사전 검열 * 소요사태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 연행
01:45	계엄군 국회의사당 봉쇄 * 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병력(장교 3/사병 95), 경장갑차 8대, 전차 4대 진주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51면.
03:00	전국 92개 주요 대학 및 109개 주요 보안목표에 계엄군 23,860명 배치 완료 * 92개 주요 대학에 계엄군 병력 중 93%인 22,342명 배치 * 109개 보안목표에 2,395명 배치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55면.
03:05	2군사령부, 예비군 무기고 안전대책 강구 지시 ** 전교사(1980), 「전투상보(총정작전결과)」, 121면.
08:00	이희성(계엄사령관) 주재 ‘일반참모부장 및 계엄사 참모합동회의’ * 계엄사가 행정부 및 사법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 지시 * 황영시(계엄부사령관), 정부 관청 장악을 연구할 것을 지시 **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5.18.)」 (보안사령부, 『383-1980-89』, 45~50면).
10:40	계엄사 보도처, 22개 언론사에 ‘보도검열지침’ 통보 * 전 언론, 출판, 방송 내용 사전 검열. 국가안보·공공질서·국익 등 유관 사항 위반 시 폐간 경고 ** 보안사령부 언론반, 「5·17 계엄지역 확대 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지침」, 『383-1980-103』, 461~464면.
11:00	안병하(전라남도 경찰국장), 경찰의 시위진압 방침 하달 * 분산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저항하는 자는 연행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5.18. 11:00, 11:55)」 (보안사령부, 『383-1980-99』, 153·155면).
11:30	이희성(계엄사령관), 글라이스틴(W.H. Gleysteen) 주한 미 대사 접견 * 라이스틴 “미국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계엄 확대 조치에 대한 원칙적 동의 표명 ** 조동준, 「1979~80년 미국무부 비밀 외교문서 4천 페이지 철저분석」, 『월간 조선』 1996년 8월호, 378면.
12:45	정웅(31사단장), ‘작전명령 제1호’ 발령 * 7공수여단 시내 출동 준비 지시 **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1980.5.18. 12:45)」 (보안사령부, 『383-1980-100』, 224면).

13:00	이희성(계엄사령관) 주재 오찬회의에서 ‘광주에 공수부대 추가 투입’ 결정 * 회의참석자 :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희성, 황영시, 유병현 등 ** 대한민국재향군인회(1997), 『12·12, 5·18 실록』, 255면.
14:30	정웅(31사단장), 7공수여단 33·35대대장(권승만, 김일옥) 및 경찰서 경비과장 대책 회의 * 주둔지(전남대, 조선대)에 최소의 병력만 남기고, 전체 공수대원 오후 4시 이전까지 금남로 출동 지시 **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5.18.)』(보안사령부, 『383-1980-89』, 25면).
15:00	수경사령부, 11공수여단의 광주 이동(‘육본 작전명령 19-80호’) 시달 ** 11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령부, 『383-1980-106』, 237면).
16:00	7공수여단 금남로 투입, 진압 시작 ** 7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령부, 『383-1980-106』, 218면).
16:30	최규하 대통령 특별성명 발표 * “국가를 보위하고 3,7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11공수여단 본부 및 61대대 선발대, 성남비행장에서 광주로 출발 * 병력 260여 명 ** 전교사(1980), 「전교사작전일지(1980.5.18.)」(보안사령부, 『383-1980-94』, 123면).
17:50	11공수여단 본부 및 61대대 선발대 광주 도착, 조선대로 이동 **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1980.5.18.)」(보안사령부, 『383-1980-100』, 225면).
18:00	전남북계엄분소, ‘공고 제4호’ 발령 * 광주 시내 일원 통금시간을 ‘21:00’ 시로 앞당긴다고 발표
19:00	11공수여단 61대대(잔류병력)·62대대·63대대, 청량리역에서 광주로 출발 * 병력 940여 명 존 위컴(John A. Wickham) 한미연합사 사령관 미국에서 급히 한국으로 귀임
21:00	정웅(31사단장), 작전평가회의 * 7공수여단 병력 시내 36개 거점 배치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65면.
23:00	진중채(2군사령관)의 강조사항 각 공수부대에 하달 * “소요자는 최후의 1인까지 추격하여 타격 및 체포” **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1980.5.19.)」(보안사령부, 『383-1980-92』, 12면).
23:40	정웅(31사단장), 7공수여단 배치 거점을 11공수여단에 인계 지시 * 5월 19일 04:30에 11공수여단에 인계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65면.

5월 19일

00:50	11공수여단 병력 도착 * 도착일시: 00:50(장교102/사병696), 0210 : 조선대학교 집결지로 이동 완료(장교147/사병909)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29면.
04:00	11공수여단이 7공수여단 임무 인수 * 금일 작전: 소규모 소요 인원(현 병력 배치 지역에서 체포), 집결 집중소요 인원(예비대 즉각 출동)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32면.
09:00	31사단 작전 명령 * 11공수여단 61대대 공용터미널. 62대대 장동, 63대대 계림동, 7공수여단 35대대 고속버스터미널. 33대대 광주역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9면.
10:00	윤홍정(전남북 계엄분소장), ‘광주지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 강경진압에 대한 지역기관장들의 강력한 항의에, 유혈진압 금지 약속 ** 국회(1988.12.7.), 「5·18광주민중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10:40	11공수여단 62,63대대 투입 금남로 일대 시위대 진압: 시위군중 2천여 명 분산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67면.
11:00	31사단장 7공수여단 35대대 방문 * 금남로 3,000~4,000여명 시위 중, 출동준비 지시 ** 특전사령부(1980), 『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219면.
11:05	공수부대원 500명, APC 2대, 엠60차량 50대 금남로 일대 출동 * CBS앞 도로상에 군중 5,000여 명 운집 ** 31사단(1980), 『작전상황일지(80.5.13~5.28)』, 131면.
11:20	11공수여단 600여 명 투입 시위대 분산(CBS지역)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40면.
13:10	시민 401명(군 340명, 경찰 61명) 체포·연행 ** 31사단(1980), 『작전상황일지(80.5.13~5.28)』, 131면.
15:00	7공수여단 35대대 장교23/사병216명 투입, 방송 헬기 출동 ** 특전사령부(1980),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5.14~)』, 41면.
15:25	11공수여단 61대대 1개 지역대 장교15/사병80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앞으로 재투입 ** 특전사령부(1980),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5.14~)』, 43면.
15:30	CBS방송국 M16 소총 1정, 실탄 15발 분실, MBC앞 포니차량 4대 방화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49면.
15:35	여단장 헬기로 공중정찰 ** 특전사령부(1980),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5.14~)』, 43면.

15:42	7공수여단 33대대 장교28/사병205명 MBC방송국으로 출동 * 사유: MBC방송국 31사단 병력 10명 구출작전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49면.
16:00	양림다리 옆에서 계엄군 2명 데모군중에게 구타당해 국군통합병원에 입원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49면.
16:40	31사단 11경비대대 도청, 노동청, 전신전화국 병력(장교11/사병360) 배치 ** 특전사령부(1980),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5.14~)』, 43면.
17:00	공용터미널 2,000명으로 증가, 11공수여단 61대대가 진압 중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50면.
17:05	11공수여단 62대대 장동지역 진압 중, 11공수여단 63대대 계림동으로 이동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50면.
17:30	금남로 광주은행 앞 학생과 군중은 군경저지로 분산 * 금남로2가 가톨릭센터에 운집한 300명은 강력히 버티다가 가스차 2대가 출동 해산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51면.
18:00	계엄사령부, 2군사령부에 3공수여단 5개 대대 추가 작전통제 지시 하달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75면.
18:15	11공수여단 KBS로 이동 ** 31사단(1980), 『작전상황일지(80.5.13~5.28)』, 132면.
18:30	7공수여단 전남대 복귀 완료 ** 특전사령부(1980), 『전투상보(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219면.
20:00	31사단에서 작전회의: 출동준비 재점검 ** 특전사령부(1980), 『전투상보(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219면.
21:00	전남도교육위원회, 각급 학교의 휴교 조치 발표 7공수여단 33대대 광주역 점령 ** 특전사령부(1980), 『전투상보(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219면.
21:20	7공수여단 35대대 광주종합터미널 점령 ** 특전사령부(1980), 『전투상보(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219면.
21:25	31사단 96연대 1대대 57명, 경찰 기동2중대 183명 출동 * 시위대 양동파출소 점거: 유리창, 오토바이 등 기물 파괴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53면.
21:45	소방서 2대 진화 중 * 시위대 임동파출소 방화, 60여 명 쇠파이프 등 몽둥이를 들고 대기 중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53면.

21:50	서부경찰서 경찰 54명 시위대 해산 * 누문동 파출소 200여 명의 시민, 학생들에 의해 점거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53면.
21:55	역전파출소를 7공수여단 33대대가 무력시위하다 소탕하고 12명 체포 및 분산 ** 전교사(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0.~5.31)』, 154면.
22:50	7공수여단 33대대 전남대 복귀 ** 특전사령부(1980), 『전투상보(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219면.
23:10	3공수여단 부대 출발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 인 상해 사건』, 74면.

5월 20일

01:02	3공수여단 병력(장교 255명/사병 1,137명), 청량리역에서 광주로 출발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3면.
04:00	31사단, 방송국과 학교 및 외곽지역에 병력 배치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3면.
06:20	전교사, 금남로 청소작업에 병력 투입 * 2.5톤 13대와 5톤 트럭 1대, 1/4톤 트럭 5대가 금남로로 출동해 청소작업을 마친 뒤 09:00에 철수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78면.
07:04	3공수여단, 광주역에 도착 후 전남대로 이동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3면.
08:00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지역 배치 * 도청, 상업은행, 광주은행, 한일은행, 계림파출소 배치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3면.
10:20	윤홍정(전남북 계엄분소장), ‘광주지역 기관장 2차 회의’ **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52~154면.
10:30	3공수여단 지역 배치 * 11대대 황금동, 13대대 시외버스공용터미널, 15대대 양동사거리, 12대대 광주시청, 16대대 전남대 배치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3면.
12:55	정부, 신현확 국무총리 등 내각 일괄 사퇴 * 최근의 소요사태 인책, 출범 5개월 6일만에 퇴진 ** 「신현확내각 일괄 사표」, 『조선일보』, 1980.5.21.

14:00	각계 대표 56명과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 외 특별참모 8명 참석한 간담회 * 공수부대의 과격진압과 유언비어 문제 제기 **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52~154면.
15:00	진압봉 교체 * 서울에서 공수해온 진압봉, 송정리 비행장에서 접수돼 시내 시위진압 중이던 각 공수여단과 전교사에 배분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72~73면.
18:00	3공수여단 15대대 광주역으로 이동, 16대대 전남대와 신안사거리 방어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5면.
18:25	2군사령부, ‘계엄군 자세 확립 지시(작상전 439호)’ 지시 * “총기 피탈 방지, 대민 적대행위 방지, 장기작전 대비, 연행자 처리” 등 지시 진중채(2군사령관), 훈시문 * “계엄군의 이성적 행동 강조, 이적 행위자-단호히 조치, 선량한 학생 및 시민 보호, 군인 기본자세 견지, 정부 재산 보호(주둔지 시설 포함)” 등 지시 ** 2군사령부, 「광주군 총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령부, 『383-1980-95』), 147면.
19:00	3공수여단 12대대, 시청에서 광주역으로 이동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5면.
20:00	시위대에 밀려 고립되거나 재배치되는 공수부대 * 3공수여단 13대대,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광주시청으로 밀려남 * 3공수여단 11대대,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포위되어 고립 * 1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 병력, 도청 앞으로 집결. 3공수여단은 광주역 일대에 집결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5면.
21:50	3공수여단장 최세창, 각 대대에 M-16 실탄 배부하고 장착 지시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80면.
22:00	12대대장과 15대대장이 시위대 차량 바퀴에 권총 발사 * 광주역 향해 돌진하던 차량에 공수대원 3명 중상 입자 12대대장, 15대대장이 시위대 차량 바퀴에 권총 발사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5면.
22:30	20사단 61연대 용산역 출발 * 21일 04:00 61연대 송정역 도착(장교 32명/사병 1,413명) * 21일 08:58 62연대 송정역 도착(장교 84명/사병 1,450명) * 22일 07:00 60연대 송정리비행장 도착(장교 88명/사병 1,514명) ** 「20사단 전투상보」, 43-15면, 43-22면; 「특전사 전투상보」 43-24면.
23:00	최웅 11공수여단장, 각 대대(61·62·63·35대대) 도청으로 집결 지시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3), 『종합보고서』, 115면.

23:00 ~	시내 곳곳 연이은 총성 * 23:00 시청 앞에서 발포, 동시에 구청 앞에서 총성 * 23:03 조선대 쪽 연발 총성이 들리고 있음(연속음 3번, M-16소총음) * 23:04 도청 주변 외곽 사방에서 M-16 총성이 나고 있음(계속으로 총성) - 정보2계장 통보- 공수단 1개 소대 병력, 도청 앞 지원 침투 완료 * 23:07 광주서장 보고, 공용터미널 방면에서 총성이 들리고 있다고 무전 보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직가-8), 80면.
23:25	2군사령부, ‘소요 확산 저지(작상전 445호)’ 지시 :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교통로 봉쇄” * 외곽봉쇄작전을 수행하는 계엄군들에게 “무기 휴대 폭도의 봉쇄선 이탈 절대 거부, 폭도 중 반항치 않는 자 체포, 반항자 사살, APC 또는 차량을 이용 강습 시도 시는 사살, 현 봉쇄망은 주도로만 치중치 말고 지선도로도 장악 폭도 탈출 적극 방지” 지침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94면.

5월 21일

00:00	도청 앞, 11공수여단 61대대장과 62대대장이 중대장에게 실탄(15발씩) 분배 * 위급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할 것을 지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85면.
01:45	전교사 31사단에 광주교도소 방어 명령 하달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91면.
02:00	31사단(사단장 소장 정웅) 96연대(33/164) 화염방사기 소대 출동 *장교 2/ 사병 31, 발연기 4대, 화염방사기 10대, 차량 6대 ** 기정단 29-13, 전교사 총정작전결과, 49면.
02:13	광주지역 일반전화선 단선 조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90면.
02:45	31사단(사단장 소장 정웅) 96연대(33/164) 11경비대대 교도소 점령 **국가기록원 49, 광주사태관련 31사단 전투상보, 39면
03:00	공수부대 전열 재정비 * 7공수여단 35대대 총장로와 전남도청 좌측 배치 * 11공수여단 61,62대대 전남도청 정면, 63대대 전남도청 우측 노동청 앞 배치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86면
04:00	육본 20사단 61연대 송정역 도착 ** 「20사단 전투상보」, 43면.

04:30	계엄사 대책회의 * 계엄군 외곽 전환 재배치 결정 * 광주에 1개 연대 추가 투입, 5.23. 이후 폭도소탕작전 실시. 자위권 발동 결정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93면.
08:00	전교사 지역에 진도개(비상경계령) 하나 발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93면.
09:00	7공수여단 33대대 (45/321) 11여단에 배속 ** 「특전사 전투상보」 (1980), 38면
11:00	UH-1H 헬기 10대(202대대 2대, 203대대 8대) 전교사에 급파 ** 기무사 17권 1항공여단 상황일지, 276면. 11공수여단 63대대장 대대 경계용 실탄을 중대장에게 1인당 10발씩 지급 * 대대장 명령에 따라 위급시에만 사용할 것을 지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98면.
12:59	도청앞 계엄군의 발포로 시위대 일단 분산 ** 전남도경, 「소요상황일지」(보안사, 『383-1980-98』, 384면 인용)
14:00	3공수여단 광주교도소 이동명령 접수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22면.
15:00	31사단(사단장 소장 정웅) 96연대(33/164) 3·7(-2)·11공수여단 작전통제 해제 ** 31사단 전투상보(1980), 7면.
15:35	이희성 계엄사령관 지시 시민과 불순세력 분리, 지휘체계의 一元化로 군 사기 진작 광주 외부도로망 차단, 끝까지 교도소 방어 지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95면.
16:00	계엄사 전교사에 공수부대의 시외곽 철수와 자위권 발동 승인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103~104면
16:30	3공수여단 전남대 철수,교도소이동/점령(16:30~17:30) ** 특전사 전투상보(1980), 16면. 경찰병력 철수 시작, 도경 지휘부 광주공항 이동 전남도청 상황실 폐쇄(16:30), 전남도경 상황실 폐쇄(17:15)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104~105면.
16:50	11공수 35대대 도청에서 조선대로 철수시작. 조선대 도착(17:50) ** 특전사전투상보(1980), 39면.
17:00	11공수여단 3개 대대와 7공수여단 35대대 장갑차를 선도로 전남도청 출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104면.

17:30	3공수여단 광주교도소 점령(31사단 →3여단), 자체 방어진지 편성(17:30~19:20) ** 특전사 전투상보(1980), 16면.
18:00	7공수여단 35대대 사격 유효명령 접수 ** 7공수특전여단 부대 역사일지(74~81), 384면.
18:50	20사단 61연대 광주-목포 및 광주-전주간 도로 차단 위해 송암동과 광주 톨게이트 배치 20사단 62연대 통합병원 입구와 송정리 비행장 및 전교사에 각 배치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108면.
19:00	31사단(사단장 소장 정웅) 96연대(33/164) 광주시 외곽으로 재배치(오치고개 일대) ** 국가기록원 419, 현안문제 관련 자료, 15면.
19:30	7공수 33, 35대대 조선대에서 주담으로 철수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39면. 계엄사령관(대장 이희성) 자위권 보유 담화문 발표 ** 국가기록원 131, 국가자료 요구철(광주사태 관련 국회자료 요구철), 72면.
20:30	전교사령관(중장 윤홍정) 전남지역 자위권 행사 지시 ** 기정단 13, 충청작전결과, 18면
21:00	20사단 60연대 2대대, 3대대와 91포병대대(88/1,514) 성남비행장 출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사건 수사결과』, 109면.

5월 22일

04:55	20사단 60연대 병력(87명/1,562명) 전교사 도착 ** 전교사(1980),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 314면.
06:30	31사단 병력 비아송신소, 광주변전소 경계 병력 투입 ** 전교사 교훈집(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80면.)
08:30	7, 11공수 특전여단 소태동 지역 도로봉쇄 및 주변 수색 정찰 실시 ** 기정단6, 특전사 전투상보 첫 임시 국무회의 개최 * 광주사태에 대한 계엄사령부 보고, 대책위원회 구성(경제기획원 차관 및 관계부처 차관 등) ** 「정부, 대책위 구성」, 『조선일보』, 1980.5.23.
08:40	미 국무성 성명 발표 * 광주사태 평화적 해결을, 당사자 자제 대화 희망, 확대되면 외세 오판 위험, 공약 따라 강력 대처 ** 「광주사태 평화적 해결을」, 『동아일보』, 1980.5.23.

10:20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전교사 계엄분소 방문 * 김충환 내무, 유양수 동자, 진의중 보사 광주 도착, 계엄 현황 청취, 국무총리 지시 ** 서울지방경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16면.
10:30	2군사, 전남지역 군·경 예비군 자위권 행사 지시 ** 국가기록원 184, 『광주사태 관련 전교사 전투상보』, 26면.
10:55	군사령부, 송정리 비행장 및 송정리 확보 지시 ** 서울지방경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16면.
11:03	1번도로, 고속도로 봉쇄(확보, 지시) ** 국가기록원 184, 『광주사태 관련 전교사 전투상보』, 26면. 1전교사 계엄사령관(계엄분소장) 교체(윤홍정 중장→소준열 중장)
12:00	국무총리(박충훈) 서리 담화문 발표
13:30	7공수여단 35대대 11지역대 5중대, 너릿재터널 봉쇄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49면.
14:00	머스키 국무장관 주재 고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강조, 개방적인 대의정부 구성 촉구, 미국에 대한 군사원조 삭감 고려하지 않음 ** 「미조기경보기 2대 한국 지역으로 급파」, 『동아일보』, 1980.5.22.
21:43	전교사, 기교 전차대 9대, 31사 도착 ** 전교사 작전 일지
22:45	전교사, 총정 장비 추가지원 건의 * UH-1H 헬기 10대, 고성능 스피커 2대, 가스살포기 500MD 1대 ** 전교사 작전 일지

5월 23일

08:50	「전교사 총정계획」 (폭도 소탕작전) 확정 ** 서울지방경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21면.
11:48	봉쇄선 작전지침 하달 * 반항자 사살, APC 또는 차량이용 강습시도시 사살 ** 기정단 9, 『20사단 전투상보』, 26면.
13:00	계엄사령관 담화문 전단(5만매) 살포 ** 국가기록원 158, 『계엄사후보고 6[과구, 전남북] 진상규명』, 90면.

14:00	전교사, 20사단 작전지역 각 학교가 인수 명령 하달 ** 국가기록원 419, 『현안문제 관련 자료』, 16면.
16:00	총정작전대비 20사단 병력 배치 조정 * 60연대(상무대 집결), 61연대(주답지역), 62연대(교도소방어), 3·7·10여단(비행장 집결) ** 국가기록원 419, 현안문제 관련 자료, 16면. 부대배치 조정 * 목포선 : 61-1대대 → 보교, 비아KBS송신소, 틀게이트: 61-3대대→기교, 상무대: 62-1대대→화교, 통합병원: 62-2대대→보교, 선창다리: 62-3대대→포교

5월 24일

01:30	계엄군 부대배치 조정 *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에 ‘광주재진입작전’준비 위해 광주비행장으로 결집하라는 전교사의 지시가 하달됨. ** 서울지방경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24면.
09:55	운암동·두암동 고속도로 구간에서 오인전투 * 31사단(96연대 3대대)과 기갑학교 병력 간 오인사격 * 군인 3명 사망, 민간인 2명 부상, 군인 10명 부상 ** 서울지방경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25면.
13:30	광주·목포간 도로에 접한 효천국민학교 삼거리 부근에서 오인전투 * 11공수여단과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 간 오인사격 * 공수대원 9명 사망, 33명 중상, 장갑차 등 차량 5대 파손 * 민간인 사망 8명, 5명 중상 ** 서울지방경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25~126면.
16:00	미함대 배치 관련 한·미간 협의 완료 계엄사령부 한미연합사에 광주시 재진입, 탈환을 위한 계획 완성 보고 **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1981), 『소요진압과 그 교훈』, 63~65면. ** 미국정부 성명서(1989),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명서」 제57항.
20:30	도청 지하 무기고에서 군 폭약전문가 뇌관 제거 * 뇌관제거 작업시간 5월 24일 20:30~5월 25일 13:00 ** 「광주학살의 훈장과 공적서」 (조호연), 『월간 경향』, 1989년 1월호, 458면.

5월 25일

04:00	광주재진입작전 지침준비 지시 * 이희성 계엄사령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재진입작전 계획 수립 지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31면.
12:15	전두환 등 신군부, 광주재진입작전 개시 시각 최종 결정 * 27일 00:01 이후 현지사령관의 판단 하에 실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32면.
13:00	도청 지하 무기고에서 군 폭약전문가 뇌관 제거 완료 * 뇌관제거 작업시간 5월 24일 20:30~5월 25일 13:00 ** 「광주학살의 훈장과 공적서」(조호연), 『월간 경향』, 1989년 1월호 458면.

5월 26일

10:30	전교사 진압작전 최종 회의 * 20사단장, 31사단장, 3,7,11공수여단장, 보병학교장 참석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33면.
16:00	소준열 전교사령관 광주비행장 방문 * 공수특공대에게 5.27. 00:01부터 작전을 개시할 것을 지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34면.
21:00	공수부대 특수조 시내 투입 정찰 실시 * 민간인 복장을 공수하여 사북편의대 복장으로 시내 정찰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사건 수사결과』, 134면.

5월 27일

01:00	7공수여단, 충정작전을 위한 부대(8·9지역대) 이동 * 비행장→통합병원(20/181) 까지 차량, 이후 지대별 도보 침투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501면.
04:00	11공수여단, 전일빌딩·관광호텔 점령 * 비행장→통합병원(20/181) 까지 차량, 이후 지대별 도보 침투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67면.

04:10	3공수여단, 도청후문 월담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30면.
04:10 ~ 05:13	3공수여단, 도청진입/교전 * 계엄군: 부상2명 시위대: 포로 200명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30면.
05:06	7공수여단, 8·9지역대 광주공원 확보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41면.
06:00	7공수여단, 61연대에 인계후 철수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41면.
06:40	11공수여단, 20사단 61연대에 인계 * 비행장→통합병원(20/181) 까지 차량, 이후 지대별 도보 침투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68면.
07:30	3공수여단, 20사단 61연대 인계 ** 기정단 6, 특전사, 『전투상보』, 31면.

[미주]

1 1970년대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2021), 『1980년대 여성운동: 진보적 여성운동의 등장과 이념을 넘어선 연대』, 27~37면.;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66~68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2 송백회에 관한 내용은,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회 편)』, 심미안.;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5·18기념재단(2020), 『오월을 잇는 광주 여성단체 활동사』, 심미안.;이윤정(2012),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을 참조하여 재구성.

3 임영희는 송백회와 현대문화연구소 간사를 했으며, YMCA나사렛 성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4 광주지역화가 국중효는 도자기 기증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5),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광주전남지역』, 329~330면.

6 광주YWCA에 관한 내용은,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79~80면.;오미란·안진(2015),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여성운동』, 전라남도·광주광역시, 60~63면.;한규무(2012), 「사회운동 관점에서 본 광주YMCA·YWCA와 5·18항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37, 159~163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7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협동조합 조직인 광주양서조합은 1978년 11월 YWCA 1층 휴게실에 책을 진열하고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출범했다. 광주양서조합은 해직교수와 재야인사, 교사 등이 주축이 되고 고등학생까지 포함하여 1,4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8 김명배(2007), 「한국 개신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1960년부터 1987년까지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 박사논문 참조.

9 여성노동운동과 JOC에 관한 내용은,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80~84면.;오미란·안진(2015),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여성운동』, 전라남도·광주광역시, 73~81면.;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여성·주체·삶』, 도서출판 티엠씨, 40~41, 118~124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10 김성애는 회사의 탄압을 받다가 1979년 10월 퇴사한 후, 11월에 JOC 광주연합회 상근활동가로 지역 노동자 연대를 이끌어내게 된다.

11 최정님이(JOC회원)이 도청지도부의 요청으로 전화 교환수로도 활동했다.

12 녹두서점과 현대문화연구소에 관한 내용은,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5~45면.;김상집, 「윤상원으로 되짚어보는 5·18항쟁(6)광주 청년운동권 구심점 역할 한 녹두서점」, 『남도일보』, 2023.6.14.;김희송(2009),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광주지역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62~72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13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긴급조치 1호 하에서 발생한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유신체제 비판을 위해 시도한 시위 계획을 반체제 운동으로 확대·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중 180명이 구속되었다.

14 야학운동에 관한 내용은, 강남진(2020), 「5·18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의 참여-1970년대 후반 광

주의 민주화운동과 연계하여」, 『역사학연구』 78, 115~116면.;장은영(2024), 「들불야학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 연구」, 『국제언어문학』 59, 289~290면.;김상집, 「윤상원으로 되짚어보는 5·18항쟁(10)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남도일보』, 2023.07.18.;디지털광주문화대전(<http://www.grandculture.net>)을 참조하여 재구성.

15 박기순은 전남대 국사교육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1978년에 정학당한다. 이후 들불야학을 설립하여 노동청소년들을 가르치다가 1978년 사망한다. 이후 윤상원이 들불야학을 운영하다가, 윤상원 또한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1982년 박기순과 윤상원의 영혼결혼식이 거행되었으며, 이때 두 사람의 결혼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헌정된다.

16 문화운동과 ‘극단 광대’에 관한 내용은, 전용호(1989), 「5월 선전(선동)활동 보고서」, 『민족현실과 문화운동』 봄호.;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205~206면.;윤만식, 「1977년 광주 YMCA 탈춤 강습회에서 80년 5·18 직전까지」, 『프레시안』, 2023.1.3.;디지털광주문화대전(<http://www.grandculture.net>)을 참조하여 재구성.

17 1976년부터 시작된 ‘함평고구마사건’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농민현장극으로, 함평 농민들이 당국의 고구마 수매정책에 항의해 피해보상운동을 벌인 끝에 승리한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18 ‘동리 소극장’ 극장장은 박효선이 맡았다.

19 학생운동에 관한 내용은, 오미란·안진(2015),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여성운동』, 전라남도·광주광역시, 63~67면.;김희송(2009),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광주지역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67, 71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20 전남대 재학 중이던 김남주와 이강이 1972년 12월 9일,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함성’ 제하의 유인물을 전남대와 5개 고등학교에 살포하고, 이듬해인 1973년 3월 ‘고발’이라는 제하의 신문을 제작, 배포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된다.

21 여학생회 발족 난관」, 『전대신문』, 1980.4.10.; 「여학생회 난항 거듭」, 『전대신문』, 1980.4.17.

22 여성문제연구학회는 1980년 9월, 학교 공식 조직으로 등록하는데, 이때 제2대 회장은 이춘희였다.

23 3일간의 민족·민주화대성회에 관한 내용은, 고정희(1988),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월간중앙』 5월호.;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37~39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24 신군부의 ‘충정작전’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40~65면.;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8~51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25 예비검속자 명단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이학봉이 관련 정보를 모아 작성, 이미 5월 15일에 최종 결정되어 있었다. 전두환은 이 명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17일 오전 10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소요 배후조종자 및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자 체포·조사 계획’을 추진하겠노라고 보고했던 것이다(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46~48면.).

2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29면(양강섭, 3006), 539면(차명석, 3008)

27 「전교사 작전일지(1980.5.19.)」(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3),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 자료집(1979~1981)』 2권, 145면.)에는 전남대 69명, 조선대 43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특전사령부의 「전투상보(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3),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 자료집(1979~1981)』 1권, 51면.)에는 33대대(전남대·광주교대)가 23명, 35대대(조선대·전남의대) 23명이 체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8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64~565면(진호림, 3017).

29 「김종필·김대중씨 연행」, 『조선일보』, 1980.5.20.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1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김종필(공화당 총재)· 이후락(국회의원)·박종규(국회의원)·김치열(전 내무부장관)·김진만(국회의원)·오원철(전 대통령경제제2수석비서관)·김종락(코리아타코마사장)·장동운(전 원호처장)·이세호(전 육군참모총장), ·사회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소요 관련 배후조종 혐의자:김대중(정치인)·예춘호(국회의원)·문익환(목사)·김동길(연세대부총장)·인명진(목사)·고은(시인)·이영희(한양대 교수).

30 예비검속 대상자인 2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남대(박관현, 윤한봉, 정동년, 박선정, 윤목현, 한상석, 박진, 윤강욱, 문덕희, 하태수, 박형선, 김상윤), 조선대(박종민, 김운기, 이경, 유소영, 송찬식, 이강래, 유재도, 이곤섭, 양희승, 구교성).

31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의 『5·18 사건 수사결과』(56면)에는 22명 중 8명을 체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호남신학대, 서원보건전문대(현 광주보건대), 동신전문대(현 동강대), 대건신학대(현 광주가톨릭대), 서강전문대(현 서영대), 성인경상전문대(현 호남대), 기독교호전문대(현 기독교호대), 송원전문대(현 송원대)

33 특전사령부(1980), 「전투상보(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2면 재인용. 이 표에서 본부 장교의 숫자 및 주둔지(10명, 전교사)는 7공수특전여단의 「충정작전 전투상보」에 따른 것이다.

34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55면.

35 이세종은 17일 새벽 전북대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서 다른 대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층 경비실로 내려오다 계엄군을 만나 구타당한 후 도피하다, 4층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 3-17)』, 329~331면.). 2024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세종을 5·18민주화운동 관련 최초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3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 3-17)』, 251면.

3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 3-17)』, 252~253면.

3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 3-17)』, 495~496면.

39 녹두서점과 관련된 내용은,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51~65면.;국사편찬위원회(2006), 「5·18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삶의 변화(정현애편)」;5월여

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84~192면 등의 자료를 참조해 재구성.

40 윤경자 구술.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281~282면.

41 윤상원(본명 윤개원)은 항쟁 기간 동안 민주시민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사망했다.

42 김상집(2021), 『윤상원평전』, 동녘, 210~212면. 이후 박관현은 차명석, 김영휴와 함께 광주를 빠져나가 여수 돌산으로 피신한다.

43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157면.

44 정현애 구술.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86면.

45 강보희 구술.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47면.

46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609면(설성수, 3034). 당시 전남대 이학부 수위였던 설성수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초기에 막사에서 지내다가, 20일경부터는 이학부로 들어와 숙소를 사용한 것 같다. 운동장 막사에는 매트리스나 기를 넣어둔 창고로 활용했다.

4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2면(서명원, 1002), 594면(김수영, 3027), 784면(천영진, 3109), 1250면(박영희, 7025).

48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352면.;박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 출판부, 142면.

49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74면(김태종, 4007), 899면(김윤기, 4012).

50 이현주 구술.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206면.

51 임영희 구술.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221면.

5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10),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207면.

53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김순이, 윤청자, 최정남 편)」

54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37면.;전남대 5·18연구소(20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구술기록 조사사업 결과보고서」, 607면.

55 이윤정 구술. 전남대 5·18연구소(20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구술기록 조사사업 결과보고서」, 607면.

56 정향자 구술.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37면.

5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09면(김한중, 1041).

58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66~67면.;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47면.

59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98면(임낙평, 3028)

60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48면(이광호, 1024),

598면(임낙평, 3028), 785면(천영진, 3109).

61 임영희 구술.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임영희, 채록번호 6-02).

6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3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56면.

63 「이장수(7공수여단 35대대 작전장교) 진술조서」(서울중앙지검(1996), 『5·18사건 수사기록 24권』, 31·575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56면에서 재인용.

64 이춘희(여, 20세, 대학생) 구술.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 II』, 전남대학교 출판부, 24면.

65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김순곤, 채록번호 1-274).

66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최정아, 채록번호 1-27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53면(이병의, 7079).

67 「유○○(7공수여단 하사관) 진술요지서(2023.9.20.)」 2면, 「조○○(7공수여단 하사관) 진술요지서(2023.9.19.)」 2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 2-5)』, 37~38면에서 재인용.

68 해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가운데 남아공과 페루의 TRC보고서에 성폭력의 하위범주에 강제노출이 보고되었다(서울대 여성연구소(2022),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술사건 분석 및 치유방안」, 230~232면 참조.).

69 「유○○(7공수여단 33대대 9지역대 화기하사관) 진술조서(2023.2.22.)」 5~6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204~205면에서 재인용.

7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 2-5), 19면.

71 서울대 여성연구소(2022),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술결과 분석 및 치유방안」, 69면.

72 「곽○(회사원) 진술조서(2021.12.15.)」 8~9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99면에서 재인용.

73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407면(박형수, 7109).; 김영택(1996), 『실록 5·18 광주민중항쟁』, 창작시대사, 40면.

74 보안사령부, 7공수여단 「전투상보」, 『383-1980-106』, 218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5면에서 재인용.

75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82면.

76 당시 이 지역은 여관 또는 여인숙들로 위장된 허가, 무허가 성매매업소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무허

가 성매매업소는 간판이 없고 여러 개의 방이 배치된 단독형태로 가정집이라고 불렸다.

77 얼마 뒤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임신 3~4개월이 됐을 때 배가 불러오니까 주인집 언니가 물었지만 말을 얹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듬해 1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함께 ○○복지회 문 앞에 아이를 두고 돌아왔다. 2008년, 그녀는 한 많은 세월을 마감했다(「5·18때 진압 장교에 성폭행당한 뒤 출산한 여성 있었다」, 『한겨레』, 2019.10.19.; 서울대 여성연구소(2022),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술결과 분석 및 치유방안」, 77면.).

78 1952년 광주에 상무대가 생기면서 젊은 군인들이 성매매 주된 소비층이었다. 이들은 귀향할 때나 귀대할 때 공용터미널과 광주역을 이용하였다(「팔도강산 발 가는 대로 뚫 가는 대로(26) 광주의 밤거리」, 『동아일보』 1958.11.24.). 그렇기에 ‘군인들은 공용터미널 인근이 성매매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추주희(2018), 「광주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화」, 『호남학』 63, 호남학연구원, 165면.).

79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65면.

80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8면.

81 보안사령부, 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작상전 제425호, 1980.5.18.), 『383-1980-95』, 143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5면에서 재인용.

82 보안사령부, 「총정업무 일일 주요사항(1980.5.19.)」, 『383-1980-95』, 12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5면에서 재인용.

83 보안사령부, 특전사령부 「총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5.19. 02:00)」, 『383-1980-95』 35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5면에서 재인용.

84 보안사령부,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5.19.)」, 『383-1980-94』, 142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9면에서 재인용에서 재인용.

85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5.1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3),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 자료집(1979~1981)』 2권, 134면.

86 5·18 기간 동안 전체 상해자의 18%가 첫날인 18일에 발생했고, 19일에는 17%, 20일은 13% 정도로 전체 상해 사건의 절반가량이 계엄군 발포 전에 발생했다. 도청 앞 발포가 있던 21일에는 14%로 올라가고, 그 이후 수가 줄어들다가 27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작전 실행 이후 다시 급격하게 늘어난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31면.).

87 육군본부, 『육군참고자료지(작전명령 및 지시)』, 53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직가-8)』, 196면에서 재인용.

8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205면.

8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 88면.

90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60~65면 요약·재구성.

91 박시훈(가명, 남, 24세, 의무전경) 구술.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635면(박시훈, 8002).

92 505보안부대는 1977년 육·해·공 보안부대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통합되면서 사령부 예하 부대로 광주시에 창설한 것이다. 1979년 10월 전두환 계엄사령부는 전국에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조직하는데, 이때 전남합수단을 505보안부대에 설치했다. 전남합수단의 인력은 4개의 사법기관(경찰, 헌병, 국가정보기관, 보안사령부)에서 파견되어 있었으며, 계엄법(1949)에 명시된 군법회의 기소 범죄들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5·18 때 관련 수사와 송치, 기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5·18 관련자들에 대한 마지막 군사재판이 열린 1980년 10월 말까지 활동을 지속하였다.

93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61면(박선정, 3015).

94 5·18기념재단(2006), 『5·18의 기억과 역사 2(사회활동가 편)』, 심미안, 268~269면.

95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52면(윤목현, 3012).

96 5·18기념재단(2006), 『5·18의 기억과 역사 2(사회활동가 편)』, 심미안, 272~288면. 정동년은 이로 인해 5·18 내란 수괴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후 무기로 감형되고, ‘5·18구속자협의회’의 구명운동에 의해 1982년 12월에 석방된다.

97 양희승 구술.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양희승, 채록번호 6-23).

98 유소영의 생사가 확인된 것은 5·18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난 후이다. 당시 유소영은 광산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가, 5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이후 조선대에서 제적, 1984년 복적된다. 유소영의 삼촌 유영선(전남대 공대)은 조카(유소영)를 찾아다니다가, 시위대에 합류해 27일 새벽 YWCA에서 사망한다.

99 국회(1988), 「제144회·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제20호」, 48면.

100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21~122면 참조.

101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2018),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2』, 5·18기념재단, 80~82면 요약·재구성.

102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01면(김길식, 1039).

103 이해찬·유시민 외(2010), 『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239면.

104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98면.

105 김영택(2010),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302면.

106 「광주항쟁 곳곳에 등장한 이 미국 청년을 아십니까」, 「계엄군 곤봉에 맞은 미국인, 그가 광주를 위해 남긴 선물」, 『오마이뉴스』, 2020.5.12.

10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96면(위성삼, 1038).;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16면.

108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231면(김경철,

7015).; 5·18기념재단(2006),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한얼미디어·한즈미디어, 17~18면 요약·재구성.

109 김경철의 부상 일자는 그동안 5월 18일로 알려져 있었으나 ‘5·18조사위’ 조사 결과 5월 19일 출근한 후 희생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직가-2)』, 49~50면.).

110 1980. 5. 20. 07:20경 서2동 전남주조장 공터 발견 (36세 가랑 남자 신원미상) 어젯밤(19)에 사망 추정(광주시, 『광주사태수습(1980)』, 7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51면에서 재인용.

11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51~52면 참조.

112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000면(박행삼, 5037).

11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12), 『광주, 여성』, 후마니타스, 319면.;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0면.

114 김병기 구술. 5·18기념재단(2015), 『5·18의 기억과 역사 7(개신교 편)』, 심미안, 118면.

115 계엄사령부(1980), 『상황일지(1980.5.1~1980.5.31.)』, 81, 84~85면.; 계엄사령부(1980), 『치안상황보고』, 23~25면, 27~28면.

116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63~64면 요약·재구성.

117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68면.

118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72, 76면 요약·재구성.

119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26면.

120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1990), 풀빛, 『오월광주민중항쟁사료집』, 1791면.

121 5·18민주화운동기록관(20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구술기록 조사사업 결과보고서』, 617면.

122 박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 출판부, 143면.

123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55면.

124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1면.

125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09~110면 요약·재구성.

126 5·18기념재단(2013), 『5·18의 기억과 역사 5(천주교 편)』, 500~503면 요약·재구성.

12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535면(박시훈, 8002).

12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54~58면 참조.

12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

건(직가의2-5)』, 65~69면 참조.

13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111~124쪽.

13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80~84면 인용·재구성.

132 5·18민주유공자유족회(2000), 『부서진 풍경-5·18 정신병동 이야기』, 28~39면 인용·재구성.

133 「오○○(대학생) 진술녹취록(2023.2.15.)」 5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42면에서 재인용.

13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42~44면 인용·재구성.

135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23~125면 참조.

13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64면.

137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40면, 248면(이광호, 1024), 941면(최정철, 5010).

13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63면(정태호, 1029).

139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464면(김행주, 2031).

14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3면(서명원, 1002).

141 김영택(2020),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312면.

14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12면(김연태, 3119).

143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35면.

144 전투병과교육사령부(1980),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94면.

145 조아라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7면(조아라, 1003).

146 5·18기념재단(2013), 『5·18의 기억과 역사 5(천주교 편)』, 심미안, 21면.

14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4면.

14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77면.

14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4면.

150 진압불 수량이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특전사의 출동병력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에는 3공수여단에 710개, 7공수여단에 840개, 11공수여단에 638개였다(계엄사령부(1980), 「작상전 80-215호(1980.5.19.)」.;특전사, 보안사령부(1980),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20)」, 『383-1980-95』, 60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5·17,5·18사건조사결과보고

서』, 72~73면에서 재인용.).

15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직가-8)』, 77면.;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41~43면 요약·재구성.

152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255~256면.;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417~1418면(이효순, 7115) 요약·재구성.

153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254면.;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70면(최봉희, 7089) 요약·재구성.

15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29면(이재의, 1045).

155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42~143면.

15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464면(김행주, 2031).

157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14면, 329면(이재의, 1045).

15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45면.;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651면(조성철, 3054).

159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45면.

160 신봉섭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19면(신봉섭, 1043).

161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이행기, 채록번호 1-236), (이정팔, 채록번호, 7-28).

16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29면(이재의, 1045).

163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650면(임재구, 3053).

16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495면(이재춘, 2038).

16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51면(조인호, 2002).

166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46~149면 요약·재구성.

167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667면(김영민, 3061).

16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654면(배용주, 3056). 이 사고로 배용주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되어 1982년 12월 석방되었다.

169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669면(조영복, 3062), 664면(서채원, 3060), 398면(조철웅, 2018) 요약·재구성.

170 조영복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669면(조영복, 3062).

171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86면.;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90면(염경태, 2015).

17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662면(김용철, 3059).;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 I』, 전남대학교 출판부, 265~267면 요약·재구성.

173 5·18기념재단(2006),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한얼미디어·한즈미디어, 30면.;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직가-2)』, 265면.

17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5, 166면.

17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16면(김용완, 7062), 310면(김한중, 1041), 283면(유승규, 1035).

176 광주역 인근 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김재화(남, 25세), 김만두(남, 44세), 이복일(남, 27세), 김재수(남, 25세), 신동남(남, 29세), 허봉(남, 23세), 박세근(남, 35세)이다.

177 정귀곤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1면.

17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115면.

179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537면(박시훈, 8002).

180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2018),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2』, 5·18기념재단, 85~88면 요약·재구성.

181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56~1357면(마순란, 7081) 요약·재구성.

18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 43, 76~77면.

18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직가-8)』, 165~166면 요약·재구성.

184 서울대 여성연구소(2022),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술결과 분석 및 치유방안」, 80면.

185 계엄사 상황일지(1980).

186 전옥주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08면(전옥주, 4014).

187 전옥주는 20일 밤 마이크와 앰프를 구하여 차명숙 등과 같이 가두방송을 하였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전옥주는 22일 오후 1시경 505보안부대로 연행되어 1981년 4월 석방되었다. 전옥주의 구술과 언론 보도에는 5월 26일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많다. 1980년 당시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전옥주와 차명숙은 5월 22일 오후 1시경 시위대에 의해 통합병원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인계되어 체포되었다. 1980년 작성된 전옥주의 자필 항소이유서에도 5월 22일 수사관에게 인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2007),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47권), 620면.;제31사단 보군검찰부(1980), 『불기소 사건기록』.;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2004),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36권), 323~325면.).

188 차명숙은 5월 18일부터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20일 밤 마이크와 앰프를 구하여 전옥주 등과 함께 가두방송을 하였고 22일 505보안부대로 연행되어 1981년 12월 석방되었다.

189 차명숙 구술. 2012년 8월 29일 5·18민주화운동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사업.;박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 출판부, 219~222면 요약·재구성.

190 김재화의 사인은 소총에 의한 ‘좌측 흉부 우측 흉부 관통상’이다. 505보안부대가 작성한 검시 참여결과보고서에는 허봉의 사망 원인이 ‘둔기로 인한 우측 두정골 열상 및 대검 등 예리한 무기로 인한 좌측 전두부 자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보안사 505보안부대(1980), 「광주사태 검시 참여 결과보고」, 452면.;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80면.).

191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83~184면.

192 안부용(11공수여단 61대대장) 「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4회)」, 1995.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91면에서 재인용.

193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김범태, 채록번호 7-16).

194 전옥주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08~909면(전옥주, 4014).

195 장형태 「서울지방검찰청 진술조서(3회)」.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91면에서 재인용.

196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90~193면.;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08~909면(전옥주, 4014).;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김범태, 채록번호 7-16).

197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94면.

198 홍성표(2020), 『호텔리어의 오월노래』, 빨간소금, 112~113면.

199 나채순(2021.10.21.), 오옥순(2021.10.21.), 염길순(2021.10.26.), 김정애(2021.10.28.), 박금옥(2021.10.28.), 오판심(2021.11.03.), 이영애(2021.11.03.), 광미순(2021.11.09.) 구술. 광주여성회(2021), 「2021오월아카이브 - 최초 주먹밥 양동시장 노점상인 관련 구술」.

200 김정기는 당시 아시아자동차에 근무하였다. 21일 시위대에 합류하여 아시아자동차에서 차량을 탈취하는 데 참여하였다. 5월 27일 도청진압 이후 아시아자동차 차량유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두려움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48면(김정기, 2001).).

201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09~810면(김경애, 3117) 요약·재구성.

202 김종희는 문덕희(남, 28세, 학원강사)의 배우자이다. 문덕희는 5월 18일 새벽 자택에서 연행되어 7월 3일 석방되었다(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147면.).

203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15~817면(3120, 표강님).

20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75면(박병규/김양애(어

머니), 1032).

205 이경남(1999), 「한 특전사 병사가 겪은 광주·20년 만의 고백」, 『당대비평』, 겨울호.;김영택(2010),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364면.;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199면.

206 5·18기념재단(2019), 『5·18기억과 역사 9(송백회 편)』, 심미안, 448면.

207 ‘5·18조사위’의 보고서에는 적십자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김준동 시신의 복장과 신발, 양말 등을 대조하는 사진 분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다고 기술되어 있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226면.). 한편, 비슷한 시각 장갑차를 타고 태극기를 흔들다 계엄군 저격수의 총격에 희생된 담양 출신으로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던 김용표(남, 23세)라는 증언이 있다(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양돈실(김용표 어머니), 채록번호 1-137).

20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직가-8)』, 128, 146면.

209 광주지방검찰청(1980.5),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번사기록: 158번 이성자」. 이성자의 시신은 1980년 5월 28일 전라남도경찰청 상무관에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검시가 이루어졌으며, 시체 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흉부 총상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 및 혈흉이다.

210 ‘5·18조사위’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시 사망자 중 이성자 등 최소 7명은 인근 고층 건물에 배치된 계엄군의 조준사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직가-2)』, 272~273면.).

211 김종배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06면(김종배, 1014).

212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박수자, 채록번호 1-310)

213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2000),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2권), 647~648면.

21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294~1295면(남현애, 7052).;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250~252면.

21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58~859면(임지명, 3096).;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259~260면.

216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2000),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3권), 365면.

217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19~221면.

21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256~1257면(최정구(최미애의 동생), 김현녀(최미애의 모), 7029).

219 21일 전남대 인근 사망자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등의 수사결과에는 “5월 21일 주부 최미애(여, 23세)와 성명불상자 2명(운전자와 학생으로 추정)이 총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다(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96면.). ‘5·18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일 전남대 인근 사망자는 둔력에 의한 손상 2명으로 안두환(남, 44세, 보일러공)과 장방환(남, 58세, 상업)과 총상 사망자 이성귀와 최미애로 보고되었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직가-2)』, 39~40면.).

220 「평민당 피해자신고서」, 부상 NO97.

221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8면(조아라, 1003).

222 김양현·강현정 엮음(2005), 『5·18항쟁 증언자료집Ⅳ』, 전남대학교 출판부, 33~34면.

223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31면(김준봉, 1020).

22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081면(김상남, 6019), 1200면(손귀봉, 6054), 1176면(이덕준, 6045), 1180면(이순노, 6046).

225 이때 차량에 탑승했던 일선방직 여성노동자 고영자(23세)와 김춘례(18세)는 23일 화순으로 향하던 미니버스를 탔다가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으로 사망하였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154~1155면(김정순, 6039)).

226 김정순은 22일도 차량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외곽도로가 바리케이트로 봉쇄되어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김정순은 23일 도청앞 집회에 여성노동자와 함께 참여하였고, 주남마을 미니버스 학살로 사망한 동료 노동자 고영자와 김춘례의 부고를 들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154~1155면(김정순, 6039)).

227 “‘여자라고 총 못 들 이유 없잖아요’: 5·18 참여한 ‘1세대 페미니스트’”, 『news1』, 2022.7.23.

228 보성기업은 이기승과 박형선(남, 28세)이 운영하는 회사였고, 정상용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박형선은 민청학련 관련자였는데, 정현애의 남편 김상윤과 마찬가지로 5월 17일 밤에 예비검속된 상태였다.

229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92~100면 요약·재구성.

230 박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 출판부, 144면.

231 오경민, 노영란, 조순임, 양오숙 등이 투사회보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오경민의 증언과 5·18 투사회보 관련자 공소장 기록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1~82면.;박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 출판부, 191면.).

232 오경민 구술. 박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 출판부, 191면.

23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 75, 85면. 화정동에서 사라진 5세 여아의 아버지는 딸이 행방불명된 날자가 5.21일이라고 기억하지만,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엄군이 화정동 지역을 공격한 5.22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화정동 인근에서 총성이 들렸던 날은 5월 22일 통합병원 확보작전으로 추정된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 89면.).

23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0면.

235 조아라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7면(조아라, 1003).

23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26면.

237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81면.

238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5·18민중항쟁 증언자료집 II』, 전남대학교 출판부, 24~25면.

239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90면.

24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89면(조비오, 1011).

241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93면.

24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14면(정해민, 1016).

243 박해현·이윤정(2022), 『1980.05.27.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5·18기동타격대 31인의 기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18면(양기남).

24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40면(양홍범, 1047).

24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64면(정태호, 1029).

246 박해현·이윤정(2022), 『1980.05.27.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5·18기동타격대 31인의 기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62면(박승열).

247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8면.

248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42~343면. 이때 개편된 학생수습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창길, 부위원장 겸 내부위원장, 총무 황금성, 부위원장 겸 장례담당 김중배, 상황실장 박남선, 경비담당 김화성, 기획실장 김종필, 무기 담당 이경식, 홍보부장 허규정, 보급부장 구성주.

249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64~165면(송기숙, 1007), 201면(명노근, 1012-1), 179면(이기홍, 1009).

25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77면(김성용, 1008).

251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65면.

25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9면(조아라, 1003).

253 5·18민주화운동기록관(20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구술기록조사사업 결과보고서」, 670면.;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427~428면 요약·재구성.

25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10면.

25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95면(황남열, 5035).

256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김성수, 채록번호 7-17).

25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87면.

258 한편으로는 인근에 있던 505보안부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28~229면.).

259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117~118면.

260 5·18기념재단(2007), 「5·18 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김옥수(이매실의 아들), 채록번호

호 1-154).

261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53~954(손명선, 5016).

26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61~962면(최복순, 5018).

263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48면(이추자, 5013).

26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61면(최복덕, 5017).

26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79면(강해중, 5027).

26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156, 162면.

26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161면.

26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165면.

269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광주민중항쟁사료집』, 풀빛, 973면(박현옥(박현숙 언니), 5023). 구술에 따르면 박현옥이 미니버스를 탄 시각은 23일 정오경이다.

27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163면.

271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688~693면)에 따르면, 지원동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은 오전 9시 30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은 오후 2~3시경 자신이 탄 미니버스가 계엄군의 총격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272 홍금숙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70면(홍금숙, 5022).

273 23일 오전에도 비슷한 사건(11명 사망)이 있었고, 홍금숙이 ‘본인은 오후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사건이 오전과 오후 2차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74 계엄군은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도심을 퇴각할 때 이미 광주재진입작전을 23일로 계획했다가 25일로 연기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해·공군의 함대 배치 등의 협조문제 때문이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작전 개시’는 시민들의 무기 반납, 시민과 폭도의 분리, 진입작전부대 지휘관의 준비 등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5월 25일 새벽 2시 이후’ 명에 의하여 하되, 작전계획과 작전 개시 시각은 현지 지휘관인 전교사령관에게 맡기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계엄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24일 새벽 1시 30분 주남마을에 주둔해 있던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은 주둔지를 20사단 61연대에 인계하고 광주재진입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비행장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1981), 63~65면.;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엮음(1997), 『12·12·5·18실록』, 299면.;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121면.).

275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126면.

27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41면(최영철, 5010).

277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29면(방광범, 5001), 932면(전재수, 5003).

27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엮음(1997), 『12·12·5·18실록』, 295면.

279 5·18기념재단(2006),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한얼미디어·한즈미디어, 215~219면 요약·재구성.

280 5·18기념재단(2006),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한얼미디어·한즈미디어, 225~227면 요약·재구성.

281 5·18기념재단(2006),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한얼미디어·한즈미디어, 208~211면 요약·재구성. 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6중대 ○○지대장 ○○○은 “이날 송암동에서 장갑차가 피격을 당하자 중대를 이끌고 금당산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는데 오른쪽에 3채 정도 있는 민가에 청년 3명이 있었다. 총을 들고 있지 않아 내가 ‘나오지 마’하고 남선연단 쪽 수색을 계속한 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청년 3명이 죽어있었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총을 쏜 것 같았다. 그게 더 가슴 아프다”고 진술했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참고인 ○○○(2023.2.3.), (2023.8.4.) 진술조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직가-2), 312면.).

282 이해찬·유시민 외(2010), 『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361면.; 조호연(1989). 「‘광주학살’ 훈장과 공적서」, 『월간경향』 1월호, 448면.

283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103~104면.

284 「20사단전투상보」(1980), 25면.

285 육군본부(1980), 「육군본부 상황일지」, 195면.

286 전교사(1980), 「전교사전투상보」(국가기록원184), 121면.

287 어느 방향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 편성을 하는 것. (합동참모본부(201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173면).

288 대화구는 대전차 대비용으로 민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

28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166~167면 인용·재구성.

29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175~186면.

29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142~143면 인용·재구성.

292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104~106면 요약·재구성.

293 김순이 구술.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여성노동자의 삶(김순이 편)」, 63~64면.

294 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08), 「5·18민중항쟁 의료활동에 대한 재조명사업 연구 용역보고서」, 5·18기념재단, 20면.

295 적십자병원에는 21일 계엄군의 집단사격으로 사망한 22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가, 계엄당국과 언론의 왜곡발표(사망 숫자 축소)에 대한 반발로 시민들이 희생자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22일 계엄당국이 퇴각한 이후 상무관으로 옮겨졌다(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08), 「5·18민중항쟁 의료활동에 대한 재조명사업 연구 용역보고서」, 5·18기념재단, 24면.).

29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69면(정준, 1030).

297 안성례 구술. 5·18기념재단(2020), 『5·18의 기억과 역사 10(간호사편)』, 심미안, 112~113면.

29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19면(김용택, 3084).

299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28면(정무근, 3124).

300 「인자, 진, 아방궁...5·18 숨은 주역 ‘황금동 여성들’을 찾습니다.」, 『오마이뉴스』 (2020.5.15.).

301 임춘식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714면(임춘식, 3082).

302 윤청자 구술.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윤청자 편)」, 83~84면 요약·재구성.

303 윤청자 구술.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윤청자 편)」, 101면.;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266면(홍순권, 7034).

304 정숙경 구술.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정숙경 편)」, 57~58면.

305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최정님 편)」, 61~62면 요약·재구성.

306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2003),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0권), 633~634면 요약·재구성.

30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2)), 243~245면 요약·재구성.; 「고문 뒤 석방 전날 성폭행·5월 항쟁 38년 만에 미투」, 『한겨레신문』, 2019.5.8.

308 이 절은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과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309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14면.

310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138면.

311 김정순 구술.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293면(김정순, 6039).

312 5·18민주화운동기록관(20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구술기록조사사업 결과보고서」, 667면.;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81면(김정희, 4009).

313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76면(김태종, 4007), 914면(김경, 4015).;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40면.

314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76~177면(김성용, 1008).

31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76면(김태종, 4007).

31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80면(이현주, 4008).

317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76면(김태종, 4007),

893면(김상집, 4011), 900면(김윤기, 4012), 906면(박정렬, 4013).;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42면.

318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76면(김태중, 4007).

319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30면.;5·18민주화운동 기록관(20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구술기록조사사업 결과보고서」, 668면.

320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353~357면 요약·재구성.;박 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 출판부, 145면.

321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66면.

322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356면.

323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09면.

324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1997), 성명서 「80만 민주시민의 결의」(1980.5.26.),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권), 73면.

325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81면.

326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39면(조아라, 1003).

32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77면(김태중, 4007).

32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주소연은 집 앞에서 공수부대원이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군인들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끝없이 열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광주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학교에서는 분명 북한이 주적이며, 군인은 그 주적인 북한을 물리쳐야 한다고 배웠지만, 군인이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쏘고 잡아가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광주여성회(2020), <2020오월여성역사해설사 양성과정 구술(주소연)>.).

329 김경임 구술. KBS뉴스, <열일곱 여고생 김경임, 시민군의 밥을 짓다>, 2023.6.16.

330 광주여성회(2020), <2020오월여성역사해설사 양성과정 영상(주소연)>.

331 주소연 구술. 광주여성회(2020), <2020오월여성역사해설사 양성과정 영상(주소연)>.

332 황광우(2023), 『시민군 잊지 않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05면.

333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98면(이서운, 6016).

334 주소연 구술. 광주여성회(2020), <2020오월여성역사해설사 양성과정 영상(주소연)>.

335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의 생애사(김순이, 윤청자, 최정님 편)」.

336 김경임 구술. KBS뉴스, <열일곱 여고생 김경임, 시민군의 밥을 짓다>, 2023.6.16.

337 구성주 구술.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27면(구성주, 1019).

338 국사편찬위원회(201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정숙경, 김순이 편)」.

339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83면.

340 주소연 구술. 광주여성회(2020), <2020오월여성역사해설사 양성과정 영상(주소연)>.

341 김상집(2021), 『윤상원 평전』, 동녘, 321면.

342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78면(김성용, 1008).

343 5·18민주화운동기록관(20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구술기록조사사업 결과보고서」, 356면.

344 5·18기념재단(2013), 『5.18의 기억과 역사 5(천주교 편)』, 159면.

345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390~391면에서 재인용.

346 한국기자협회·무등일보·시민연대모임 엮음(1997), 「윤상원 그의 눈길에 담긴 체념과 죽음의 결단」(브래들리 마틴), 『5·18특파원리포트』, 풀빛, 152면.

34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05면(김창길, 1013).

348 주소연 구술. 광주여성회(2020), <2020오월여성역사해설사 양성과정 영상>(주소연).

349 김양애 구술.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75면(김양애(박병규의 모), 1032).

350 최정님은 당시 지도부 일원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은 윤상원, 김종배, 박남선 등으로 추측된다.

351 국사편찬위원회(2006),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최정님 편)」, 65~66면 요약·재구성.

352 광주·여성단체연합(2015), 『오월아카이브: 그곳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다(박영순 편)』, 3면.

353 광주재진입작전과 관련하여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4차에 걸친 검찰 진술과정에서, 1980년 5월 23일 아침 8시 50분경 계엄사령관실에서 진중채 2군사령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도청 진압작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5월 25일 새벽 4시경 육군본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재진입작전 계획 수립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5월 25일자 계엄사령관 명의의 ‘육군본부 5.27 작전(총정) 승인’은 전남도청을 공격하기 위한 육본의 상무총정작전 최종 작전지침이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직가-2)』, 296면에서 재인용.).

354 제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보안사령부, 『383-1980-95』, 152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247~248면에서 재인용.

355 제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보안사령부, 『383-1980-95』, 157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248면에서 재인용.

356 육군본부전투병과교육사령부(1981), 「소요진압과 그 교훈」, 75면.;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9),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408~409면 요약·재구성.

357 「자칭 예비역 육군대위에 관한 검찰 의견서」.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2005),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41권), 290면.

358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778면(박병준, 3107).

359 「80년 광주 최후 지키다 총상 입은 여대생 ‘오월 일기’ 첫 공개」, 『한겨레신문』, 2016.5.26.

360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2024),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10대들의 5·18민중항쟁기록』, 백산서당, 183~184면.

361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최정님 편)」, 67면.

362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김순이 편)」, 65~66면.

363 KBS광주, <영상채록 5·18-김경임 편>, 2023.6.16.

364 김성근의 사망 추정시간은 01:30~03:10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306~307면.

365 「특전사령부 전투상보」;국방부 검찰부, 「권승만 진술조서」(1995.2.1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254면에서 재인용.

366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778면(박병준, 3107).

367 박영순은 27일 아침에 도청에서 체포, 연행된다. 이후 40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매일 이 방송멘트를 적어야 했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광주여성단체연합(2015), 「오월아카이브-그 곳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다」 (박영순 구술, 2015.12.)).

368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9),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419~420면.

369 3공수여단(1980), 「전투상보」, 서울지검 102-039, 46093-46095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302면 재인용.

370 「3공수여단 전투상보」;국방부 검찰부, 「편중식 진술조서」(1994.12.1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251면에서 재인용.

371 KBS광주, <영상채록 5·18-김인환 편>, 2023.5.4.

37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31면.

373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298면(위성삼, 1038).

374 광주YMCA영상사업단(1999), 「기억에서 영상으로:5·18 광주민중항쟁 영상채록(이흥철 편)」; 광주여성단체연합(2015), 「오월아카이브-그 곳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다」 (박영순 구술, 2015.12.).

375 KBS광주, <영상채록 5·18-김경임 편>, 2023.6.16.

376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2024),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10대들의 5·18민중항쟁기록』, 백산서당, 222~227면. 김경임은 본인은 혼자였다고 하고 문종호는 2명의 여학생과 움직였다고 하므로 기억의 차이가 있다.

377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2024),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10대들의 5·18민중항쟁기록』, 백산서당, 203~205면.

378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475면(김태찬, 2032).

379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2024),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10대들의 5·18민중항쟁기록』,

백산서당, 185면.

380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6(사회활동가 2편)』, 심미안, 251~252면.

381 자상에 의한 탈장이 직접적 사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자상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34~235면.).

38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23~224면.

383 광주YMCA영상사업단(1999), 「기억에서 영상으로:5·18 광주민중항쟁 영상채록」 (양홍범 편).

384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778~779면(박병준, 3107).

38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24~225면.

386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493면(염동유, 2037).

38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05면(김여수, 2040).

388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315면(천순남, 1042).

38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466면.

39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252~254면.

391 「특전사령부 전투상보」;국방부 검찰부, 「권승만 진술조서」(1995.2.1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253면에서 재인용.

392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5), 『5·18민주화운동 법정·영창 스토리텔링 구술보고서』.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9),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438면에서 재인용.

393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Ⅱ』, 전남대학교 출판부, 129~131면.

39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41~242면.

395 11공수여단특전사전투상보(1980),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황석영·이재의·전용호(2019),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438~439면 재인용.

396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321~322면.;김양현·강현정 엮음(2005), 『5·18항쟁 증언자료집Ⅳ』, 전남대학교 출판부, 69~70면.

397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Ⅰ』, 전남대학교 출판부, 184~185면.

398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404~405면.

399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9(송백희 편)』, 심미안, 429면.

400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786면(천영진, 3109).

401 김양현·강현정 엮음(2005), 『5·18항쟁 증언자료집Ⅳ』, 전남대학교 출판부, 115~119면.

402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68면(김향득, 4006).

403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837~838면(윤순호, 4002), 847~848면(나명관, 4003).

40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42-243면.

40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44-245면.

406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794~795면(신애덕(유영선의 형수), 3111).

40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43-244면.

40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38-240면.

40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467면.

410 광주YMCA영상사업단(1999), 「기억에서 영상으로:5·18 광주민중항쟁 영상채록」(김병수 편).

411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798면(신광성, 3113).

41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189~190면.

41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45-246면.

41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46-247면.

41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47-248면.

41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종합보고서』, 469면.

417 5·18기념재단(2007), 『5·18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최남식, 채록번호 1-296).

418 5·18기념재단(2007), 『5·18피해자 구술자료 조사(1999-2002)』(서우석, 채록번호 4-122).

419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김순이 편)」, 66면.

420 SBS스페셜, <그녀의 이름은>, 2020.5.17.;박미숙 전화 구술(2025.1.9.).

421 5·18기념재단(2019), 『5·18의 기억과 역사 4(공직자 편)』, 심미안, 277~323면.

42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300~301면.

42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250면.

424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0면.

42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3-17)』, 316면. 김양순, 현미숙, 유영희의 연행일자 는 미상. 박창신 신부는 1980.6.25. 신부사제관에서 괴한들의 피습을 받았다.

42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3-17)』, 282면.

42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직가의2-5)』, 354~358면.

42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3-17)』, 353면.

42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3-17)』, 355면.

43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3-17)』, 353면.

431 박수정(2004), 『숨겨진 한국 여성의 역사』, 아름다운사람들, 328~330면.

432 ‘키세스 시위대’는 눈과 추위를 막기 위해 은박지를 덮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은박지에 쌓인 초콜릿 키세스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433 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56~114면 참조.

434 당시 녹두서점은 서점과 살림방, 뒷방, 조그만 뒷마당 공간만 있어 대자보를 쓰거나 홍보물을 만드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반해 YWCA는 강당과 회의실, 사무실과 부엌이 있어 다양한 활동이 용이했다.

435 송백회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송백회가 조직적으로 항쟁에 적극 임했다는 것이다. 이은주의 평가와 송백회 일부 회원들의 구술에서 볼 수 있다(이은주(2000), 「5·18민중항쟁과 여성의 투쟁」, 『여성·주체·삶·아물지 않은 상처, 그러나 다시 생활로』, 도서출판 티엠씨, 27면.;5·18기념재단(2019), 『5·18 기억과 역사 9(송백회 편)』). 또 다른 평가는 송백회 회원들 가운데는 다른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였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 활동하였던 사회단체에서 활동의 영역으로 항쟁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은 이춘희의 글에서 볼 수 있다(이춘희(1991), 「5월항쟁에 있어서 여성활동」,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216면.).

436 YWCA의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는 처음에 회원들의 건물이기에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공간사용을 허락하지 않다가, 오후에 들어 ‘회원들 자산이니 조심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사용을 허락한다(김상윤·정현애·김상집(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출판, 122, 126면 참조.).

437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여성·주체·삶·아물지 않은 상처, 그러나 다시 생활로』, 도서출판 티엠씨, 33~34면 참조.

438 정경운(2021), 「진공의 역사를 채우는 생명의 시선」,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재)광주비엔날레, 315~325면 요약·재구성.

439 임영희 구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여성·주체·삶·아물지 않는 상처, 그러나 다시 생활로』, 도서출판 티엠씨, 141면.

440 윤정자 구술. 국사편찬위원회(2005), 「5·18 여성노동자 생애사(윤정자 편)」, 89~90면.

441 예비검속과 미검자에 대한 수배는 구체적인 혐의나 법적 근거,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공개수배하였으나 정작 체포 뒤 며칠간 간단한 조사만 하고 훈방된 사례가 적지 않은 데서도 확인된다. 예비검속으로 체포된 인원 가운데서도 정작 기소된 인원은 404명(15%)이었고, 대다수가 훈방된 것은 계엄사 합수본부의 공권력 남용을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44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직가의 3-17)』, 9면.

443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92면.

44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12면.

44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 26~27면. 본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진상규명사건을 16건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5·18 성폭력 진상규명 결정 사건이 발생한 범주’에는 피해자 16명, 성폭력 사건 17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표(진압작전 등에 따른 5·18 성폭력 사건 피해(종합))의 6번과 34번 사건 피해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동일하지만 시간·장소·가해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2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진상규명사건을 17건으로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5·18조사위’의 진상규명 불능 사건 2건과 보상심의자료 전수조사에 따른 33건을 포함하여 총 52건을 정리하였다. 이는 ‘5·18조사위’의 보고서에 수록된 5·18 성폭력 사건 총 54건 중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1건과 사건발생일이 계엄해제일(1981.1.24.) 이후인 1건을 제외한 것이다.

446 ‘5·18조사위’ 최종보고서(『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2-5)』)에는 50건만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조사위 중간보고서(52건)에서 누락된 2건을 합해 정리했다.

447 연번 1(18-A), 2(18-a), 6(19-A), 13(19-b), 14(19-c) 15(19-d), 16(19-e), 20(20-a)이 이에 해당하며, 이중 연번 15(19-d), 16(19-e)의 피해 여성은 임신 상태에서 무차별 구타와 성적 모욕을 당해 유산되었다.

448 연번 5(18-d), 8(19-C), 11(29-F), 20(20-a), 21(20-b)이 이에 해당되며, 이중 8(19-C)의 피해자는 임신 상태에서 집단강간 당하여 유산되었다.

449 연번 9(19-D), 10(19-E), 17(19-f)이 이에 해당한다.

450 연번 3(18-b), 4(18-c), 7(19-B), 19(20-A)가 이에 해당한다.

451 연번 22(21-a), 23(22-A), 24(22-a), 25(23-A), 26(24-A)이 이에 해당한다.

452 연번 27(24-a)의 피해자는 교도소 인근 검문소에서 교도소로 연행되어 계엄군의 구타와 성적 모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유산되었다. 28(26-a)은 약혼자와 함께 상무대 인근을 지나던 중 계엄군에게 강간당했다.

453 연번 30(27-B), 31(27-C), 34(27-F)가 이에 해당한다.

454 서울대 여성연구소(2022),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술결과 분석 및 치유방안」, 3면.

455 「인권위, ‘5·18계엄군 성폭력’ 40여건 추가 조사」, 『광주매일신문』, 2018.11.8.

456 「정경두 국방장관 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사과」, 『한겨레』, 2019.10.19.

457 「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첫 집단소송」, 『한겨레』, 2024.12.12.

45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직가-2)』, 37~46면.

45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사건(직가-2)』, 255면.

46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 11면.

46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 71면.

46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 59~61면. 5·18 행불자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 행불자는 모두 9명이며, 이 가운데 여자는 2명이다.

46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직마-4)』, 113면.

464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5·18기념재단(2020), 『오월을 잇는 광주여성단체 활동사』, 심미안, 23~24면.

465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당시 악보에 가사는 ‘앞서서 가나니’였으나 ‘앞서서 나가니’로 구전되어 불린다.



민족은 유신잔재 없어야
反反反反反反反反反反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계엄 해제하라

민주화-!!

상과대학 학생회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한강, 『소년이 온다』에서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발행일	2025년 5월 12일
발행처	광주여성가족재단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구동 21-1) 광주시민회관 1, 3, 4F Tel.062-670-0500 Fax.062-670-0505
홈페이지	gjwf.or.kr 인스타그램 @gjwomenfamily
발행인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기획·편집	진은주 광주여성가족재단 사업운영실장
공동집필	김지연 박현정 이춘희 임선화 장세레나 정경운 주문희 추명희 홍인화
감수·윤문	전용호 차영귀
디자인	디어마인드디자인스튜디오
ISBN	979-11-92220-49-9 비매품/무료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광주여성가족재단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